강원특별자치도 고성문화원 부설 고성학연구소

배움의 기억과 전통

고성의 교육 이야기

加羅 이 성 식

배움의 기억과 전통

고성의 교육 이야기

목 차

발간사 14

서 문 16

제1장 상고시대의 교육 18

제2장 삼국시대의 교육 22

제3장 고려시대의 교육 28

제4장 조선시대의 교육 32

1. 개 관 33
2. 교육기관 35
3. 조선시대 고성군의 교육 40

제5장 개화기의 근대교육 44

1. 새 교육 사상 45
2. 근대학교의 태동 46
3.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48
4. 신학제에 의한 학교설립 50
5. 사립학교의 설립 51
6. 통감부 시기 교육정책 52
7. 개화기 사립학교 현황 54

〈유신학교, 楡新學校〉 ····· 55
〈동일학교, 東一學校〉 ····· 58
〈고성 야소학교, 耶蘇學校〉 ····· 59
〈영창학교, 永昌學校〉 ····· 62
〈봉명학교, 鳳鳴學校〉 ····· 64
〈광명학교, 廣明學校〉 ····· 80
〈일어학교, 日語學校〉 ····· 82
〈명동의숙/명동학교, 明東義塾〉 ····· 83
〈공명의숙/공명학교, 公明義塾〉 ····· 90
〈수성학교, 水城學校〉 ····· 96
〈숭문의숙, 崇文義塾〉 ····· 102
〈창신의숙, 創新義塾〉 ····· 103
〈영광의숙/영광학교, 永光義塾〉 ····· 104
〈간성 노동야학교, 勞動夜學校〉 ····· 108
〈측량학교, 測量學校〉 ····· 109
〈신명학교, 新明學校〉 ····· 110

개화기 정리 ····· 111

제6장 일제강점기의 교육 ····· 114

1. 제1차 조선교육령(1910~1919) ····· 115
2. 제2차 조선교육령(1919~1938) ····· 117
3.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5) ····· 119
4. 일제강점기 고성군의 공립학교 현황 ····· 122

〈간성공립보통학교, 杆城公立普通學校〉 ····· 136

〈고성공립보통학교, 高城公立普通學校〉 ····· 143
〈장전공립보통학교, 長箭公立普通學校〉 ····· 145
〈오호공립보통학교, 五湖公立普通學校〉 ····· 146
〈천진공립보통학교, 天津公立普通學校〉 ····· 148
〈대진공립보통학교, 大津公立普通學校〉 ····· 158
〈수동공립보통학교, 水洞公立普通學校〉 ····· 161
〈오대공립보통학교, 梧垈公立普通學校〉 ····· 163
〈송탄공립보통학교, 松灘公立普通學校〉 ····· 167
〈외금강공립보통학교, 外金剛公立普通學校〉 ····· 168
〈인흥공립심상소학교, 仁興公立尋常小學校〉 ····· 170
〈공현진국민학교, 公峴津國民學校〉 ····· 171
〈광산국민학교, 廣山國民學校〉 ····· 172
〈명파국민학교, 明波國民學校〉 ····· 173
〈금강공립중학교, 金剛公立中學校〉 ····· 174
고성공립보통학교부설
〈대강간이학교, 大康簡易學校〉 ····· 177
장전공립보통학교부설
〈신흥간이학교, 新興簡易學校〉 ····· 179
대진공립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 明波簡易學校〉 ····· 180
천진공립보통학교부설
〈학야간이학교, 鶴也簡易學校〉 ····· 182
수동공립보통학교부설
〈신대간이학교, 新垈簡易學校〉 ····· 183

오호공립보통학교부설
〈구성간이학교, 九城簡易學校〉 ····· 184

간성공립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 長新簡易學校〉 ····· 185

오대공립심상소학교부설
〈초계간이학교, 草溪簡易學校〉 ····· 186

오대공립심상소학교부설
〈송강간이학교, 松江簡易學校〉 ····· 188

천진국민학교부설
〈백촌간이학교, 栢村簡易學校〉 ····· 189

5. 일제강점기 고성군의 사립학교 현황 ····· 192

〈고성보습학원, 高城補習學院〉 ····· 195

〈금강학원, 金剛學院〉 ····· 196

〈노동야학원, 勞動夜學院〉 ····· 200

〈대성학원, 大成學院〉 ····· 201

〈말무리야학원, 末茂里夜學院〉 ····· 203

〈보광학원, 普光學院〉 ····· 204

〈신흥학원, 新興學院〉 ····· 205

〈영신학원, 永信學院〉 ····· 206

〈외금강노동야학, 外金剛勞動夜學〉 ····· 207

〈용계학원, 龍溪學院〉 ····· 208

〈유년학원, 幼年學院〉 ····· 209

〈장전야학원, 長箭夜學院〉 ····· 210

〈장전여자학술강습소, 長箭女子學術講習所〉 ····· 212

〈창신학원, 倉神學院〉 ····· 213
〈강신여자학원, 剛信女子學院〉 ····· 214
〈고성부인야학원, 高城婦人夜學院〉 ····· 219
〈관해학원, 觀海學院〉 ····· 221
〈광성(야)학원, 光成學院〉 ····· 222
〈성의학원, 誠義學院〉 ····· 226
〈양성학원〉 ····· 227
〈유성학원, 柳城學院〉 ····· 227
〈공진학원, 共進學院〉 ····· 228
〈수동사립보통학교, 水洞私立普通學校〉 ····· 230
〈숭덕학원, 崇德學院〉 ····· 235
〈신대학원, 新垈學院〉 ····· 236
〈대진노동야학원, 大津勞動夜學院〉 ····· 237
〈동광학원, 東光學院〉 ····· 238
〈마달개량학원, 馬達改良學院〉 ····· 239
〈배봉학원, 培峰學院〉 ····· 240
〈학명학교, 鶴鳴學校〉 ····· 241
〈현내사립보통학교, 縣內私立普通學校〉 ····· 242
〈거진학원, 巨津學院〉 ····· 243
〈광동학원, 光東學院〉 ····· 244

〈봉림학교, 鳳林學校-중등학교〉 ····· 244
〈사립 영광학교, 私立永光學校-정식인가학교〉 ····· 245
〈영광여학교, 永光女學校〉 ····· 273
〈영명학관, 永明學館〉 ····· 275
〈창신학원, 昌信學院〉 ····· 277
〈포남학교, 浦南學校〉 ····· 278
〈금천학원, 錦川學院〉 ····· 280
〈간성문묘부설 간성명덕학원, 杆城明德學院〉 ····· 280
〈수성학원, 迻城學院〉 ····· 281
〈가진학교, 加津學校〉 ····· 285
〈공명학교, 公明學校-4년제 인가학교〉 ····· 286
〈명동학교, 明東學校-명동의숙〉 ····· 287
〈아야진학원, 我也津學院〉 ····· 288
〈천진사설학술강습소, 天津私設學術講習所〉 ····· 289

6. 사립 중등학교 ····· 293

〈봉림학교, 鳳林學校-봉림학원〉 ····· 293
〈간성문묘부설 간성명덕학원, 杆城明德學院〉 ····· 296
1) 서당 ····· 298
2) 야학 ····· 302

제7장 해방 이후 교육 ····· 304

1. 해방후 상황 ····· 305
2. 소련 점령기의 북한 교육 ····· 306
3. 소련 점령기의 고성군 교육 ····· 312
   1) 천진인민학교 ····· 314
   2) 야촌인민학교 ····· 315
   3) 대진인민학교 및 죽정분교 ····· 317
   4) 송강인민학교 ····· 317
   5) 오호초급중학교 ····· 319
   6) 고성고급중학교 ····· 320
4. 미군정기 및 그 이후 대한민국 교육 ····· 323
5. 한국전쟁과 고성군 교육 ····· 326

제8장 1954년 11월 행정권 이양 이후 고성군 교육현황 ····· 332

1. 각급 학교 개교 현황 ····· 333
2. 국민학교별 소개 ····· 338
   〈간성국민학교 杆城國民學校〉 ····· 338
   〈거성분교, 거성국민학교 巨城國民學校〉 ····· 340
   〈거진국민학교, 巨津國民學校〉 ····· 341
   〈광산국민학교, 廣山國民學校〉 ····· 342
   〈공현진국민학교, 公峴津國民學校〉 ····· 344

〈구성분교, 구성국민학교 九城國民學校〉 ····· 345
〈대진국민학교, 大津國民學校〉 ····· 346
〈도학분교, 도학국민학교 桃鶴國民學校〉 ····· 347
〈동광국민학교, 東光國民學校〉 ····· 348
〈마달분교, 마달국민학교 馬達國民學校〉 ····· 350
〈명파분교, 명파국민학교 明波國民學校〉 ····· 351
〈백촌국민학교, 栢村國民學校〉 ····· 352
〈선혜학원 선혜분교, 仙惠學院 仙惠分敎〉 ····· 353
〈송정국민학교, 松亭國民學校〉 ····· 356
〈신평국민학교, 新坪國民學校〉 ····· 357
〈아야진분교, 아야진국민학교 我也津國民學校〉 ····· 358
〈오호국민학교, 五湖國民學校〉 ····· 359
〈용촌분교, 인흥국민학교 仁興國民學校〉 ····· 360
〈장신분교, 장신국민학교 長新國民學校〉 ····· 362
〈죽왕분교, 죽왕국민학교 竹旺國民學校〉 ····· 363
〈죽정국민학교, 竹亭國民學校〉 ····· 363
〈천진국민학교, 天津國民學校〉 ····· 364
〈초계국민학교, 草溪國民學校〉 ····· 366
〈흘리분교 흘리국민학교, 屹里國民學校校〉 ····· 367

3. 중등학교별 소개 ····· 368
〈거진중학교, 巨津中學校〉 ····· 368
〈거진여자중학교, 巨津女子中學校〉 ····· 369

〈고성중학교, 高城中學校〉 ····· 370
〈대진중학교, 大津中學校〉 ····· 372
〈동광중학교, 東光中學校〉 ····· 373
〈거진실업고등학교, 巨津實業高等學校〉 ····· 373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 巨津女子綜合高等學校〉 ····· 375
〈고성고등학교, 高城高等學校〉 ····· 377
〈대진고등학교, 大津高等學校〉 ····· 377
〈동광농업고등학교, 東光農業高等學校〉 ····· 378

교가(校歌) ····· 380

참고문헌 ····· 396

부 록 ····· 400

제1장 서 론 ····· 401

제2장 대한제국기 고성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 403

제1절 학교설립의 배경 ····· 403
1. 시대적 배경 및 교육구국운동 ····· 403
2. 학교설립의 노력 및 좌절 ····· 406

제2절 학교설립의 현황 ····· 409
(1) 봉명학교(鳳鳴學校) ····· 410

(2) 명동의숙(明東義塾) ····· 413
(3) 유신학교(楡新學校) ····· 414
(4) 광명학교(廣明學校) ····· 414
(5) 동일학교(東一學校) ····· 414
(6) 일어학교(日語學校) ····· 415
(7) 수성학교(水城學校) ····· 415
(8) 공명의숙(公明義塾) ····· 415
(9) 숭문의숙(崇文義塾) ····· 416
(10) 측량학교(測量學校) ····· 416
(11) 간성노동야학교 ····· 417
(12) 영광의숙(永光義塾) ····· 417
(13) 고성야소학교(耶蘇學校) ····· 418
(14) 영창학교(永昌學校) ····· 418
(15) 창신의숙(創新義塾) ····· 415

제3절 사립학교의 특징 ····· 419
1. 설립목적과 주체 ····· 419
2. 시무교육에 대한 열성 ····· 422
3.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학교의 설립 ····· 424
4. 여학생 모집 ····· 425
5. 불교계 학교의 성황 ····· 426
6. 설립운동의 흥왕 ····· 427

제3장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 430

제1절 사립학교의 의미 ····· 430

제2절 고성지역 사립학교의 성장배경 ····· 433

1.민족의 각성과 계몽 ····· 433

2. 공립학교체제의 한계 : 입학난 ····· 433

제3절 사립학교의 설립현황 ····· 436

(1) 학명학교(鶴鳴學校) ····· 440

(2) 사립영광학교(私立永光學校) ····· 440

(3) 공명학교(公明學校) ····· 446

(4) 영광여학교(永光女學校) ····· 447

(5) 장전야학원(長箭夜學院) ····· 447

(6) 봉림학교(鳳林學校) ····· 447

(7) 수성학원(迸城學院) ····· 448

(8) 장전여자강습소(長箭女子講習所) ····· 448

(9) 고성보습학원(高城補習學院) ····· 449

(10) 대성학원(大城學院) ·····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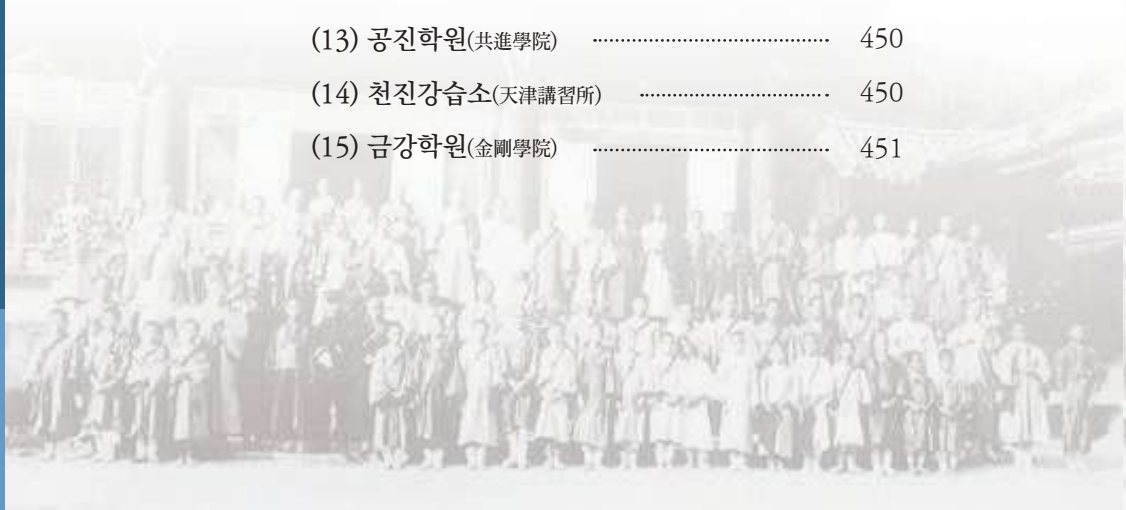
(11) 광성학원(光成學院) ····· 449

(12) 영명학관(永明學館) ····· 450

(13) 공진학원(共進學院) ····· 450

(14) 천진강습소(天津講習所) ····· 450

(15) 금강학원(金剛學院) ····· 451



(16) 명동의숙(明東義塾) 451
(17) 현내사립보통학교 452
(18) 수동사립보통학교(水洞私立普通學校) 452
(19) 강신여자학원(剛信女子學院) 453
(20) 숭덕학원(崇德學院) 454
(21) 광동학원과 관해학원(光東學院, 觀海學院) 454
(22) 고봉학원(高峰學院) 454
(23) 창신학원(昌信學院) 455
(24) 간성명덕학원(杆城明德學院) 455
(25) 금천학원(錦川學院) 456
(26) 가진학교(加津學校) 456
(27) 포남학교(浦南學校) 456

제4절 지역 사립학교의 특징 458
1. 청년회 조직의 활성화와 교육운동 458
2. 학원의 성황 : 학원협회 결성 459
3. 고등과정(중학교)의 학원 460
4. 지역사회에서 (야)학원의 위상 461

제4장 결론 462

참고문헌 464

발간사

우리 고장은 역사적으로 예맥과 고구려의 전통, 그리고 통일신라의 국통을 이어받은 변경의 지대였다. 간성군은 고구려의 수성군(遂城郡), 또는 가라홀(加羅忽)이라는 아름다운 고유지명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 예로부터 간성군은 영랑호, 선유담 같은 명승지로 일찍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이들 명승지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신라 화랑의 전설로 아름답게 채색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들 화랑의 존재는 신라 통일의 기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김유신 같은 전설적인 화랑 출신의 인물들이 후대 교육에 있어 정신적 사표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장은 이미 고대로부터 호국의 교육장소로 인식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호국정신은 면면히 흘러 임진왜란 당시 금강산건봉사에서 '700 의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로 계승되면서 그 이념은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은 또한 동학혁명의 개벽시기 우리 고장의 의병운동에서도 거듭 실천되었다.

한편 개화기 근대교육이 태동할 때, 간성지역은 신학문을 위한 학교교육이 강원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였다. 건봉사 봉명학교(1906)를 시작으로 간성의 수성학교, 토성면 아호리의 명동의숙, 왕곡면 공수진의 공명의숙, 오현면 거진의 영광의숙, 죽도면의 승문의숙, 토성면의 창신의숙 등 여러 학교들이 신학문을 교육하였다. 1909년경 간성군 관내에는 7개 학교에 600여 명의 학도들이 공부하고 있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러한 교육운동은 이후 일본의 침략에 대한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건봉사 봉명학교는 설립 이듬해 국채보상운동에 학생 포함하여 교직원 전체가 참여하여 그 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또한 봉명학교 출신인 건봉사 소속 정남용 스님이 조선민족대동단의 결성과 활동을 펼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으며, 간성 수성학교 출신의 박태선이 수성청년회의 조직과 수성학원의 설립으로 독립의지를 불태우는 삶을 살았다. 이들 운동의 원천은 바로 교육을 통한 각성의 힘이었다.

고성지역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 전통의 맥이 후대로 이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염원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배움의 기억과 전통-고성의 교육 이야기』의 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날 우리 선배들이 남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실천은 향후 우리 고성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및 행정적인 지원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고성지역에 관한 연구로 얻어진 자료와 지표를 축적하고 발표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고성학연구소 연구원들께, 특히 이성식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고성문화 가족과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고성문화원장 **윤영락**

서 문

한국 개화기에 국어교과서로 널리 알려진 『유년필독』에서는 "고구려 때에는 학문을 숭상하여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학당을 짓고 그 자제를 교육하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교육은 문무(文武)이면서 문무(文舞)였다. 이처럼 고구려인들의 학문 숭상은 대한제국의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배움의 기억은 꿈의 기억처럼 쉽게 소실되지 않고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개화기 간성지역 인사들은 신학문을 위한 학교의 설립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당시 강원도에서 선구적인 교육운동을 펼쳤다.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교육운동은 더욱 융성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간성지역의 교육운동은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경당(서당)이 고려의 향교로, 조선의 서원과 성균관으로 발전(발달)하였듯이. 일제강점기 작은 마을의 공부방인 전통적인 서당이 개량서당으로, 사설학술강습소로, 학원으로, 사립보통학교로, 나아가 공립보통학교로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인민학교로, 전쟁 이후에는 국민학교로, 최근에는 초등학교로 학교의 모습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변천해왔다. 작은 학교가 더 큰 학교로, 하나의

배움이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작은 배움의 기억들은 배움의 한 전통으로 계승된다.

이번 『배움의 기억과 전통=고성의 교육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수많은 배움의 기억들, 특히 장소적인 기억을 찾아 기록하면서 그 기억의 끈이 또 다른 배움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시대적으로 배움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당연히 개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싶어 마지막까지 인고했다.

우리 지역은 배움의 기억들이 어느 지역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학교들이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환대의 장소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어디든 배움의 장소는 환대의 장소로 끝까지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갑진년 12월

고성학연구소 연구원 加羅 **이성식**

* 『배움의 기억과 전통-고성의 교육 이야기』는 『고성군지』(2020) 〈교육편〉의 내용을 토대로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글이란 점을 밝힌다.

제1장

상고시대의 교육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투쟁적인 역사와 더불어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문화를 꽃피운 데는 무엇보다 교육의 역할이 앞섰다고 본다. 그러나 상고시대에는 아직 국가체제는 물론 문화체계의 발달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주로 생활 속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방과 참여, 때로는 훈련의 형태를 갖춘 교육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모방은 문화전수의 기원이 되며, '모방이 없으면 교육도 없고 문화전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르네 지라르,『문화의 기원』, 기파랑, 2006, 101-102쪽)이란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넓고 깊다.

한편 상고시대 고성군 지역에 거주한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적 사료는 없으나 화진포 일대에서 발견된 고인돌(지석묘)을 비롯하여 죽왕면 문암리의 선사유적 등을 근거로 할 때,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른 시기부터 일정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석기를 비롯하여 청동기, 철기를 이용하여 각종 생활수단 및 물질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종교의식 및 성년의식과 같은 집단적인 정신문화도 함께 발전시켜 왔다. 그들이 발전시켜 온 삶의 기술과 문화는 모두 모방과 훈련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과정이면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은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

고구려, (동)옥저, (동)예 및 (삼)한 등 여러 형태의 초기국가들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이들이 이룩한 문화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국가적 기원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높은 문화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고성군 지역과의 연관성을 지닌 (동)예의 문화를 중심으로 아래에 그 내용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국가 기원적 설화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홍익인간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우리 교육의 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군정 시기 교육의 이념으로 채택된 이후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홍익인간은 우리 교육의 핵심 이념으로서 모든 교육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적 가치이다.

한편, 고성군 지역은 상고시대에 (동)예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후한서』「동이열전」〈예전〉에 의하면, "예 및 옥저·고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또한 『삼국지』「동이전」〈예전〉에 의하면, "예는 남쪽은 진한, 북쪽은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은 넓은 바다로 막혔으며, 지금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땅이다."라고 한다.

(윤내현, 『고조선 연구』 만권당, 2018, 335쪽)

그들이 발전시켰던 교육과 관련한 문화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동역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는 시월에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되 밤낮을 춤추고 노래한다" "예는 별자리를 보고 풍흉을 미리 알기를 잘한다." "예는 인간성이 신중하고 성실하며 즐기고 좋아하는 욕심이 적고 구걸을 청하지 아니하며 산천의 경계를 서로 간섭하지 아니하며 서로 침범하는 자를 소와 말의 이름을 써서 벌하였다." "예는 보병전에 능하고 삼장되는 긴 창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들고 쓴다. 낙랑의 단궁도 예 땅에서 났다." "예는 같은 성끼리 결혼을 하지 않는다."
>
>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65-70쪽)

제2장

삼국시대의 교육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에는 부족 형태의 초기국가들이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전개되었다. 삼국은 인접한 중국과 접촉하는 가운데 불교 및 유교를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여기서는 고성군 지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와 신라, 그 두 나라의 교육제도인 경당과 화랑도 교육을 중심으로 삼국의 교육을 정리하려고 한다.

고성은 고구려 지명으로 달홀(達忽)이라고 하였고, 간성은 수성(泟城), 혹은 가라홀(加羅忽)이라 하였다. 이처럼 고성은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다가 후에 신라가 통일하면서 신라 영토에 편입되는 등 오랫동안 변방의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고성의 지방민들은 고구려와 신라의 문화가 교차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당과 신라의 화랑도 교육이 이 지역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 평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교육기관은 경당이었다. 경당에 대하여는 『구당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풍속이 책읽기를 좋아하여 허름한 서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큰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 하고, 미혼의 자제들이 여기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힌다. (김명신, 한국교육사 2013, 동문사, 31쪽)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경당에서는 독서와 활쏘기 교육, 즉 문무일치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구려 민족은 말타기, 활쏘기 등 무술을 익히는 생활이 어려서부터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무사를 기르기 위한 가르침을 국가적으로 장려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무병행의 교육은 고구려의 '선배'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배제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가 신채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그를 인용하겠다.

> 고구려의 강성함은 '선배'제도의 창설로 시작되었는데, 그 창설은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때일 것이다. 선배는 이두문자로 '先人', '仙人'이라 썼다. 여러 가지(활쏘기, 칼춤, 택견 등) 내기에서 승리하는 자를 '선배'라 불렀다. 선배가 되면 국가에서 녹을 주었고, 한 집에서 숙식을 했으며, 서로 학문과 기예를 배우거나 산수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성곽을 쌓거나 군중을 위한 강습도 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
> (신채호,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16, 229-230쪽)

고구려의 선배제도는 신라의 화랑제도와도 맥이 닿는 지점이 있어 화랑도 교육이 고구려의 선배제도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이만규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90-91쪽)

또한 고구려인들이 학문을 숭상했다는 후대의 기록도 있다. 한국 개화기에 국어교과서로 널리 알려진 『유년필독』에서는 “고구려 때에는 학문을 숭상하여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학당을 짓고 그 자제를 교육하였다”고 전한다.(현채, 『유년필독』 경진, 2012, 145쪽) 이처럼 고구려인들의 학문 숭상은 대한제국의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전설처럼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이제 신라의 교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육제도는 화랑도 교육이다. 화랑도 교육의 기원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다. 화랑도 교육은 6세기 중엽에 진흥왕에 의해 국가적인 교육제도로 조직화되었다. 화랑도의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화(源花), 국선도(國仙徒), 선랑(仙郞), 풍월도(風月徒), 풍류도(風流徒)가 그것이다.

화랑도의 성격은 고유의 풍류도와 유·불·도 삼교의 사상을 융합하고 있는 문무(文武) 기예(技藝)의 조직이었으며, 그 조직은 최고 위치에 국선이 있고, 그 아래 화랑이 여러 낭도를 통솔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국선 1명에 소수의 화랑,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의 낭도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화랑은 귀족 출신이지만, 낭도는 평민 출신도 가능했다.

화랑도의 교육이념은 후에 원광의 세속오계(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유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로 체계화되었다. 평시에는 국가의

인재로, 전시에는 용맹한 장수로,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되었다. 각간 김유신과 몽재 김흠춘, 명장 김흠운이 모두 화랑도 출신으로 신라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신라불교의 대승 원효도 어린 시절 화랑의 무리에 있었다고 한다.

화랑도의 교육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지적도야(시경, 서경, 예기 등) 및 덕성 함양(세속오계), 그리고 무술 훈련(활쏘기, 말타기, 씨름 등), 산천 유람을 통한 도의 연마, 시와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이 주된 교육내용이었다.

이상은 화랑도 교육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화랑도 및 국선의 전통은 당대를 넘어 고려시대까지 민간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열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나라 풍속에 아동들은 의례히 중(스님)에게서 구두법(句讀法)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면수(面首)란 것이 있어서 중이든 속인이든 간에 모두 그를 받들어 선랑(仙郞)이라 불렀는데 따르는 자가 때로는 천 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그 풍속은 신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적은 10세에 집에서 나와 절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천성이 영민하여 한번 배우면 곧 그 뜻을 환하게 알았다. 눈썹이 그린 듯하였고 풍채가 아름다웠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하였다. 충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 보았는데 궁중에서는 그를 국선(國仙)이라고 불렀다.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5쪽)

신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화랑도 교육이 지금 여기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고성 지역과 화랑의 전설이 만나기 때문이다. 화랑 중에서도 영랑, 술랑, 안상, 남랑은 낭도를 대표한 훌륭한 인물들로 후대 사선(四仙)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며,(『고성군지』 고성군, 1998년 증보판에서는 사선의 존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나 『화랑세기』에서는 사선을 국선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관동지방의 삼일포, 총석정, 기타 이름난 곳에 그들의 흔적과 전설을 남기며 지금까지 살아 있다. (이만규, 전게서, 89쪽) 또한 간성의 선유담과 속초 영랑호, 금강산의 영랑봉이 모두 이들이 노닐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기영, 『화랑세기』 장락, 1997, 260쪽. 『간성군읍지』 1884 〈선유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술함)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전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문화전승의 뿌리가 깊음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나아가 역사 속에 살아 있는 김유신 같은 전설적 화랑 출신 인물들이 후대 교육에 정신적 사표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제3장

고려시대의 교육

고려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특징적인 문화변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한 과거제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광종 9년(958)에 귀화인 쌍기의 건의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대표적인 인재선발제도로 정착되어 900년 동안 관료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다음으로, 신유학인 성리학을 도입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려 말 안향이 도입한 것으로 이전 유학은 훈고 및 사장을 중시하며 오경 위주로 공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리학은 사서(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중심으로 철학적인 사유를 장려하게 되었다. 끝으로, 인쇄술의 발달이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다는 점이다. 특히 금속활자의 발명은 으뜸이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직지심경〉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인쇄술의 발달은 서적의 발간과 보급을 촉진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고려의 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국자감과 사학십이도 및 학당(동서, 5부)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와 서당(사숙, 가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성종11년(992)에 설립한 국자감(국학, 성균감, 성균관)은 공자와 유교 성현들을 제사하는 장소인 문묘와 강학의 장소인 학당으로 구성된 유교식 학제의 전형인 묘학제(廟學制)를 채택하였다. 교육목적은 국민을 교화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었다. 입학자격은 지배계급의 자제를 중심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9년의 수업연한으로 필수과목인 〈효경〉과 〈논어〉, 기타 〈상서〉, 〈주역〉, 〈예기〉 등을 공부하였다.

이처럼 중앙의 관학을 정비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시대 지방의 관학인 향교의 기원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성종 이후 향교 설립이 본격화되어 발전하다가 12세기 중엽 의종(재위,1146~1170) 이후 무신정권기를 거치면서 쇠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세기 이후 성리학이 도입되고 안향, 이색, 정몽주 등의 유학자들의 활약으로 잠시 부흥하는 듯하였으나, 기우는 왕조의 운명과 더불어 지방 관학의 운명도 침체를 면치 못했다. "고려 전기의 향교는 대략 12곳이며, 충선왕 이후 고려 말까지 설립된 향교 또한 17개 정도에 불과했다."(조화태 외, 『교육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86쪽)는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변방지역인 고성군에도 향교가 없어 관학의 혜택이 미치지 못했으며, 조선시대 세종2년(1420)에야 비로소 교육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었다.

고려의 지방민들이 그나마 교육의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서당과 유사한 '향촌의 글방'(조화태 외, 상게서, 88쪽) 덕분이었다. 당시 다양한 이름의 학교들로 운영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숙(가숙) 혹은 서재 형식의 서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려의 서당에 관하여는 송나라 출신 서긍의 『고려도경』에 "마을 입구와 거리에 경관과 서사(書社)가 2~3개씩 서로 마주보며 서 있고 민간인 미혼 자제가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며 조금 성장하면

끼리끼리 벗을 택하여 사관으로 가서 강습하고 아래로 미천한 아이도 역시 마을 선생에게 배운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면, 고려의 서당이 마을마다 곳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만규, 전게서, 139쪽)

제4장

조선시대의 교육

1. 개관

조선 전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한 시기이며, 정치와 교육을 일체화하려는 유학의 전통에 따라 관학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수령에게 7사를 내려 '교육을 일으킬 것'(敎育興)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관리 중심의 교육행정체재를 구축하였다. 조선시대는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이다. 따라서 과거시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져 관학은 물론 사학조차도 과거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조선 중기가 되면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원이 발달한다. 사학인 서원의 발달은 성리학의 학문적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관학의 체계를 흔들었다. 즉 지방의 관학인 향교의 침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관학의 쇠퇴로 이어졌다. 이것은 지방의 한정된 인적자원을 사원이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모든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향교와 서원의 교육이 힘을 잃고 향사적 기구, 혹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제 지방민들의 교육적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 장소는 서당이었기 때문에 서당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발전하였다.

한편 왜란 및 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18세기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주자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나타났다. 이것이 실학의 등장이었다. 실학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표방하게 되었고, 우리 언어인 한글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실학파는 교육개혁과 과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학파의 사회개혁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다음 세대의 개화파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다.

2. 교육기관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서당

교육기관으로는 관학인 성균관, 사부학당(4학), 향교와 사학인 서원 및 서당이 있다. 지방민을 위한 학교는 향교와 서당이었고, 평민의 자제들은 주로 서당을 통하여 교육의 꿈을 펼쳤다.

성균관 국가적 상징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목적은 통치체제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성리학의 연구 및 보급에 있다. 입학자격은 원칙적으로 양반자제이어야 하고, 생원과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교육은 과거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다.

사 학 사학(사부학당)은 성균관의 부속학교로 교육방침과 내용은 성균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문묘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10세 이상 양반자제가 입학하고 기숙하였다. 오늘날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 한말 이후 사용된 학당이 이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신, 전게서, 82쪽)

향 교 향교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다. 향교의 목적은 성현을 숭앙하고 성리학을 보급시키며 지방민을 교화하여

향촌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초기부터 일읍일교(一邑一校)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방관의 행정체제와 연동하여 운영한 대표적 지방교육기관이다. 향교에서는 양반과 평민의 자제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평민 자제들로 구분되어 기숙하였다. 향교의 정원은 부와 목에는 9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행정단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교수관도 주와 부에는 6품 이상 교수로, 군과 현에는 훈도로 7품 이하였다. 재정은 학전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지방재정과 유지들의 기부로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소학〉과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생원, 진사가 되기 위해서는 향교에 적을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향교에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로 노인들을 초빙하여 노래와 주연을 베푸는 양노례(養老禮)와 향음례(鄕飮禮), 그리고 예양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향사례(鄕射禮)가 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실시하는 석전제는 가장 큰 의례절차이다.

조선 초기 향교는 관학체계의 정비로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중기 이후 병란과 흉년을 겪는 가운데 서원의 증가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로 점차 쇠퇴하였다. 특히, 임란과 병란 이후 향교의 교생에게 부역이 면제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불량 유생들도 많았다. 결국 향교는 교육의 기능보다 석전제를 비롯한 유교적 의례행사로 명맥을 유지하다 갑오개혁(1894)의 과거제 폐지와 더불어 학교가 아닌 문묘배향의 공간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서 원 서원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명현을 제사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설 중등교육기관이면서 자치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서원의 기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주자학자 안향의 고향에 그를 기리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백운동서원이 그 시작이다. 서원의 발달은 사림세력의 성장이라는 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서원은 국가의 지원(학전 및 노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세, 면역의 특권도 함께 누리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조선말까지 향교와 더불어 지방교육의 중심이었다. 교육과정은 주로 〈소학〉과 사서오경, 가례 등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서원은 중앙의 정치적 파쟁에 가담하여 당쟁의 온상이 되는 등 그 폐해도 극심하여 1865년 흥선대원군은 600여 개를 철폐하여 47개소만 운영하게 하였다.

서 당 조선시대의 서당은 서재, 정사, 가숙, 이숙(里塾), 향숙, 서숙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나타난다. 서당은 기초적인 문자교육을 비롯하여 과거준비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

하는 등 그 운영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당의 기원은 고려, 혹은 고구려 경당까지 이른다고 한다. 그처럼 우리 조상들은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른 시기부터 마을 단위에서 시작했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서당은 크게 발달되어 가난한 서민들도 마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서당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즉 훈장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마을 유지가 세워 훈장을 초빙하는 경우, 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입학연령과 수업연한은 제한이 없었다. 학습내용은 주로 〈천자문〉,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심보감〉, 〈소학〉, 그리고 사서오경도 배웠다. 또한 서당에서의 학습은 글공부가 전부는 아니었다. 놀이를 통한 학습도 병행하여 산과 들, 혹은 명승지를 다니며 간단한 시회(詩會)를 열고 놀이도 하면서 여가를 즐겼다.

서당의 변천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상 아직 서당이 보편화되지 못했다. 이 시기는 주로 명망 가문에서만 서당을 설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민층이 서당을 설립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에나 가능했다. 즉 양반 자제들이 이용하는 서당과 평민층이 이용

하는 서당이 구분되기도 했다. 19세기 말 근대식 교육이 도입되면서 서당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세에 맞서 민족 전통을 지키려는 서당과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여 신식 교과를 학습하는 개량서당이 나타나게 된다. 일제강점기가 되어서는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제가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서당도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민중계몽과 교육을 담당해왔다. 1940년대에는 마을마다 크고 작은 서당이 설립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3. 조선시대 고성군의 교육 향교, 학당, 서당, 경택재

향 교 고성지역은 1914년 3월 이전까지는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성군의 향교와 간성군의 향교로 구분되어 있다. 간성군의 향교는 세종 2년(1420)에 용연동(지금의 상리, 일명 쇠룡골)에 터를 잡아 설립되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간성향교의 역사도 부침이 많았다. 〈간성향교지〉에 따르면 몇 차례 이전을 거듭하였고,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기도 하면서 교생들의 학업은 물론 유교문화의 향유도 고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거재(居齊), 강학하면서 그 고유한 기능이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향교내에 간성명덕학원(중등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시대적인 변화로 전통적 교육이 밀려나면서 향교는 그야말로 고유의 제례와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다.

학 당 간성군수 권세규의 『竦城郡邑誌』(1897)에 따르면, 간성 현감이었던 택당 이식(李植)이 읍(邑) 자제들을 위하여 1631년에 학당(일명 양사재)을 세워 강학하였다고 한다. 학당은 일종의 사립학교로 서당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사제지정에 관한 이야기는[경택제] 설명으로 대신한다.

서 당 향교출신자들이 후학양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것으로 볼 때 서당교육은 곳곳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택재 간성군의 경우, 문헌상으로나 사적(史跡)으로나 서원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인조 때(1631-1633) 간성 현감을 지낸 택당 이식(李植)의 제자들이 세운 〈경택재(景澤齋)〉라는 이름의 재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간성군수 권세규의 『竦城郡邑誌』(1897)에 따르면, 당시 죽도면 황포리(지금의 죽왕면 삼포리)에 제자 어진창, 어제창, 윤익, 최간 등이 택당 선생의 학문적 뜻을 기려 〈景澤齋〉라는 편액을 세웠다. 그 이후 훼손이 심하여 1850년대 어제창의 후손들이 다시 중수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특히 이곳에서 함께 공부한 유생들은 〈대동시사(大同詩社)〉란 시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이들은 인근 명승지 '능파대'(지금의 문암2리 바닷가)를 자주 찾으며 시정을 나누었던 기록이 지금도 바위에 새겨져 있다.
[김광섭, 〈고성신문〉김광섭의 고성이야기(29), 2011.10.18., 고성이야기(68), 2014.5.27]

경택재에 얽힌 내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후대가 남긴 중수기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김광섭, 상게서)

....선생의 교화가 이렇게 보급되니 죽헌(竹軒) 어제창(魚濟昌)이 성적이 우수했고, 이때 선비 어제창(魚濟昌), 어진창(魚震昌), 어익창(魚益昌), 윤익, 윤현(尹鉉), 김태원(金兌源), 최간(崔簡), 이지병이 다 성적이 좋아서 우수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더라. ....슬프다! 선생이 작고하시니 죽헌공이 동지들과 함께 선생을 사모하는 정성으로 군(郡)의 남쪽 황포촌(黃浦村, 지금의 삼포)에 집 33칸을 지어놓고 학문을 토론하며 강습하는 것이 선생을 모신 것과 같이 하니 죽헌이 참된 학문을 전해 받은 것을 넉넉히 알지어다.....

갑인년(1854년) 6월 상순(上旬)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노병(李魯秉)은 쓰다.

....이 집에서 날마다 총명한 선비들과 같이 선생의 서책을 토론하며, 또 시공 대부들과 같이 선생의 교화를 이야기하니 선생이 가신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그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천리 밖에서 이렇게 숭배하니 선생께서 남기신 덕을 넉넉히 알지로다.

갑인년(1854년) 4월 초순에 택당 7세손 통훈대부 弘文館 부교리 이양신(李亮信)은 쓰노라.

우리 선조 택당공(澤堂公)께서 신미년(1631년)에 간성 현감으로 부임하시니 그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라 조정의 문화가 아직

미치지 못함을 한탄 하시며 먼저 문묘의 퇴락된 것을 중수하시고 선비 정복흥(鄭復興)을 선생으로 하고 생도를 모집하여 초하루 보름에 문묘에 나가서 분향한 다음 친히 학문을 가르치시니 얼마 안 되어 문명의 기풍이 떨치어졌다.

이때 선비 어제창(魚濟昌), 어진창(魚震昌), 어익창(魚益昌), 윤익, 윤현(尹鉉), 김태원(金兌源), 최간(崔簡), 이지병 칠팔 인이 중용(中庸)·대학(大學)을 배워서 인심과 도심을 분석하며 경전을 학습하며 시(詩)와 문(文)을 모범으로 배우니 공(公)이 후생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것이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슬프다! 공께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 전근이 되시니 죽헌(竹軒) 어제창(魚濟昌)이 공의 덕화를 생각하여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경택재(景澤齋)를 지었으니 이것은 택당 선생을 사모하는 뜻이로다. .....

갑인년(1854년) 6월 상한(上澣)에 택당 6대손 전 나주목사 덕수 이노영(李魯榮)쓰다

제5장

개화기의 근대교육

1. 새 교육 사상

개화기란 일반적으로 187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에 이르는 시기로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유교적인 봉건사회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사회로 이행하던 시기를 뜻한다. 교육에서도 이 시기를 근대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교육은 모방에서 비롯되듯이 새로운 문물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낳고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변화를 개시하려는 욕망을 낳는다. 우리의 근대교육도 이러한 역동적인 사회변혁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부패는 체제부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새로운 사회로 이행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등으로 인한 양반관료사회의 정치적 무능과 부패로 체제의 몰락을 예고하고, 농촌사회는 날로 피폐해지면서 농민들의 봉기와 민란이 확대되었으며 결국 근본적 체제변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들은 개항과 개국을 요구하면서 침략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변혁에 맞선 우리의 태도는 수구파와 개화파, 혹은 위정척사운동, 동학운동, 개화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상 및 운동에서 근대교육의 제도화를 이끈 것은 개화운동이었다.

개화사상은 열강에 대항하기 위하여 봉건제도의 청산과 문화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상이다. 개화사상은 이미 실학사상

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으며 1876년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으로 개항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급진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혁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면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들의 영향력은 새로운 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다.

2. 근대학교의 태동

근대학교의 기원은 사립학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1880년 개항을 맞은 원산 시민들은 일본의 침탈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재양성에 직접 나섰다. 지역 유지들이 협력하여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세운 학교가 바로 원산학교(1883)였다. 이로써 근대의 사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관립의 근대학교인 육영공원(1886)보다 앞섰다. 교육과정은 전통학문과 신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원산학교는 무예반을 모집하여 무사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 수시로 자행된 일본의 무력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한편 고성은 원산을 통하여 전파되는 신문물을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다. 당시 원산은 '문교(文敎)의 도시'였다. 근대학교의 형성에 있어서도 고성 지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개항과 더불어 가장 발빠르게 입국한 사람들은 선교사였다. 이들은 학교설립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당시는 서구 열강들과의

외교문제가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외국어의 교육을 강조했는데,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학교인 통변학교도 외국어학교였다. 이어 배재학당(1885)이 아펜젤러에 의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사숙형태의 영어학교로 시작하였다. 중등수준의 학교로서 교과목은 한문(경서, 사기), 영어, 천문, 지리, 수학, 수공 등이다. 배재학당은 처음부터 한문의 실력을 중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선교계 학교로서 가장 시설이 정비되고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 학교라 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근대학교는 여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1886)이었다. 교과목은 영어, 산술, 한글, 창가, 습자 등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이었다. 학교 설립한 지 8년(1893)이 되어서야 학생이 겨우 25명 내외이고, 창설 22년(1908)만에 첫 졸업생을 내었다고 하니 당시의 여성교육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관학으로서 근대교육을 개시한 학교는 육영공원(1886)이다. 이 학교의 설립은 국왕(고종)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사절로 미국을 다녀온 민영익이 제의하고, 국왕이 미국에 교사 3명을 요청하면서 학교설립이 이루어졌다. 학생은 귀족자제로서 국왕이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교과목은 영어, 자연과학, 수학, 경제학, 지리 등이었다. 학교에 대한 국왕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학생들은 관직을 얻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재학중 관직을 얻으면 학교생활에 불충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학교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얼마 후 문을 닫게 되었다.

3.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동학농민운동을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결국 한반도에서의 청과 일본의 무력충돌을 불러왔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과 간섭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개혁적 조치가 갑오개혁(1894)이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갑오개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신분제와 과거제도의 폐지라 하겠다. 특히 과거제도의 폐해는 관료의 모든 부패의 기원이면서 학문발전과 교육기관을 병들게 한 근원이었다. 이제 갑오개혁으로 근대의 교육을 정초하기 위한 첫 발을 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한 정부의 조치는 고시 및 홍범14조, 그리고 조칙('교육입국조서')으로 이어지면서 근대교육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이 내린 교육의 기본방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대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알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교육은 국가보존의 근본이며, 허명과 실용의 분별, 그리고 지덕체의 3대 교육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성사범학교관제(1895)를 시작으로 한 여러 관제 및 법규 중에서 향후 일반 대중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친 소학교(령)와 중학교 관제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소학교는 관립(국가), 공립(부,군), 사립으로 구분되며, 소학교의 경우 그 목적은 '아동 신체의

발달에 감하여 국민교육의 기호와 그 생활상에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교육하는 것'이다. 입학 연령은 8세에서 14세까지로 한다. 편제와 수업연한은 심상(보통)과 고등과로 나누고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년, 혹은 3년으로 한다. 교과목으로 심상과에서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및 체조 등이고, 고등과에서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지리, 한국역사, 이과 재봉 등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전히 한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서당교육의 유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그 목적은 실업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덕(正德), 이용 및 후생의 도를 가르치고, 중등교육의 보급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정책은 중등교육에서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수업연한은 7년으로, 심상과 4년, 고등과는 3년이었다. 당시 고등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학부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교과목은 국한문 과목(독서, 작문), 역사, 지리 , 경제, 산술, 물리, 화학, 외국어, 체조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신학제에 의한 학교설립

국왕의 교육에 대한 강령 선포와 더불어 정부의 관제 및 법규 정비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불비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풍토가 전통적 가치에 물들어 있어 신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용이 쉽지 않았다, 또한 물질적인 여건도 따르지 않아 학교 신설이나 교사의 충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신교육체제가 아니라 한문서당의 형식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소학교의 경우 수도에 10개가 있었으며, 지방에는 50여 개에 불과하였다. 강원도에는 관찰부 소재지인 춘천에 1개교가 먼저 설립(1895)되었고, 다음 해에 학부 지정지로 원산, 원주, 강릉에 각 1개교씩 설립되었다. 하지만, 府郡의 학교들은 정부의 지원금도 없이 군수와 지역민들의 협력으로 설립되다 보니 학교 시설이 보잘 것 없었고, 자격 있는 교사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서당처럼 운영되었다. 주로 교사 1인이 생도 10~ 50명 정도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관공립 모두 1개교 설립에 그쳤다. 그것도 고등과는 내내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진로 설정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였으나, 중학교 과정은 진학이나 취업면에서 불리한 여건이었다.

5. 사립학교의 설립

신문화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학교 설립이 시작되었고, 민간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선각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자발적인 학교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의 필요성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로는 외국어학교와 관직으로의 진출이 쉬운 사범학교, 그리고 일부 관학들이었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출세와 취업에 유리한 외국어학교가 우선 선호되었다. 특히 영어와 일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았다. 이렇게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설립된 사립학교들은 재정적 기반도 약했거니와 보편적인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채택하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그 역사도 짧을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1894년 평양에 광성학교(감리계)와 숭덕학교(감리계)가 설립되어 중학교 과정을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의 정신여학교(장로계)가 설립되었으며, 1897년 평양에 숭실전문과 숭실중학의 숭실학교(장로계)가 설립되었다. 1903년에는 평양에 숭의여학교(장로계, 중등과정), 원산에 누씨여학교(감리계, 중등), 1904년에는 개성에 호수돈여숙(감리계, 초, 중등), 원산에 진성여학교(장로계, 소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기독계 여러 학교들은 비교적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재정적 기반도 넉넉하여 오늘날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채 운영되고 있다. 특히 봉건적 지배체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여학교를 설립한 것은 교육개혁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했다.

6. 통감부 시기 교육정책

보통학교, 학기 및 학급제 운영, 사립학교 통제, 국정교과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은 통감부를 두었고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했다.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학제를 개편하고 보통교육을 통제하였다. 일본은 각종 교육 관련 법령을 공포하기 시작했는데, 1906년에 보통학교령, 1908년에 사립학교령,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학년의 개시를 매년 4월로 하고, 학년을 3학기로 나누어 통일하고 학급제를 적용하여 학급정원제로 운영하였다. 모든 사립학교를 허가받도록 하여 부실한(기준 미달) 것은 폐교시켰다. 보통학교의 경우 교과목은 수신, 국어(조선어), 일어, 한어, 산술, 지리 및 역사, 이과, 도화, 체조, 수예, 창가, 수공, 농업 등이었다. 특히 일어 교수시간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 큰 변화라 하겠다. 통감부 시기의 교육정책이 처음 공개적으로 공표된 것은 학부대신 이완용의 훈시에서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화까지 통제하는 발언을 일삼았는데, 학도의 삭발과 복장을 강제로 시행하지 말 것, 당시 대중적이고 민족적인 관심을 끌었던 각종 운동회를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발언도 하였다.

통감부 정치(1905)가 시작되면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제작, 사용

하던 교과서를 학부의 관할 사무로 지정, 통제하였다. 즉 교과서의 질적 향상과 사상적 통제를 목표로 학부가 취한 방침은 국정교과서의 편찬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제도의 시행이었다. 학부는 1908년에 학부령 제16호로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였다. 다음 해에는 보통학교용 수신서 4종, 국어독본 8종, 일어독본 8종, 한문독본 4종, 이과 2종, 도화 4종, 습자첩 4종, 산술서 4종이 나왔다. 이와 같이 편찬된 교과서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보급하다가 대여의 형식, 그리고 자비 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당시 검인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경향을 보면 자연과학, 실업 및 종교 계통의 도서는 대부분 당국의 인정을 받은 반면, 역사, 수신, 일어, 한문 및 지리, 어학의 도서는 인가받지 못한 도서들이 많았다. 특히, 청년들이 애독하던 서적 및 신문들이 압수당하여 수십만 권이 불태워졌는데, 대표적인 서적은 아래와 같다.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교육과학사, 2014, 157-159쪽)

도서명	지은이	도서명	지은이
을지문덕전	신채호	금수회의록	안국선
이순신전	신채호	자유종	이해조
(음빙실)자유서	양계초	몽견제갈량	유원표
월남망국사	이상익, 현채	20세기 조선론	김대희
서사건국지	박은식	청년입지론	유문상

7. 개화기 사립학교 현황

개화기(1876-1910)에 고성군(北)과 간성군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아래의 일람표에서 보듯이 간성군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이른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개화의 사상이 일찍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개항지이면서 문교의 도시 원산과 간성의 지리적인 근접성이 낳은 교육의 영향사로 볼 수 있다.

고성군편과 간성군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1914년 3월 이전까지는 고성군(北)과 간성군이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고성군편

〈개화기 사립학교 일람표〉

학교명	소재지	설립, 또는 운영 시기	출처
유신학교 (楡新學校)	서면 백천교리 유점사내	1907.4.21	대한매일신보
동일학교 (東一學校)	일북면 창대리 신계사내	1907.8	대한매일신보
고성야소학교 (耶蘇學校)	동면 동리	1910년 이전	국가기록원
영창학교 (永昌學校)	일북면 추동리	1910년경	대한매일신보

유신학교(楡新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서면 백천교리 금강산 유점사내
- **설립 시기** 1907년 4월 21일(?)
- **설립 주체** 금강산 유점사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 유신학교 고백>

개학일자는 음력 2월 29일 보통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전, 외전, 어학, 지지, 역사, 산술, 국문, 습자

〈대한매일신보, 1907.4.21.일자〉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유신학교>

찬성기부를 송부한 것이 다음과 같다.
학교사무소에서 한화 30원, 총무 김벽암 씨 10원

명진학교감 고백

〈대한매일신보, 1907.5.14일자〉

〈대한매일신보, 1907.5.12일자〉

<유사신교>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 주관 김벽암, 김동선, 장대우, 김보련 제씨가 명진지교(支校) 유신학교를 유점사내에 설립하고 신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교수하고 있다. 불과 수개월에 학생이 40여 명에 달하였다.

<금강산 유점사 유신학교>

사중(寺中) 20원, 김벽암 이하 5원, 김금담, 허봉암, 유포암, 김동선 각 1원, 김동담, 최포허 각 50전, 송조암 1원, 황대암 2원, 니인곡 50전, 전금명 1원, 김응제, 오축산, 박혜성 각 50전, 박성암, 보해 000 각 30전, 김일운 1원, 장대우, 박선월, 홍수암 각 50전, 고탄옹, 김보연 각 1원, 엄봉근, 최학눌, 김탄월 각 30전, 강창운, 오성일 각50전,

〈대한매일신보, 1907.5.24.일자_1〉

보광 80전, 석봉조 20전, 박진종 30전, 문혜산 1원, 김해은, 임정호 각 30전, 최서연, 니동일, 이혜권, 니진학, 최태원 각 20전, 니승 박사 득 1원, 김응상 오십전, 최해천 20전, 김성오, 윤봉윤 30전, 사비 권주백 15전, 신춘화 10전, 김병식 30전, 최치상 20전, 니치옥, 권화삼 각 10전, 안봉식 20전, 김한주 10전, 김운서 30전, 남성칠 10전, 강성화 20전, 안국서, 권종우, 조경화 각 10전

합 52원 65전

〈대한매일신보, 1907.5.24.일자_2〉

동일학교(東一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일북면 창대리 신계사내
- **설립 시기** 1907. 8
- **설립 주체** 신계사

<선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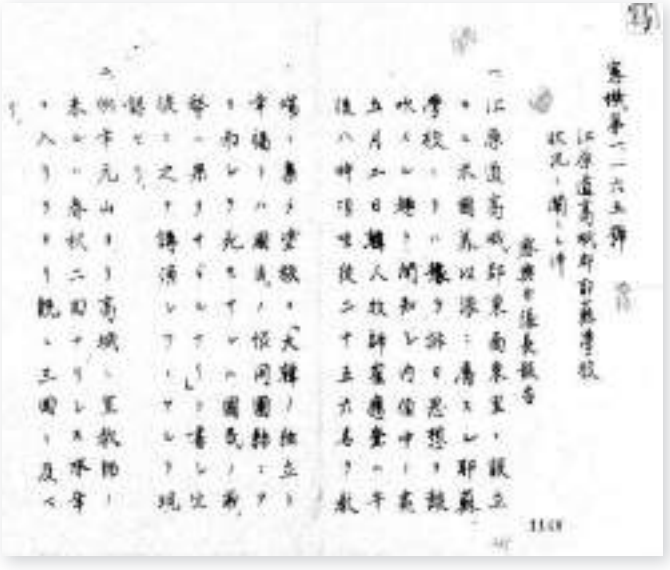
강원도 고성군 신계사 승려 한설호가 신계사에 나이 어린 승도를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교명은 동일학교라 칭하고 학부에 청원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7.8.1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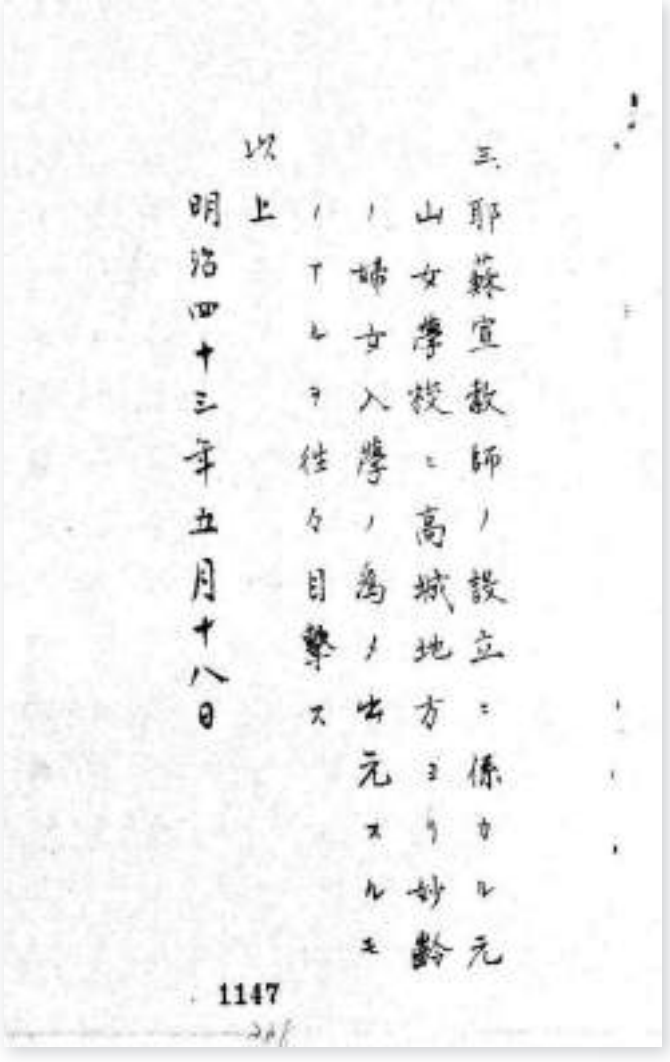
고성 야소학교(耶蘇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동면 동리
- **설립 시기** 1910년 이전

국가기록원
〈강원도고성군야소교학교상황에관한건(헌기제1165호), 1910년, 관리번호 : CJA0004734〉



〈헌기제1,165호〉
강원도고성군 야소학교 상황에 관한 건
함흥분대장보고



三、耶蘇宣教師ノ設立ニ係ル元山女學校ニ高城地方ヨリ妙齢ノ婦女入學ノ為ノ出元スルモノアルヲ往々目撃ス

以上

明治四十三年五月十八日

1147

1) 강원도 고성군 동면 동리에 설립된 미국감(?)리파 소속 야소학교에서는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어 내사중에 있다. 5월 2일 한인 목사 최응규가 오후 8시 경 생도 25,6명을 교실에 집합하여 칠판에 "대한의 독립과 행복을 위하여 국민이 협동 단결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고 기록하고 생도에게 강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예년에 원산에서 고성에 선교사가 오는데, 봄가을 2회이었으나, 올해는 3회 정도 내방하고 있다.

3) 야소 선교사가 설립한 계통의 원산여학교에 고성지방에서 묘령(妙齡, 꽃다운 나이)의 부녀들이 입학을 위하여 왕왕 원산으로 오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이상 명치43년(1910년) 5월 18일

*번역은 의역이 가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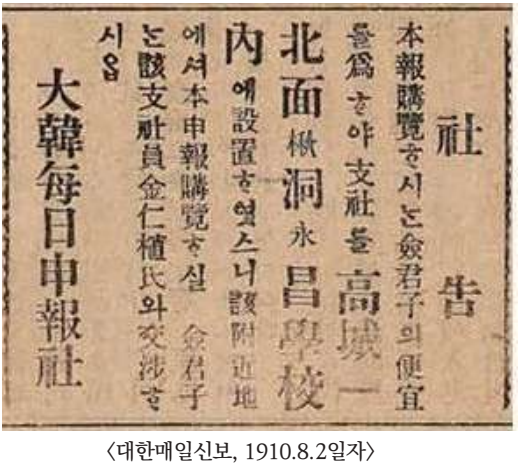
영창학교(永昌學校)

- **학교 위치** 일북면 추동리
- **설립 시기** 1910년경
- **설립 주체**

<사고>

본보 구람(購覽)하시는 첨군자(여러 점잖은 사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지사를 고성(군) 일북면 추동 영창학교내에 설치하였으니 부근땅에서 본신보를 구람하실 첨군자(여러분)는 지사 사원 김인식 씨와 교섭하시기 바람

대한매일신보사


社告
本報購覽ᄒᆞ시ᄂᆞᆫ僉君子의便宜
를爲ᄒᆞ야支社를高墟一
北面楸洞永昌學校
內에設置ᄒᆞ엿스니護附近地
에서本申報購覽ᄒᆞ실 僉君子
ᄂᆞᆫ該支社員金仁植氏와交涉ᄒᆞ
시ᄋᆞᆸ
大韓每日申報社

〈대한매일신보, 1910.8.2일자〉

〈개화기 사립학교 일람표〉

학교명	소재지	설립, 또는 운영 시기	출처
봉명학교 (鳳鳴學校)	구산면(丘山面) 냉천리	1906.8.1	대한매일신보
광명학교 (廣明學校)	간성군	1907.5.14	대한매일신보
일어학교 (日語學校)	군내면(郡內面)	1907.9.18	대한매일신보
명동의숙 (明東義塾)	토성면 아호리 아호교회	1908.12.31	대한매일신보
공명의숙 (公明義塾)	왕곡면(旺谷面) 공수진리	1908년 10월경	대한매일신보
수성학교 (水城學校)	군내면 중리 객사	1908년경	황성신문
숭문의숙 (崇文義塾)	죽도면(竹島面)	1908년경	황성신문
창신의숙 (創新義塾)	토성면(土城面)	1909년경	황성신문
영광의숙 (永光義塾)	오현면(梧峴面) 거진리	1909년	황성신문
간성노동야학교	군내면	1909년	황성신문
측량학교 (測量學校)	구산면 월안리	1909년	황성신문
신명학교 (新明學校)	?	1910년 이전	조선일보 (1937.12.2.)

* 위의 표는 관련 문헌과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봉명학교(鳳鳴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구산면(丘山面) 냉천리 건봉사내
- **설립 시기** 1906년 8월 1일(신문광고)
- **설립 주체** 건봉사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민족의식의 각성과 개화문명에 대한 선각은 불교계에서도 나타났다. 1906년 불교연구회를 중심으로 중앙에 명진학교가 설립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전국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근대학교들이 탄생했다. 그 시작은 건봉사의 봉명학교였다. 봉명학교는 1906년 8월 1일에 설립되었다. (대한매일신보. 1906.8.1.자/김광식, 『금강산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 인북스, 2011, 180쪽) 이는 관동지방의 근대 사립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양양의 현산학교의 개교(1906.7.20.)와 비슷한 시기이다.(『양양군지』, 2010년 발행 595쪽) 봉명학교의 개교를 증명하는 신문 보도를 보면, "간성군 건봉사 김보운(봉명학교설립취지서 작성자)이 신학문 교육을 발달시키고자 20원을 보조하여 보통학과로 지원(支院)을 설립하고 경내 승려와 청년제자들을 모집한다"는 명진학교 이름의 광고가 있다.(1906.8.1. 대한매일신보) 이 내용으로 볼 때, 봉명학교는 설립 당시 '명진학교의 지원(支院)'의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설립과 운영은 각 사찰의 독립성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설립의 주역은 교장인 진학순, 교감 김보운, 회계 이금암(본명 이교재, 독립운동가 이면서 금암스님) 등이었다. 교육과정은 초기에는 보통과로 시작

하고, 이후 성장하여 유치부, 보통과(초등부), 고등보통과(봉림학교로 개명된 이후)의 학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내용은1930년대 중반에 봉명학교를 다닌 이영선의 회고에 따른 것이다. (이영선,『금강산 건봉사사적』동산법문, 2003, 319쪽)교과목은 개교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조선어, 일본어, 영어, 산술, 지리, 역사 등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토요일을 활용하여 연극, 동화대회, 강연회, 가장행렬, 독서회(봉서소년회), 민속놀이, 운동회(축구)를 열었다. 봉명학교에는 건봉사 승려 및 인근 마을의 청소년들은 물론 관동지역에서도 입학생이 모여들었다. 특히, 봉명학교에서는 건봉사의 넉넉한 재정에 힘입어 각종 장학생을 육성하였다. 경성의 유학생은 물론 일본 유학생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여 20여 명을 배출하였다. 이들 일본 유학생들은 방학이면 봉명학교에서 특강도 열었고, 후배들에게 독서 및 문예활동을 지도하면서 문예지 〈첫걸음〉도 창간하였다. 대표적인 유학생으로 정두석(전 동국대총장), 조영출(조명암, 월북), 황영진, 최재형(시인), 박보광 등이 있다.(박설산,『뚜껑 없는 조선 역사책』삼장,1994, 98~101쪽) 그리고 봉명학교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을 전수받으려는 학생들의 노력도 있었다. 만해는 건봉사에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봉명학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독립운동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봉명학교의 학생들은 설립 당시 국채보상운동(1907)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한편 봉명학교는 개교 이후 몇 차례의 부침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봉명학교는 봉서학교라고도 했으며, 근대적인

학교가 없던 시절에 생긴 학교로 여러 사정으로 존폐를 거듭하다가 1931~2년에는 대단히 융성했다"는 기록에서 확인된다.(김광식, 전게서, 206쪽) 한용운이 편찬한『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1928)에는 1907년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개교하자마자 폐교되었다는 것이 의아할 뿐만 아니라, "1907년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에서 춘기 운동회를 인근 15리에 위치한 팔음리(현 해상리) 앞뜰에서 거행했는데 국기호와 홍예녹문이 극히 장려하여 방관인(구경꾼)이 3천 명에 달하였다."(1907.6.22. 대한매일신보)는 기록이 있으며, "방학을 맞아 봉명학교 내에 1개월간 일본어 강습소를 개설하고 일본 유학생 이지광을 교수로 하였다"는 기사(1917.8.9. 매일신보)로 보아 학교운영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용운의『건봉사사적』(약칭, 1928)이 편찬되는 시점에 봉명학교의 기록이 없다. 그것은 이영선의 〈건봉사 연혁 일람〉에서도 확인되는데, "1928년 2월에 봉서소년회가 창립되고 〈문예월간〉을 발행하였으며, 소년, 소녀들에게 조선어를 강습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1921년에 봉림학교가 설립되었다가 1924년에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봉명학교가 봉림학교로 전환되었던 사정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일제의 탄압과 더불어 건봉사 내의 여러 사정으로 근대의 교육운동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봉림학교와 관련한 신문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고성군 오대면 건봉사 현 주지 이대련, 전 화상 이운파, 김영찬등은 사내 청년과 부근 보통학교 졸업생 또는 학력 관계상 학업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자제들의 앞날을 애석히 생각하여 만여 원 가격의 토지 년 수익 백미 5천두 가량 되는

재산을 출자하여 고등보통과 초등보통 혼합제의 봉림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오는 4월에 생도 200명을 모집, 개교할 예정이라더라"(1923. 3.24 동아일보) 이후 봉명학교는 결국 만세사건(1935)과 조선어 개설 사건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고 1939년에 폐교를 당하는 비운을 맞는다. 그러나 이영선의 건봉사 연혁에는 1942년에 최재형(동경 유학생), 최영준이 봉명학교 교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봉명학교는 해방 시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봉명학교는 해방 후 소련군정 시기인 1945년 10월에는 냉천인민학교로 개명되고 함흥조 교장이 취임하게 된다. 이로써 국난의 시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근대교육을 담당했던 봉명학교의 역사는 일단락되었다.

<광고>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 김보운 씨가 신학문 교육을 발달코자 열심히 찬양(贊揚)하여 본사중(건봉사일동)으로 신화 20원을 보조하고 보통학과 (과정)로 (명진학교) 지원을 설립하였다. 경내 승려와 청년제자를 모집함으로 이와 같이 널리 알림.

명진학교 고백

廣告

〈대한매일신보, 1906.8.1일자〉

강원도 간성군 금강산 건봉사 봉명학교 취지

우리 대한국에는 오직 유불선 3도가 있어서 그 우뚝한 기세가 동쪽으로 몰려와서 마치 다리가 세 개 달린 솥발과 같다. 그러나 선도(仙道)는 그림자 같아서 더 말할 것 없고, 유가의 6경(六經)에 있어서는 입으로 막힘 없이 외우기는 하지만 변화 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불가의 3장(三藏)은 드물기는 하나 마음으로 통함에 미거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지라. 그 누가 우리의 암담한 앞길에 등불을 밝힐 수 있겠으며, 그 누가 우리의 헤매는 나룻 길에 뗏목을 놓아 건너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까마득히 세상을 모르고 있어 우리 동방예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외국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게 된 것을 어리석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라 해도 널리 알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갓 쓴 선비나 머리 깎은 중들은 옛것을 지키다가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때나 기다리는 사람들 어찌 이 나라를회복시킬 방법을 기약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여러 곳에서 관립 혹은 공립, 사립의 학교가 더욱 많아져 젊은 남녀와 승려, 그리고 고아들이 앞다투어 한결같이 학업에 힘쓰고자 하니 우리를 행복케 할 아름다운 운세여! 나라를 위하는 기초이자 국민을 위한 지침이 이렇게 위대하고 왕성할 줄이야! 어떤 이가 묻기를 무슨 학문을 가르칠 것이며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가 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동서양의 신학문과 역사를 모두 열람하면 어찌 한기(漢記), 송기(宋記)의 통감(通鑑) 몇 편에 그칠 것이며 세계의 여러 나라 형편을 분명히 가릴 줄 안다면 모든 개화의 온갖 이치를 알게 되어 뛰어난 영재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교가 될 것이고 거침없이 잘하는 웅변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더불어 둘 다 편리할 것이다. 이제 그 누가 감히 업신여길 것인가. 그리하여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민생의 산업이 교육을 버리고 어느 것이 적합하며 이를 미루고 어느 것을 하겠는가."

비유하자면 명약과 같아서 녹용 7푼과 산삼 3푼으로 보약을 달여서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여 여윈 몸이 다시 건강하여진다면 대장부들이 세상에서 뽐내어 이 시대의 인재가 되리라. 그리하여 독립운동도 잘 해내고 자유도 잘 누리게 되리니, 어떤 적인들 굴복하지 않겠으며 어떤 일인들 못 이루겠는가. 이런 연후에 신학문의 교육에 힘입어 성인들의 가르침에 힘쓴다면 두 날개가 달린 조화로운 새와 같을 것이고, 문명의 발달을 체험하여 불교에 뜻을 둔다면 두 바퀴가 달린 수레와 같이 한 쌍이 되어서 선정(禪定)과 지혜가 함께 넉넉하게 갖추게 될 터인데 어찌 구학문과 신학문의 차이를 구름과 진흙, 검은색과 흰색의 구분처럼 차이를 말하겠는가.

대개 이 건봉사는 관동지방의 큰 사찰인 터라 옹기종기 치솟은 금강산의 남쪽 기슭에 드넓은 동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은 높은 산으로 보림굴(普琳窟)과 봉암(鳳巖)이 있고 남쪽에는 향로봉(香爐峯)과 설악산(雪嶽山)이 바라다 보인다. 그리고

수천(間)의 당우(堂宇)와 수백 명의 승려가 있다. 이에 학교를 설립하고 봉명(鳳鳴)이란 간판을 건 것은 풍악이 아홉 가락 끝날 때 봉황이 찾아 왔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응하며, 의견을 같이하여 같은 소리로 서로 찾아서 불교의 큰 방법도 연구하고 신학문의 교육에 참여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티끌 모아 태산의 은혜에 보답한다면 원효대사(元曉大師)와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짠 비에 목관을 내던지게 될 것이며,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왕실에 공들인 보람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니, 명망 있는 선비거나 산속에 사는 중들은 재빨리 찾아와서 심혈을 기울인 배움의 터전으로 모여 차차 발전하여 나아가서 지혜가 열리고 문화가 발달하여서 우리 임금님을 요순(堯舜) 임금 이상으로 만들 것이며 끝내는 동방에 없었던 태평시대가 오도록 할 것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하고 목탁을 치면서 기도하나이다.

발기인 진학순(秦學純) 김보운(金寶雲) / 황성신문, 1907.1.26. 일자 1면 게재 역

*번역문은 이영선의 『금강산 건봉사사적』(2003), 322-324쪽에서 가져와 재인용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皇城新聞

雜報

●江原道杆城郡金剛山乾鳳寺鳳鳴學校趣旨書

惟我大韓은儒佛仙三道가勢如東蘆ᄒᆞ고峙若鼎足이라然이나仙如影子ㅣ라

姑勿論ᄒᆞ고至若儒之六經은口誦中毛
나何多沙白古瓶이며佛之三藏은心通
麟角이라全與刻舟求劍ᄒᆞ니誰能明我
昏衢之燭이며渡我迷津之筏乎아如是
而沉沉然漸盡ᄒᆞ야俾我東方禮義之國
으로一朝爲外國之侮視며外人之壓制
者를雖愚婦孩兒라도自愧不有博識이
온況乎冠儒剃佛之小有炎涼人이豈無
可期回復之方策耶아故今諸方之學校
或官公之設而私立이尤多ᄒᆞ야靑年男
婦僧侶孤兒ㅣ가後先踴躍ᄒᆞ야一體趨
學ᄒᆞ니幸我嘉運이여爲國之基礎오爲
人之指南이於是乎偉矣盛矣로다或이
問言ᄒᆞ되爲何學敎之며爲何益有之오
ᄒᆞ야ᄂᆞᆯ曰覽盡東西洋之新學歷史ㅣ면

國之時局機關이면必知諸物理之開化
萬端ᄒᆞ야對傾國之英俊에比之相當이
오策懸河之雄辯에與之兩傾ᄒᆞ리니我
既能類어니孰敢侮我ㅣ야其於忠君愛
國과生民産業이捨此奚適이며捨此奚
爲리오譬如名藥ᄒᆞ야以野蔘七分과山
蔘三分으로醫我蒼生에權瘥蘇復則當
臂橫行에傑雄當時라獨立乎能立ᄒᆞ며
自由乎能由ᄒᆞ야何敵不服이며何事不
成가然後에勵新學之教育ᄒᆞ야勉夫至
學則如鳥兩翼이오進文明之發達ᄒᆞ야
趣諸佛教則如車二輪이니可謂事半功
倍며定慧俱足이니云謂舊學新聞之與
而雲泥緇素之分別乎아盖此乾鳳은海
東大刹이라巍立金剛之南麓이오浩潤

碧海之東津이며西臨普琳寶叉嶽이
오南望香爐峯與雪山이라數千間梵宇
招提오數百名緇徒道場이라奚數乎校
ᄒᆞ고揭名鳳鳴者는超羣九成에至鳳兮
之來儀라同氣相應ᄒᆞ며同聲相求ᄒᆞ야
研究諸佛教海之大方ᄒᆞ며恭與爲新學
問之教育ᄒᆞ야以大爲之設으로曜邦山
之恩인ᄃᆡ一女元曉普照의播教鹽雨也
ᄒᆞ며復見西山泗溟와鞠勢王家矣리니
伏請望風君子와眠雲禪侶는飛也賁臨
ᄒᆞ야熱心團體로進步開明ᄒᆞ야致吾
君於堯舜之上ᄒᆞ며遂使東邦에所無之
太平을稽首拜手ᄒᆞ고至祝至禱ᄒᆞ노이
다

發起人 秦學純 金寶雲

국채보상의연금수입광고[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7.04.09.일자]

●杆城郡乾봉寺봉鳴學校

교長 秦學純 壹圓, 副校長 김鶴林 교監 김寶雲 學監 죠靑隱 評議長 뎡(정)만化 각 壹圓, 幹事 김碧應 拾錢, 니性海 오拾錢 王鏡月 貳拾錢 김印虛 최雲담 각오拾錢, 敎師 김正틱 貳圓, 니晦명 貳拾錢, 書務 뎡混源 貳拾錢, 김寶蓮 十돐, 會計 박日崙 五十전, 卓凌處 二十錢, 김泰運 五十錢, 김東운 參十錢, 評議員 최西念 十錢, 玄東林 五拾錢, 김月松 二拾錢, 유性潭 拾錢, 黃普應 五拾錢, 박明虛 壹元, 김龍潭 拾錢, 리운坡 三拾錢, 림淵月 五拾錢, 황應化 拾뎐, 변祥운 二拾錢, 리應湖 拾錢, 한雪巖 三拾錢, 김雪谷 拾五錢, 박寧隱 拾錢, 丁南파 五拾전, 흔봉谷 拾젼, 김龍셩 五拾전, 죠日波 四拾젼, 뎡錦션 오拾전 贊成員 김慧菴 壹圓, 윤碧담 四拾전, 박雙月 壹圓, 죠漢月 拾錢, 죠부如 四拾錢, 梁景담 廿錢, 니浦蓮 壹圓, 全靑庵 五拾錢, 니湛海 張月庵 각壹圓, 니錦菴 김鶴巖 박玄應 니雪吼 각五拾錢, 뎡萬雨 三拾젼, 김月虛 申三暉 각貳拾젼, 니東源 拾전, 최영숙 貳拾뎐, 卓弘슈 拾五뎐, 최普광 徐能孝 高智衍 각貳拾錢, 김斗敏 김德蓮 니泰華 각三拾錢, 니智允 拾錢, 니凌雲 한應典 卞祥雲 吳蓉珠 각貳拾錢, 김永根 五拾젼, 申智月 니문協 박栗菴 김相烈 김大榮 김復雲 각拾젼, 申鼎熙 拾壹錢, 김봉紀 三拾젼, 學徒(40) 박光憲 拾錢, 니봉冠 洪東근 니桂祥 함寬永 김東元 鄭틱恩 박宗문 함五峯 洪應敏 각貳拾錢, 니東一 拾五錢, 姜性完 全壽天 林致容 김錦完 黃錦근 김惺察 송侑간 全性甲 池大成 뎡普明 니侑宗 김병根 김桂弘 김壽찬 김善봉 장台셥 각拾젼, 뎡在根 貳拾錢, 龍意珠 함建祚 김定禪 니奉玉 趙在順 니元明 최知宗 함玄覺 김在英 각拾錢, 장봉覲 貳拾錢, 文應機 니應訓 각五錢, 尼僧 正心 廣喜 각壹圓, 知順 三眞 恩必 富永 각五拾錢, 義謙 三拾錢, 禮典

慈惠 南興 각廿錢, 快得 三義 一三 昌福 法益 恩相 奉攝 각拾錢, 박召史 壹圓, 박召史 五拾錢, 김召史 拾錢, 함召史 리召史 각貳拾錢, 使喚 權敬念 黃成玉 함巨門 리興雲 全致學 김致燁 리澤善 安希天 具仕允 林雲集 安仕玄 리敬瑞 리景善 南重吉 박允祥 김正根 최應三 洪在洙 ㄱ拾錢, 林春瑞 貳錢, 기松岳 成學賢 김黃龍 리相福 김守根 장台演 김太文 김成和 高先童 김龍伊 安聖三 김聖文 김병淳 각五錢, 梁占石 함命哲 각三錢, 리白源 貳錢, 김百源 五拾錢, 萬日會念佛契中 壹百圓, 合 壹百四拾六圓 七拾六錢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대한매일신보(국한문)**[大韓每日申報(국한문)], 1907040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간성군건봉사봉명학교>

교장 진학순 1원, 부교장 김학림, 교감 김보운, 학감 조청은, 평의장 정만화 각 1원, 간사 김벽응 10전, 이성해 50전, 왕경월 20전, 김인허, 최운담 각 50전, 교사 김정태 2원, 이회명 20전, 서무 정혼원 20전, 김보련 10전, 회계 박일륜 50전, 탁능허 20전, 김태운 50전, 김동운 30전, 평의원 최서념 10전, 현동림 50전, 김월송 20전,유성담

10전, 황보응 50전, 박명허 1원(元), 김용담 10전, 리운파 30전, 림연월 50전, 황응화 10전, 변상운 20전, 리응호 10전, 한설암 30전, 김운곡 15전, 박영은 10전, 정남파 50전, 한봉곡 10전, 김용성 50전, 조일파 40전, 정금선 50전, 찬성원 김혜암 1원, 윤벽담 40전, 박쌍월 1원, 조한월 10전, 조부여 40전, 양경담 20전, 니포련 1원, 전청암 50전, 니담해, 장월암 각 1원, 니금암, 김학암, 박현응, 니설후 각 50전, 정만우 30전, 김월허, 신삼휘 각 20전, 니동원 10전, 최영숙 20전, 탁홍수 15전, 최보광, 서능효, 고지연 각 20전, 김두민, 김덕련, 니태엽 각 30전, 니지윤 10전, 니능운, 한응전, 변상운, 오용주 각 20전, 김영근 50전, 신지월, 니문협, 박율암, 김상렬, 김대영, 김복운 각 10전, 신정희, 11전, 김봉기 30전, 학도(40) 박광헌 10전, 니봉관, 홍동근, 니계상, 함관영, 김동원, 정태은,박종문, 함오봉, 홍응민 각 20전, 니동일 15전, 강성완, 전수천, 임치용, 김금완, 황금근, 김성찰, 송유간, 전성갑, 지대성, 정보명, 니유종, 김병근, 김계홍, 김수찬, 김선봉, 장태섭 각 10전, 정재근 20전, 용의주, 함건조, 김정선, 니봉옥, 조재순, 니원명, 최지종, 함현각, 김재영 각 10전, 장봉근 20전, 문응기, 니응훈 각 5전, 니승 정심, 광희각1원, 지순, 삼진, 은필, 부영 각 50전, 의겸 30전, 예전, 자혜, 남흥 각 20전, 쾌득, 삼의, 일삼, 창복, 법익, 은상, 봉섭 각 10전, 박소사 1원, 박소사 50전, 김소사 10전, 함소사, 리소사 각 20전, 사환 권경념, 황성옥, 함거문, 리흥운, 전치학, 김치엽, 리택선, 안희천, 구사윤, 임운집, 안사현, 리경서, 리경선, 남중길, 박윤상, 김정근, 최응삼, 홍재수 각 10전, 임춘서 2전, 기송악, 성학현, 김황용, 리상복,

김수근, 장태인, 김태문, 김성화, 고선동, 김용이, 안성삼, 김송문, 김병순 각 5전, 양점석, 함명철 각 3전, 리백원 2전, 김백원 50전, 만일회염불계중 100원, 합 146원 76전.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대한매일신보(국한문)
[大韓每日申報(국한문)], 1907.04.09.일자

國債報償義捐金
收入廣告

杆城郡乾鳳寺鳳鳴學校講師本
校賛成員李晦명氏가寄附金二
十元을送交ᄒᆞ얏기玆廣告ᄒᆞᆷ
明進學校監 告白

〈대한매일신보, 1907.5.17일자〉

<광고>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 강사 본교 찬성원 이회명 씨가 기부금 20원을 송교하였기에 이를 광고함.

명진학교감 고백

◉鳳校運動 杆城郡乾鳳寺鳳
鳴學校에서春期運動을附近十
五리팔音리坪에서擧行ᄒᆞᄂᆞᆫ
대國旗와紅鬼旗門이極히壯
여ᄒᆞ며傍觀人이三千名에達ᄒᆞ
얏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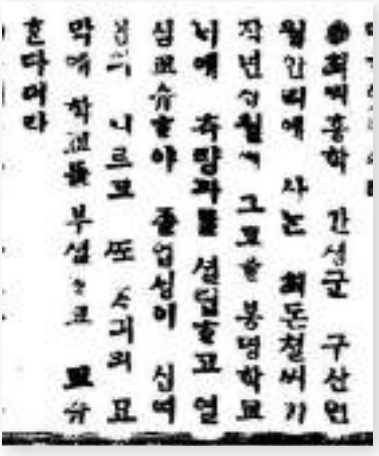
〈대한매일신보, 1907.6.22일자〉

<봉교운동>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에서 춘기 운동을 부근 15리 팔음리 뜰에서 거행하였다. 국기호와 홍귀녹문이 극히 웅장하고 방관인이 3천명에 달하였다.

<최씨흥학>

간성군 구산면 월안리에 사는 최돈철 씨가 작년(1908년) 10월에 그 고을 봉명학교내에 측량과를 설립하고 열심 교수하여 졸업생이 10여 인에 달하고 또 자기의 묘막에 학교를 부설하고 교수한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9.6.30.일자〉

<건봉황건>

간성군 건봉사내 봉명학교에서 음력 4월 15일 정오에 어떤 사람 39명이 누런 두건과 누런 옷을 입은 채 총과 칼을 소지하고 뒷산으로 내려와 승려에게 금화 40원을 탈취해 갔다더라.
(의병들로 추정됨)

〈대한매일신보, 1910.6.14일자 〉

광명학교(廣明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 **설립 시기** 1907년 5월 이전
- **설립 주체**

광명학교는 1907년 전후 간성군에 설치, 운영되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양양군 현산학교의 춘기운동회에 참가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현산학교와 광명학교가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생 20여 명과 교사가 참여하였다. 두 학교의 연합운동회가 관례적인 행사인지 학교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시사하는지는 알 수 없다.

〈황성신문, 1907.5.14.일자〉

<현교 춘기운동>

동쪽에서 온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본년(1907년) 음력 3월 16일에 양양 현산학교에서 낙산사 아래 광활한 해빈에서 큰 운동장에 울타리를 치고 푸른문 차일과 부교가 높이 질서정연하게 설치되었다. 당일에는 봄비가 그치고 만촌에 꽃과 버들이 가득 눈에 비치고 있었다. 현산학교 학도 200여 명과 간성 광명학교 학도 20여 명이 연합운동을 하였다. 관광하는 사람들이 원근 촌과 인근 군에서 온 손님이 운동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식의 순서를 보면,

① 체조
② 사중성구
③ 차승경주
④ 제등경주
⑤ 오찬(점심)
⑥ 목삽조구
⑦ 획계인경
⑧ 삼족경주
⑨ 타산경주
⑩ 소찬(간식)
⑪ 병족경약
⑫ 대낭발기
⑬ 엄목쟁기
⑭ 내빈연설
⑮ 석찬(저녁)
⑯ 애국가

모든 절차는 현산학교 임직원들이 맡고 내빈 중에 외국인이 많으니 체조교사, 양양경찰서 보조원, 우편소장, 통역, 그리고 간성교사 1인이다. 행사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하오 6시에 종료했다. 매 행사마다 양양교장과 교사가 3등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시상마다 음악을 연주하였다. 관광온 사람들의 갈채가 요한했다고 한다.

일어학교(日語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郡內面)
- **설립 시기** 1907년 전후
- **설립 주체**

간성군에 설립된 '일어학교'에 관한 내용은 간단한 신문기사의 언급에 그칠 뿐이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달(8월) 28일에 의병 150명이 간성군을 습격하여 일어학교와 우편취급소 전부를 파괴하고 4일간 두류(留逗)하다가 건봉사를 또 습격하고 고미성(姑味城) 부근으로 향하였다."(1907.9.18. 대한매일신보) 이 학교의 설립과정이나 성격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나, 의병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간성군이 설립에 관여한 학교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去二十八日에義兵一百五十
名이杆城郡을襲擊ᄒᆞᄂᆞᆫ되日語
學校와郵便取扱所全部를毀破
ᄒᆞ고四日을逗留ᄒᆞ다가乾鳳寺
를襲擊ᄒᆞ고姑味城附近으로向
ᄒᆞ얏ᄂᆞᆫ데義徒ᄂᆞᆫ獵鹿ᄒᆞ던山砲
手라義兵最多處ᄂᆞᆫ楊口麟제等
地라ᄒᆞ고

〈황성신문, 1907.5.14.일자〉

지난 28일에 의병 150 여명이 간성군을 피격하였는데, 일어학교와 우편취급소 전부를 훼파하고 4일간을 두류(逗留, 멈추고 살피다)하다가 건봉사를 습격하고 고미성 부근으로 향해 갔다고 한다. 의로운 무리들은 사슴을 수렵하던 산포수로 의병이 가장 많은 곳은 양구, 인제 등이라 한다.

명동의숙(明東義塾),명동학교

- **학교 위치** 간성군 토성면 아호리(현 아야진) 아호기독교회내
- **설립 시기** 1908년경
- **설립 주체** 최상기 외(김홍규, 주우남, 윤양오)

명동학교는 토성면 아호리(지금의 아야진리) 아호기독교 교회내에 설립한 학교이다. 설립과정은 보면, 그 고을에 사는 최상기의 열성으로 설립되었으며 최씨가 100원을 보조하여 학교집을 수리하고 빈한한 학도의 의식(衣食)을 담당하여 열심 교수한다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있다.(1909.1.10 대한매일신보) 이 내용만으로는 명동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어진 또 다른 기사에는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등이 아호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생도가 50여 명이고, 노동학생이 40여 명, 측량 생도가 30여 명이었다고 한다.(1909.2.26. 대한매일신보)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심상(보통)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측량과 노동야학 과정도 운영하였다. 또한 진급과 관련한 기사에 따르면, 1910년 1월에 진급시험을 보았는데, 고등과 우등생으로 지갑진 이하 11명이고, 심상과 우등생은 최천수 외 8명이며, 교장 최상기가 상장과 상품을 전해주었다고 한다.(1910. 2.27 황성신문)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명동학교는 소학교의 학제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과목은 심상과의 경우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지리, 역사, 외국어 등이었던 것으로추정된다.
(소학교령 8조)

이 학교의 폐교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나, 1913년 춘천헌병대에서 조사한 통계(『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04쪽)에서 명동학교의 기록이 없다. 아마 인가를 받지 못하여 일시 폐교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시 통계에는 간성군의 사립학교로는 공명학교와 영광학교뿐이다. 일본은 1908년 8월에 사립학교령을 발표하여 자율적인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설이 미비한 사립학교는 강제적으로 폐교조치를 당했다. 1909년까지 인가를 출원한 1995개 학교 중에 인가된 학교가 겨우 820개 학교였으며, 그중 종교계가 778개, 민족계 학교는 42개에 불과했다고 하니 민족계 학교의 탄압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2009, 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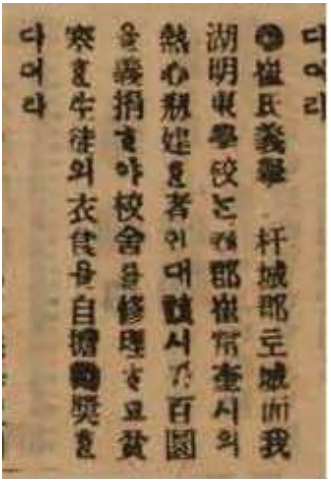
또 다른 신문보도에서는 '명동의숙'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명동의숙은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이며, 토성면 아야진리에 위치한다. 군내 유지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는 중이다.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수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 1927.9.5.일자)

<명동학교흥왕>

간성군 아호에 신사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윤양호 제씨가 교육에 열심히 노력하여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생도가 50여 명이고, 노동 학생이 40여 명이고, 측량 학생이 30여 명이다. 교장 최상기 씨가 그 학교 경비를 자당한다.

大韓每日申報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대한매일신보, 1909.1.9일자〉

<최씨의거>

간성군 토성면 아호 명동학교는 최상규 씨가 열심히 창건한 것인데, 그가 100원을 의연하여 교사를 수리하고 빈한한 생도의 의식(옷과 먹을 것)을 자담하고 권장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9.1.10일자〉

<최씨열씸>

간성군 토성면 아호에 있는 명동학교는 그 고을에 사는 최상기 씨가 열심히 설립한 학교인데, 최씨가 100환을 보조하여 학교집을 수리하고 빈한한 학도의 의식을 담당하여 열심히 교수한다.

<해상정대>

간성군 신사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윤양오 제씨가 교육의 열성으로 아호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다. 생도가 50여 명이고 노동 학생이 40여 명, 측량 학원이 30여 명이다. 교장 최상기는 이 3개 학교의 소용품을 자당하고 있다.

學界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동교진급>

강원도 간성군 토성면 아호 기독교회내 명동학교에서 지난 달에 진급시험을 보았는데, 고등과 우등생에 지갑진 이하 2인, 심상과 우등생에 최천수 이하 8인이다. 교장 최상기, 학감 최원설 양씨가 일장 권면하고 나서 상품을 수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雜報

〈황성신문, 1910.2.27일자〉

〈대한매일신보, 1910.3.6일자〉

<진급경시>

강원도 간성군 토성면 아호기독교회내 명동학교에서 지난 달 진급시험을 보았는데, 우등생은 지갑진, 박학률, 박재원 씨 등 12인이고, 교장 최상기, 학감 최윤설 양씨가 일반 학도를 열심 권면하고 우수 상품을 수여하였다.

<뢰유3씨>

간성군 토성면 명동의숙은 창설한 지 2개년에 학생이 50여 명에 달하였다. 숙장 최상기 씨와 숙감 최윤우 씨의 열성으로 교비의 군출(窘絀, 군색함이 없이)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 김교한 씨는 월급을 감봉하고 열심 교수하여 칭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성신문, 1910.7.21.일자(명동의숙)〉

<순회탐방>

교육계, 동명의숙(1908년에 설립된 명동의숙의 오류인 듯)

산명수려하고 지미가 비옥-양양일기자

토성면 아야진에 있는 학교로 군내 유지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는 중이다.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수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무하고 있다.

巡迴
探訪
教育界
地味 肥沃

〈동아일보, 1927.9.5일자〉

*본문에서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전제로 한다면 명동의숙은 1906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명의숙(公明義塾),공명학교

- **학교 위치** 간성군 왕곡면 공수진리(현 공현진)
- **설립 시기** 1908년 10월경
- **설립 주체** 전 참봉 김덕삼, 박근홍 외(김홍규, 김진호 등)

공명의숙은 간성군 왕곡면에 설립된 학교이다. 일본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조선지리지[〈조선5만분의1지형도〉대정4년(1915년) 실측,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에서는 왕곡면 공현진리에 학교가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이 공명의숙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지도에는 간성군에 3개의 학교(간성, 거진, 공현진)가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1915년에 작성한 간성군 죽왕면 가진리 토지조사부(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작성)에 공수진리(지금의 공현진리)에 사는 박기성 씨의 토지(田畓 500평) 중 일부가 "사립공명학교재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공명의숙은 공현진리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명의숙에 관한 신문보도를 살펴보면, "공명의숙에서 작년(1909) 12월에 졸업시험을 실시했는데 4학년 주헌 외 3명이고, 3학년 정대봉 외 4명, 2학년 강천갑 외 3명, 1학년에 박학봉 외 3명이다"라는 기록이 있다.(1910.3.13 대한매일신보) 따라서 교육과정은 당시 사립학교령에 따라 4년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명의숙은 창립하고 나서 진취의 희망이 확실히 있음으로 왕곡리최씨 종중과 금성리(지금 왕곡리, 금성리는 오봉1리)최씨 종중과

금성리(지금 왕곡리, 금성리는 오봉1리) 함씨 종중에서 논 1石落을 기부하였다고 한다.(1910.7.5. 황성신문) 또한 "공명의숙은 숙장 김진호, 숙감 박근형, 학감 김홍규, 총무 김내현, 찬무 강석화, 사무 박기성 등이 열성적으로 하여 생도가 40 명이고, 김순팔, 고학순 씨의 찬성으로 노동야학생이 50여 명이며, 또한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사 주원의 부인이 명예로 교수하였다. 그리고 작년 추기에 박근형이 70여 원을 연출하여 경내 학교의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박사순 100원, 이제철 10원, 이화일 1원, 원산에 사는 최각 15원을 의연하였으며, 면내의 김재근, 안병하, 박봉의, 차성택 등이 매년 100원씩 연조하여 학교 유지를 계약하여 칭송을 받았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1910.3.12. 대한매일신보) 이 기사 내용에서 학교의 규모와 세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숙장과 숙감(교무), 학감(학생의 품행 및 규율), 총무 등 학교 임원이 6명이고 교무분장이 세분화된 것으로 보아 학교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후원금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가 운영되었을 것이다. 특히 군내 여러 학교와 연합운동회라는 큰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학교의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하겠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연합운동회는 우리 민족에게 대중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문화행사였다. 그래서 일제는 이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한편, 춘천헌병대에서 1913년에 작성한 통계에 공명학교가 등재된 것은 이 학교가 재정이 안정적이며, 사립학교령의 기준과 요건을 갖춘 근대학교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춘천헌병대, 전게서, 204쪽)

<양씨 의거>

간성군 왕곡면 공명의숙은 거주하는 전(前) 참봉인 김덕삼, 박근홍 양씨의 열심 찬성으로 생도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숙사가 협착하여 양씨의 경비 자담으로 머지 않아 숙사를 경영한다고 하니 양씨의 의거를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9.2.21일자〉

<해상정대>

간성군 신사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윤양오 제씨가 교육의 열성으로 아호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생도가 50여 명, 노동 학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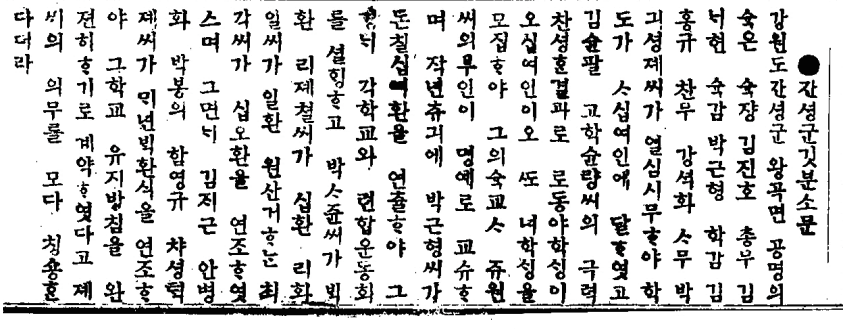
學界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40여 명, 측량 학생이 30여 명이다. 교장 최상기 씨는 3교에 소용품을 자당한다. 또한 토성면 금화정은 노동 학생이 30여 명이고, 운봉리는 노동 학생이 40여 명이고, 학야동은 노동 학생이 20여 명이며, 김주현 씨가 경비를 자담하고 교수한다. 왕곡면 공명학교는 개학한지 불과 4,5삭에 생도가 생도가 일취하여 숙사가 협착하다. 그 학교 교감 김홍규, 학감 박근홍 양씨가 교사 건축비를 자담 경시하였다. 죽도면은 승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 씨가 교수하며, 군내에 중앙학교를 창건하기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같아 향교를 방장수리 중이라 한다.

<간성희문>

간성군 왕곡면 공명의숙은 숙장 김진호, 총무 김내현, 숙감 박근형, 학감 김홍규, 찬무 강석화, 사무 박기성 제씨가 열심 유지하여 생도가 40여 명이다. 김순팔, 고학순 양씨의 찬성으로 노동 야학생이 50여 명이다. 또한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사 주원 씨의 부인이 명예로 교수하고 있다. 작년 가을에 박근형 씨가 금화 70여 환을 연출하여



●간셩군긋분소문

강원도 간셩군 왕곡면 공명의숙은 숙장 김진호 총무 김내현 숙감 박근형 학감 김홍규 찬무 강셕화 스무 박긔셩졔씨가 열심시무ᄒᆞ야 학도가 스십여인에 달ᄒᆞ엿고 김슌팔 고학슌량씨의 극력찬셩ᄒᆞᆫ결파로 로동야학싱이 오십여인이오 또 녀학싱을 모집ᄒᆞ야 그의숙교ᄉᆞ 쥬원씨의부인이 명예로 교슈ᄒᆞ며 작년츄긔에 박근형씨가 돈칠십여환을 연출ᄒᆞ야 그ᄒᆞᆫ니 각학교와 련합운동회를 셜힝ᄒᆞ고 박ᄉᆞ쥰씨가 빅환 리졔쳘씨가 십환 리화일씨가 일환 원산거ᄒᆞ는 최각씨가 십오환을 연조ᄒᆞ엿스며 그면니 김져근 안병화 박봉의 함영규 챠셩덕 졔씨가 미년빅환식을 연조ᄒᆞ야 그학교 유지방침을 완젼히ᄒᆞ기로 계약ᄒᆞ엿다고 졔씨의 의무를 모다 칭숑ᄒᆞᆫ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3.12.일자(국문)〉

경내 학교의 연합운동회를 설행하였으며, 박사순 씨가 100환, 이재철 씨가 10환, 이화일 씨가 1환, 원산 거주하는 최각 씨가 15환을 의연하였다. 또한 김재근, 안병하, 박봉의, 함영규, 차성택 5명이 매년 100환 씩 연조하여 학교를 유지할 방침을 완전히 하기로 계약하였다. 이들의 의무를 모두가 칭송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10.3.12.일자(국한혼용문)〉

〈대한매일신보, 1910.3.13.일자(국한문)〉

<공명졸업>

간성군 왕곡면 공명의숙에서 작년 12월에 졸업시험을 보았는데, 4학년에 주헌, 박용식, 김태협, 안정인, 3학년에 정대봉, 박영조, 손백길, 이성일, 정팔봉, 2학년에 강천갑, 안인훈, 서재신, 최문학, 1학년에 박학봉, 정등용, 안인기, 서상갑 등이다.

<감하의연>

간성군 공명의숙에서 본사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금 1원 50전을 기부하였다.

感荷義捐

杆城郡公明義塾에서本社經費를補助키爲ᄒᆞ야金一圓五十錢을寄付ᄒᆞ엿기玆에其盛意를感表ᄒᆞ노라

學界

〈대한매일신보, 1910.3.15.일자〉

<종답부교>

간성군 공명의숙은 창립 경년에 진취의 희망이 확실하다. 왕곡리 최씨 종중과 금성리 함씨 종중에서 논 1석락(섬지기)을 기부하였다.

雜報

宗畓付校 杆城郡公明義塾은創立經年에進就의望이確有ᄒᆞᆷ으로旺谷里崔氏宗中과錦峴里咸氏宗中에서畓一石落을寄附ᄒᆞ엿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7.5일자〉

수성학교(水城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郡內面) 중리(中里) 객사(客舍, 客館)
- **설립 시기** 1908년경
- **설립 주체** 간성군수 이면익, 군주사 함유도 등 지역유지

수성학교는 1908년 말 군 객사의 장소에 간성군수 이면익(李冕益) 등이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남궁억이 설립한 관동학회의 교육운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관동학회가 점차로 발전하는 결과로 도내 각군에 지회를 개설하였는데, 간성과 삼척 양군 인사가 학교를 설립하고 지회를 청원하여 관동학회의 인허를 득하였다"고 전한다.(1908.12.26. 황성신문)

한편 수성학교 설립자들과 관동지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기사는 "간성군수 이면익은 20원, 군주사 함유도는 10원을 관동학회에 기부하였다"고 전한다.(1909.6.23. 황성신문) 또한 "군수 이면익과 군주사 함유도, 그리고 지방위원 황병성 등이 군 객사(客舍)에 수성학교를 설립한 지 불과 반년에 군의 학교가 7처이고 생도는 6백여 명에 달하였다"는 기사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준다.(1909.8.13. 황성신문)

당시 간성군에 7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600여 명의 학생들이 근대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수성학교는 학교의 생도수가 날로 증가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면서 제반 성적이 우수하여 전진의 희망이 있었는데, 일본 수비대에서

갑자기 학교를 점거하려고 하자 학교 임원들이 일본 헌병사령부와 교섭하는 중이다"라는 신문기사(1910.4.7. 대한매일신보)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일제 강점을 앞두고 일본의 헌병부대가 학교 건물을 (부대건물) 점령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기사는 "군내면 사립 수성학교는 군수 이면익, 군주사 함유도, 송도상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하나같이 감독하고 있다. 송의근은 군청에서 사퇴한 후 매일 2시간씩 명예로 교수를 담임할 뿐만 아니라 교감 직무도 맡아 열심으로 교도하니 생도들이 감화하여 더욱 면려함으로 진취의 희망이 있다"고 전한다.
(1910.6.19. 황성신문)

이렇게 수성학교는 날로 성장하여 1912년 3월 6일 간성군의 최초 공립보통학교인 간성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어 교학의 맥을 이어갔다. (강명숙,『사립학교의 기원』학이시습, 2015, 42쪽)따라서 수성학교는 간성공립보통학교의 전신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간성초등학교의 역사는 수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황성신문, 1909.6.23〉일자

<관회기부>

횡성군수 심흥택 씨는 50원, 간성군수 이면익 씨는 20원, 간성군 주사 함유도 씨는 10원을 관동학회에 기부하고 학회의 발전을 찬성하였다.

〈황성신문, 1909.8.13일자〉

<간성호소식>

간성군수 이면익, 간성군 주사 함유도, 지방위원 황병성 3씨 등이 간성군 頑固 제씨를 권성하여 객사에 수성학교를 설립한 지 불과 반년에 간성군의 학교가 7곳에 생도가 6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皇城新聞

〈황성신문, 1910.4.7.일자〉

◎校舍欲占　江原道杆城郡紳士諸氏가設立ᄒᆞᆫ水城學교ᄂᆞᆫ諸般成績이頗히佳良ᄒᆞ야前進之望이有ᄒᆞ더니日本守備隊에셔該校를占據코져ᄒᆞᆷ으로該校任員이日憲兵司令部와交涉ᄒᆞᄂᆞᆫ中이라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4.7.일자〉

<교사욕점>

강원도 간성군 신사 제씨가 설립한 수성학교는 제반 성적이 아주 양호하여 발전의 희망이 있다는데, 일본수비대에서 그 학교를 점거하려고 하자 학교 임원이 일본 헌병사령부와 교섭하는 중이라고 한다.

◎水校와日隊　杆城人士들이合資ᄒᆞ야私立水城學校를設立ᄒᆞ고學員을聘

〈황성신문, 1910.4.7일자〉

<수교와 일대>

간성인사들이 합자하여 사립수성학교를 설립하고 학원을 모집, 교수하여 진취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간성군 주재 일본수비대에서 (학교를) 점거하려고 하여 학도가 해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 임원 제씨가 현재 교섭 중이라 한다.

<송주사의 열심>

강원도 간성군 군내면 사립수성학교는 군수 이면익, 군주사 함유도, 송도상 제씨가 교황(학교의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동 감독하고 있는데, 송의근 씨는 부임 이후로 군청에서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명예로 교수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교감 직무를 맡아 열심히 교도하고 있다. 이 학교 생도들이 그 열성에 감화되어 일층(학업에) 면려함으로 진취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생도 함건조가 돈이 없어 공업전습소의 시험을 치르지 못함을 알고 5원을 의연하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고, 부인 최경자 씨는 금 5원을 본교에 의연하여 칭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성신문, 1910.6.19.일자〉

숭문의숙(崇文義塾)

- **학교 위치** 간성군 죽도면 [당시 면소재지는 금포리(야촌리)]
- **설립 시기** 1908년경
- **설립 주체** 윤양오 등

1909.2.26.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간성군 죽도면에 숭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가 교수하였다"란 기사가 등장하면서 숭문의숙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09년 다른 신문기사에서 간성군 관내 학교가 '7처'라고 밝히고 있어 숭문의숙도 그 하나로 지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09.8.13. 황성신문)

<해상정대>

죽도면은 숭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 씨가 교수하고 있다.

學界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창신의숙(創新義塾)

- **학교 위치** 토성면
- **설립 시기** 1909년경
- **설립 주체** 강한철, 이덕일, 한치룡, 이희찬, 이심원 외

창신의숙은 간성군 토성면에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창신의숙을 소개하는 신문기사에는 "창신의숙은 토성면에 사는 강한철, 이덕일, 한치룡, 이희찬, 이심원의 열성으로 설립하였는데, 이심원은 10리 정도 거리를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숙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군주사 송의근과 각면 의숙의 설립자 모두가 군내에 우선적으로 심상과와 고등과를 설치하고 장래에는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논의중이라더라"는 내용을 전한다.

〈황성신문, 1910.9.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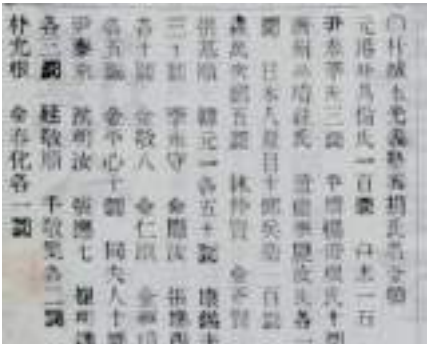
영광의숙(永光義塾), 영광학교

- **학교 위치**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 **설립 시기** 1909년
- **설립 주체** 임중현, 김종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 김의종 등

영광의숙은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임중현, 김종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 의연금과 명단을 보면, 원산의 박창윤 100원과 백미 1석, 윤태신 3원, 평양의 양준근 10원, 제주 고기현 1원, 영덕 이경녀 1원, 일본인 하모씨 100원, 거진의 임중현, 김정현, 윤태래 외 20여 명이 300여 원을 기부하였다.(1909.12.18. 황성신문) 이어진 기사에는 "재학생은 40여 명에 달하고 여학생이 13명이며 내외국의 의연을 칭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1909.12.29. 황성신문) 또 다른 기사는 영광의숙의 발전상황을 전한다. "오대면 거진리에 사는 임중현 등이 영광의숙을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도가 날로 증가하여 남학생도가 50여 명이고 여학생이 21명에 달하였고, 각처 여러 사람이 기부한 돈이 3천여 원이 되고, 학교 정황이 점점 발전하고 교사 윤태래는 의무로 교수한다"(1910.1.28. 대한매일신보) 영광학교는 흥왕을 거듭하여 지역인사들의 후원이 끊이지 않았다.

<간성 영광의숙 의연 씨명 금액>

원산항 박창륜 100원과 백미 1석, 윤태신 3원, 평양 양준근 10원, 제주 고기현, 영덕 이경녀 각 1원, 일본인 하목 십랑병위 100원, 삼만차랑 5원, 임중현, 김정현, 장기순, 한원일 각 50원, 강석규 30원, 이영수, 김주녀, 장응서 각 10원, 김경팔, 김인숙, 김의장 각 5원, 김평심과 그 부인 각 10원, 윤태래, 홍명녀, 장응칠, 최명달 각 3원, 연경순, 천경집 각 2원, 박윤근, 김춘화 각 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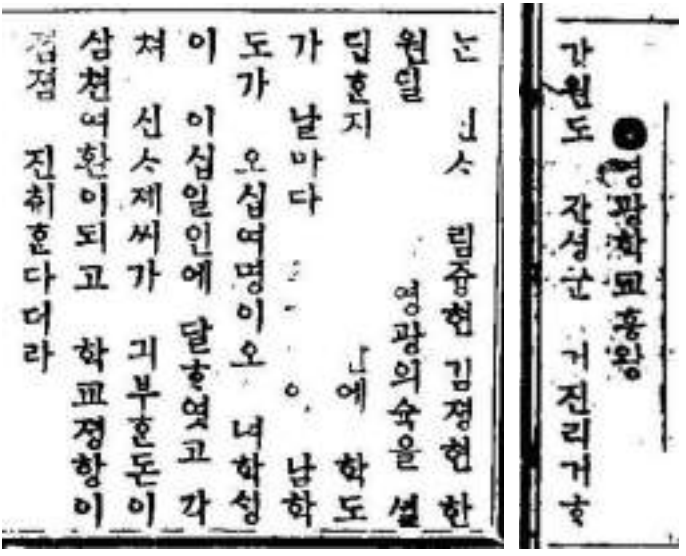


〈황성신문, 1909.12.28일자〉

<간성군 영광>

간성군 거진리에 유지 신사 임중현, 김정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 제씨가 협의하고 자재를 구취(모음)하여 사립영광의숙을 창설하였다. 학생이 우선 40여 명에 달하고 여학생이 13명이다. 내외국에서 의연한 제씨의 성의를 모두 칭송한다더라.

〈황성신문, 1909.12.29일자〉



●영광학교흥왕
강원도 간성군 거진리거ᄒᆞ
눈 ᄉᆡ스 림중현 김정현 한
원일 영광의숙을 설
딥ᄒᆞᆫ지 ᄂᆡ에 학도
가 날마다 ᄂᆞᆫ 남학
도가 오십여명이오 녀학싱
이 이십일인에 달ᄒᆞ엿고 각
쳐 신ᄉᆞ제씨가 긔부ᄒᆞᆫ돈이
삼쳔여환이되고 학교졍항이
졈졈 진취ᄒᆞᆫ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1.23.일자〉

<영광유광>

강원도 간성군 거진리에 사는 신사 임중현, 김정현, 한원일 등 제씨가 영광의숙을 설립한 지 1달여 만에 생도가 날로 증가하여 남자 생도가 50여 명이고, 여학생이 21명에 달하였다. 각처 신사 제씨가 의연한 금액이 3천여 환에 이르렀고, 학교 상황이 날로 발전하고 교사 윤태래는 의무로 교수한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1.28.일자〉

간성노동야학교(勞動夜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
- **설립 시기** 1909년경
- **설립 주체** 간성군 노동자 등

개화기 초기 야학은 사립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으나, 1908년 이후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천성호, 전게서, 77쪽) 간성군에도 최초의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립되었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간성군 노동자 등이 모여 발기하여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 자제들을 모집하고 교수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남현필이 의무로 교수한다"고 전한다.(1909.8.14. 황성신문)특히 이 학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노동야학사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다.

〈황성신문, 1909.8.14일자〉

<간성노동학>

간성군 노동자 등이 회동, 발기하여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제를 모집, 교수하는데,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남현필 씨가 의무로 교수하고 있다.

측량학교(測量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내/ 구산면 월안리
- **설립 시기** 1909년경
- **설립 주체** 최돈철

<임(명) 간성군 향교직원 최돈철>

〈황성신문, 1909.4.1.일자〉

<최씨 흥학>

간성군 구산면(1910. 4. 25 오현면에 통합) 월안리(원당리 일부)에 사는 최돈철 씨가 작년(1908) 10월에 봉명학교 내에 측량과를 설치하고 생도를 모집, 교수하여 졸업생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이후 자기의 묘실에 학교를 또 설치하고 생도를 열심히 교수한다.

〈대한매일신보, 1909.6.30일자〉

신명학교(新明學校)

학교의 위치, 설립 시기 등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조선일보(1937.12.2.)의 〈고성소개판〉에서 지역의 입지전적 인물로 오대면 거진리 태생의 한규용(韓奎鏞) 변호사를 소개하는 가운데 신명학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한규용의) 20 내외에 당시 처음으로 설립된 고향의 신명학교에서 공부"로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1937.12.2일자〉

〈고성소개판〉 '입지전중의 인물'에서 소개되었다.

개화기 정리

이상은 고성 지역의 개화기 근대학교에 관한 신문기사 및 문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고성지역의 근대학교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설립의 주체를 보면, 군수, 군주사, 지역인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수성학교)와 군 주사가 설립에 가담한 경우(창신의숙), 그리고 지역유지들과 면장 출신이나 서숙의 훈장이 참여하는 경우(영광의숙), 그리고 지역유지가 설립하는 경우(공명의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들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아 군 주사나 서당 및 서숙에서 훈장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광의숙처럼 사범학교와 유학파인 신지식인 출신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었다. 학교마다 교사는 1-2인 정도였으나, 공명의숙처럼 학교임원이 6명이고 업무분장이 세분화된 경우와 학생이 많은 명동학교는 2명 이상의 교사가 있었을 것이다.

교장은 주로 명예직이고 교원이 겸임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은 공명학교에서 보듯이 주로 4년제(보통학교)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년을 학기별로 나누고 방학을 실시하였으며, 일과표에 따른 수업의 진행, 교과시간의 표준화 등으로 볼 때 근대학교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목은 주로 조선어 및 한문, 수신, 일본어, 산술, 이과, 도화, 창가, 수공 등이었다. 봉명학교와 명동학교처럼 측량과목도 개설하여 시무교육(時務敎育)을 실시하는 등 시세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일본은 1908년 〈교과용 도서검정 규정〉을 공포하여 교과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당시 청소년들의 필독서인 『유년필독』(1907년 발간) 같은 교재도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학기와 학년, 그리고 졸업시험으로 구분되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공명의숙이나 명동학교에서 진급(졸업)시험을 실시한 기사로 볼 때, 학년말 시험으로 진급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학연령은 보통 8세 ~10세 정도이고, 재학생 규모는 군내 '7개교 600명' 수준이었으니 적지 않은 인원이다.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는 학예회나 운동회가 주된 활동이며, 기타 독서회나 강연회도 열었다. 봉명학교의 경우 각종 학예회와 운동회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공명의숙도 연합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교내외활동에 열심을 보였다. 특히 운동회는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협동심을 고양시키는 활동이 되었으며, 지역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민족의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봉명학교의 운동회에 구경꾼이 3천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후에 일제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를 열지 못하도록 탄압하기도 하였다. 수성학교는 옛 객사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다.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교육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공명의숙의 경우 '찬무'라는 직책을 두고 찬무회도 조직하여 학교운영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환경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찬무회는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다. 이런 점에서

공명의숙은 교육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근대학교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고성의 근대학교들은 근대문명이 개화되는 시기에 지역인재의 발굴에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설립되는 공립보통학교에 교육의 자리를 내주기도 하면서 역사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곳 고성지역은 개화문명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전파되었다. 인근 개항지 원산을 통하여 시작된 개화문물은 이곳 영동지역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고성지역은 교육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일찍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많은 학교들이 설립될 수 있었고, 인근 지역보다 신학문 교육이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제6장

일제강점기의 교육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라는 권력기구를 통하여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소학교(6년제)와 중학교(7년제)로 나누었던 갑오개혁의 학제를 다시 개편하여 소학교의 심상과와 고등과를 통합하여 보통학교로, 중학교 역시 심상과와 고등과를 통합하여 고등학교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모두 4년으로 단축시켰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교육을 제한하는 조치로 우민화 정책의 시작이었다. 또한 보통학교 1학년부터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고 조선의 지리 및 역사과목을 통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높은 수준의 기술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는 식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어 1910년부터 일제는 국토를 강점하고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통한 우민화 교육을 철저히 전개하였다.

1. 제1차 조선교육령(1910~1919)

사립학교 및 서당 통제

초대 총독 테라우치는 1911년 8월에 첫 번째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목적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2조)이고,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3조) 하며, 교육은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눈다.(4조) 수업연한은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모두 4년으로 하지만,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 실업학교는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입학연령은

보통학교 8세 이상이고 고등(여자)보통학교와 실업학교는 12세 이상으로 한다. 특히 교과목과 교과서는 모두 조선총독이 정하고,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교육령의 특징을 보면, 우선 일본인과의 교육차별이다. 일본인의 학교는 소학교(6년),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5년)로 명칭과 교육연한이 달랐다. 또한 조선인을 위한 대학교육은 허용하지 않았고, 전문교육도 1915년이 돼서야 공포하였다. 나아가 사립학교규칙(1911)과 개정 사립학교규칙(1915)이 공포되고, 1918년에 서당규칙이 공포되었다. 서당규칙은 민족교육의 풀뿌리인 서당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듯 각종 탄압과 더불어 충량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일본어를 보통학교 1학년부터 학습시켰다.

이 시기 학제의 내용과 실시를 살펴보면, 보통학교의 경우 교과목으로 수신, 조선어 및 한문, 일어, 산술(필수)이 있고, 그 밖에 이과, 창가, 체조, 도화, 수공 등이 사정에 따라 선택되었다. 특히 조선어와 한문은 주요 과목으로 주당 5~6시간이 배정되었다. 기타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일어로 되어 있다. 일어는 가장 많은 시수를 차지하면서 교수 용어가 되었다. 학교의 설립과 유지비용은 향교재산 수입과 수업료, 기부금,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주민 부담 등으로 충당하였다. 1910년대 당시 공립보통학교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간성군에도 간성공립보통학교만이 설립되었다. 한편 당시 인가된 사립학교의 경우는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10년 유예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감시가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어 학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다.

2. 제2차 조선교육령(1919~1938)

3面1校에서 1面1校, 간이학교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거국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문화통치라는 유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는 1922년 2월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것이다. 2차 교육령에서는 수업연한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따라서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 고등보통학교 4년(혹은 5년)으로연장하였으며,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명칭은 서로 달랐다. 일본인 학교는 '소학교'이고 조선인 학교는 '보통학교'였다. 초등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관공립 사범학교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학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보통학교가 다소 팽창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1919~1922년 사이 3면 1교 정책을 추진하고, 이어 1929~1936년 사이에 1면 1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수가 500여(1919) 개에서 2,300여(1935) 개로 증가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1931년 새로운 총독의 부임으로 소위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으로 농촌 갱생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촌 간이학교제도가 창설되었다. 간이학교는 1934년 처음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580여 개가 설립되었다. 수업연한은 2년이고, 교육목적은 일본어를 생활화

하는 것과 직업에 관한 초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학급은 1학급이고, 연령은 10세를 표준으로 하며, 교원은 1교 1인이 원칙이었다.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산술, 직업과로 되어 있었다. 고성군에도 다수의 간이학교가 창설되었다.

1920년대는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교육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각종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적인 불만들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는데, 학교측이 이행하지 않자 동맹휴학을 하였다. 1920년 5월 보성고보에서 시작한 동맹휴학은 서울의 주요 고등보통학교들이 거의 다 동참한 운동이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처음에는 시설의 개선, 무자격 교사의 배척, 학생 자치권 보장, 언론 집회의 자유, 수업료 철폐, 한국인 교사 채용과 같은 것이었으나, 점차 정치적인 요구로 변화되어 일본어 강요 반대, 일인 교사 배척, 한국어와 한국역사 교수, 신사참배 반대 등으로 번져갔다. 당시 동맹휴학의 통계에 의하면 1920년에 20건이었으나,1927년에는 72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나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일학생운동의 절정은 1929년 11월 3일의 광주학생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파급은 전국적으로 번져갔으며 보통학교까지 영향을 미쳤다. 통계에 의하면 194교에서 5만 4천여 명이 가담하였다고 한다. 처벌 학생도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이었다고 하니 당시의 학생들의 항일투쟁의 의지와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오천석, 전게서, 228-229쪽)

3.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5)

조선어 폐지, 동원 교육

일본은 만주사변(1931)을 시작으로 중일전쟁(1937), 그리고 태평양전쟁(1941)으로 이어지는 전쟁기간 동안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아 모든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면서 문화말살정책을 실시했다. 1938년 3월에 총독은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이라는 3대 교육강령을 내리고 모든 학교의 목표로 삼았다. 국체명징은 모든 국민은 나를 죽여 충을 다하여 국가 전체의 번영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내선일체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역사적 공동체로서 다같이 황국신민으로 서로 신애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인고단련은 언제나 하나의 죽음으로써 군신을 받들려는 각오로 어떠한 곤란도 이겨내는 실천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38년 3월에 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모든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심상)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어, 일본역사, 수신, 체육 등의 교과를 확충함으로써 황국신민화를 강화하였다. 교수요지, 교과목, 교과과정에서 조선어를 없애고 일본인과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사립 중학교의 설립을 불허하였다.

1941년 3월에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국민학교는 '황국신민의 학교'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도 국민학교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우리 교육계의 각성이 얼마나 무딘지 알 수 있겠다. 결국 1996년에야 비로소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한국인을 군사목적에 총동원하려는 의도에서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였다. 그것이 제4차 조선교육령(1943년 4월)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 시행이고,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중학교 5년, 고등여학교 4-5년, 실업학교 3-5년으로 하였다. 또한 교과목을 간소화하고 통합교과로 하였다. 특히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주요 교과목은 수신, 일어(국어), 역사, 지리, 창가, 체육 등이다. 학교에서는 황국신민체조도 강요하였다. 하나의 모범적인 국민학교를 통하여 구체적인 학교의 일상을 소개하면 이렇다. 교실정면에 궁성사진과 황국신민서사가 걸려 있어 학생들은 교실 출입시 경례를 해야 하고, 교단을 오를 때에도 인사를 해야 하며, 칠판에는 '지나사변'(중일전쟁) 지도를 걸어 전쟁의 상황을 알렸다. 이것은 국민학교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중등학교에도 동일하였다. 한국인의 일본인화 교육은 정규교육은 물론 교내외 각종 행사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전쟁 노력에 협력하도록 강요하였는데, 소위 근로동원이라 하여 식량 및 전쟁물자 증산, 국방시설과 토건공사, 그리고 각종 공장의 작업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오천석, 전게서, 348-349)

강원도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변경

江原道內各初等學校
校名을一齊變更
一日부터小學校로統一

〈매일신보, 1938.4.5일자〉

4. 일제강점기 고성군의 공립학교 현황

1) 공립보통학교 및 중학교

일제강점기 고성(간성)군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공립학교는 간성공립보통학교(1912)이다. 간성공립보통학교는 개교 이래 여러 차례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학교 이름의 변천은 바로 100년의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학적으로 보면 학교명칭에는 학제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교명이 변경된다는 것은 대체로 학제의 변천을 의미하고 때로는 정치사회적인 변화까지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간성공립보통학교의 변천사를 일별하면 전체적인 교명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간성공립보통학교(1912), 간성보통학교(1926), 간성(공립)심상소학교(1938), 간성국민학교(1941)로 변경되었으며, 해방 후 북한통치 시기에는 간성인민학교(1945)로 개칭되었다가 한국전쟁을 겪고 소위 '수복' 후에는 교사(校舍) 이전과 더불어 간성국민학교(1954)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되었으나, 1996년에 국가적으로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서 '초등'으로 변경하여 간성초등학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한 공립학교에는 일본인 교장 및 교사(훈도)가 1인 이상 반드시 배치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1941년 심상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개칭한 이후로는 모든 학교의 훈도 전체를 일본인

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아마 전쟁준비를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일본인 훈도의 배치현황을 보면, 간성국민학교 9명, 천진국민학교 7명, 오호국민학교 6명, 대진국민학교 5명, 거진국민학교 4명, 수동국민학교 1명, 인흥국민학교 1명이 각각 배치되었다.(조선총독부, 〈직원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아래의 학교일람표는 『고성군지』(1986년)와 〈조선제학교일람〉(1937년) 및 〈조선총독부관보〉의 내용을 교차 반영하여 재작성한 표이다.

〈일제강점기 공립학교 일람표(설립순)〉

학교명	설립 및 인가	소재지	비고
간성공립보통학교	1912.3.6. 認	간성군 군내면 중리	조선총독부관보
고성공립보통학교	상동	고성군 동면 동리	상동
장전공립보통학교	1920.6.9. 認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	상동
오호공립보통학교	1923.8.29. 認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	상동
천진공립보통학교	1926.3.27. 認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	상동
대진공립보통학교	1927.11.10. 認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상동
수동공립보통학교	1929.11.27. 認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상동

오대공립보통학교	1930.5.3. 認	고성군 오대면 봉평리	상동
송탄공립보통학교	1934.7.7. 認	고성군 서면 송탄리	상동
외금강공립 보통학교	1937.10.14. 認	고성군 외금강면 양진리	상동
인흥공립심상 소학교	1940.11.15.	양양군 토성면 인흥리	1940.12.12. 개교식
금강공립중학교	1942.3.31. 認	고성군 장전읍 성북리	고성군 최초 공립중학교
공현진국민학교	1942.4.1	양양군 죽왕면 공현진리	고성군지(1986)
광산국민학교	1942.4.10	고성군 간성면 광산리	상동
명파국민학교	1942년경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간이학교에서 승격
대강간이학교	1934.6.19. 認	고성군 고성면 대강리	고성공립 보통학교부설
신흥간이학교	상동	고성군 신북면 신흥리	장전공립 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	1935.6.1. 認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대진공립 보통학교부설
학야간이학교	1935.9.7. 認	양양군 토성면 학야리	천진공립 보통학교부설
구성간이학교	1937.7.30. 認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	오호공립 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	1937.10.7. 認	고성군 간성면 장신리	간성공립 보통학교부설
초계간이학교	1938.4.1.(군지)	고성군 거진면 초계리	오대심상 소학교부설
송강간이학교	1940.4.1.(군지)	고성군 거진면 송강리	오대 심상소학교부설
백촌간이학교	1942년경(군지)	양양군 토성면 백촌리	천진공립 국민학교부설

※『고성군지』(1986)는 '군지'로 표기함

[추기]

『고성군지』(1986)의 기록에는 1943년 5월 당시 고성군 관내 국민학교와 간이학교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 기록의 근거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선제학교일람』(1943년도 편찬)을 들고 있다. 현재 이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군지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공립국민학교>

금강(1학급), 고성동(5학급), 장전동(5학급), 고성남(21학급), 간성(11학급), 장전남(25학급), 대진(6학급), 거진(8학급), 송탄(6학급), 외금강(6학급), 일북(4학급), 안창(3학급), 양동(3학급), 수동(3학급), 광산(2학급), 신탄(1학급), 보현(1학급), 초계(1학급), 명파(1학급), 오호(5학급), 천진(8학급), 인흥(3학급), 백촌(1학급), 공현진(1학급) [오호, 천진, 인흥, 백촌, 공현진국민학교는 당시 양양군에 속함]

<공립학교부설 간이학교>

간성국교부설 장신(1학급), 거진국교부설 송강(1학급), 외금강국교부설 서아(1학급), 신흥국교부설 신흥(1학급), 보현국교부설 보현(1학급), 초계국교부설 초계(1학급), 명파국교부설 명파(1학급), 백촌국교부설 백촌(1학급), 공현진국교부설 구성(1학급)

〈공립보통학교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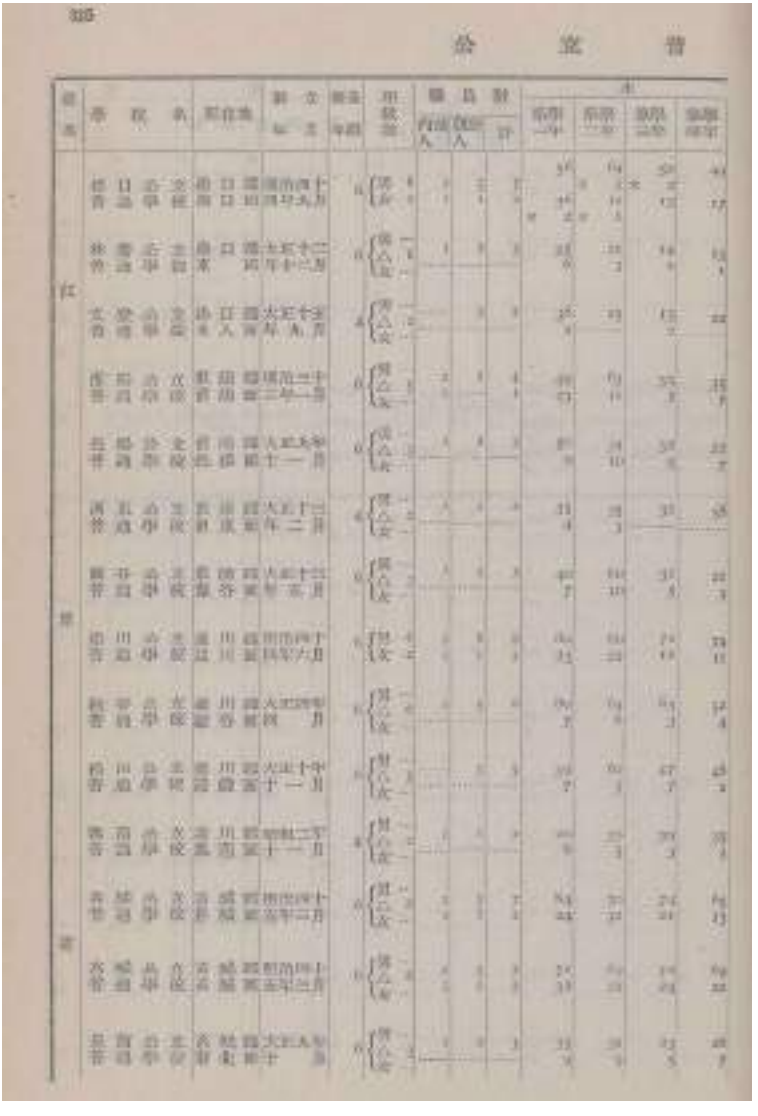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1929	1931	1937	1929	1931	1937
간성공립 보통학교	6	6	6	8	8	9
고성공립 보통학교	6	6	6	6	8	10
장전공립 보통학교	6	6	6	3	3	9
대진공립 보통학교		4	4		2	2
수동공립 보통학교		4	4		2	1
오대공립 보통학교		4	4		2	2
송탄공립 보통학교			4			1
오호공립 보통학교	6	6	6	3	3	3
천진공립 보통학교	4	4	6	2	2	3

※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선제학교일람』(1929, 1931, 1937년도 편찬)을 참고하였다.

〈1929년 5월말 현재 공립보통학교의 상황〉

학교명	소재지	창립 연월	수업 연한	학급수	교원수	생도수
간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간성면	명치 45년 3월	6	8	남7(日人2)	남438
					여2(日人1)	여118
고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고성면	명치 45년 3월	6	6	남7(日人2)	남415
					여2(日人1)	여129
장전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신북면	대정 9년 10월	6	3	남3(日人1)	남173
					여0	여38
오호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죽왕면	대정 13년 4월	6	3	남2(日人1)	남208
					여1	여12
천진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토성면	대정 15년 3월	4	2	남1(日人1)	남122
					여1	여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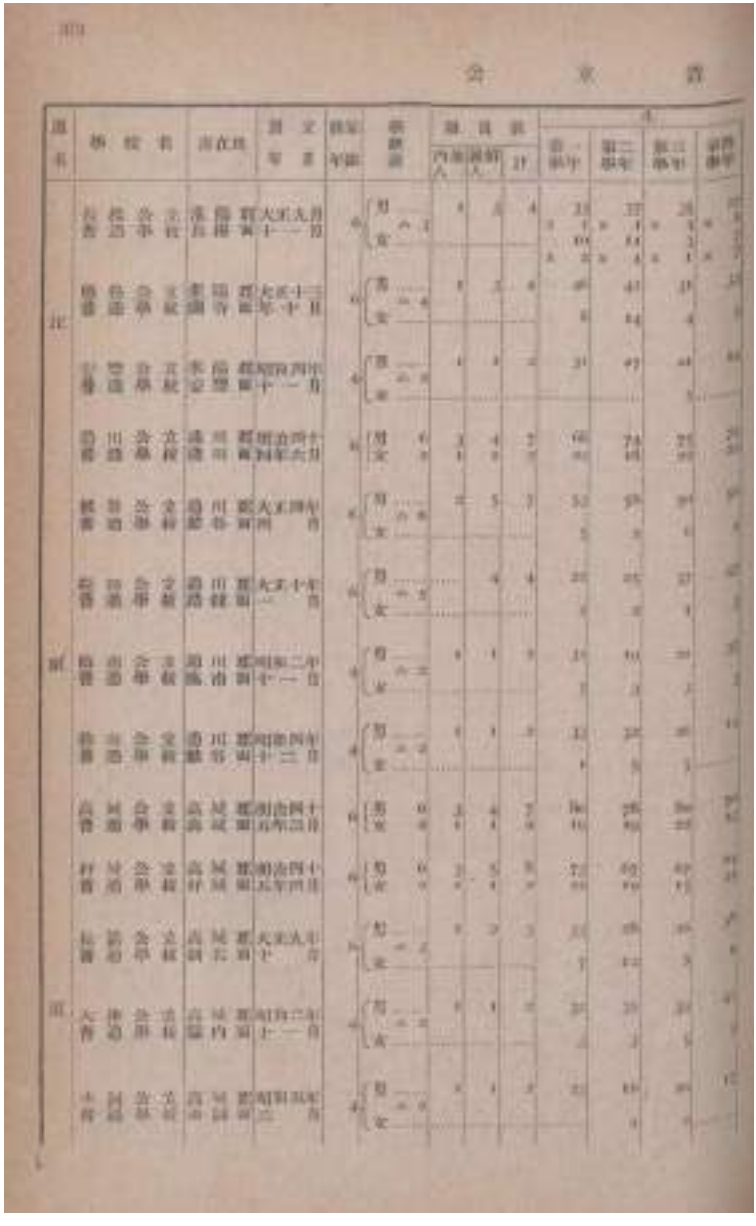
〈조선제학교일람』(192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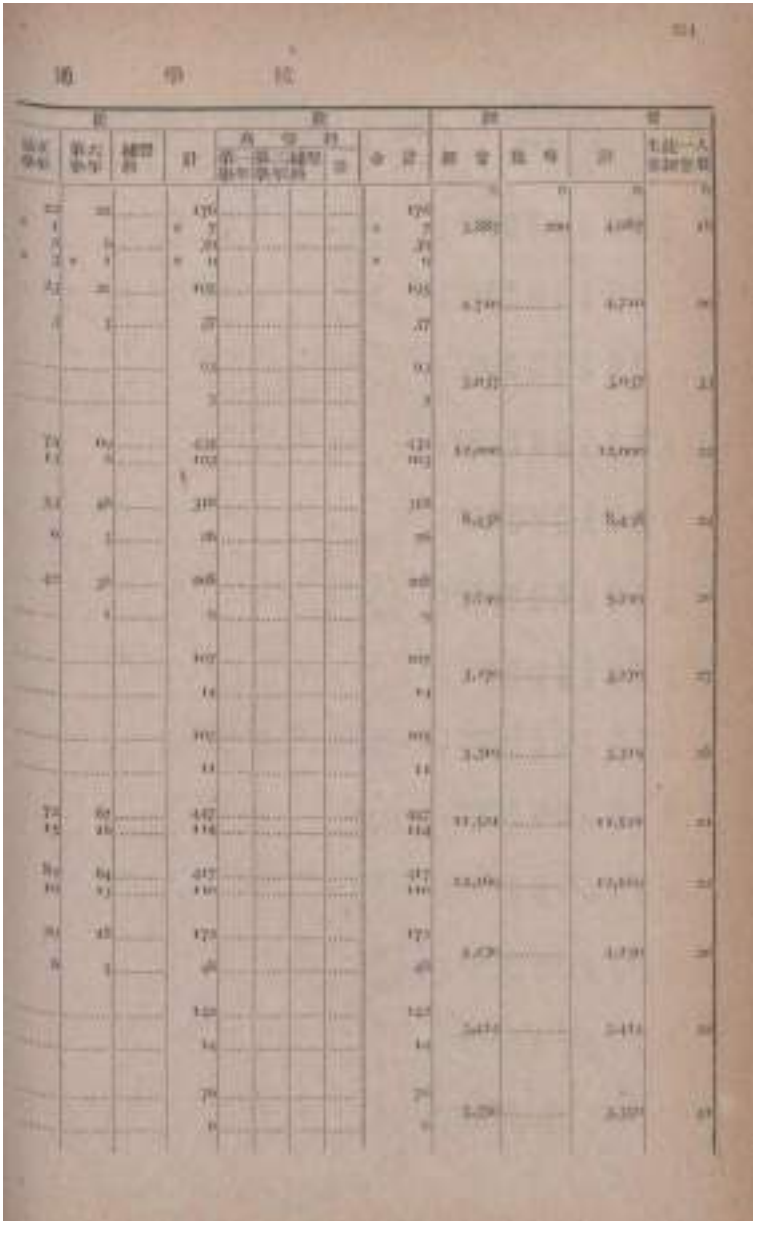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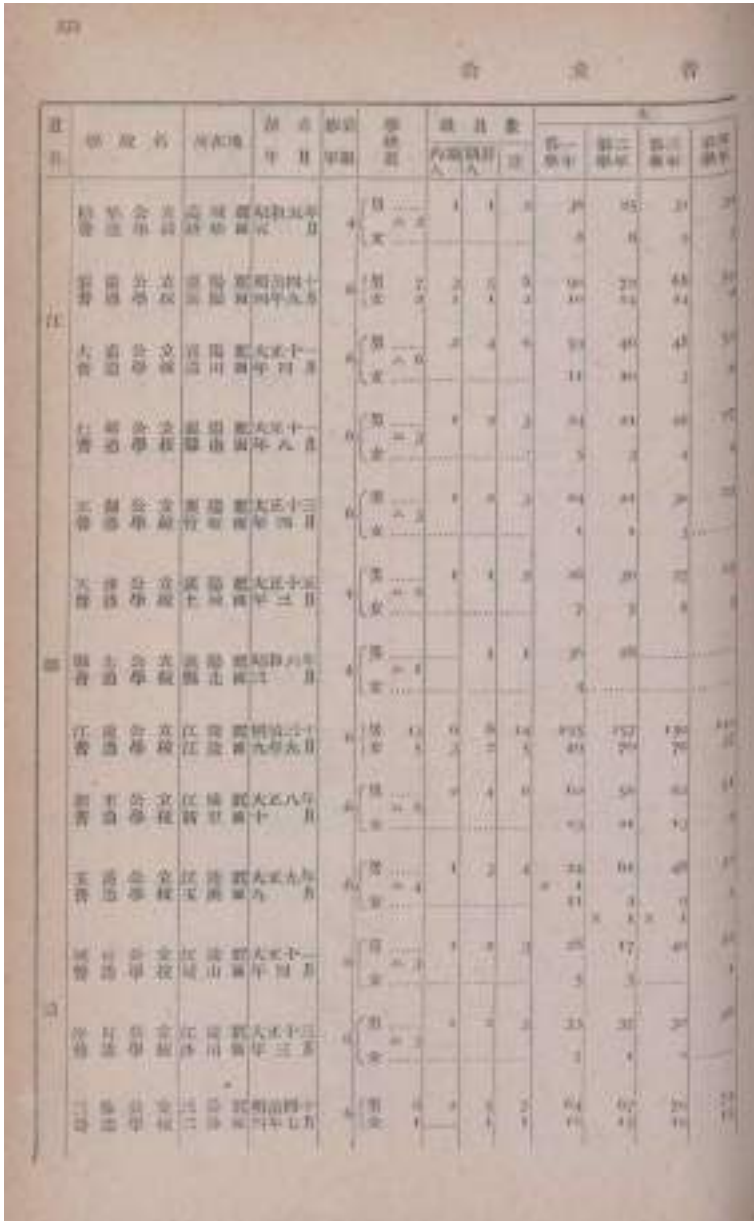
〈공립보통학교-1931년 5월말 현재〉

학교명	소재지	창립 연월	수업 연한	학급수	교원수	생도수
간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간성면	1912년 3월	6	8 (남6/여 2)	남8(日人4)	남417
					여2(日人1)	여114
고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고성면	1912년 3월	6	8(남6/ 여2)	남7(日人4)	남447
					여2(日人1)	여110
장전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신북면	1920년 10월	6	3	남3(日人1)	남172
					여0	여48
대진공립 보통학교	현내면	1927년 11월	4	2	남1	남142
					여1	여14
수동공립 보통학교	수동면	1930년 2월	4	2	남1	남76
					여1	여6
오대공립 보통학교	오대면	1930년 5월	4	2	남1	남126
					여1	여28
오호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죽왕면	대정13년 4월	6	3	남2(日人1)	남155
					여1	여5
천진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토성면	대정15년 3월	4	2	남1(日人1)	남108
					여1	여21

〈공립보통학교-『조선제학교일람』(1937년도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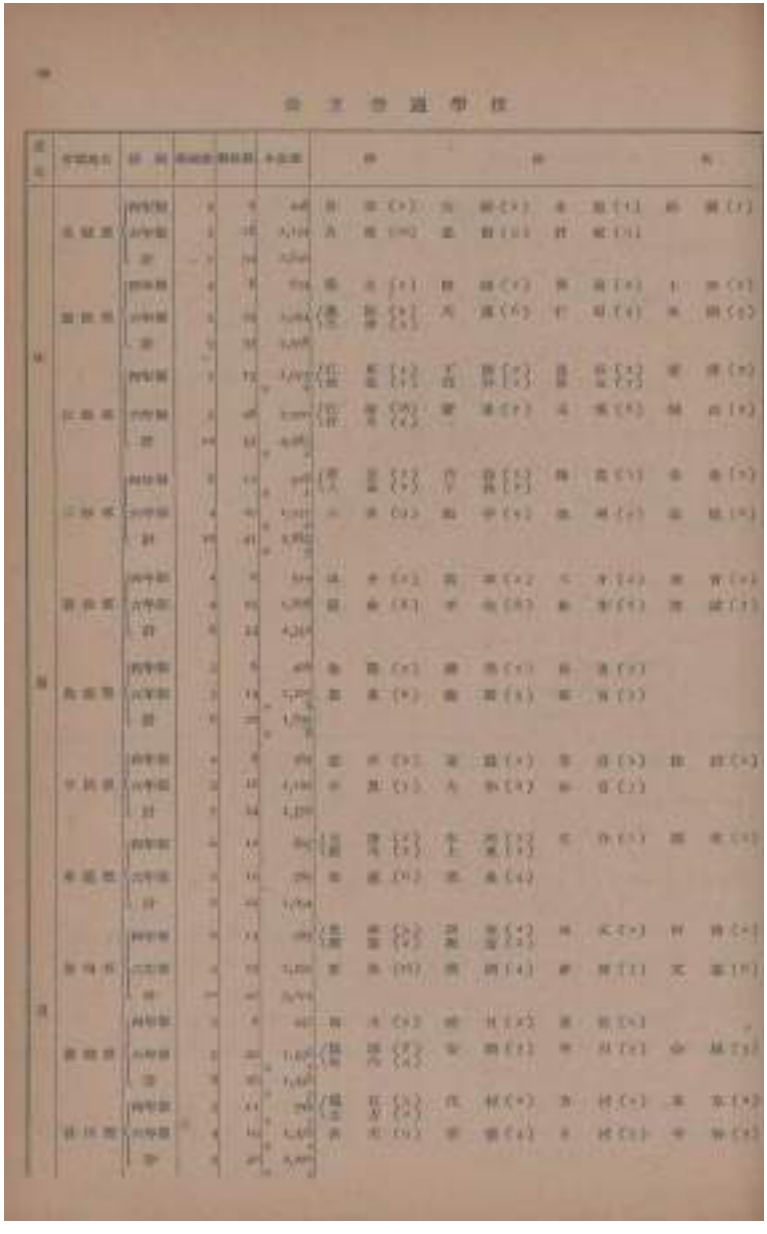




〈공립보통학교 현황(1937년도 5월말 현재)〉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간성공립보통학교	6	9
고성공립보통학교	6	10
장전공립보통학교	6	9
대진공립보통학교	4	2
수동공립보통학교	4	1
오대공립보통학교	4	2
송탄공립보통학교	4	1
오호공립보통학교	6	3
천진공립보통학교	6	3

〈공립보통학교-『조선제학교일람』(1937년도 편찬)〉



간성공립보통학교(杆城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 중리 객사(客舍)
- **설립 시기** 1912년 3월 6일 인가(조선총독부고시 제75호)
- **설립 주체** 사립 수성학교(1908)가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됨

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관보 제457호(1912.4.8.일자)〉

간성공립보통학교의 설립시기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어 그 사정을 밝힌다.『고성군지』(1986년)를 비롯하여 간성초등학교의『백년사』

(2012년), 그리고 간성초등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연혁에서는 설립 또는 개교일자를 1910.5.10로 하고 있으나,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제학교일람〉(1937년)에는 명치 45년 4월로, 〈조선총독부관보〉에서는 명치 45년(1912년) 3월 6일에 인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령의 효력을 가진 관보의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더라도 1912년에 훈도 3명(일본인 1명과 조선인 2명)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간성공립보통학교는 명치(明治) 45년(1912) 3월 6일자로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7호〉, 조선총독부고시 제75호) 한편 간성공립보통학교는 1908년 말 간성군 객사에 설립한 사립 수성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수성학교의 교사(校舍)와 학생은 보통학교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42쪽) 따라서 간성공립보통학교의 기원은 수성학교의 설립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치는 현재 교육청이 자리잡고 있는 주변 일대가 된다. 설립 이후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교사를 증축하였다. 또한 1914년 강원도내 공립보통학교에 국어강습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간성초등학교는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교사를 건축한 것이다.

1940년 당시 교사(校舍)와 부속건물을 보면, 교사 3동, 부속건물 7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 (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교사(校舍)〉

위의 상단 사진(교직원실)은 조선시대 객사로 사립 수성학교(1908)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수성학교는 1912년 간성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이후 하단 사진의 교사(교실)가 추가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자료제공:『백년사』간성초등학교동문회, 2012

〈1943년도 교직원 일동(고성군지2020)〉

〈졸업증서, 간성초등학교『백년사』제공〉

간성공립보통학교는 설립시 4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점차 여학생의 증가로 여학급 1급을 증설하였다.(매일신보, 1918.4.23.)

<간성보교 운동회>

강원도 간성공립보통학교 육상 가을대운동회는 이달 12일 오전 9시 예정과 같이 동교 광정에서 藤田 교장의 간독한 개회사를 비롯하여 전교생 남녀 6백여 명의 장엄한 입장식을 마치고 담임 선생의 순서를 따라 각종 경기와 유희가 시작되었다. 남녀 아동은 활발하고 규칙적으로 수천 관람자의 나란히 집주중인 가운데 유쾌히 행하였다. 당교 직원의 주도한 준비와 철저한 교련은 물론이오, 동창회와 학부모회에서도 다대한 원조가 있음은 감하한 일이며, 음악석의 연속적인 연주와 구호석의 설비 및 내빈석의 수백 명, 부인석의 수백 명, 타교생도석의 수십 명, 일반 관람석의 수천 명의 대성황리를 이룬 후 오후 4시에 무사히 폐회하였다.

千城普校運動會

〈매일신보, 1931.10.17일자〉

<고무신을 버리고 집석이만 신어>

간성보교에서 단행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에서는 경제부흥을 목적과 자작자급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최근에는 시내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남녀생도 500여 명이 전부가 사용하던 고무신을 폐지하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집석이(짚신)를 신었다.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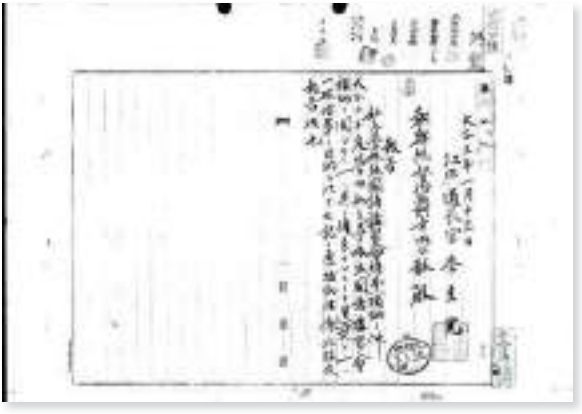
고무신을버리고
집석이만신어
杆城普校에서斷行
洪城郡農會
棉作奬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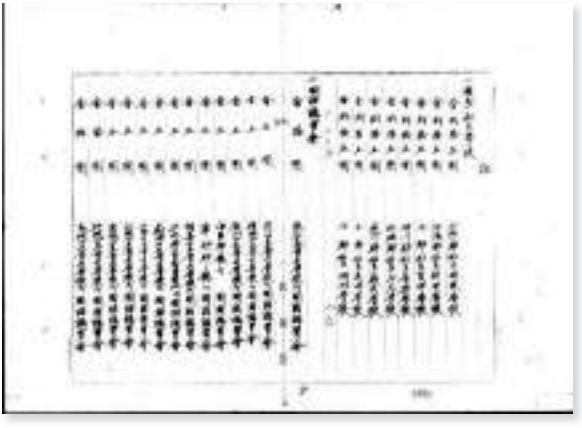
〈조선일보, 1933.4.30일자〉

※간성공립보통학교내 국어(日語)강습회 설치 운영(1914년)

1914년 강원도내 공립보통학교내 국어강습회를 설치하고 보조금(5원)을 지급하였다.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고성공립보통학교(高城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동면 동리
- **설립 시기** 1912년 3월 6일 인가(조선총독부고시 제71호)

朝鮮總督府官報
第貳百五十七號
明治四十五年三月八日
朝鮮總督府印刷局
○告示

〈조선총독부관보, 제457호(1912.3.8.일자)〉

<고성공보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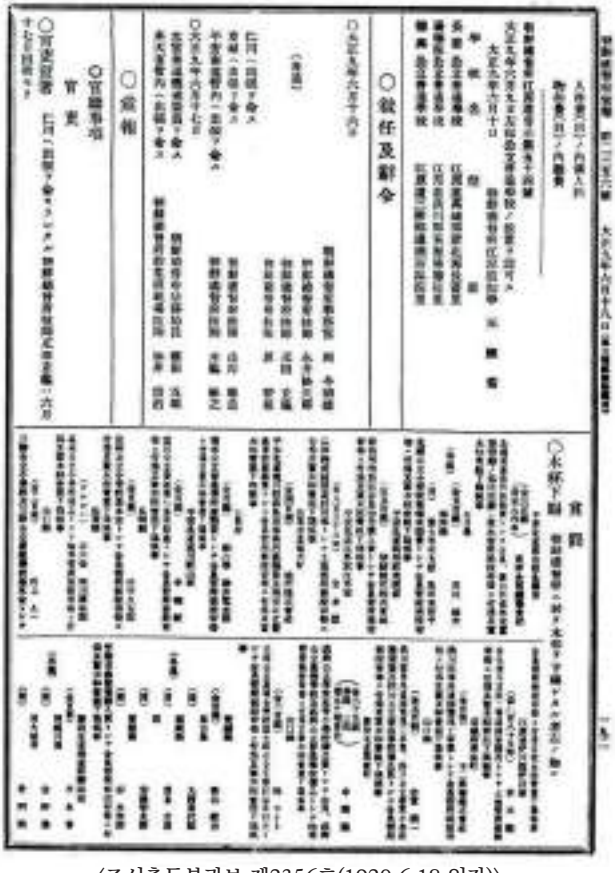
부속 속성과와 야학생 수료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1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남자 6학년 졸업은 금회 2회로 졸업생이 19명이오, 여자 4년 졸업생이 2명이다. 우등생으로 남학생 이익환 1명이었다. 당일은 동교에서 경영하는 속성과 71명에 대한 수료식과 금년 1월부터 신설하고 개학한 야학생도 32명에 대하여 성적우량자와 정근자에 해하여 상장 및 상품 수여식을 겸행하였다. 고성수리조합 이사 堀口勝太郎 씨는 전일 자기주택화재 당시 동교 생도중 소방에 노력한 자 84명에 대하여 사례를 표하려고 잡기장 3책씩을 기증수여 하였고, 학부형 측으로 박영수 씨, 본과 속성과 야학부 생도 중 정근자 100명에 대하여 백로지 1매씩을 상여하였다.

〈매일신보, 1924.4.6일자〉

장전공립보통학교(長箭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1919.5.15.일부로 고성군으로 편입)
- **설립 시기** 1920년 6월 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54호)



〈조선총독부관보 제2356호(1920.6.18.일자)〉

오호공립보통학교(五湖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
- **설립 시기** 1923년 8월 2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1호)
  낙성식 1924년 11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 제3327호(1923.9.12.일자)〉

조선총독부의 〈조선제학교일람〉(1937년)에 따르면, 오호공립보통학교의 창립 시기는 '대정 13년(1924) 4월'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23년 8월 29일에 설립 인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서는 1925년에 훈도 2명(일본인과 조선인)이 배치되었다. 학교의 교사는 1924년 11월 15일에 낙성식을 가졌다.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 연혁에는 1924. 4. 1 개교로 되어있다. 개교 이후 교사가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

<오호공보낙성>

지난 15,16 양일간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오호공립보통학교에서 낙성식과 축하운동회를 거행하였다. 참관자가 3천여 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五湖公普落成

〈조선일보,1924.11.24일자〉

<순회탐방> 산명수려하고

지미가 비옥-양양 일기자

오호공립보통학교는 죽왕면 오호리에 있으며, 갑자(1924년) 4월에 설립되었다. 4년제 학교이고 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아동수는 144명, 교원은 2인이다. 금년 봄 졸업생까지 총 73명이다.

〈동아일보, 1927.9.5일자〉

천진공립보통학교(天津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토성면 천진리
- **설립 시기** 1926년 3월 27일 인가
- **설립 과정** 1923년 기성동맹회 조직, 천진리 솔밭에 사설학술 강습소를 설치, 1926년 공립보통학교 설립하면서 강습소 폐지 및 학생들 보통학교로 전원 편입됨

천진공립보통학교의 설립시기에 대하여도 이론이 있다. 『고성군지』(1986년)에서는 설립일이 1925.3.2.자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대정(大正) 15년(1926) 3월 27일에 인가받아 설립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5호〉,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36호)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면 1926년에 훈도 2명(일본인과 조선인)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교의 주소지는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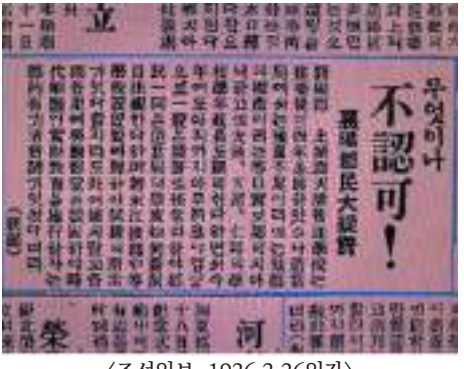
토성면 주민들은 1923년 학교설립 기성동맹을 조직하고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을 염원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먼저 강습소를 개설(1924.6)하였다. 이후 천진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얻으면서 강습소는 폐지하고 학생들은 그대로 보통학교로 편입되었다. 사설강습소가 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학교의 개교는 1926년 4월 1일로 추정된다. 다만, 천진공립 보통학교

는 1924년 6월에 설립된 사설학술강습소가 승격된 학교이므로 보통학교의 역사는 1924년 6월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설립 관보 : 조선총독부관보 제4085호(1926.4.5일자),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36호〉

<무엇이나 불인가> 양양군민대의아

양양군 토성면 천진보통학교는 건축 후 3,4년을 경과하였으나 도당국에서 예산부족이거나 타군의 권형(權衡, 균형추, 형평성)이라는 등 구실로 인가하지 않고 있다. 대포, 오호, 인구의 (보통)학교 학년연장도 인가한다 하면서 올해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 일반은 의아하고 괴상하다고 하면서 군민 일동은 도당국의 태도 여하를 괄목 주시하고 있다. 장래 강릉군 중등학교 설치비에 대하여 부과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각면 각리에 노동서당을 설치하여 시대 순응인 실제의 교육을 시행하자는 군내 유력자회의가 있었다.


무엇이나
不認可!
〈조선일보, 1926.2.26일자〉

<천진공보 인가>

양양군 토성면은 공립보통학교를 인가받고자 도당국에 진정하였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다. 이달 6일 도와 총독부 당국에 (다시) 진정코자 기성동맹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토의하던 중 군당국으로

부터 천진학교가 인가되었다는 전화가 도착하여 토의할 여지도 없이 만세로 폐회하였다.

天津公普認可

〈조선일보, 1926.3.12일자〉

<순회탐방> 교육계

산명수려하고 지미가 비옥 - 양양일기자

천진공보교

계해(癸亥, 1923) 추기(가을)에 면내 유지 여러 사람이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결정으로 토성면 천진리 울울한 송림 속에 하나의 교사가 건립되었다. 그후 공립 인가를 얻고자 무한히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함정길 씨외 유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강습소를 설치하고 면내 자제를 도야해왔다. 지난해(1926) 3월에 4년제 인가를 얻게 되었고, 앞의 강습소는 폐강하고 그 아동을 그대로 편입하였다. 현재 2학급에 아동은 남녀 공히 45인으로 교원은 2인이다. 올봄 졸업생이 남녀 공히 22인이라는데, 지난 5월에 內藤 교장 외 면내 유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부속 강습과를 설치하고 교원 1인을 초빙하여 앞에 말한 졸업 아동을 교수 중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27.9.5일자〉

<양양토성공보교 학급연장실현>

사방노은을 교사증축에 기부

학부형의 열성이 주효

양양군 토성면 천진공립보통학교는 1923년도 면민이 자발적으로 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1만여 원의 자원기부금을 모집하여

교사를 건축하고 도당국에 진정하여 제2학급이란 보통학교 인가를 얻어 초등교육에 대한 만반의 시설에 주력하였다. 항상 학급의 불만으로 면민이면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불경기로 인하여 농촌생활의 곤란이 극도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1930) 11월에 학급연장과 교사증축기성회를 다시 조직하였다. 증축예산은 2천원으로 1천원은 면민 자원 기부로 하고, 1천원은 토성면 국영사방공사에 집집마다 인부 2명씩 출역하여 그 노은(勞銀)으로 보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 교사증축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자원(자발적) 기부금은 거의 목적 달성이 되었고, 사방공사에 출역하는 것은 지금 토사 사방공사 주임에게 교섭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 가을에는 증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다. 토성면 주재소 수석인 朝日순사부장은 절실한 후원을 순로롭게 주력하였기에 일반 면민은 칭송하고 있다.

慶陽土城公普校
學級延長實現
學父兄의熱誠이奏効

〈매일신보, 1931.6.16일자〉

<양양 천진 공보교 증축을 일치 가결>

기성회원이 회합하여

양양군 토성면에서 얼마 전 천진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다. 기성회는 7월 24일 학교 사무소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강열 씨가 병으로 출석치 못해 부회장 전창현 씨 사회로 증축비의 징수 방법과 기일을 협의하였다. 역원 중 박의(?)경 씨는 사업 진행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고문 김 토성면장, 조일 순사부장, 한치용 씨의 의견(말씀)이 있고 나서 토의사항은 일반 역원으로 하여금 원만한 일치로 가결되었다. 농촌경제의 불경기로 신음하는 오늘이지만 교육열이 고조된 상황에서 공사의 착수가 늦어도 10월에는 실현될 듯하다.

襄陽天津公普校
增築을 一致可決
期成會員이會合하야
江原道管內의
初等敎員

〈매일신보, 1931.7.31일자〉

<천진공보교 학급연장 실현>

양양군 토성면 천진공립교는 4년제에서 6년제의 갑종 공보교로 승격되었다. 1931년도에 토성면 유지 이강열 씨와 전창섭 씨 등이 천진공보교의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고 이씨가 회장이고 전씨는 부회장이 되었다. 그 이후 6년간은 목적 달성을 위해 분투하여 1천 2백 원의 기금을 모집하였다. 소요 예산액 6천 원을 제출하기까지는 곤란한 점이 있다. 작년 봄 토성면 교암리 유지 한치용 씨와 문암진 어조(漁組) 이사 이규항 씨, 천진공보교 평의원 박종하 등이 학교후원회를 결성하여 맹렬하게 기금모집 운동을 전개하였다. 근 1년간 4천 원의 거액을 모으고 1천원이 부족했다. 지난 28일 오후

凌駕
天津公普校
雄躍を續ける
清州尨大豫
永遠工事と
盛澤山を

〈조선신문, 1937.3.4일자〉

2시 천진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동교 기성회와 후원회의 연합 회의를 열어 부족액 전부는 분배 및 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1일 양양군과 타합(타협)하고 도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년간 토성면의 숙제인 공보교 학년연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당지 유지 한치용, 이강열, 박종하, 장홍준, 이규항, 박민형 씨 등이 다액의 의연금을 출연하는 등 맹활동하였고, 00 천진주재소 수석, 김 토성면장 등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토성면 문화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토성면민 공보기성>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에서는 어린 학생의 교육열이 팽창하였으나 수용할 기관이 없어 토성면 인사가 대정11년(1922년) 11월에 공립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7천원의 금액을 수합하였다. 토성면 천진리에 5천평의 기부 기지와 인부 9천여 명이 열심히 자발하여 목재를 운반하며 기지와 운동장을 닦고, 6천 1백 5십 8원의 건축 청부입찰을 하여 1924년 4월에 2개 교실을 준공하고 양양군 각면 지정 기부금 4천 2백원으로 부속건물 공사를 착수하였다.

학부형과 토성면 동성청년회의 기부금 6백여 원으로 비품도 사들였다. 1924년 6월에 토성면 주최로 강습회를 개설하여 현재 재학생이 129명이고, 열열한 토성면 인사는 금년도(1925년)에는 공립보통학교의 허가를 갈망하며, 지난 9일에 강원도지사 박영철 씨의 지방순찰을 기회로 환영회를 개설하고 공보 허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더라.

〈조선일보, 1925.2.6일자〉

근 1년간 4천 원의 거액을 모으고 1천원이 부족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천진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동교 기성회와 후원회의 연합회의를 열어 부족액 전부는 분배 및 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1일 양양군과 타합(타협)하고 도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년간 토성면의 숙제인 공보교 학년연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당지 유지 한치용, 이강열, 박종하, 장홍준, 이규항, 박민형 씨 등이 다액의 의연금을 출연하는 등 맹활동하였고, 00 천진주재소 수석, 김 토성면장 등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토성면 문화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대진공립보통학교(大津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설립 시기** 1927년 11월 10일 인가, 1928년 4월 1일 개교 추정
- **전신학교** 1920년대 초 설립된 현내사립보통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됨

『고성군지』(1986)에서는 학교 설립일이 1925년 7월 7일(인가)이고, 학교홈페이지 연혁에서는 1926년 4월 1일이 개교일로 되어 있다. 또한 "대진공립보통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1921년) 낙성하여 소화 2년(1927년) 인가를 받은 이래 3년간 다수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매일신보, 1931.3.31.일자) 하지만,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27년 11월 10에 공식 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호〉, 조선총독부강원도 고시 제70호) 총독부의 직원록에는 1928년 훈도 2명(조선인1, 일본인1)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아일보(1927.8.17.일자)에서는 "수동 및 현내에 사립보통학교가 있는데, 남녀 300여 명이다."라는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할 때, 1921년에 낙성한 교사는 현내사립보통학교가 아닐까 추정한다. 1925년 7월 7일에 인가되고 1926년 4월 1일에 개교했다는 기록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입증자료는 조선총독부관보가 유일하다. 따라서 대진공립보통학교는 1927년 11월 10일에 인가되고 1928년 4월 1일에 개교와 함께

교원의 배치가 되었다고 본다. 공립보통학교 이전의 내용은 서당, 혹은 사립학교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있다. 1940년 당시 학교는 교사 1동, 부속건물 3동으로 구성되었다.(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군 교육비 관련 문서〉 참조)

〈조선총독부관보 제275호(1927.11.29.일자)〉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 대진보교 학년 연장운동>

고성군 대진공립보통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낙성하여 소화2년(1927년) 인가를 받은 이래 3년간 다수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 이 학교의 제도는 조선의 현재 제도인 6년급 단식제가 아니고, 4년급 복식제로 되어 있어 모두가 이를 헤아려 살피고 있다. 본교의 수료생은 초등교육이나마 끝마치려면 다시 2년을 다른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 역시 다른 학교의 형편상, 또는 자기 가정의 형편상 진학이 불가능하다. 당초 4년의 형설은 수류운공(水流雲空)에 돌아감으로써 대진공립보통학교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고 방금 운동 중이다.

高城大津普校
學年延長運動

〈매일신보, 1931. 3. 31〉

수동공립보통학교(水洞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설립 시기** 1929년 11월 27일 인가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01호)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수동공립보통학교는 1929년 11월 27일에 인가되었다. 수동면(水洞面)은 고성군 행정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 일부 수복되었으나,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다. 수동면 주민들의 일부가 거진리로 집단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명 '새비촌'(수동면 사비리 주민)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수동면의 보통학교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수동면에서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수동면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자발성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총독부관보 제889호(1929.12.18.일자)〉

오대공립보통학교(梧垈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오대면 봉평리(자산리)
- **설립 시기** 1930년 5월 3일 인가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2호)

〈조선총독부관보 제889호(1929.12.18.일자)〉

『고성군지』(1986년)에서는 설립일이 1929.3.20.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관보〉에서는 소화 5년(1930) 5월 3일에 인가받아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1,017호〉,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2호) 또한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면, 1930년에 훈도 2명(일본인과 조선인)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거진초등학교는 1930년 5월 3일에 오대공립보통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 1928년 4월 1일 사립 개량서당의 설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사립 개량서당이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역사는 1928년 4월 1일 개량서당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개량서당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거진리에는 일찍이 영광의숙(1909) 및 영광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학교의 주소는 오대면 봉평(蓬坪)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거진초등학교의 터인 자산리가 그곳이다.

1940년 당시 학교는 교사(校舍) 1동 부속건물 4동으로 구성되었다.(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군 교육비 관련 문서)

〈동아일보, 1928.3.26.일자〉

<유귀녀 여사 특지로 보교사 건축>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산북리 김의종 씨는 5,6백석에 불과한 재산가이었으나 천부의 자선심이 남달리 풍부

하여 매년 세말(歲末)이면 면내 극빈자들에게 미곡 기타의 복 등속을 기증하는 것을 상례로 하며 공익사업이라 하면 어떤 일이어도 분발하여왔다. 불행히도 지난 해에 사거(死去)하였는데 그 부인 유귀녀 씨가 망부의 유지를 내어 자선과 공익사업에 힘써오고 있다. 오대면은 9백여 호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통학교 1개의 설립이 없어 아동교육에 막대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부터 3년 전(1925) 오대면민들은 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백방으로 활동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류귀녀 씨가 시가 2천여 원이나 되는 토지를 기부하였다. 일반 인사는 이에 탄복하여 1백원 내지 2,3백원의 특별기부가 있었다. 현재 기부금 총액은 1만 1천여 원에 달하여 오는 4월부터 교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기성회원들은 설계에 분망한 상태이며 오대면에 학교가 속히 설립되는 것은 특히 류 여사의 힘이라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오대공보교 4월에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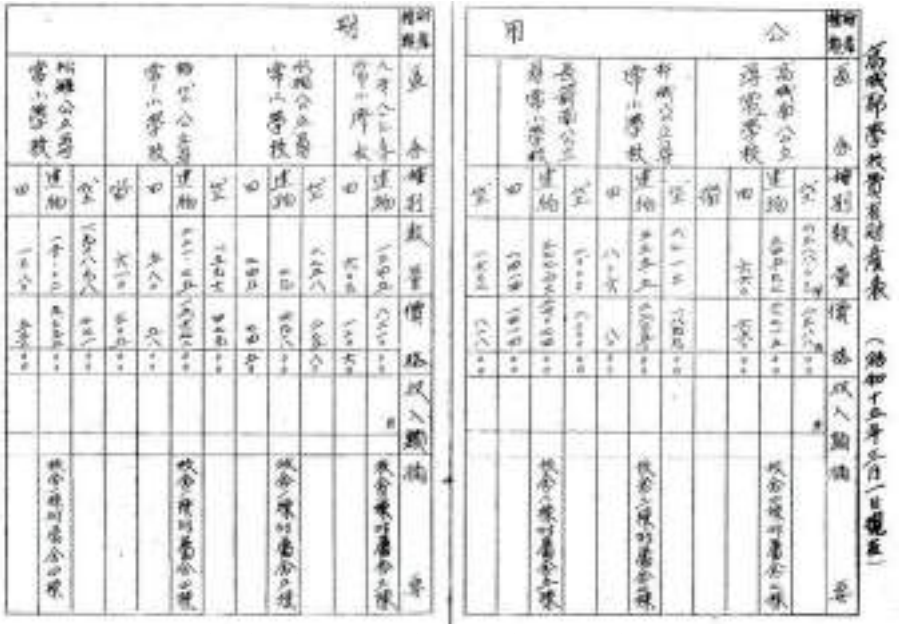
고성군 오대면에서도 면장 함길선 씨의 비상한 노력으로 오대면 중앙에 위치한 자산시(市)에 굉걸한 교사를 신축하고 4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공립보통학교 설치 신청을 제출하였다. 상기 2면에 공립보통학교가 설치 허가되면 군내 최소 양면을 제하고는 모두 1면1교로 되리라.

〈동아일보, 1929.2.23일자〉

<2,300원으로 오대보교 증축>

보습과도 신설

고성군 오대보교에서는 교실이 협착하여 학생수용에 매우 곤란하였다. 도당국의 인가를 얻어 지난 2월 10일부터 2,300원에 기공되어 이번 달 중순경에 학생을 수용키로 완전히 준공되리라 한다. 일반 졸업생을 위하여 보습과도 신설하고 교장 이하 일반 학부형 측에서는 학년연장을 도당국과 교섭하기로 준비 중이다.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송탄공립보통학교(松灘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서면 송탄리
- **설립 시기** 1934년 7월 7일 인가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70호)

朝鮮總督府官報

第二千二百六十一號

昭和九年七月二十四日

〈조선총독부관보 제2261호(1934.7.24.일자)〉

외금강공립보통학교(外金剛公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외금강면 양진리
- **설립 시기** 1937년 10월 14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60호)
- **전신 학교** 사립 금강학원이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조선총독부관보 제제3260호, 1937.11.26일자〉

1926년에 설립된 금강학원이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전환, 승격된 학교다.

<금강학원의 폐원식>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에 있는 금강학원은 작년(1937) 11월에 개교한 외금강공립보통학교에서 재학생 전부를 수용케 되면서 학원은 자연 폐교되었다.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금강학원유지회장 문명진 씨의 사회로 폐원식을 보통학교 교실에서 개최하고 3,4학년 아동의 수업증서 수여와 금강학원 설립자 문명진 씨외 3씨의 공로 표창이 있었으며, 하오 1시에 폐회하였다.

金剛學院의廢院式

〈매일신보, 1938.3.31일자〉

인흥공립심상소학교(仁興公立尋常小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인흥리
- **설립 시기** 1940년 12월 12일 개교식

『고성군지』(1986)에는 1940년 11월 15일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언론은 개교식을 보도하였다. 개교식 당시에는 인흥공립심상소학교로 지정되었으나, 1941년부터 개편된 명칭인 인흥국민학교가 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로는 학교의 인가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1941년 일본인 훈도인 학교장 1명 배치한 기록이 나타난다.

<인흥소학교개교식>

토성면 인흥공립심상소학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平岡군수대리, 인접 각 소학교장, 학부형, 지역유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초대 교장은 中本 씨다.

簡易驛設置陳情

〈매일신보, 1940.12.19.일자〉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면 1941년에 일본인 훈도로 학교장 1명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공현진공립국민학교(公峴津公立國民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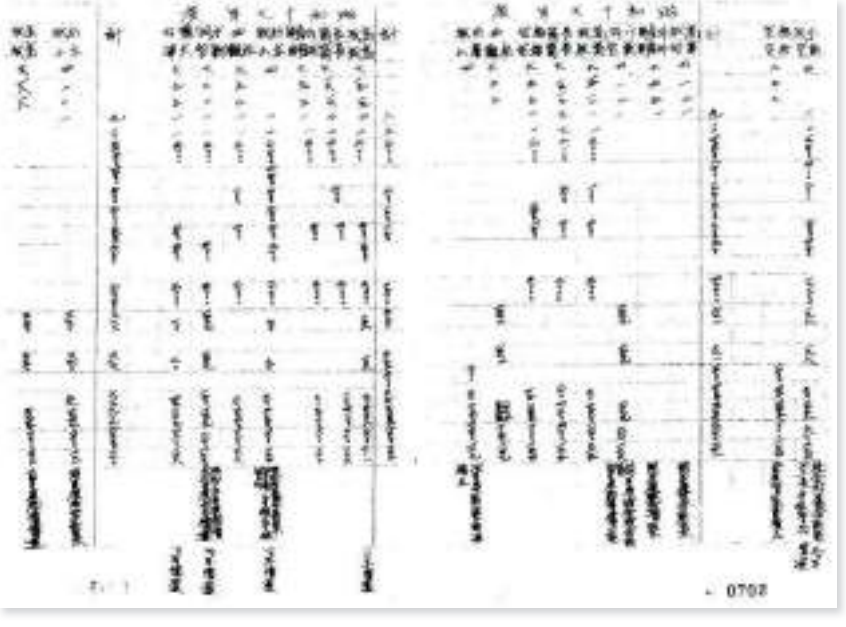
-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공현진리
- **설립 시기** 1942년 4월 1일 개교

공현진국민학교의 설립에 관한 직접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나, 『고성군지』(1986)에서는 1942년 4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광산공립국민학교(廣山公立國民學校)

- **학교 위치** 간성면 광산리
- **설립 시기** 1942년 4월 10일 개교

광산국민학교의 설립에 관한 직접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나, 1939년 고성군 학교비 문서(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에 광산국민학교의 기록 [소화17년(1942)의 계획 내용 중 "광산"을 간자체로 표기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성군지』(1986)에서는 1942년에 설립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1939년 고성군 학교비 문서(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명파공립국민학교(明波公立國民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명파리
- **설립 시기** 1942년경
- **전신 학교** 명파간이학교(1935.6.1.인가)가 국민학교로 승격

<6천원 자신기부>

고성군 현내면 대진국민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는 1934년(소화 9)에 개설된 이래 수많은 아동을 육성하여왔으나 학령아동의 증가로 미취학아동이 적지 않았다. 현재 경성부에서 의업(醫業)을 경영하고 있는 김두영 씨가 명파리 소재 고명광산을 경영하고 있는 관계로 명파간이학교를 하루바삐 국민학교로 승격시킬 목적으로 승격기금 6천원을 현내면장에게 기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일반은 감격하여 속히 승격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동교 승격기금 조성에 분망하다고 한다. 기부를 받은 당국으로서도 씨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승격운동에 진력하겠다고 늦어도 금년도에 실현되리라 본다.

六千圓自進寄附
國民校昇格基金으로

〈매일신보, 1942.5.6일자〉

〈공립중학교〉

금강공립중학교(金剛公立中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장전읍 성북리
- **설립 시기** 1942년 3월 31일 인가
  (조선총독부고시 제526호)/ 4월 20일 개교
- **설 립 자** 강원도

〈조선총독부관보, 제4556호, 1942.4.8.일자(조선총독부고시 제526호)〉

<금강중학교 입학식 성대>

지난 3월 31일 인가된 금강공립중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지난 4월 30일에 가교사(假校舍)인 장전동국민학교 대강당에서 관민다수, 신입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먼저 국민의례, 교육조서낭독?, 교장 훈화, 군수 및 경찰서장 축사, 황국신민서사제창으로 진행하였다.

金剛中學校
入學式盛大

〈매일신보, 1942.5.7일자〉

長箭金剛中學校
來十日에開校式
州農業開校記念式

〈4월 20일 개교하려던 금강공립중학교는 실제로 5월 10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중등교 설치운동>

고성관민 일치노력으로

동해안에서 원산 이남과 강릉 사이에 가장 중앙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고수려하여 그 풍모를 전하에 자랑하는 고성은 일찍부터 교육열이 자못 비등하여 각 초등학교의 학급연장과 1면2교제 실시가 완성해가는 이때 각 초등학교에서 매년 쏟아지는 수천명 졸업생의 중등교육문제가 급선무이다. 일찍이 전군관민은 모두 중등학교 설치를 갈망하여 왔다. 늦었지만 전번 강원도회의에 출석한 고성군 선출 도회의원 황운천 씨로부터 중등학교 설치 건의안을 상정하여 의장과 전의원 모두의 찬성을 얻었다. 지방민 부담금 13만 5천원만 조성하면 곧 설립하여 주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이에 남북이 호응하여 중학교기성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가장 뜻깊은 고성공립중학교기성회총회를 고성남소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당일 선거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공립중학교기성회 총회(조선일보, 1939.5.3.)〉

회장 松村繁枩(日人), 부회장 황운천, 장명준, 차선군, 평의원 군내 각읍면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2) 간이학교(簡易學校)

간이학교는 '보통학교의 수용난 완화'와 '농촌의 문맹퇴치'(일본어 사용)를 통하여 농촌을 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1934년부터 설치되었다.(조선일보,1935.10.11.) 처음에는 1군 2교의 설립(고성군의 경우 대강과 신흥 두 학교가 설치)을 추진하였다. 공립보통학교부설로 설치되었으며 수업연한이 2년이고 1학급, 1인 교사 체제로 운영하였다. 보통학교의 기초과목과 실습 위주의 직업과목을 교수하였다.

고성공립보통학교부설 **대강간이학교**(大康簡易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고성면 대강리
- **설립 시기** 1934년 6월 1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3호) 179쪽 관보 참조.

<이만희씨 기부>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장 이만희 씨는 고성면장이 된지 10개 성상에 일반 면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문맹퇴치에 많은 힘을 써왔다. 특히 작년 동기에는 한글을 인쇄하여 일반 농가에 배부하여 많은 효과를 얻었으며 금번에 설치되는 고성면 대강리 간이학교는 부지문제로 많은 심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를 자진 기부하였다. 밭 1,200평 간이학교 부지로 제공

李萬喜氏寄附

〈동아일보, 1934.5.18일자〉

<고성간보교>

2교 완성

강원도의 본년도 신설한 간이보통학교는 42교로 1군 평균 2교 씩인데, 고성군내 2교도 일전에 인가가 되어 오는 8월 2일부터 개교한다고 한다. 인가된 간이교의 위치는 고성공립보통학교부설 고성(대강)간이보통학교, 장전공립보통학교부설 신흥간이보통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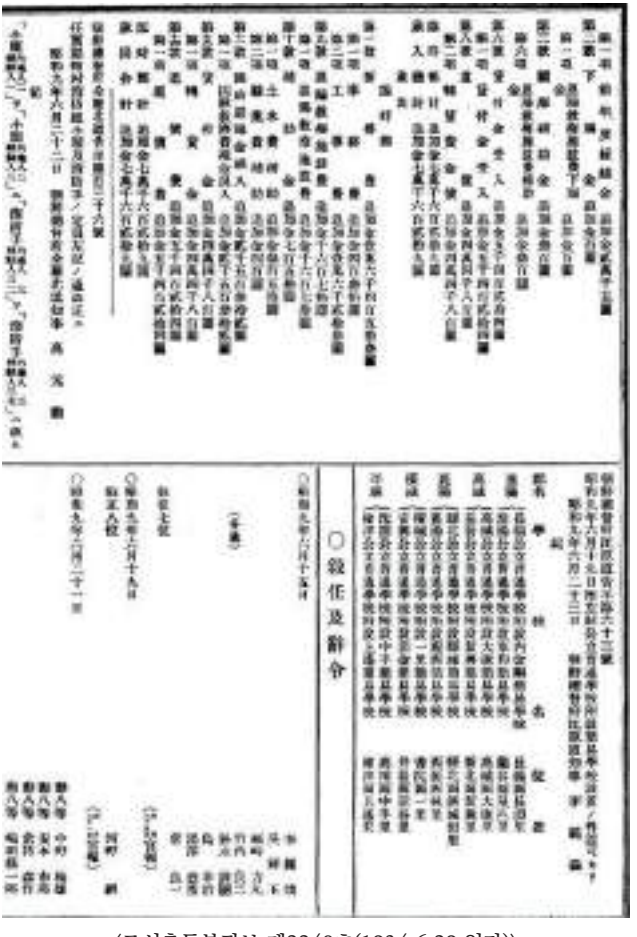
高城簡普校

一校完成

〈매일신보,1934.7.29.일자〉

장전공립보통학교부설 **신흥간이학교**(新興簡易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신흥리
- **설립 시기** 1934년 6월 1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3호)



〈조선총독부관보 제2240호(1934.6.29.일자)〉

대진공립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明波簡易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 **설립 시기** 1935년 6월 1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49호)

〈조선총독부관보 제2530호(1935.6.20.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의하면 1935년 6월 1일에 인가되었다. 『고성군지』(1986년)에서는 명파간이학교의 설립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조선제학교일람〉(1943년)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1935년 대진공립보통학교 부설학교였으며, 이 학교에 이병혁이란 조선인 훈도 1명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40년 당시 학교는 교사 1동, 부속건물 1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천진공립보통학교부설 **학야간이학교**(鶴也簡易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학야리
- **설립 시기** 1935년 9월 7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97호)

〈조선총독부관보 제2613호(1935.9.26.일자)〉

수동공립보통학교부설 **신대간이학교**(新垈簡易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신대리
- **설립 시기** 1936년 4월 30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54호)

〈조선총독부관보 제2826호(1936.6.1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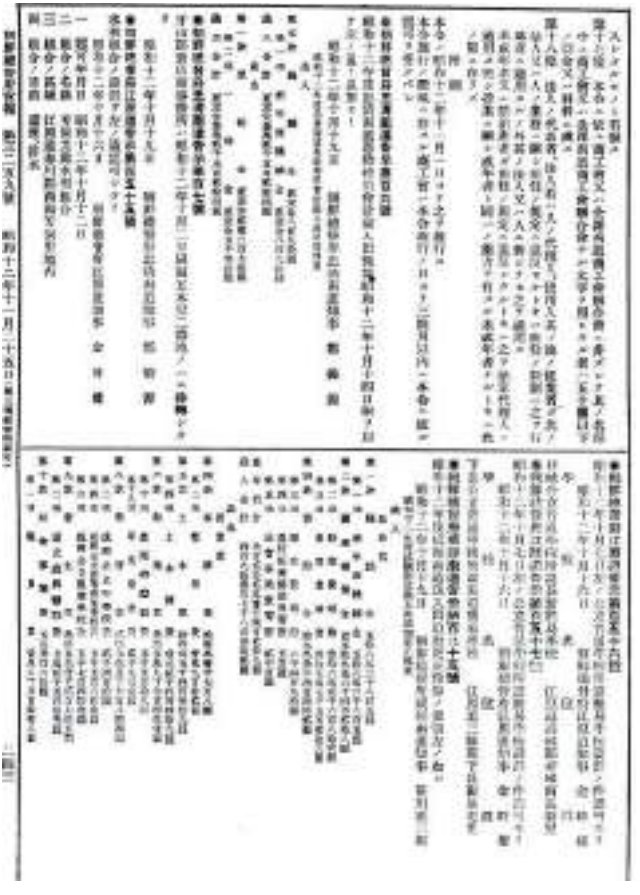
오호공립보통학교부설 **구성간이학교**(九城簡易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
- **설립 시기** 1937년 7월 30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19호)

〈조선총독부관보 제3206호(1937.9.20.일자)〉

간성공립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長新簡易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장신리
- **설립 시기** 1937년 10월 7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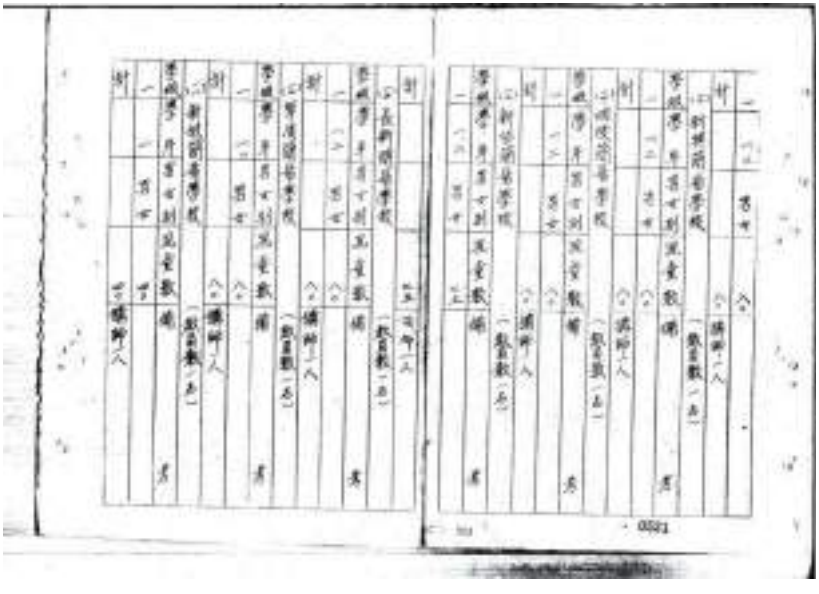
〈조선총독부관보 제3259호(1937.11.25.일자)〉

오대공립심상소학교부설 **초계간이학교**(草溪簡易學校)

- **학교 위치** 오대면 초계리
- **설립 시기** 1939년경 (관보 확인이 안됨)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군지』(1986년)에서 초계간이학교의 존재(1938.4.1.설립)를 알리고 있으며, 그 출전으로 〈조선제학교일람〉(1943년)만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저자가 확인한 조선총독부기록물 중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에서 학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1,2학년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939년도에도 입학생이 있었다. 따라서 1938년, 1939년 사이에 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오대심상소학교부설 **송강간이학교**(松江簡易學校)

『고성군지』(1986년)에서는 송강간이학교의 설립일을 〈조선제학교일람〉(1943년)을 근거로 194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래 자료에 따르면, 1940년의 '18. 신설 간이학교'의 기록으로 볼 때, 송강간이학교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천진공립국민학교부설 **백촌간이학교**(栢村簡易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백촌리 밤나무골(백촌리 마을 주민 증언)
- **설립 시기** 1942년 개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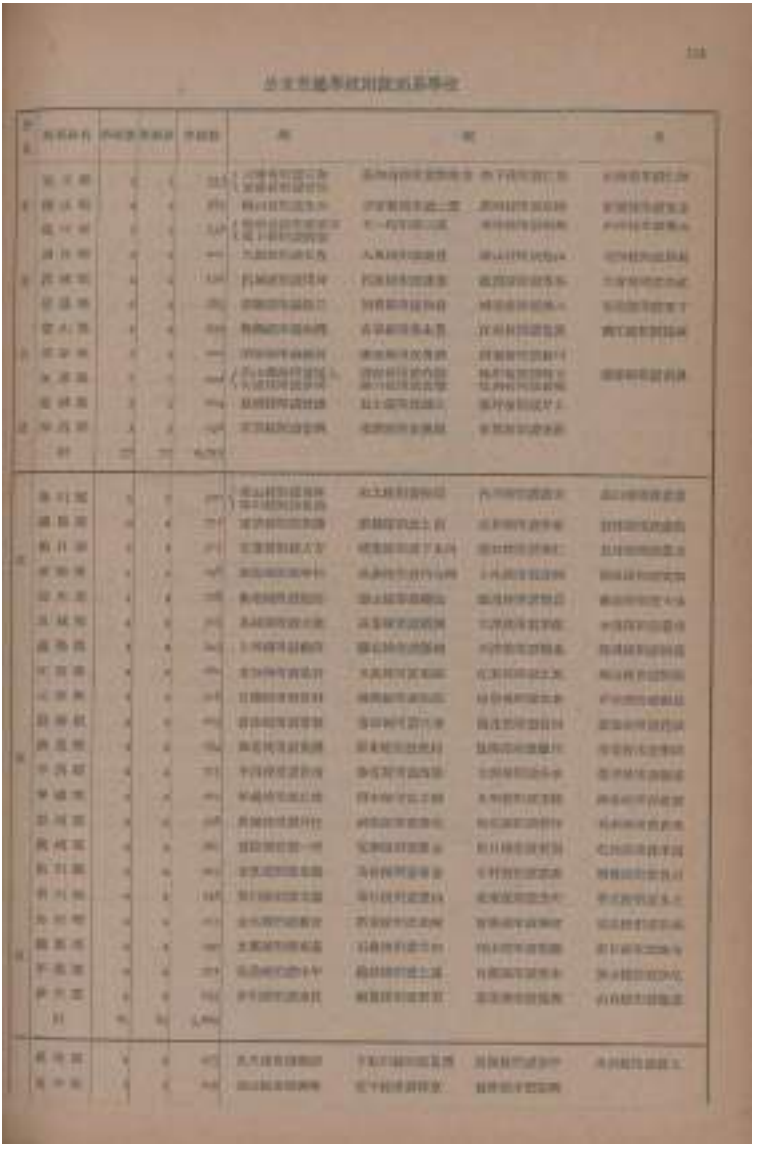
아래 사진자료에 의하면 2년제인 백촌간이학교의 제1회 졸업이 '소화19년'(1944년)이므로 1942년 4월 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촌간이학교 졸업기념(1944) (고성군지〈2020〉 사진 자료)

공립보통학교부설 간이학교 - 1937년도

학교명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
고성공립보통학교 부설 대강간이학교	고성군 고성면 대강리	1	전체305명
장전공립보통학교 부설 신흥간이학교	고성군 신북면 신흥리	1	
대진공립보통학교 부설 명파간이학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1	
수동공립보통학교 부설 신대간이학교	고성군 수동면 신대리	1	
천진공립보통학교 부설 학야간이학교	양양군 토성면 학야리	1	양양군 4개교 243명

강원도 공립보통학교부설 간이학교 - 1937년도



5. 일제 강점기 고성군의 사립학교 현황

여기서 '사립학교'란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을 제외한 '보통학교'와 '사설학술강습소' 또는 '학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신학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때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서당을 개량하여('개량서당'이라 이름함) 아동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신학문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고성군 사립학교 면별 현황〉

면별	학교명	설립·운영시기	소재지	설립자	비고
신북면	고성보습학원	1922.9.10	고성면 동리	금강청년회	
	금강학원	1926	신북면 온정리	구만회 등	외금강공보로 승격
	노동야학원	1923.4	신북면 사호리	여흥청년회	
	대성학원	1922	신북면 영진리	대성청년회	야학 병행
	말무리야학원	1923.11.20	고성면 말무리		
	보광학원	1930.5.8	신북면 장도	보광청년회	
	신흥학원	1925.11.15	신북면 신흥리	서종락, 서정구	
	영신학교	1924.2.16.신문	신북면 장전리		
	외금강노동야학원	1927.1.11	신북면 온정리	용진청년회	
	용계학원	1924.2.16.신문	신북면 용계리		
	유년학원	상동	신북면 양진리		
	장전야학원	1918	신북면 장전리		
	장전여자강습소	1922.7.6	상동		
	창신학원	1925	신북면 창대리 신계사	신계사	

고성면	강신여자학원	1929.4	고성면 동리	감리교회	4년제/ 80명 재학
	고봉학원 (여자야학)	1932.10	고성면 고봉리	고봉청년회 후원	
	고성부인야학원	1921	고성면 동리	야소교회	
	관해학원	1932.10.7	고성면 강정리		4년제
	광성학원	1923.8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2년제/100명
서면	성의학원	1932.2	서면 화우리		
	양성학원	1935	서면 양송리		
	유성학원	1924.2.16.신문	서면 유성리		
수동면	공진학원	1923.10	수동면 신대리		
	수동사립 보통학교	1927.3.17. 인가	수동면 고미 성리	고미성청년회	조선총독부관보
	숭덕학원	1929	수동면 초현리	강화 최씨 종중/최길환	4년제
	신대학원	1924.2.16.신문	수동면 신대리		
현내면	대진야학원	1925.1	현내면 대진리	전봉래 등	
	동광학원	1924.11	현내면 저진리	동리 유지	
	마달개량학원	1940.4.25. 신문	현내면 마달리		
	배봉학원	1924.2.16.신문	현내면 배봉리		
	학명학교	1911.4 경영중	현내면		
	현내사립 보통학교	1921(1927.8.17.)	현내면		매일신보, 1931.3.31
오현면/오대면	거진학원	1924.2.16.신문	오대면 거진리		
	광동학원	1932.9.7. 신문	오대면 산학리		4년제
	봉림학교	1921 (건봉사사적)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고등·초등보통과 혼합제/200명
	영광학교	1911.4 인가	오현면 거진리	임중현, 김정현 등	4년제 인가
	영광여학교	1913.5.29.신문	오현면 거진리		최초 여학교

	영명학관	1923.8.16.신문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외	
	창신학원	1936.6.17.신문	오대면 산북리	김만조	
	포남학교	1940년 이전	거진면 송포리	윤문현 외	4년제/100여 명
간성면	금천학원	1940년경	간성면 탑동리	문용익의 부	
	간성명덕학원	1937.4	간성면 교동리 향교	유림회	고등과/130여 명
	수성학원	1922. 봄	간성면 하리	수성청년회	2년제
양양군 죽왕면	가진학교	1938년 전후	죽왕면 가진리	박영국 외	4년제/100여 명
	공명학교	1912.5 인가	왕곡면 공수진	박근형, 김형근	4년제 인가
양양군 토성면	명동학교	1927.9.5. 신문	토성면 아야진리		'개교 21주년' 표기
	아야진학원	1928.2.7. 신문	상동		
	천진사설학술강습소	1924.6	상동		천진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

금성야학원(김대규, 김태식이 1925.12.1. 설립), 해성학원(1927.12.1. 예영환, 예연수 설립), 양진학원 등

〈면별 학교 현황〉

고성보습학원(高城補習學院)

- **학교 위치** 고성면 동리
- **설립 시기** 1922. 9월경
- **설립 주체** 금강청년회

<고성보습학원 설치>

고성 금강청년회에서는 당지 (고성)보통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지방 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보습학원을 설립하고 보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도의 수가 대략 70여 명이고 항상 지원자가 적지 않다. 그런데 교실문제로 수용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高城補習學院設置
高城金剛青年會에서는當地普通
學校에收容이不能한地方兒童의
敎育을爲하야補習學院을設立하
고補習敎育을施하는데生徒의數
가既히七十餘名이오尙志願者가
不少하나敎室의關係로收容치못
한다더라(高城)

〈동아일보, 1922.9.10일자〉

금강학원(金剛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
- **설립 시기** 1926년경
- **설립 주체** 구만회 등

<공보교에 승격운동, 금강학원에 서광>

9년전 금강학원 설립.

구만회씨가 공립보통학교 설치 기금중 1/3을 기탁하고 외금강 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설립하였다.

公普校에 昇格運動
金剛學院에 曙光
具萬會氏千圓喜捨
五萬圓證券詐欺
父子에 體
十九日

〈조선중앙일보, 1935.4.23일자〉

<외금강공보교 기성회 창립>

1935.4.25.일 금강학원을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승격하고자 기성회 창립총회 개최

外金剛公普校
期成會를創立

〈조선중앙일보, 1935.4.29일자〉

<현안의 보교설치 기금모집도 완료>

1936년 2월 15일에 기금 조달이 완료되었다. 기부금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만회(금강학원 원장) 1천원, 신계사 500원, 윤성렬 300원, 황두진 150원, 문명진과 유봉이 각 120원, 황운천 200원, 김만수와 김두익 등 각 100원, 외금강노동조합 250원 그 외 수십 명이 의연금을 보조하였다.

基金募集完了

設
施計劃

〈조선중앙일보, 1936.2.29일자〉

<금강학원의 폐원식>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에 있는 금강학원은 작년(1937) 11월에 개교한 외금강공립보통학교에서 재학생 전부를 수용케 되면서 학원은 자연 폐교되었다.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금강학원유지회장 문명진 씨의 사회로 폐원식을 보통학교 교실에서 개최하고 3,4학년 아동의 수업증서 수여와 금강학원 설립자 문명진 씨외 3씨의 공로 표창이 있었으며, 하오 1시에 폐회하였다.

金剛學院의 廢院式

〈매일신보, 1938.3.31일자〉

<3학원연합 춘기대운동회>

오는 5월 26일에 외금강 온정리에 있는 금강학원 주최, 본사 외금강지국 후원으로 금강산 주변 촌락에 산재하고 있는 신계사 경내 창신학원과 양진리 양진학원, 그리고 주최측 학원이 연합하여 춘기 대운동회를 온정리 금강학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三學院聯合
春期大運動會
本社外金剛支局後援

外金剛
三學院聯合運動會

〈조선일보, 1934.5.24일자〉

노동야학원(勞動夜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사호리
- **설립 시기** 1923년 4월
- **설립 주최** 여흥청년회

<노동야학원 성황>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사호리 려흥청년회에서는 작년(1923년) 4월 분에 노동야학원을 설립하고 회장 김석필 선생, 전달현 양씨의 열심 교수로 현금 출석학생이 25명에 달하였으나 성적이 양호하다고 한다.

勞働夜學院盛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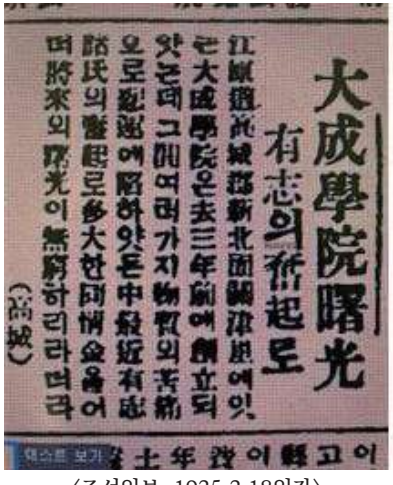
〈조선일보, 1924.9.2일자〉

대성학원(大成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영진리
- **설립 시기** 1916년 리숙 개설, 1923년 대성학원으로 명명, 1934년 야학도 개설

<대성학원 서광>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영진리에 있는 대성학원은 지난 3년 전에 창립되었다. 당시 여러 가지 물자의 고통으로 비운에 빠져 있던 중 최근 유지 제씨의 분기로 다대한 동정금을 얻어 장래 서광이 무궁하리라 한다.


大成學院曙光
有志의奮起로
江原道高城郡新北面關津里에잇
는大成學院은去三年前에創立되
앗는데그間여러가지物質의苦痛
으로窮運에陷하얏든中最近有志
諸氏의奮起로多大한同情金을어
더將來의曙光이無窮하리라더라
(高城)
이고縣이發年土

〈조선일보, 1925.2.18일자〉

<대성학원에 야학부를 신설>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영진 대성학원은 지금부터 18년전 영진리숙(里塾)으로 한학 교수를 하던 한 서당이 있었으나 시대상의 변천을 따라 11년 전인 갑자년에 대성학원으로 명명하고 삼면해중(3면이 바다)에 교통이 불편한 동리(영진리)는 보통학교와의 거리가 3리 이상으로 아동교육에 막대한 불편을 느껴 개량 교육에 소학정도로 방법을 개선하여 그동안 10여 년에 많은 인재를 교양하여 왔다. 이것은 현재 원장 김진두, 원감 김중보 씨의 끈임없는 열성과 지역 유지의 많은 심혈을 경주한 결정체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원장 김진두 씨외 여러 유지의 열성으로 금년에 1천원에 가까운 의연금을 모집하여 금년 가을부터 야학도 신설하여 수많은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 학원은 고성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자랑거리가 되는 동시에 영진 유지의 열성을 일반은 칭찬하고 있다.

〈조선일보, 1925.2.18일자〉

말무리야학원(末茂里夜學院)

- **학교 위치** 고성면 말무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광성학원 의연금>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주최로 광성학원을 건축 공사 중이다. 11월 초순에 기공되어 11월 11일 오후 1시에 낙성식을 시행하였는데, 당일 의연금과 씨명은 다음과 같다.

장명준 18원, 광교평천(일), 대저교본(일) 각 10원, 마성익 8원,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각 5원, 대성청년회 3원, 동리 구장, 고성부인학원 하덕봉, 대성야학원 각 2원 등...

光成學院義捐金

〈조선일보, 1923.11.21.일자〉

보광학원(普光學院)

- **학교 위치** 신북면 장도(長島)
- **설립 시기** 1920년대

<고성사립학교 연합운동회 개최>

고성 신북면 장도(長島) 사립보광학원 주최 보광청년회 후원으로 전군(全郡) 사립학교연합대운동과 축구대회를 지난 4월 29일부터 개최하였다. 정각부터 운집된 관중의 환희 속에 먼저 아동경기운동을 시작하여 다음 날 정오까지 이어졌고, 오후부터는 남북건아의 축구팀들은 모여 맹렬한 개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 오전까지 싸워 결승을 마쳤다. 우승한 팀은 해금강 입석리 송도단이라 한다.

高城私立學校
聯合運動會開催

〈조선일보, 1930.5.8일자〉

신흥학원(新興學院)

- **학교 위치** 신북면 신흥리
- **설립 시기** 1925년 11월 15일
- **설립 주체** 서종락, 서정구

<교육기관> 신흥학원

·설립 : 1925년 11월 15일 ·설립자 : 서종락, 서정구

·설립시 생도 : 35명(현재 35명) ·교원 : 1명

·원장 : 서정구

高城郡
教育機關
經濟團體

〈동아일보, 1929.1.12일자〉

영신학원(永信學院)

- **학교 위치** 신북면 장전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 **설립 주체**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高城郡에 敎育機
仁川局

〈조선일보, 1924.2.16일자〉

외금강노동야학(外金剛勞動夜學)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
- **설립 시기** 1927년 1월 8일 개시(용진청년회 운영)
- **설립 주체** 용진청년회

<외금강노동야학 용진청년사업>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에 있는 용진청년회에서는 오랫동안 침체상태에 있었다. 간부 제씨는 다시금 새로운 정신으로 쇄신운동에 정력을 다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먹음에 울고, 배움에 애태우는 가련한 소년, 소녀와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반 유지들의 후원하에 지난 8일부터 야학을 개시하였다. 현재 30여 명의 야학생으로 충실히 되어 가는데 일반유지로부터 동정금도 적지 않게 들어왔다. 교원은 문명진, 백운서, 이종현, 김갑진 제씨가 무보수로 열심히 교수한다고 한다.

外金剛勞動夜學
勇進青年事業
大同江의
스켓危險
連日暖氣로

〈중외일보, 1927.1.11일자〉

용계학원(龍溪學院)

- **학교 위치** 신북면 용계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용계학원 : 신북면 용계리

高城郡에 敎育機

〈조선일보, 1924.2.16일자〉

유년학원(幼年學院)

- **학교 위치** 신북면 양진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유년학원 : 신북면 양진리

高城郡에 敎育機

仁川局

〈조선일보, 1924.2.16일자〉

장전야학원(長箭夜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
- **설립 시기** 1918년

<장전야학 곤황>

학생이 석유행상을 하여 경비를 쓴다고

강원도 고성군 장전리에 있는 장전야학원은 항상 경비에 곤난을 겪고 있으며, 학원 창립기념일에 받은 일반의 동정금으로 유지한다는 소식은 이미 보도하였다. 많지 않은 금전이라 다 써버리고 또다시 유지하기가 어려워 책임자는 여러 가지로 연구하였으나 빈촌이라 누가 구제할 사람이 없어 항상 비운에 있다는데, 학생이 석유행상과 새끼를 꼬아서 팔아 경비를 쓴다는데 듣는 사람은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한다더라.

長箭夜學困況

〈조선일보, 1925.1.18일자〉

<장전야학 학예회 성황>

강원도 고성군 장전리에 있는 장전야학원에서는 당지 예배당내에서 지난 2월 6일 오후 7시부터 학예회를 남궁용(?) 사회로 개최하였다. 청중은 정각 전부터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들어 만장의

성황을 이루었다. 학생들의 활발하고 용감한 유희와 어린이들의 웅변은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았다. 오후 11시에 허석환 씨의 축사가 있고 난 후 폐회하였다. 청중으로부터 적지 않은 동정금이 환지(?)하였다더라.

長箭夜學
學藝會盛況

〈조선일보,1925.2.17일자〉

<장전야학원> 7주년 기념식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에 있는 야학원에서는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창설 7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원감 남궁 씨의 개회사와 연혁 보고가 있고 나서 협성청년회장 최영복 씨의 과거와 장래에 대한 장렬한 의견을 토출하였고, 이어 장전공립보통학교 훈도 김덕조 씨를 비롯하여 학부형 등의 감상담과 내빈 축사, 그리고 원가(院歌) 합창으로 폐회되었다. 이어 내빈을 초대하여 소연을 베풀었으며, 유지들로부터 동정금이 접수되었다. 밤 11시에 폐회했다.

長箭夜學院
七週年紀念式

〈시대일보, 1925.12.21일자〉

장전여자학술강습소(長箭女子學術講習所)

- **학교 위치** 신북면 장전리
- **설립 시기** 1922년 4월
- **설립 주체** 고성공립보통학교 훈도 홍병삼 부인 이정규

<장전교육계 소식>

강원도 고성군 장전항 공립보통학교는 재작년(1920)부터 개교하여 교장 관강도(關康道) 씨의 열성적인 교육으로 일반 생도의 좋은 성적이 나날이 전진하고 있다. 일반 인사들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 훈도 홍병삼 씨의 부인 이정규 씨는 당지 여자의 교육이 박약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여자강습소를 설립하고 금년 4월부터 생도 30여 명을 모아 매일 오전 9시에서 하오 3시까지 교수하고 있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지방인민의 찬상(讚賞)이 많다더라.

長箭敎育界消息

〈동아일보, 1922.7.6일자〉

창신학원(倉神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창대리 신계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고성청년 간친은>

高城青年懇親

〈조선일보, 1925.3.19일자〉

오는 21일 신계사에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용진청년회 주최로 오는 21일 신계사 창신(倉神) 학원내에서 고성지방 청년운동자 간친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이미 보도하였다. 당일 토의문제는 다음과 같다.

<토의문제>

1. 군(郡)청년단체 연합에 관한 건
2. 군내 청년운동의 방향에 관한 건
3. 조선청년총동맹 가맹에 관한 건
4. 군내 청년단체 조직에 관한 건
5. 이류(異流,다른) 청년단체에 관한 건
6.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에 관한 건

<특수문제>

화요회 주최인 민중운동대회에 관한 건

三學院聯合
春期大運動會
本社外金剛支局後援

〈조선일보, 1934.5.24일자〉

<3학원연합 춘기대운동회>

본사 외금강지국 후원

오늘 5월 26일에 외금강 온정리에 있는 금강학원 주최, 본사와 금강지국 후원으로 금강산 주변 촌락에 산재해 있는 신계사 경내 창신학원과 양진리 양진학원과 주최측 학원을 연합하여 춘기대운동회를 온정리 금강학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 데 당일의 서항을 지금부터 예상한다고 한다.

강신여자학원(剛信女子學院)

- **학교 위치** 고성면 동리
- **설립 시기** 1929년 3월(4월)

<고성강신여자학원 인가 없다고 폐쇄>

동지 목사 허가원 제출하고 고대

백여 아동 노상에서 방황

고성읍내 기독교 예배당에서 경영하는 강신여자학원은 제1회 졸업생을 금년도(1933) 3월에 내었다. 그후 서당 허가가 없다고 당국이 폐쇄명령을 내렸다.

동교회 담임목사 송정근 씨는 자기명의로 서당개설 허가 신청을 4월 5일에 군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허가되지 아니하였다. 전에 배우던 62명은 물론이고 새로 배우고자 하는 42명의 어린이들은 (교육)기관이 있어도 배울 수 없어 노상에서 방황하는 상태이므로 일반(주민)은 속히 허가 되기를 열망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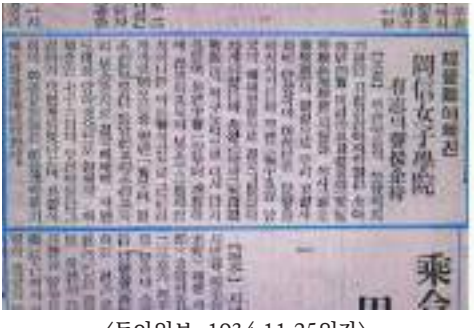
高城剛信女子學院
認可없다고閉鎖
百餘學童路上彷徨
明祇世고서
作權을移動

〈동아일보, 1933.6.2일자〉

<경영난에 빠진 강신여자학원>

유지의 성원기대

무산아동의 문맹퇴치기관인 고성 강신여자학원은 소화4년 4월 미감리교 고성교회 서원필(徐元弼)목사의 열선으로 우리 고성사회에서 탄생한 이래 많은 문맹을 퇴치시켰다. 작년(1933) 3월 15일 당국의 폐쇄명령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송정근목사의 복구노력으로 다시 인가를 얻어 같은 해(1933년) 10월 1일부터 개원하여 선교회 교육비보조


閉信女子學院

〈동아일보, 1934.11.25일자〉

13원과 만치 않은 아동 월사금으로 근근히 계속하여 오던 중 명년(1935년) 1월부터 전조선을 통한 동양선교회 조선교육비 보조 중지로 결국 폐쇄에 자연도태를 당하겠으므로 현재의 재적 중인 76명의 무산아동은 그 갈 길이 막연하게 되었다. 고성사회의 여러 유지들은 이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선교회 보조 폐지로 강신여자학원 비운>

유지의 성원을 기대

학력 아동의 수용완화와 문맹퇴치를 목표로 일찍 5,6년 전 소화 4년 3월에 고성에 탄생한 강신여자학원은 당시 미감리교회 고성예배당 교역자 서원필목사의 열성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5,6년간 동양선교회 교육비 월 20원으로 경비를 충당하여 가면서 고성의 무산아동을 교양하여 오던 중 작년(1933) 3월 15일 무인가라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당하였다. 수많은 어린이는 노상에 방황케 된 것을 애석하게 여겨 동교회 송정근 목사는 이를 계속하고자 다시

〈조선일보, 1934.12.15일자〉

인가신청 수속을 하고 만반으로 지방실정을 당국에 수삼차 진술한 결과 같은 해 9월 11일에 인가가 되었고, 10월 1일에 개원케 되자 선교회10월 1일에 개원케 되자 선교회 보조금 20원은 13원으로 감소되어 경비 부족으로 곤란을 당하여 가면서 원장 송정근 씨와 강사 박성호 씨의 열성으로 현재 재적생 76인을 교양하고 있는 중인데, 명년 1월부터 또 다시 동양선교회 교육비 보조를 폐지한다고 하니 학원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이 되었다. 고성사회를 위하여 또는 고성 무산아동을 위하여 생긴 기관으로써 동양선교회 교육비 폐지와 함께 그 간판을 매장케 됨은 우리 고성의 장래 어린이를 위하여 불행은 물론이요 수치이니 고성인사는 많은 후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비운 절정에 달한 강신여자학원>

유지의 성원을 기대

일찍이 많은 아동의 문맹을 퇴치한 고성읍 미감리교회에서 경영하던 강신여자학원은 일찍이 소화 4년에 우리의 향학열이 높을 때 동교회 서원필 목사의 열성으로 조선선교회 교육비 보조 월 20원씩을 토대 삼아 경영하였다. 의외로 작년(1933) 3월 15일 당국의 무인가 폐쇄명령이 내리자 이를 계속하고자 당지 송정근 목사는 백방으로 활동한 결과 같은 해 9월 11일 인가되었고, 그간 만반의준비를 완료하고 10월 1일에 개원하자 동양선교회 교육비는 월 13원으로 긴축되어 소수 아동의 월사금을 받아 이를 보충하며 모든 경비를 긴축한 것은 물론 강사 박성호 씨의 사회봉사적 희생으로

경비부족에 많은 고통을 참아 가면서 경영하여 왔으나, 이것도 여의치 못하고 비운이 닥쳐 와 1월부터는 동양선교회 교육비 보조가 폐지된다. 그간 고성사회에 많은 문맹을 퇴치하고 현재 76명의 어린 무산아동을 가르치는 강신여자학원은 고성 유지의 피끓는 열정의 후원 없이는 도저히 그 간판의 존재를 찾기 어려울 비운이 목전에 임박하여 있다. 다시 생기기 어려운 이 학원의 전도를 심사함과 함께 고성사회 유지의 후원이 있기를 일반(사람들)은 기대한다고 한다.

悲運絶頂에 達한
岡信女子學院
有志의 聲援을 企待
百餘尺絶壁上에
貨物自動
乘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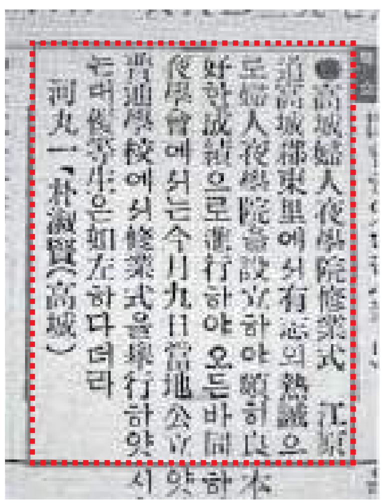
〈조선일보, 1934.12.21일자〉

고성 부인야학원(高城婦人夜學院)

- **학교 위치** 고성공립보통학교 (부설) 부인야학원
- **설립 시기** 1929년 3월(4월)

<고성부인야학원수업식>

강원도 고성군 동리에서 유지의 열성으로 부인야학원을 설립하여 상당히 양호한 성적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 이 야학회에서는 이달 9일 당지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 수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우등생은 다음과 같다. 하환일, 박숙현



●高城婦人夜學院修業式 江原道高城郡東里에서有志의熱誠으로婦人夜學院을設立하야頗히良好한成績으로進行하야오든바同夜學會에서는今月九日當地公立普通學校에서修業式을擧行하얏는데優等生은如左하다더라
河丸一、朴淑賢(高城)

〈동아일보, 1923.10.17일자〉

<부인야학원의 수업식>

고성읍내 부인야학원에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당지 보통학교내에서 수업식을 거행하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정시 전부터 운집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원장 성광선 씨외 기타 유지의 축사가 있었으며 수업생은 4명이었다. 우등상품을 수여한 후 오후 10시에 폐회하였다.

〈조선일보, 1923.10.17일자〉

관해학원(觀海學院)

- **학교 위치** 고성면 강정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고성강신여자학원 인가 없다고 폐쇄>

관해학원의 존립에 관하여는 아래 신문기사로만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작품과 활동으로 학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 흥미롭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재능이 아니었다면 학교의 존재는 세상에 묻힐 번했다.

〈매일신보1932.10.7〉

〈고성군 고성면 강정리 관해학원 제3학년 심진섭 10세〉
〈고성군 고성면 강정리 관해학원 제1학년 심완섭 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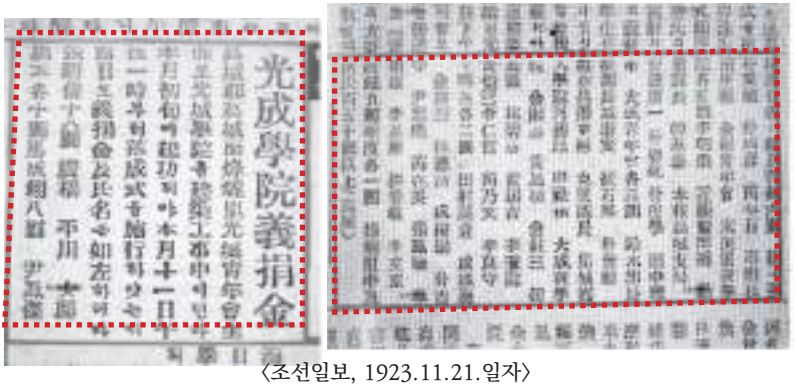
광성(야)학원(光成學院)

- **학교 위치** 고성면 봉수리
- **설립 시기** 1923년 8월
- **설립 주체** 광성청년회

<광성학원 의연금>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주최로 광성학원을 건축 공사 중이다. 11월 초순에 기공되어 11월 11일 오후 1시에 낙성식을 새행하였는데, 딩일 의연금과 씨명은 다음과 같다.

장명준 18원, 광교평천(일), 대저교본(일) 각 10원, 마성익 8원,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각 5원, 대성청년회 3원, 동리 구장, 고성부인학원 하덕봉, 대성야학원 각 2원 등...


光成學院義捐金

〈조선일보, 1923.11.21.일자〉

<광성청년회사업>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에 있는 광성청년회는 무산자로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작년(1923년) 8월에 야학원을 설립하였다. 학생에게는 입학교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간부의 열성으로 장명준, 구재혁 외 6인이 기증하는 재목으로 학원을 신설하고 경비는 입회금과 홍수에 표류해온 재목을 습득하고 동중유지 제씨의 동정금 150여 원, 학원 건축 낙성시 동정금 170여 원, 기타 회원 노력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재학, 김인제 두 선생이 명예롭게 열성 교수하여 현재 남녀 학생이 40여 명으로 성적이 양호하다. 여학생 2명은 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까지 하였다. 보통학교 3학년 과목을 교수하여 2개년에 졸업시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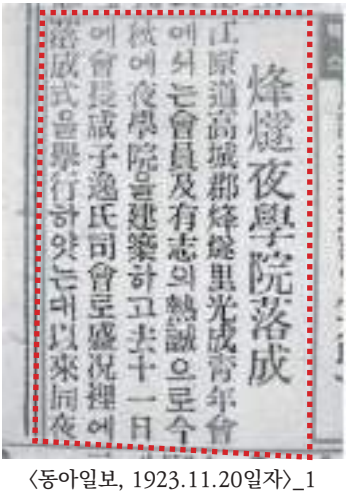
光成青年會事業

〈조선일보, 1924.9.8일자〉

<봉수야학원낙성>

강원도 고성군 봉수리 광성청년회에서는 회원과 유지의 열성으로 올 가을에 야학원을 건축하고 지난 11일에 회장 함자일 씨의 사회로 성황리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그 이후 야학원에 의연한 인사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봉수리중(中) 150원, 장명준 13원, 우성익 8원, 윤봉걸 7원, 광교제태랑(日), 평천길상조, 대죽치칠, 교본길무 각 10원씩, 임봉춘 7원, 구재혁 6원, 최자형, 박병식,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예봉석, 전재현, 고상근, 박성언 각 5원, 이명환 근등경부보(일), 조선일보지국, 한기태, 권업(勸業) 과장, 안달용일, 대성청년회, 박덕대, 전중유보(일), 김진택, 박재학 각 3원씩, 고성부인야학원, 대성야학원 등등 각 2원씩


烽燧夜學院落成

江原道高城郡烽燧里光成青年會에서는會員及有志의熱誠으로今秋에夜學院을建築하고去十一日에會員諸子逸氏司會로盛況裡에落成式을擧行하얏는데以來同夜

〈동아일보, 1923.11.20일자〉_1

〈동아일보, 1923.11.20일자〉_2

<임봉춘씨열성>

강원도 고성군 봉수리에 있는 임봉춘 씨는 봉수리 동중을 위하여 많이 힘쓰려고 하지만, 그의 반대파가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청년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재작년(1923년)에 광성청년회를 발기하여 조직하고, 또한 암매한 무산자녀를 공부시키겠다는 결심으로 야학원을 설립하여 진행해 왔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지만 단독으로 돈을 대고 유지하고 있어 뜻 있는 이들은 그의 성력을 칭송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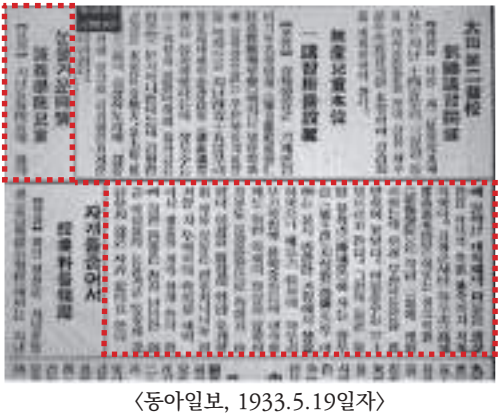
〈동아일보, 1923.11.20일자〉

성의학원(誠義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서면 화우리
- **설립 시기** 1932년 2월

<눈물겨운 동정>

지난 5월 4일에 불의에 일어난 대화재의 파동은 불상한 집 아이의 통학까지 저해하였다. 고성군 서면 화우리에 있는 성의학원은 작년(1932년) 2월에 개원하고 무산아동만을 교양하여 왔다. 아동 총수는 30명이다. 그런데 동면 유성리에 사는 장두언과 지석원 두 아이는 본시 빈한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배우기 위하여 화우리 성의학원에 통학 중이었다. 야속하게도 이번 화재의 참상을 당하면서 공부도 일장춘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성의학원 아동 일동은 빈주머니나마 두 아이의 학비를 충당해주어 배움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일반민중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눈물겨운 동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3.5.19일자〉

양성학원

- **학교 위치** 서면 양송리
- **설립 시기** 1935년

유성학원(柳城學院)

- **학교 위치** 서면 유성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유성학원 : 서면 유성리

高城郡에 敎育機
仁川局

〈조선일보, 1924.2.16일자〉

공진학원(共進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신대리(면소재지)
- **설립 시기** 1923년 10월

<고성교육계>

황차 양씨 공헌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립보통학교에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다. 수동면은 고성군 벽촌의 한쪽 구석에 있어서 교통이 심히 불편하고 면민생활이 극히 빈한한 산중에 있는 면으로 교육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음으로 일반 자제를 교육시키고자 할 경우 가까워도 20리, 가장 먼 곳은 130리나 떨어져서 고성읍에서 유숙하면서 통학하게 된다. 이것을 면장 황인국 씨는 부임 이후 유감으로 생각하고 1923년 8월에 면사무소 소재지인 신대리에 공진학원을 발기하고 면내 유지들과 함께 권력활동한 결과 동년 10월에 공진학원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지난 5개 성상을 지나오면서 총준영재의 배양에 실로 공헌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진학원만으로는 도저히 수동면 전반에 교육을 보급시키기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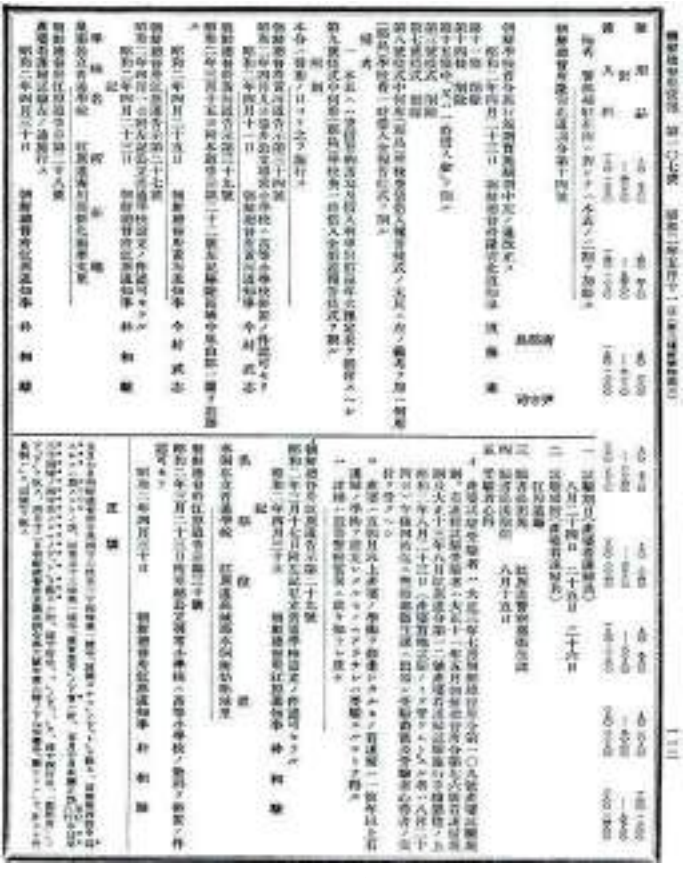
高城敎育界
黃車兩氏貢獻
江原道高城郡水洞面私立普通學
校에서落成式을擧行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이水洞面은高城

〈동아일보, 1927.10.19일자〉

하다고 판단하여 또 다시 수동면 고미청년회와 함께 고미성리에 수동사립보통학교를 발기하고 , 면내에는 물론 부근 유지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 작년(1926년) 8월에 현금 3,300여 환을 기초로 하여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대학부 농학부연습림출장소에 교섭하여 학교 건축의 재목을 전부 대가 없이 사용하기로 하고, 12월에 교사 90여 평을 준공하였다. 본년(1927년) 3월 17일부로 사립학교 인가를 얻고 4월 1일부터 개학하였다. 현재 생도수는 상당한 수자에 이른다고 하며, 또한 황씨와 함께 활동한 인사 중 차선군씨의 성의는 수백 환의 금전과 학교부지 2,032평을 기증하였다. 시대에 낙오한 수동면 교육계에 잊지 못할 기록을 시작하였다.

수동사립보통학교(水洞私立普通學校)

- **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 **설립 시기** 1927년 3월 17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29호)



〈1927.5.11.일자 관보〉

<순회탐방>

고성일기자

교육계

고성군에는 고성, 장전, 간성의 3개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생도가 남자 974명이고, 여자 317명이다. 수동 및 현내에 사립보통학교가 있는데, 남녀 300여 명이다. 또한 고성, 장전, 금강의 3개 소학교(일본인)가 있는데 생도수는 남자 57명, 여자 66명이다.

〈동아일보, 1927.8.17일자〉

<수동사립보통학교 낙성식거행>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에 설립된 보통학교는 사립학교로 인가되었다. 교사(校舍)는 산간벽판에 완비되었다. 지난 10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으며, 당일부터 4일간 운동회 기타 각종 여가, 연희 등 촌민향략의 날이 계속되었다.

지금 생도 100명, 훈도 2명이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산간 언덕마을의 순박하고 양호한 풍속이 기초가 되어 공립학교를 본다면 아름다운 풍속이 될 것이다. 본교 설립의 기초는 동경농대 연습림 주임 궁하보웅 씨의 후원을 받았다. 연습림 소재지의 주민과 연습림 파견소 직원의 따뜻한 온정이 서로 접촉하여 계약을 만들었다.(?)

水洞私立
普通學校
落成式擧行

〈부산일보, 1927.10.19일자〉

<고성교육계>

황차(黃車) 양씨 공헌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립보통학교에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다. 수동면은 고성군 벽촌의 한쪽 구석에 있어서 교통이 심히 불편하고 면민생활이 극히 빈한한 산중에 있는 면으로 교육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어 일반 자제를 교육시키고자 할 경우 가까워도 20리, 가장 먼 곳은 130리나 떨어져서 고성읍에서 유숙하면서 통학하게 된다. 이것을 면장 황인국 씨는 부임 이후 유감으로 생각하고 1923년 8월에 면사무소 소재지인 신대리에 공진학원을 발기하고 면내 유지들과 함께 권력활동한 결과 동년 10월에 공진학원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지난 5개 성상을 지나오면서 총준영재의 배양에 실로 공헌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진학원만으로는 도저히 수동면 전반에 교육을 보급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또 다시 수동면 고미청년회와 함께 고미성리에 수동사립보통학교를 발기하고, 면내에는 물론 부근 유지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 작년(1926년) 8월에 현금 3,300여 환을 기초로 하여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대학부 농학부연습림출장소에 교섭하여 학교 건축의 재목을 전부 대가 없이 사용하기로 하고, 12월에 교사 90여 평을 준공하였다.

高城敎育界
黃車兩氏貢獻
江原道高城郡水洞面私立普明學校에서落成式을擧行하엿다함은 既報한바어니와이水洞面은高城

〈동아일보, 1927.10.19일자〉

본년(1927년) 3월 17일부로 사립학교 인가를 얻고 4월 1일부터 개학하였다. 현재 생도수는 상당한 수자에 이른다고 하며, 또한 황씨와 함께 활동한 인사 중 차선군씨의 성의는 수백 환의 금전과 학교부지 2,032평을 기증하였다. 시대에 낙오한 수동면 교육계에 잊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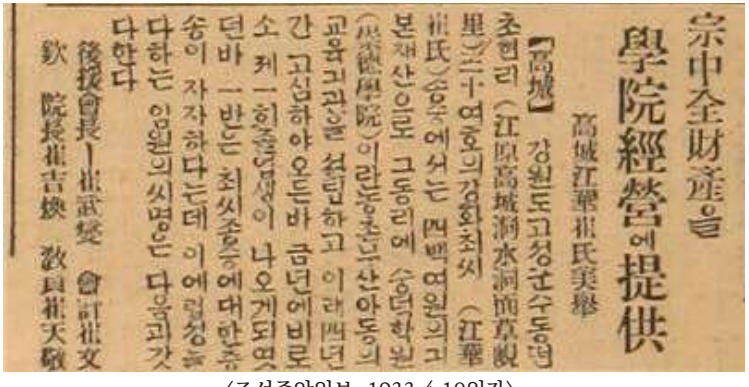
숭덕학원(崇德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초현리
- **설립 시기** 1929년

<종중전재산을 학원경영에 제공>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초현리 30여 호의 강화 최씨 종중에서는 400여 원의 기본재산으로 그 동리에 숭덕학원이란 농촌 무산아동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래 4년간 고심하여 온 끝에 금년(1933)에 비로소 제1회 졸업생이 나오게 되었다. 일반은 최씨 존중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 이에 열성을 다하는 임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후원회장 : 최무섭 회계 : 최문흠, 원장 : 최길환, 교원 : 최천경



宗中全財産을
學院經營에提供
高城江華崔氏美擧
【高城】 강원도고성군수동면
초현리(江原高城洞水洞面草峴
里)三十여호의강화최씨 (江華
崔氏)종중에서는 四백여원의고
본재산으로 그동리에 숭덕학원
(崇德學院)이란농촌무산아동의
교육긔관을 설립하고 이래四년
간 고심하야 오든바 금년에비로
소 제一회졸업생이 나오게되엿
던바 一반은 최씨존중에대한칭
송이 자자하다는데 이에열성을
다하는 임원의씨명은 다음과갓
다한다
後援會長一崔武燮 會計崔文
欽 院長崔吉煥 敎員崔天敬

〈조선중앙일보, 1933.4.10일자〉

신대학원(新垈學院)

- **학교 위치** 수동면 신대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신대학원 : 수동면 신대리

高城郡에 敎育機

〈조선일보, 1924.2.16일자〉

대진노동야학원(大津勞動夜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대진야학원 설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서 전봉래, 김영조, 김인석, 박용택 제씨의 발기로 근자에 대진노동야학원을 설립하였다. 교원은 김영조 씨의 열성으로 장래가 유망하다더라.

大津夜學院設置

江原道高城郡縣內面大津里에서는全奉來、金永祚、金仁錫、朴容澤諸氏의發起로近者에大津勞働夜學院을設立하얏는데敎員金永祚氏의熱誠으로將來가頗히有望하다더라(高城)

〈조선일보, 1925.1.14일자〉

동광학원(東光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현재 제진리)
- **설립 시기** 1924년 11월

<동광학원 설치>

고성군 저진리에

강원도 고성군 저진리에는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어 일반이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작년(1924년) 11월 경 동리 유지의 발기로 동광학원을 설치하고 열심히 무산자제를 교육하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고 한다.

東光學院設置

高城郡猪津里에

〈조선일보, 1925.2.20일자〉

마달개량학원(馬達改良學院)

-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 **설립 시기** 1934년경(개량서당 정책실시)

<조석조씨미거>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조석조 씨 3형제는 지난 18일이 자기 선친 대기로 친척과 지구 등이 부조한 금액이 200여 원에 달했는데, 대기 비용을 절약하여 동리 집회소 건축비로 50원, 동리 개량학원 유지비로 30원, 국방 헌금 20원, 대진공립심상소학교에 시가 200원의 괘종시계 1개를 기부하였다. 부근 일대는 삼형제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趙石祚氏美擧

〈매일신보, 1940.4.25일자〉

배봉학원(培峰學院)

- **학교 위치** 현내면 배봉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중반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배봉학원 : 현내면 배봉리

高城郡에 教育機關

〈조선일보, 1924.2.16일자〉

학명학교(鶴鳴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 **설립 시기** 1911년 4월 현재 경영중

<고성군에 교육기관>

학명학교는 현내면에 설치된 학교이고 설립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911년 영광학교 설립시기와 겹쳐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학교의 존재는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학무국학무과, 『사립학교설치인가서류』(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의 학교평면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영광학교와 1리 18분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학교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인근 학교표기가 되었다.(사진 표시 참조)

〈조선일보, 1924.2.16일자〉

현내사립보통학교(縣內私立普通學校院)

-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반
- **설립 주체**

<순회탐방> 고성일기자

교육계

고성군에는 고성, 장전, 간성의 3개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생도가 남자 974명이고, 여자 317명이다. 수동 및 현내에 사립보통학교가 있는데, 남녀 300여명이다. 또한 고성, 장전, 금강의 3개 소학교(일본인)가 있는데 생도수는 남자 57명, 여자 66명이다.

1927년 11월 10일에 설립된 대진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 1927.8.17일자〉

거진학원(巨津學院)

- **학교 위치** 오대면 거진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거진학원 : 오대면 거진리

高城郡에 敎育機關

〈조선일보, 1924.2.16일자〉

광동학원(光東學院)

- **학교 위치** 현내면 산학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兒童作品募集

〈매일신보, 1932.9.7일자〉

광동학원의 존립에 관하여는 아래 신문기사로만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작품과 활동으로 학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 흥미롭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재능이 아니었다면 학교의 존재는 세상에 묻힐 뻔했다.

봉림학교(鳳林學校)–중등학교

- **학교 위치**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 **설립 시기** 1921년(이영선, 『금강산 건봉사사적』(2003)에는 1921년 설립으로 기록됨)

상세한 설명은 이후 〈사립 중등학교〉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립 영광학교(私立永光學校)-정식인가학교

- **학교 위치** 오현면 거진리
- **설립 시기** 1912년 12월 28일 설립 [『강원도상황경개』(1913)]
- **설립 주체** 임중현 외(김정현 등)

사립 영광학교는 영광의숙(1909)이 발전하면서 교명을 변경하고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1912.12.28.)이다.[1] 영광학교는 설립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다. 이 학교의 개교시기는 명치44년(1911년) 4월 4일이고, 설립인가원 제출(1912.12) 당시 생도수는 48명(남자 33, 여자 15)이다. 학교설치인가원에 첨부된 문서에서 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설립사항'과 '사립영광학교학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학칙의 전문과 설립사항의 핵심내용을 옮긴다.[2] 또한 영광학교는 1914년 우수사립학교로 인정받아 강원도의 보조금(25원)을 지원받은 학교이기도 하다.(증빙자료 후면 첨부)

1) 강원도헌병대본부, 『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91-293쪽

2) 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 관련 서류는 총21쪽(1.도장관인가요청서 (1쪽) 2.취조서(1쪽) 3.인가원 간성군 접수(1쪽) 4.설치인가원(1쪽) 5.설립사항(3쪽) 6.학교평면도(1쪽) 7.학칙(5쪽) 8.이력서(4쪽) 9.학교재산수입 관련 증빙서(4쪽)(학무국학무과, 『사립학교설치인가서류』 (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 인터넷검색-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관리번호 CJA0004673)

〈사립영광학교 설치인가 신청서류〉

(사립영광학교)**의 취조서**

一. **학교 설치의 요부**(要否)

1. 당해 학교 설치 군내에서의 이미 설치된 학교는 공립 1, 사립 1이고, 당해 학교와의 거리는 공립학교는 2리(조선식 20리), 사립학교는 3리(30리)이다.
2. 현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개교 년월과 생도수는 다음과 같다.
   개교 : 명치 44년 4월
   생도 : 48명(남 33명, 여 15)
3. 설비는 정돈이 되어 있다.

二. **유지 방법** : 확실하지 않다.

1. 기본재산은 수입이 확실하다.
2. 기부금은 허용되고, 또는 일반 공과에 영향이 있다.
3. 수업료는 징수한다.
4. 설립자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학교의 유지상 출자를 부담하기로 승낙했다.

三. **직원**

1. 설립자와 학교장, 교원은 사립학교규칙 제11조 각호에 해당되며 적임자다.

〈사립영광학교설치허가원〉

본교는 명치44년 4월에 설립하였으며, 금번 조선총독부령 제114호 사립학교규칙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별지 사항을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사조(査照)하신후 인가하심을 복망(伏望, 엎드려 처분을 삼가 바람)한다.

대정원년(1912년) 11월 0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5호
설립자 임중현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설립자 김정현

조선총독 백작(伯爵) 사내정의(寺內正毅) 殿

〈설립사항〉

一. **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목적 : 학력에 달한 아동에게 덕육, 체육과 기타 보통교육에 필요한 학술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함
명칭 : 사립영광학교(私立永光學校)
위치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二. **학칙 : 별지와 같음**

三. **교지**(校地), **교사**(校舍)**의 평면도 및 그 소유자**

도면 : 별지와 같음
소유자 : 설립자 임중현(林仲賢), 김정현(金正鉉)

四. **일개년**(一個年) **수지 예산**

1. 금오백이십엔(金五百二十円) : 수입총액
   내(內)
   금이백칠십엔 : 기본재산에서 나온 이자
   금일백오십엔 : 기부금
   금일백엔 : 설립자 출자

2. 금오백이십원 : 지출총액 내(內)

금삼백육십엔 : 교원 2인 보수

금24엔 : 사정(使丁) 1인 급료

금40엔 : 신탄유비(薪炭油費: 땔나무기름비용)

금40엔 : 서적기계(器械) 구입비

금10엔 : 잡비

금30엔 : 수리비

금16엔 : 임시 구입 등 비용

五. 유지 방법

사립영광학교 유지 방법

1. 기본재산 : 증빙은 별도 첨부함

이영수(李永秀) 기부답(沓) 46두락(斗落) 1개년 수입 정조(正租) 46석(石) 대금 70엔

유지가(有志家) 의연금으로 적립한 금800엔의 1개년 수입이자 200엔

2. 기부금 : 증빙은 별도 첨부함

1개년 수입 150엔

3. 설립자 출자 : 증빙은 별도 첨부함

매년 출자 1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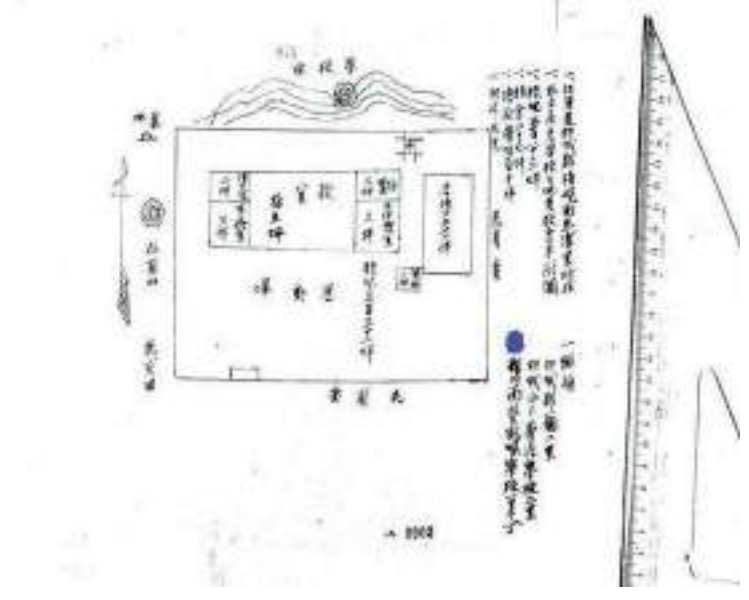
六. 설립자, 학교장 및 교원의 이력서 : 별지와 같음

七. 교과용도서명

사립영광학교 교과용 도서명

〈표10〉

과목	총독부	수신	조선어	한문	농업초보	습자	도화	산술	체조
저자	총독부	좌동	좌동	좌동	福島百藏 김대희	총독부	좌동	좌동	좌동
도서명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 독본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 독본	보통학교 학도용 한문 독본	新選 농업 교과서	보통학교 학도용 습자첩	보통학교 학도용 도화 임본(臨本)	보통학교 교원용 산술서	학교 체조 교수법



사립영광학교학칙(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본교는 학령에 달한 아동에게 덕육(德育) 체육(體育)
과 기타 보통교육에 필요한 학술을 교수함을 목적함
제2조 본교는 사립영광학교라 칭함
제3조 본교는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치함
제4조 학교정원은 100명으로 정함

제2장 수업년한,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

제5조 수업년한은 4개년으로 정함
제6조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는 아래와 같다.

〈표11〉

		수신	국어	조선어한문	농업초보	도화	산술	재봉수예	체조	합계
1학년	시수	1	8	6		2	6	2	3	28
	과정	수신 요지	독방 해석 외	독방 해석 외		도화 임본	정수	재봉법 수예	유희 체조	
2학년	시수	1	8	6		2	6	2	3	28
	과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학년	시수	1	8	6	2	2	6	2	3	30
	과정	상동	상동	상동	농업 실습	상동	소수 속산	의류 수선법	상동	
4학년	시수	1	8	6	2	2	6	2	3	30
	과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분수 주산	상동	상동	

제7조 수업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함 단, 계절에 의하여 변경함

제3장 학년학기와 휴업일

제8조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함

제9조 학년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3학기로 함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
제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함

제10조 휴업일은 아래와 같이 정함

1. 元始祭(1월 3일)
2. 신년연회(1월 5일)
3. 紀元절(2월 11일)
4. 神武천황제(4월 3일)
5. 明治천황제(7월30일)
6. 천장절(8월31일)
7. 神상제(10월17일)
8. 新상제(11월 23일)
9. 춘계황령제(춘분일)
10. 추계황령제(추분일)
11. 일요일
12. 본교기념일(4월4일)
13. 하계휴업(7월21일부터 8월31일)
14. 동계휴업(12월29일부터 익년1월5일)
15. 학년말휴업(3월26일부터 3월31일)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휴업함

제4장 입학자격, 입학과 퇴학, 수업료

제12조 입학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함

1. 품행방정
2. 연령이 8세 이상 15세 이하
3. 신체와 정신이 건전한 자
4. 양육과 보호가 완비된 자

제13조 본과 입학지원자는 검정을 불요함

제14조 입학지원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학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함

제15조 보증인은 생도의 尊族親, 혹은 이에 대하여 감독의 책임을 가진 자를 요함

제16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갖춰 보증인이 연서후 학교장에게 제출함

제17조 아래 각항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을 명함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3. 6개월 이상을 연속 결석한 자
4. 이유 없이 결석이 1개월 이상 연속된 자

제18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제5장 수업과 졸업

제19조 각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평소의 성적과 시험의 성적을 考하여 이를 정함

제20조 시험은 이를 나누어 학기시험과 학년시험으로 하고, 학기시험은 제1학기와 제2학기 말, 학년시험은 학년말에 행함

제21조 생도의 성적을 고사함에는 10점을 정점으로 하여 각 교과 4점 이상, 총평균 6점 이상을 합격의 표준으로 함

제22조 학교장은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한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함

제6장 상벌

제23조 학술우등, 품행방정한 자는 이를 표창하며 또는 상품을 수여함

제24조 생도된 본분을 위배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처벌 함. 처벌은 계칙(戒飭)과 정학으로 함

제7장 직원

제19조 본교에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둠

학교장 1인, 교원 2인

제26조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여 교무를 장리하고, 교원은

생도교육에 종사함

〈이력서1〉

현거주지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5호
사립영광학교 교장 임중현(林仲賢)
명치4년(1871년) 3월 6일생

학사(學事: 학력)
1878년 2월 10일부터 가숙에 입학하여 1787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직사(職事: 경력)
1905년 10월 25일 내부주사(內部主事) 서임
1911년 4월에 본교 교장을 맡음

상벌
벌을 받은 일이 없음

1911년 4월 4일
임중현

〈이력서2〉

현거주지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사립영광학교 설립자 김정현(金正鉉)
1870년 1월 2일생

학사
1878년 3월 7일부터 가숙에 입학하여 1889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경력
1909년 3월에 동아개진(東亞開進)교육회 서기를 역임

상벌
벌을 받은 일이 없음

1911년 4월 4일
김정현

〈이력서3〉

현거주지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7호
사립영광학교 교원 윤태래(尹泰來)
1872년 7월 16일 생

학사
1879년 8월 7일부터 한문서숙에 입학하여 1888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1893년부터 1895년까지 강원도 철원군 공립소학교에서지지(地志), 역사, 박물(博物), 윤리, 산술을 졸업

경력
1897년에 강원도 철원군 송내면 면장을 역임하고 1900년에 해임함
1906년부터 1911년 3월까지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한문서숙에 교수를 역임함
1911년 4월에 본교 교원을 맡음

상벌
벌을 받은 일이 없음

1911년 4월 4일
윤태래

〈이력서4〉

현주소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사립영광학교 교원 이종화(李鍾和)
1911년 4월 4일

학사
1884년 4월 1일부터 한문서숙에 입학하여 1900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밀양군 공립개창(開昌)학교에서지리, 역사, 조선어, 국어(日), 산술, 체조, 수신, 이과, 한학등을 졸업
1905년부터 1906까지 경상남도 진주사범학교에서 속성과를 졸업
1907년부터 1908년까지 내지(일본) 佐賀縣 東松浦 黑崎學校에서 유학함

경력
1909년부터 1911년 3월까지 경상남도 창원부 사립 완월보통학교에 교수를 역임
1911년 5월 1일에 밀양군 천화산외면 면장을 역임하고 1912년 2월 19일에 해임함
1912년 4월 24일에 본교 교원을 맡음

상벌
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1912년 4월 24일
이종화

〈증빙서1〉

본인이 귀교 유지하는 일에 대하여 본군 오현면 대평잡(큰뜰논) 8두락과 수외평답(수외리 뜰논) 17두락과 진평답(津坪논) 5두락과 자산평답 8두락과 삼정동답 8두락 합계 46두락을 귀교에 영위 기부하고, 본인이를 소작하야 수확고46석에 대한 환산대금 70엔씩 매년 납부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繳消)하되 아래와 같이 한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歸附)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기부함

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10통 8호 이영수(李永秀)사립영광학교장 임중현 殿

〈증빙서2〉

본인 등이 금800엔을 귀교에 기부 입본(立本)하여 년 2할 5푼 이식금 200엔을 매년 납부하기로 자에 서약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기부함

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5통 9호 장기순(張基順)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10통 1호 한원일(韓元一)

사립영광학교장 임중현 전

〈증빙서3〉

본인 등이 귀교 유지하는 일에 대하여 각기 所業揮00도중으로 매년 150엔을 연대납부하기로 자에 서약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기부함

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1통 4호 한원삼(韓元三)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김정현(金正鉉)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4호 김주녀(金周汝)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4통 6호 장응서(張應瑞)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3호 이녀순(李汝順)

사립영광학교장 임중현 전

〈증빙서4〉

본인 등이 귀교 유지하는 일에 대하여 매년 150엔을 연대출자하기로 자에 서약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기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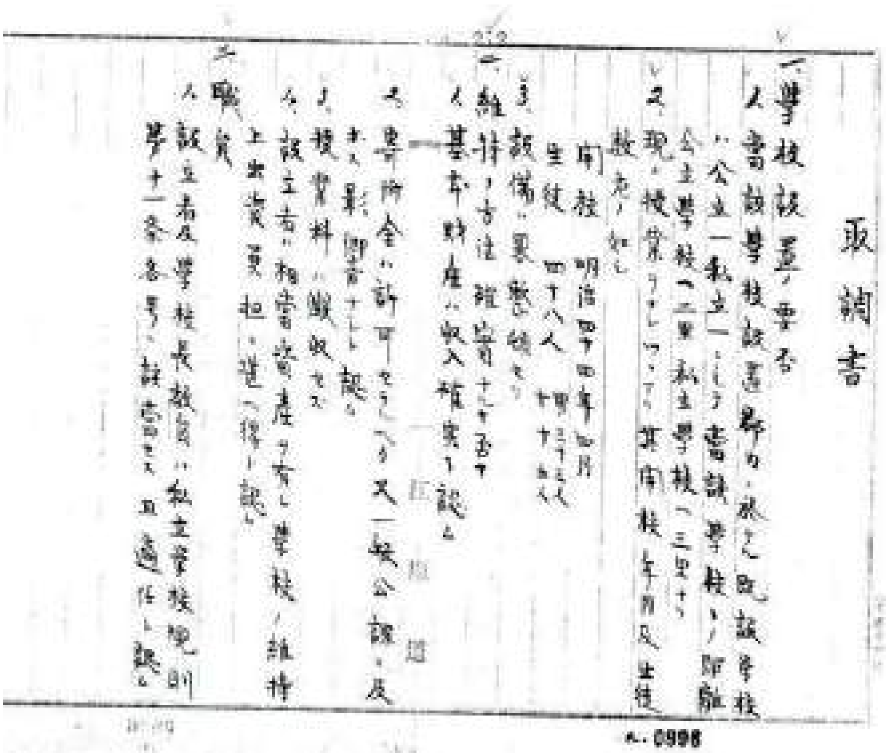
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5호 임중현(林仲賢)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김정현(金正鉉)

사립영광학교 어중(御中)

[원문] 사립영광학교 설치인가 신청서류

大正六年十二月六日
江原道
朝鮮總督伯爵寺内正毅殿
副申
私立學校設置ニ関
スル件
管内杆城郡梧峴面巨津里大統
五戸林仲賢外一名ヨリ別紙私
立學校設置認可申請書提
出ニ付別紙取調書相添及進達
候也



取調書

一、學校設置ノ要否

イ、當該學校設置ノ必要アリヤ、殊ニ既設學校ハ公立ナルカ私立ナルカニヨリ當該學校トノ距離

公立學校ハ二里 私立學校ハ三里ナリ

ロ、又現ニ授業ヲナシツツアラハ其開校年月及生徒數左ノ如シ

開校 明治四十四年四月

生徒 四十八人 男三十三人 女十五人

ハ、設備ハ要整備セリ

二、維持ノ方法確實ナルヤ否ヤ

イ、基本財産ハ收入確實ト認ム

ロ、寄附金ハ許可セラレタルヤ又一般公課ニ及ホス影響ナキト認ム

ハ、授業料ハ徴收セス

ニ、設立者ハ相當資産ヲ有シ學校ノ維持上出資負担ニ堪ヘ得ト認ム

三、職員

イ、設立者及學校長教員ハ私立學校規則第十一條各號ニ該當セス且適任ト認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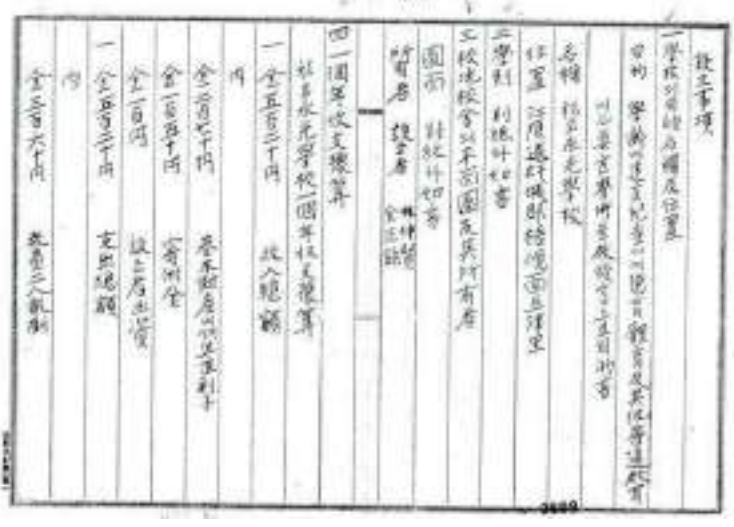
A.0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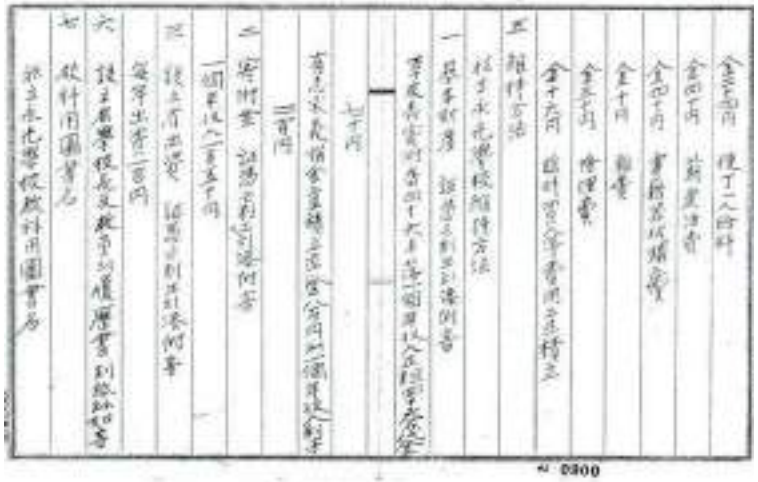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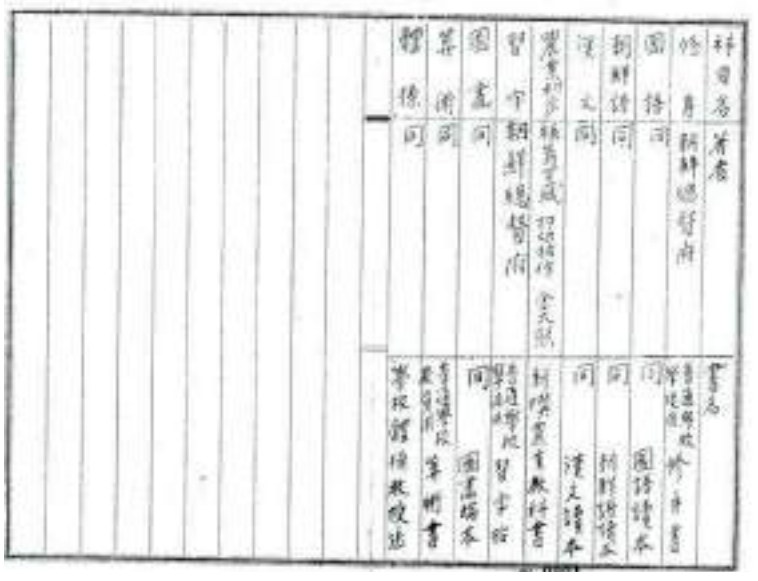
江原道杆城郡梧峴面上津里私立永光學校設置認可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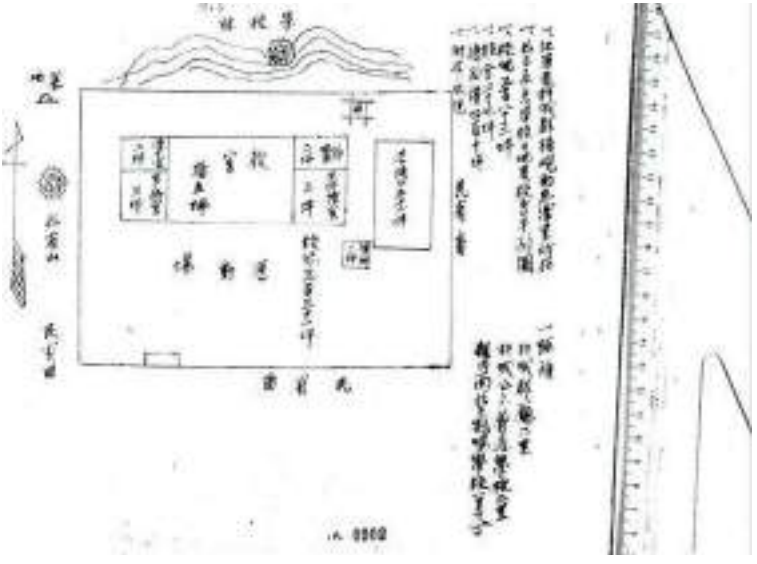
杆城郡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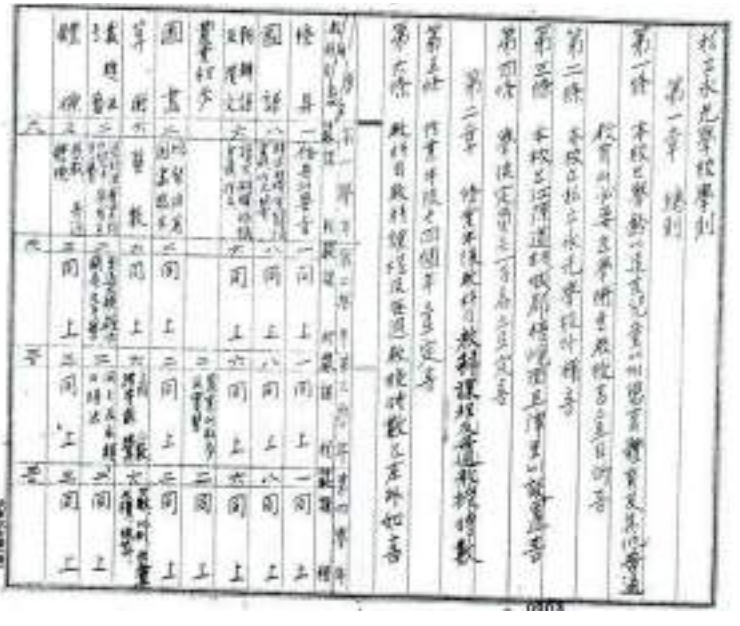
Ir. 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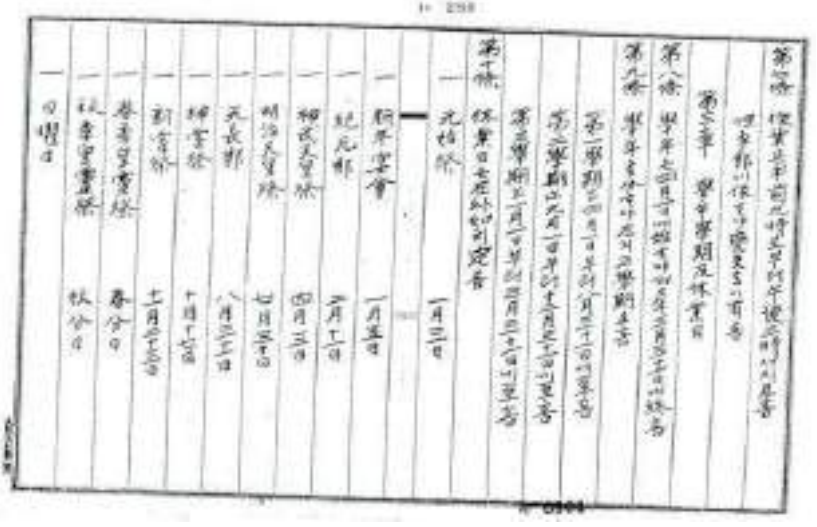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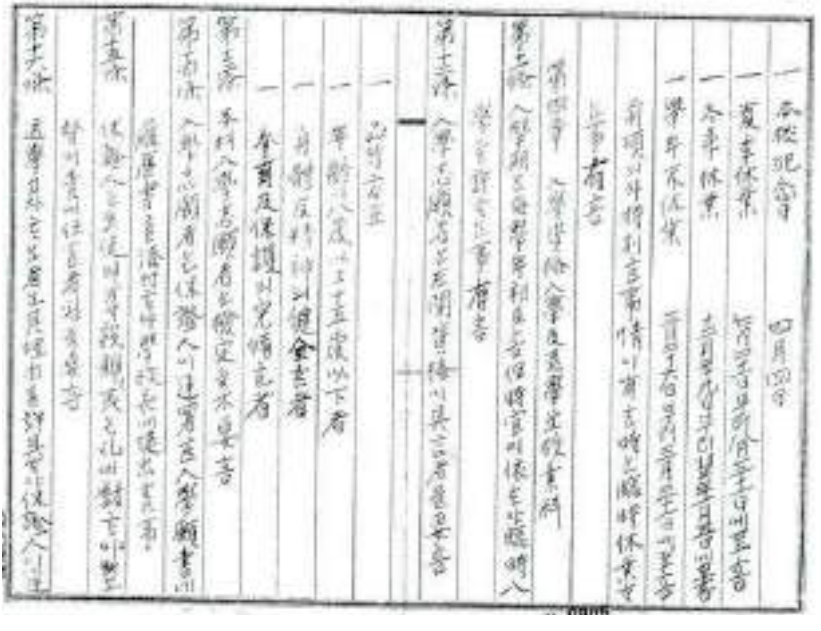












履歴書

咸鏡南道[illegible]郡[illegible]面[illegible]里[illegible]統[illegible]戸

私立[illegible]學校長 林仲賢

明治[illegible]年[illegible]月[illegible]日生

學事

明治[illegible]年[illegible]月[illegible]日[illegible]

職事

明治[illegible]年十月[illegible]日[illegible]主事 叙任

明治四十四年[illegible]月[illegible]日[illegible]校長[illegible]任[illegible]

賞罰

賞罰[illegible]

明治四十四年四月四日

林仲賢

0008

履歴書

咸鏡南道[illegible]郡[illegible]面[illegible]里[illegible]統[illegible]戸

私立[illegible]學校校長 林仲賢

明治[illegible]年[illegible]月[illegible]日生

學事

明治[illegible]年[illegible]月[illegible]日[illegible]

職事

明治[illegible]年十月[illegible]日[illegible]主事 叙任

明治四十四年四月四日 本校長[illegible]任[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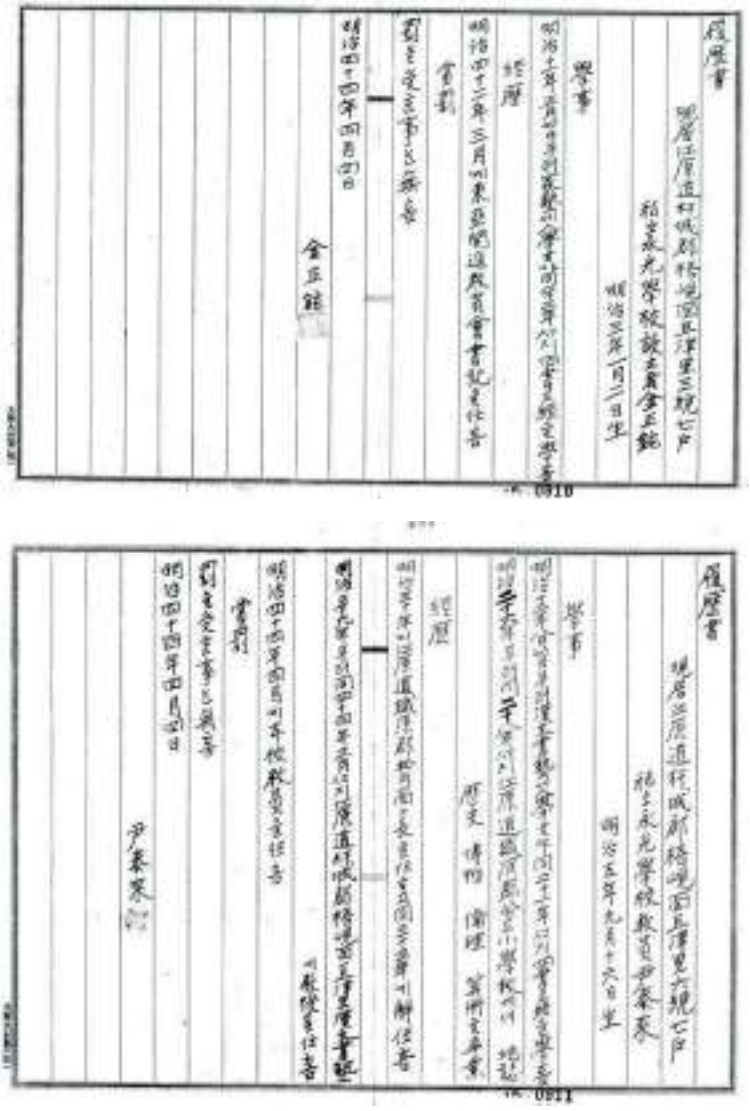
賞罰

賞罰[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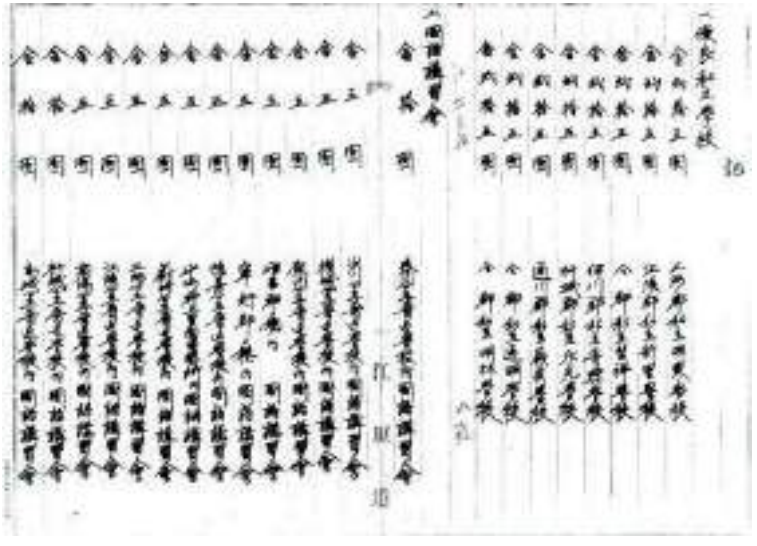
明治四十四年四月四日

林仲賢

0009



〈사립학교 및 국어강습회 경비 보조에 관한 건〉(1914년 1월 13일)



영광여학교(永光女學校)

- **학교 위치**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 **설립 시기** 1910년 ~ 1913년 사이
- **설립 주체**

앞서 영광학교의 기술에서 "오현면 거진리에 사는 김의종씨와 그 부인 김씨가 군내 사립 영광학교를 설립할 때에도 많은 의연금을 지출하였고, 사립 영광여학교를 건축할 때는 부인 김씨가 50원을 기부하였다. 그밖에도 학교 교원의 월급과 일반 경비를 매월 담당하여 학교가 날로 흥왕하였다"고 내용을 소개하면서 영광여학교의 설립과정을 언급했다.(1919.5.29. 매일신보) 이러한 여학교의 등장은 3·1운동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아닌 지역주민의 힘만으로 궁벽한 지방에 여학교까지 설립한 경우는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당시의 경제사정과 남존여비 사상의 전통이 공고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학교의 존재는 지역 교육사에서도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1960년대 이후 고성군 지역에 여자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은 거진읍뿐이며, 그것은 바로 영광여학교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불 수 있다.

〈유시부유시부〉

세상에 희한한 인물

일반재산가의 모범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사는 김의종 씨와 그 부인 김씨는 모두 60세의 노인이다. 본래 경성 사람으로 십여 년 전에 간성으로 낙향한 후 농사에 주야로 힘을 쓴 결과 지금은 간성군 부호의 지위에 있으며, 천성이 극히 인자한 가운데 슬하에 혈육이 없어 여러 방면으로 재산을 쪼개어 자선사업에 힘들이기를 기꺼이 한다. 그 동리 빈궁한 백성에게 봄가을로 옷감을 나눠주기도 한다.군내 사립영광학교를 설치할 때에도 다수의 의연금을 지출하였고, 사립영광여학교를 건축할 때에는 그 부인 김씨가 50원을 기부하였다. 그 학생친목회에도 30원을 기부하였다. 여학교의 교원 월급과 기타 일반 경비를 부인이 매달(每朔) 담당하고 있어 학교의 정황이 날로 흥왕해지고 있다. 금년 봄 그 고을 오현면사무소를 건축할 때에도 부부가 각기 50원씩 기부하였다. 두 사람이 자선사업을 즐기고 재물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명예(로움)가 향읍(鄕邑)에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에서도 은잔 2개씩 하사하였다.

기사 가운데에 특별히 김의종 씨 내외의 사진을 현출(顯出)하여 세상에 드문 인물을 표창하였다.

〈사립 영광학교의 소식(매일신보, 1913.5.29.일자)〉

영명학관(永明學館)

- **학교 위치** 고성군 오대면 원당리
- **설립 시기** 1923년
- **설립 주체** 최도철 외

<고성영명학관 신축>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은 상당한 교육기관이 없어 부급(타향으로 공부하러 감)아동이 도로를 방황하고 있다.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씨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동지 2,3인과 함께 상의한 후에 자기 주택에 사립영명학관을 설립하였다. 오대면 아동과 인접 현내면 아동을 모집하여 국어(日), 산술, 한문, 체조 등 학과를 교수하고 있다. 현재 학생이 60여 명에 달하여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한데 교사가 협착하여 교육상 불편한 감이 있어 이번에 교사를 새로이 건축하는 중이다. 이에 대하여 동정을 표한 인사의 씨명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김의종, 건봉사중(中), 김성택, 김득수, 원당리중(中) 각 10원, 남상교 7원, 정의태, 최재철, 김주엽, 최도철, 용하리동중(洞中,동네일동), 김중명, 양주익 각 5원(5원 이하 생략)

〈매일신보, 1923.8.16일자〉

<오대면개량 영명사숙>

고성군 오대면에서는 일반 아동의 교육기회가 없어 면민 전부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도철, 정의태, 남상교 외 10여 인의 발기로 본면 원당리에 개량사숙을 설립하고 남국우, 김철수 양씨를 초빙하여 교수하고 있는데, 생도는 50여 명에 달하고, 학과는 조선어, 한문, 일어, 산술 등이더라.

〈동아일보, 1923.3.2일자〉

창신학원(昌信學院)

- **학교 위치** 오대면 산북리
- **설립 시기** 1930년대 초
- **설립 주체** 김만조

<아들의 유지 받아 교육사업 위하여 토지 3만 7천평 희사>

시가로 환산하면 2만원 거액, 간성 이근실 여사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산북리 김만조 군은 일찍이 일반의 촉망이 많았는데, 배우지 못하는 불행한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 고향에서 사재를 던져서 창신학원이라는 학교까지 경영하였다. 금년 3월 4일에 신병으로 경성대학병원에서 2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족으로는 58세 되는 모친 이근실 씨가 있을 뿐인데, 아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그가 운영하던 교육사업을 완성하고자 유산 중 논 3만 7천 5백평(시가 2만여원)을 예수교 감리교 간성구역에 내놓았다.

아들의 유지 받아
教育事業爲하야
土地 三萬七千坪喜捨
杆城李根實女史

〈조선중앙일보(여운형),1936.6.17.일자〉

김만조군의 기념사업으로서 교육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지난 5월 6일에 이근실 여사와 그의 친족 고봉섭, 김기수, 이홍순, 박재원 등 여러 사람과 감리교 간성구역 대표 김대섭, 이동진 씨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또한 오대공립보통학교에 교실 증축을 위하여 금 1천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일반은 고인이 된 김만조를 더욱 추억하며 이근실 여사에 대하여 감사의 소리도 높다. 이 책임을 인수한 감리교 간성구역 대표자 여러분들께 김만조 군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포남학교(浦南學校)

- **학교 위치** 오대면 송포리(옛지명 포남리)
- **설립 시기** 1930년대 말
- **설립 주체** 윤문현

1930년대 말 오대면 송포리(옛지명, 포남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정보는 학교운영자의 후손인 윤근호의 증언에 따랐다. 조선시대부터 운영해오던 서당을 증언자의 조부가 자재를 기부하면서 학교로 개량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명칭은 '관립학교'로만 기억하고 있다.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 3인 모두 문중인들이었다. 교과목은 일본어, 산술(수), 수신, 각종 수공작업 등 보통교육과 실습이었다. 특히 일본어 교육이 철저하였다. 학생들은 일정액의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 한다. 이 학교의 옛터에는 현재 송포리 마을회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사진 속의 학교 건물은 한국전쟁으로 멸실[3] 되었다. 이 학교의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진설명 : 일제 강점기 포남학교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기념 촬영한 것으로 촬영 시기는 1942년경으로 추정된다. 왼쪽의 건물은 이전부터 서당으로 사용된 교사(校舍)이고, 오른쪽 건물은 1940년 무렵에 신축한 교사(校舍)이다. 자료 제공자: 윤근호 87세 거진읍 송포리 거주)

3) 구술자: 윤근호, 87세, 거진국민학교(일제), 거진초급중학교, 고성고급중학교 출신, 거진읍 송포리 거주, 간성향교의 전교를 지냄

금천학원(錦川學院)

- **학교 위치** 간성면 탑동리(1리)
- **설립 시기** 1940년경
- **설립 주체** 문용익의 부

간성면 탑동리에 설치된 학교로 일종의 개량서당이다. 설립 시기는 1940년 전후로 추정되며 3,4년간 운영되었다.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이들의 구술에 따르면, 교사는 탑동리 문용익이며, 배운 과목은 일본어와 산술이었다. 학교에서 한글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다. 학교는 초가집 별채를 사용하였다. 학생수는 20명 내외였으며, 금강산 수학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4)]

간성문묘 부설 간성명덕학원(杆城明德學院)

고등과 - 중등학교

- **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교동리 문묘(文廟, 옛 향교)
- **설립 시기** 1937년 4월
- **설립 주체** 간성유림회

상세한 설명은 이후 〈사립 중등학교〉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4) 구술자 : 지석근 87세 고성문화원 향토연구소 자문위원, 간성읍 거주/ 장근호 90세 죽왕면 거주

수성학원(迶城學院)수성보통속성학원

- **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하리
- **설립 시기** 1922년 봄
- **설립 주체** 수성청년회(迶城靑年會)

수성보통속성학원은 간성면 수성청년회의 청년들이 1922년 봄에 설립한 2년제 학교였다. 그 지속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신문 보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간성읍내 수성청년회에서는 지난 봄에 보통속성학원을 설립하고, 간성공립보통학교의 입학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도 120여 명을 수용하여 보통학교 4개년 교과과정을 2개년으로 수료시키는 것으로 교수 중이다. 그러나 간성면장 남현익은 敎堂이 없음을 큰 비관으로 생각하여 면사무소 부속건물 1동을 수리 제공하고, 청년회 총무 박태선이 열심히 교수하며 체육부장 전창영이 열성으로 사무를 본다더라."(1922.7.22. 매일신보) 당시는 간성 지역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간성공립보통학교(1912)뿐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간성공립보통학교의 규모는 5학급을 넘는 정도였다.(1918.4.23. 매일신보) 따라서 입학난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사정을 살펴 수성청년회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다. 특히 수성청년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회장직을 맡아 수성청년회를 이끌어가면서 보통속성학원에서 교사로 활동한 박태선은 독립운동사에서 활약이 매우 컸던 간성

출신의 인물이다. 그는 청년회의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을 계몽하는 강연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의 조직에서도 맹활약하여 원산파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광섭, 『고성의 독립운동사』 고성문화원, 2018, 42-43쪽)

<수성청년회사업>

강원도 간성읍내 수성청년회에서 금년(1922) 봄에 보통속성학원을 설립하고, 간성공립보통학교에 입학난의 생도 120여 명을 수용하여 보통학교 4개년 교과정도를 2개년에 속성, 수료하기로 하고 현재 교수중이다. 간성면장 남현익 씨는 교장(敎場, 교육장소)으로 간성면 부속건물 1동을 수리하여 제공하였다. 수성청년회 총무 박태선, 체육부장 전창영 양씨의 열성하에 성적이 거익양호하다더라.

〈동아일보, 1922.7.25일자〉

<수성학원의 호성적>

간성 수성청년회 주최로 전년(1922)부터 수성학원을 설립하여 현재 생도는 90여 명에 달하고, 갑을종으로 분교하였다. 간성 수성

청년회 주최로 전년(1922)부터 수성학원을 설립하여 현재 생도는 90여 명에 달하고, 갑을종으로 분교하였다. 매일 5시간씩 2학과로 되어 있다. 교원 박태선 씨는 열성으로 교수한 결과 갑종 생도는 보통학교 5,6학년 정도가 되고, 을종은 2,3학년 정도를 취득하였다. 지방 제씨는 박태선의 열성을 칭송하며 학원을 더욱 신축하기 위하여 생도 1명 앞으로 매시 양미 2숟가락씩 저축하게 하고 제씨의 의연금도 1천여 원을 모집중에 있다.

逆城學院의好成績
消費組合擴張

〈조선일보, 1923.7.1일자〉

<수성학원 수학여행>

간성군 수성청년회 주최로 설치된 수서학원 생도 40여 명은 국추를 복하여 음력 8월 20일부터 박태선 씨의 인솔하에 6일간 금강산 탐승을 예정하고 있다는데, 생도 각자에게 여비 1원 50전씩 추대한다고 전하고 부족액은 청년회에서 보조할 예정이라더라.

逆城學院修學旅行

〈조선일보, 1923.9.21일자〉

<수성청년현상토론>

강원도 간성에 있는 수성청년회에서는 본월(8월) 22일 오후 7시부터 수성학원에서 유학생현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였다.

· 문제 : 낙원을 건설함에는 도덕이냐 경제이냐

· 심판 : 박태선, 함연호

· 수상 : 함유도

· 등수 : 1등 함창래, 2등 함흥기, 3등 함응래

遼城青年懸賞
討論

〈조선일보, 1924.8.29일자〉

가진학교(加津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가진리
- **설립 시기** 1938년 전후
- **설립 주체**

1938년 전후 죽왕면 가진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증언을 토대로 기술한다. 구술자들은 학교명을 '관립학교'로만 기억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각종 연극,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금강산)을 실시했다. 학생수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인근에 학교가 없고 공립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일정한 수업료를 지불했으며, 교사는 철두철미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생활화하였으며 한글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다고 기억한다.[5] 또한 교사들은 저자(이성식)의 조부집에서 하숙을 하였다고 한다.

5) 구술자 : 오의택 87세/ 배인준 87세/ 김평강 84세/ 박대근 63세-가진리 거주 / 이순덕 90세, 공현진리 거주

공명학교(公明學校)-4년제 인가학교

- **학교 위치** 간성군 왕곡면 공수진(현 죽왕면 공현진리)
- **설립 시기** 1910년 3월 31일 설립[『강원도상황경개』(1913)]
- **설립 주체** 박근형 외 지역인사

공명학교는 근대 사립학교인 공명의숙(1908)이 발전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다. 춘천헌병대에서 1913년 작성한 통계에 공명학교가 등재된 사실로 판단한다면 이미 사립학교령의 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일찍 인가된 근대 사립학교였다.(박순조 번역, 『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04쪽)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의 『조선인 교육 사립학교 통계요람』[(1913-191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수 : 3명
나. 생도수 : 재적자 42명, 출석자 35명
다. 교과용도서 : 편찬 9, 검정 2, 인가 0, 불인가 2개
라. 경비
　기본전답 수입 51円(엔)
　기본금 수입 -
　설립자 출자 108円
　수업료 -
　기부금 180엔
　합계 339円
마. 설립자 : 박근형(朴根亨)
바. 교장 : 김형근(金衡根)

명동학교(明東學校)-명동의숙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아야진리
- **설립 시기** 1908년 전후
- **설립 주체** 〈개화기 근대학교의 현황〉 참조

명동의숙은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이며, 토성면 아야진리에 위치한다. 위치한 학교이며, 20여 년을 유지해온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다. 당시 신문은 전한다. “아야진에 있는 학교로 군내 유지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는 중이다.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수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무하고 있다.[6)]

巡廻探訪
山岡水腹하고
地味가 肥沃

〈동아일보, 1927.9.5일자〉

6)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아야진학원(我也津學院)

- **학교 위치** 토성면 아야진리
-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 **설립 주체**

<양양청년 토성지부 1월10일 설립>

양양군 토성면에서는 군청년동맹지부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부 설립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활동한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으며, 활동을 계속하여 회원이 정수에 도달하자 지난 10일 오후 7시에 토성면 아야진학원내에서 이용성 군의 사회로 지부를 설립하였다. 피선된 임원과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1928.2.7일자〉

·임원
지부위원장 이용성, 위원 한명일, 서인찬, 김대희, 하일청, 김유희, 우길명, 함승호, 김학성, 후보 진상길

·의안
교육에 관한 건
회원 모집에 관한 건
회관에 관한 건

천진사설학술강습소(天津私設學術講習所)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
- **설립 시기** 1924년 6월
- **설립 주체** 토성지역 인사, 동성청년회(회장 함정길) 등

토성면 주민들은 1923년 학교설립 기성동맹을 조직하고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을 염원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먼저 강습소를 개설하였다. 이후 천진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얻으면서 강습소는 폐지하고 학생들은 그대로 보통학교로 편입되었다. 사설강습소가 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전환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토성면민 공보기성>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에서는 어린 학생의 교육열이 팽창하였으나 수용할 기관이 없어 토성면 인사가 대정11년(1922년) 11월에 공립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7천원의 금액을 수합하였다. 토성면 천진리에 5천평의 기부 기지와 인부 9천여 명이 열심히 자발하여 목재를 운반하며 기지와 운동장을 닦고, 6천 1백 5십 8원의 건축청부입찰을 하여 1924년

〈조선일보, 1925.2.6일자〉

4월에 2개 교실을 준공하고 양양군 각면 지정 기부금 4천 2백원으로 부속건물 공사를 착수하였다. 학부형과 토성면 동성청년회의 기부금 6백여 원으로 비품도 사들였다.

1924년 6월에 토성면 주최로 강습회를 개설하여 현재 재학생이 129명이고, 열열한 토성면 인사는 금년도(1925년)에는 공립보통학교의 허가를 갈망하며, 지난 9일에 강원도지사 박영철 씨의 지방순찰을 기회로 환영회를 개설하고 공보 허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더라.

<양양학교평의회>

보교 1개증설가결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양양학교평의회를 양양공립보통학교 내에서 개최하였다. 가결된 원안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수업료를 70전으로 개정하고, 대(토의 오자)성면평의원 김창현 씨의 제안으로 천진강습소를 공보로 승격한다고 결정되었다. 자본은 학교재산 4천원 중에서 3천원을 불하(拂下, 팔아넘김)하고 현 재학생 160인의 수업교 년수입 1천원, 합계 4천원으로 정하였다.

〈조선일보, 1925.3.30일자〉

<무엇이나 불인가>

양양군민 대의아

양양군 토성면 천진보통학교는 건축 후 3,4년을 경과하였으나 도당국에서 예산부족이거나 타군의 권형(權衡, 균형추, 형평성)이라는 등 구실로 인가하지 않고 있다. 대포, 오호, 인구의 (보통)학교 학년연장도 인가한다 하면서 올해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 일반은 의아하고 괴상하다고 하면서 군민 일동은 도당국의 태도 여하를 괄목 주시하고 있다. 장래 강릉군 중등학교 설치비에 대하여 부과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각면 각리에 노동서당을 설치하여 시대 순응인 실제의 교육을 시행하자는 군내 유력자회의가 있었다.

무엇이나
不認可!
襄陽郡民大擬議

〈조선일보, 1926.2.26일자〉

<천진공보교>

계해(1923년) 가을에 면내 유지 여러 사람들이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결정으로 토성면 천진리 울창한 송림 속에 한 교실(一宇校舍)을 건립하였다. 그후 공립 인가를 얻고자 무한히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이에 함정길 외 유지들의 노력으로 강습소를 설치하고 면내 자제를 도야하여 왔다. 지난해(1926) 3월 4년제 인가를 얻게 되면서 강습소를 폐하고 학생들을 그대로 편입하였다. 현재 2학급에 아동은 남녀 공히 45명이고, 교원은 2명이다. 금년 봄 졸업생이 남녀 22인이다. 지난 5월에 교장 외 면내 유지들의 노력으로 부속 강습과를 설치하고 교원 1명을 초빙하여 졸업생들을 교수중이라더라.

巡廻採訪

〈동아일보, 1927.9.5일자〉

6. 사립 중등학교

봉림학교와 간성명덕학원

간성군에서의 중학교 수준의 학교는 1921년의 건봉사 봉림학교와 1937년의 간성문묘(향교)내 간성명덕학원(1937년)이 운영되었다. 공립 중학교의 설립은 1942년 장전읍 성북리에 금강중학교가 최초다.

봉림학교(鳳林學校)-봉림학원

- **학교 위치**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 **설립 시기** 1923년 4월(이영선, 『금강산 건봉사사적』(2003)에는 1921년 설립으로 기록됨)
- **설립 주체** 건봉사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하였다)

.....

사립봉림학원 : 오대면 건봉사 소재

.....

高城郡에 敎育機關

〈조선일보, 1924.2.16.일자 〉

<건봉사화상교육열>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건봉사 현주지 이대련, 전주지 이운파, 김영찬 등 제화상은 사내 청년과 부근 보통학교 졸업생 또는 학령 관계상 배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자제의 앞날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1만여 원 가격의 건봉사 소유토지 연수익 백미 5천두 가량되는 재산을 출자하여 고등보통, 초등보통의 혼합제 봉림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오는 4월경에 생도 약 2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乾鳳寺和尙敎育熱

〈조선일보, 1924.2.16.일자〉

<봉립학우회토론>

고성군 건봉사 봉림학우회 주최로 지난 달 24일 토요 오후 7시에 봉림학교 교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인수는 120여 명에 달하였으며, 연제와 연사를 다음과 같다.

연제 : 문화발전에는 여자교육이냐 남자교육이냐

연사 : (가편) 이응춘, 손명숙, 김동섭

(부편) 신태준, 이석근, 김인학

鳳林學友會討論

〈조선일보, 1923.12.8일자 〉

간성문묘 부설 **간성명덕학원**(杆城明德學院)

고등과 - 일명'명덕중학원'

- **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교동리 문묘(文廟, 향교)
- **설립 시기** 1937년 4월
- **설립 주체** 간성군 유림회(儒林會)

간성명덕학원은 간성향교에서 직영한 중등과정의 학교로서 1937년 4월에 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 중등과정으로 추정하며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고 일제의 탄압으로 1941년 3월에 폐교되었다.(『간성향교지(보정판)』 고성군, 2013, 133-134쪽) 이 학교의 소풍 장소가 건봉사였던 것을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성일보 1941.5.21.일자의 〈간성유림회 총대회〉의 기사에서는 명덕학원의 운영이 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학교가 없던 지역 사정과 주민들의 염원으로 설립된 학교라 할 수 있다. 한편 1930년대에 일제는 관제 계몽운동인 농촌진흥운동(갱생운동)과 심전개발운동(민중교화)을 전개하였다. 특히 심전개발운동은 정신 계몽운동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각 면에 '명덕청년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강원도에서도 심전개발운동을 위해 관동명덕회 주최로 철원향교에서 연합유림대회를 열고 민중교화운동을 전개하였다.(1935.9.26. 매일신보) 따라서 명덕중학원이 명덕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간성명덕학원－인가원을 제출**>**

강원도 고성군 간성 문묘(구 향교)에서는 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상급학교에는 가기 어렵거나 연령이 너무 어린 관계로 농사나 또는 취직에도 맞지 않는 소학교 졸업생에게 좀 더 배움의 길을 주기 위하여 유림 1천여 가정에서 매호 당 매년 일월금을 내어 '간성명덕학원'이라는 '고등과'를 설치 및 경영코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도당국에 그 설립허가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것이 속히 되기를 유림 각호는 누구나 이구동음으로 바라고 있다. 사계의 이름 있는 인사들은 많은 후원과 동정을 바란다.

杆城明德學院

認可願을提出

【杆城】강원도고성군간성문묘에서는 보통학교졸업생으로 상급학교에는 가기어렵고 무어린관계로 농사나 또는취직에도 맛지못한소학교졸업생에게 좀더 배움에길을주기위하야 유림일천여호에서 매호당매년일월금을 내여간성명덕학원이라는고등과를 설치경영코저 모든준비를하여놋코 도당국에다 그설립허가원을 제출하인바 이것이속히되기를 유림각호에서는 누구나이구동음으로 바라는바이며 사게에 유의한인사에 만흔후원과 동정을 바란다고한다

〈매일신보, 1938.6.28일자〉

<간성유림회 총대회>

18일 오전 11시 간성명덕학원 강당에서는 유림 총대회가 개최되었다. 우선 대성전에 참배하고 국민의례가 있고 나서 전년도 결산보고, 금년도 수지예산 의정, 회칙 일부 개정, 고성군 유도회 결성 전말보고, 최후에는 명덕학원 유지회의 평의원 10명을 추천하여 주요 의사를 처리하고 오후 4시에 산회하였다.(경성일보 1941. 5. 21.)

〈경성일보, 1941.1.9.일자 광고〉

광고를 통하여 명덕학원의 공식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간성문묘 부설 간성명덕학원"

1) 서당(書堂)

[서당]……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에서도 서당은 발달하였으며, 그 명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1910년대와 1920년데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서당이 성행했던 시기이나 1920년대 후반과1930년대에는 서당의 수가 급속히 감소하였다.(천성호, 전게서, 85쪽)

1912년의 통계에서 강원도 21개군의 서당수는 1,405개(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7년 5월에는 1,888개가 된다.(『고성군지』 1986년, 825쪽) 또한 1930년 『양양군세일반』에는 양양군의 서당수가 95개이다. 당시 토성면과 죽왕면은 양양군에 편입되었으며, 양양군 전체의 마을수는 161개였다. 1930년 초 고성군의 서당수는 강원도 타군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한편 1930년대 후반에 오면 서당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성군 서당강사의 강습회가 읍내 남소학교에서 열렸는데 관내 23개소 서당 강사가 참가하였다고 전한다.(1938.8.11. 매일신보) 이들 23개소의 서당은 개량서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서당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2.21일부로 〈서당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서당 설립에 관하여는 군수에게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서당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련 내용(설립자, 위치, 서당명, 학생수, 교원, 교과서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매일신보, 1918.2.22.) 이어 1929년 6월 17일부로 서당규칙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즉 서당의 설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고, 교과서는 반드시 총독부의 편찬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품행이 불량한 교사는 채용할 수 없었다.(조선신문, 1929.6.16.) 또한 1934년부터는 '개량서당(改良書堂)'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440개 정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서당에는 유자격자 교원 1인을 배치하고, 수업 연한은 2개년으로 연장한다. 교과서는 수신, 국어(日), 산술 등 보통교육을 수업하며, 농촌 중견 청년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동아일보, 1933.9.1.)

四百餘書堂과講習所에
認可前授業을中止
關係兒童이五千餘名

〈조선일보, 1930.12.13일자〉

| 고성군 서당 현황 |

<4백여 서당과 강습소 인가 전 수업 중지>

강원도 당국에서는 서당, 강습소 등에 대하여 총독부령으로 된 인가 수속을 밟도록 각 군수 및 경찰 측에 엄명함과 동시에 만일 시급히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폐쇄를 명령하기로 하였다. 당국에서 조사한 것에 대하여는 비밀로 하여 알 수 없다. 모처로부터 탐문한 것으로는 서당이 약 450처이고 관계 아동이 5천 명에 달한다. 강습소는 5곳으로 약 300명 가량 수용되어 있다.

<서당을 강습소로> 현재 서당수 480여 개소, 강원도의 적극 방침

현재 강원도내의 서당이 480개소로 그중 개량된 것이 410개소이고, 취학 아동이 무려 9,716명인데, 당국으로서는 서당 중 우수한 것을 점점 학술강습회로 만들 방침이다. 현재 30개소의 학술강습회가 있으며, 2천여 명의 아동이취학하고 있다. 서당의 군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書堂을講習所로
現在四百八十餘
江原道의

〈조선일보, 1930.12.13일자〉

군명	서당수	아동수	군명	서당수	아동수
춘천	13	257	정선	1	30
인제	14	312	평창	6	240
양구	10	174	영월	9	242
회양	25	423	원주	11	385
통천	28	362	횡성	39	563
고성	43	1,070	홍천	21	453
양양	46	825	화천	17	286
강릉	44	597	김화	40	817
삼척	33	1,213	철원	30	601
울진	-	-	평강	42	807
이천	11	59	합계	483	9,716

| 고성 서당교사 강습생 |

<서당교사강습>

고성공보교주임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고성군내 각 서당교사강습회를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하였다. 경비는 강원도에서 부담하고 참가 강습생은 22명이고 과목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33.4.3일자〉

과목 : 교육령, 교수법, 서당교칙, 교과서취급방법
강사 : 小谷고성군속, 榊雀교장, 양, 박 훈도

2) 야학(夜學)

[야학운동]····· 대한제국 시기 노동야학(교)에 대한 열의도 높아 많은 학생들이 야학을 통하여 근대학문을 배웠다. 고성 지역의 노동야학교는 간성에 노동자들의 자립적인 힘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간성군 노동자들이 발기하여 설립하고 교사 남현필이 의무로 가르쳤다.(1909.8.14., 황성신문) 이 학교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학교라는 점에서 (노동)교육운동사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왕곡면의 공명의숙에서도 50여 명의 노동야학생이 공부하였다.(1910.3.12., 대한매일신보)같은 시기에 토성면에서는 금화정에 노동학생이 30여 명이고, 운봉리는 40여 명, 학야동(리)은 20여 명인데, 김주현이 자담(自擔) 교수했다고 한다.(1909.2.26. 대한매일신보)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 군내 다른 동리의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1908년 이후 노동야학이 성행하고, 학생들은 대부분은 농민, 혹은 어민 자제들이었으며,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야학의 교과목은 한글과 초보적인 한문 및 산술, 일어 정도였다. 당시 야학운동의 주체들은 '일어와 산술만 배우면 국가는 부강해진다'는 인식이 있었다.(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223쪽) 야학 교재는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남궁억의 『교육월보』, 현채의 『유년필독』 등이 있다. 『노동야학독본』은 사상적 보수성과 유길준의 친일적 행보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했고, 순한글로 편찬한 『교육월보』는 '종합강의록'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방에서 인기가 높은 교재였으며, 『유년필독』은 역사와 지리의 내용까지 겸비한 한글교재로서 가장 많이 보급된 교재였다. 그밖에 한글판 신문이나 잡지도 교재 역할을 대신했다. 이러한 교재들이 고성의 야학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명동학교에서는 측량과를 운영한 점으로 보아 실용적인 과목도 교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김형묵의 『대한제국기 야학운동』의 「한말 강원도 야학일람표」(369쪽)에 따르면 강릉과 통천, 그리고 간성이 야학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원산의 이른 개항이 초래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렇듯 왕성한 야학운동은 1920년 이후 문화운동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특히 간성지역에서는 수성청년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1930년대에는 영동지역에서 혁명적농민조합운동을 통해 야학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천성호, 전게서, 143쪽) 특히 1931년 고성사회운동협의회와 혁명적농민조합이 조직되어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야학운동은 다소 변화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즉 일제의 식민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야학운동은 점차 체계내로 편입되는 경향을 띠기도 하는데 이를 '관제야학'이라고 이름한다.(천성호, 전게서, 146쪽) 일본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보급운동을 전개하면서 야학을 일본어 보급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1938년 3월 27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고성군에서는 1937년 12월부터 농한기를 이용하여 문자보급운동을 한 결과 오대면 산학리 남녀각 30여 명, 거진리 26명, 원당리 23명, 현내면 마달리 36명, 간성면 교동리 25명, 광산리 25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7장

해방 이후 교육

1. 해방후 상황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게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종전으로 인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첨예했다.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갔다. 즉 우리 민족의 독립이 자주적인 힘으로만 추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분단의 상황을 맞았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단의 역사는 각기 다른 이념에 따른 정치체제를 수립하였고, 교육체계도 정치적인 체제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남한은 미군정에 의한 자유주의 교육체계로, 북한은 소련군정에 의한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수립하였다.

현재의 고성군 지역은 해방 이후 소련군정을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영역이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통치영역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주민들은 남북한의 상호 대립적인 체제를 경험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의 삶은 긍정하고 또 하나의 삶은 부정해야만 하는 모순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 교육에서도 두 가치(관)를 교차적으로 인정, 혹은 부정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따라서 결코 가치중립적이고 일관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고성군의 현대교육은 이러한 양극적인 분단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고성군 지역에서 실시된 교육의 내용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남아있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숨길 수 없는 배움의 삶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되찾고자 한다.

2. 소련 점령기의 북한교육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소련군이 38선 이북 지역에 진주하였다. 소련점령기는 1945년 8월 말부터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1948년 9월 9일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이 가졌던 일체의 행정권을 각도의 한국인 인민위원회에 넘긴 뒤 이 기관을 통해서 민간업무를 처리해 나갔다. 또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는 여러 행정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교육관련 업무는 지방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학교를 접수하고 기초적인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초기에는 중앙행정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적인 형태의 각 인민위원회가 모든 행정을 총괄하였다. 따라서 시·군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학교가 임시 개설되고 운영되었다. 초기의 학교운영은 일제의 교육제도를 일부 수용하였다. 따라서 교원들도 일제의 교원이 재임용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교과서도 그대로 재사용되었다. 교육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원산에서는 9월 1일부터 일부 학교가 수업을 개시했고, 11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을 재개했다.(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2003, 71쪽)

이어 북한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5도 10국 행정'체계를 갖추고 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국이 총괄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1945년 11월 21일에 '북조선 학교교육림시조치요강'이라는 교육의 기본원칙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일제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인민〉, 〈국어〉, 〈조선역사〉, 〈지리〉 과목을 신설하고, 사립학교를 인민위원회가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어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20개조 정강'에서 인민의무교육제 및 사립학교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였다. 다시 8월에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국유화하였으며, 12월에는 '북조선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947년 9월에 이를 적용한 새로운 학제를 수립하였다. 즉 학교교육체계는 유치원 3년, 인민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2-4년, 연구원 제도로 하고, 기술(계)학교는 초급기술학교 3년, 전문학교 3-4년, 그리고 대학교 및 연구원으로 하였다. 사회교육체계로는 직장학교체계와 성인학교체계로 구분하여 직장학교는 직장기술학교 3년과 직장전문학교 3년이 있다. 성인학교는 한글학교 4개월, 성인학교 2년, 성인중학교 3년과정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보여주듯이 전국민을 교육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것은 새로운 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해방의 시기에 한국민의 86%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태동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정책과 황민화정책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우리말까지 통제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 남북한 모두 교육문제는 국가건설에서

제일과제가 되었다. 북한 정권은 '전인민을 위한 학교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즉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면제하고, 또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50% 감면해주었다. 기타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야간학교 및 직장기술학교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특히 지방학생들을 위하여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기숙사를 설치하고 식료품을 지원하였다. 학교 건설을 위하여 정부는 총력을 기울였으며, 필요하다면 각종 성금 및 성미운동과 노력동원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련군정 3년간 1,281개 인민학교, 324개 초고급중학교, 16개 직업학교가 건축되었다.(신효숙, 상게서, 141쪽) 다른 통계에 따르면 1950년 6월 현재 4,038개의 인민학교가 확보되었다고 한다.(김동규 등, 『북한교육사』 교육과학사, 2003, 97쪽) 한편 사립학교와 서당 등 기타 교육기관들에 대하여 북한 정권은 점차 국유화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들 학교가 국가 소유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는 1946년 3월의 토지개혁과 8월의 중요산업국유화 법령의 공포였다. 우선 토지개혁으로 교회, 사찰, 종교단체의 소유지를 전면 몰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기반을 붕괴시켰으며, 국가소유로 전환된 사립학교는 인민위원회의 관할이 되었다.

한편, 학교생활을 보면, 북한은 인민공화국의 정부를 수립한 1948년 9월까지 교육과정을 3차례나 개정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

은 1945년 11월 21일 '북조선학교교육림시조치요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식민지 교육의 청산과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것이 과제였다. 일본어 등 일제 강점기의 과목을 폐지하고 국어(한글)와 역사 과목을 중시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은 소련에 관한 지식과 선진과학지식의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아직은 과도기적 교육과정에 그쳤다. 인민학교 교과목으로는 인민, 국어, 조선력사, 지리, 산수, 리과, 체육, 음악, 습자, 도화, 가사, 실업 등이었고, 중등학교 교과목으로는 인민, 국어,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식물, 동물, 도화, 음악, 체육, 가정, 재봉, 습자, 직업 등이었다.

2차 교육과정은 1947년부터 적용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새 사회건설에 부합하는 전면적인 인간을 함양하는 것이었다. 특히 남녀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수신 대신 인민과목이 강조되었다. 인민학교에서는 '인민도덕', 초급중학교에서는 '인민', 고급중학교에서는 '사회과학', 대학에서는 '맑스 레닌주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간주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후 교육국을 '교육성'으로 승격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49년 9월부터 적용하였다(신효숙, 상게서, 141쪽) 3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공화국 건설과 함께 헌법이 탄생하였으므로 초급중학교에 '헌법' 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고급중학교에 천문학과

론리학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인민과 사회과학, 직업의 과목은 폐지하였다. 교과목으로는 인민학교의 경우 국어, 조선력사, 지리, 산수, 리과, 체육,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이 있었고, 3학년까지는 국어, 산수, 체육,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만을 배웠다. 초급 및 고급중학교의 경우 헌법, 국문, 문학, 조선력사, 세계력사, 지리, 수학, 천문, 생물, 물리, 광물, 화학, 론리학, 외국어(노어), 음악, 도화 및 용기화, 공작, 체육, 실습이었다. 특히 헌법은 초급중학교에서만 가르쳤고, 천문, 광물, 론리학은 고급중학교에서만 가르쳤다.

교육평가도 개선하여 1947년부터 졸업 및 진급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김동규, 전게서, 80-811쪽) 교육평가는 절대평가를 채택하였고, 성적을 5점 만점으로 하여 5단계로 평가한다. 개인간의 상대적인 평가는 없으나, 대신 학교간, 학급간, 분단간의 경쟁은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의 성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학교의 중요한 시험은 학기말 시험, 진급 및 진학시험이 있다. 여기서 진급시험과 진학시험은 국가고사로 운영하였다. 졸업시험은 교육성에서 출제하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필답고사가 객관식이 아니라 모두 서술형이란 점이다. 또한 구답시험은 시험개시 2개월 전에 문제집으로 각급 학교에 배포되고 그 문제집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시험방식은 3개 문항씩을 담은 문제카드가 있어 학생이 자신의 문제카드를 뽑아 시험관 앞에서 그 문제에 답한다. 구답문제는 이론, 실제, 응용분야의 3문제로 구성된다. 평가는 5단계로 하는데, 최우등 5점, 우등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불가 1점으로 한다. 3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진급 및 졸업이 불가능하나, 재시험의 기회도 주어진다.

학교규율과 단체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북한은 정치사상교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훈육주임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계도하였다. 학생들의 훈육방법으로 기존의 욕설과 체벌을 금지하고 설득이나 자아비판의 형식을 취하였다. 학생들의 일상생활태도는 '학생품행점수'로 평가되어 졸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졸업증서는 품행이 5점인 학생에 한하여 수여된다. 학생들의 단체활동은 자치적인 활동에서 점차 정치사회적인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소년회', '건설소년단', '민주소년단' '학생동맹' 등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었으나, 1946년 1월 17일에 창설을 선언한 '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점차 흡수되었다. 당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모두 민청에 가입되었다. 또한 1946년 6월 6일에 창설된 (조선)소년단은 주로 인민학교와 초급중학교 학생(8세-14세)들이 가입하였다. 소년단은 깃발과 휘장, 붉은 넥타이, 단원의 경례 등으로 조직화되었다. 그리고 학교에는 민청과 소년단의 지도원들이 파견되어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 및 감독하였다. 이들 민청과 소년단 학생들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을 고무시키는 활동에 동원되거나 정치적인 가두선전 및 군중집회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또한 '문명퇴치반'이나 '성인학교독려반'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3. 소련 점령기의 고성군 교육

해방 직후 38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할되면서 고성군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공산주의 통치로 이어졌다.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수복되기까지 약 5년간 고성군 주민들은 북한의 통치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문화자본으로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고성군 지역에서 실시된 교육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자 역사라 하겠다. 비록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내용은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향토사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필자의 과업이라 하겠다. 다만 당시의 교육사를 온전히 복원하는 것은 자료 등의 한계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래에 기술되는 내용은 주로 연구자의 참고문헌과 당시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인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교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덧붙인다.

〈고성군 인민학교 및 초·고급중학교 일람표〉

학교급	학교명	소재지
인민학교	천진인민학교	(당시)양양군 토성면 천진2리
	인흥인민학교	토성면 인흥2리

	아야진인민학교	토성면 아야진리
	백촌인민학교	토성면 백촌리
	학야인민학교	토성면 학야리
	야촌인민학교	(당시)양양군 죽왕면 야촌리
	오호인민학교	죽왕면 인정리
	구성인민학교	죽왕면 구성리
	공현진인민학교	죽왕면 공현진리
	간성인민학교	고성군 간성면 상리
	광산인민학교	간성면 광산1리
	거진인민학교	고성군 거진면 자산리
	초계인민학교	거진면 대대리
	냉천인민학교	거진면 냉천리
	송강인민학교	거진면 송강리
	대진인민학교	고성군 현내면 대진3리
	명파인민학교	현내면 명파리
	검장인민학교	현내면 검장리
	마달인민학교	현내면 마달리
분교	광산인민학교 장신분교	간성면 장신리
	간성인민학교 선유실분교	간성면 선유실리
	천진인민학교 화암사분교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
	거진인민학교 죽정분교	고성군 거진면 죽정리
초급중학교	대진초급중학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거진초급중학교	거진면 거진리
	거진여자초급중학교	상동
	간성초급중학교	간성면 상리
	간성여자초급중학교	간성면 신안리
	오호초급중학교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
	천진초급중학교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
고급중학교	고성고급중학교	고성군 고성읍(북)

위에 소개된 인민학교에 대한 정보와 내용은 해당 인민학교와 관련된 인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헌과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참고한 면담연구 문헌은 강원대학교의 전창기 논문 「북한통치시기(1945~1953)의 고성군 수복지구 초·중등교육에 관한 면담조사 연구」(1999년 2월)와 김창호의 논문 「1950년 전후 북한 초·증등교육에 관한 면담조사-양양,속초 지역을 중심으로」(1996년 2월) 두 논문임을 밝힌다. 또한 해당 학교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구술자료도 함께 참고하였다.

| 추가 증언자 소개 |

원산사범전문학교와 거진인민학교 교사 출신 남정현 90세 간성 거주, 고성고급중학교 출신 신현필 87세 간성 거주, 야촌인민학교와 오호초급중학교 출신 송요헌 87세 죽왕면 거주, 간성인민학교 선유실 분교 근무 장근호 90세 죽왕면 거주, 공현진인민학교와 간성초급중학교 출신 배인준 87세 죽왕면 거주, 공현진인민학교와 오호초급중학교 출신 오의택 87세 죽왕면 거주, 거진초급중학교와 고성고급중학교 출신 윤근호 87세 거진읍 거주, 오호초급중학교와 양양고급중학교 출신 이병찬 85세 죽왕면 거주

1) 천진인민학교

토성면 천진리 출신의 김두경(가명)은 1926년 생으로 해방 이후 양양고급중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다가 1948년 2월 18일자로

천진인민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천진인민학교 근무하면서 '화암사분교'에서 1개월 근무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47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학제가 적용되어 인민학교가 6년에서 5년제로 되었다. 따라서 당시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동시에 졸업하게 되었으며, 5학년은 초급중학교 1학년으로, 6학년 학생들은 초급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하였다. 또한 모든 학교가 9월 1일에 개학을 하고, 졸업은 7월 15일로 규정되었다. 인민학교는 교장과 교무주임, 그리고 교사로 구성되었다. 당시 천진인민학교는 12학급에 급당 인원이 50명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전교생은 600명 규모였다. 그는 주로 졸업반 담임을 맡았다. 일과시간표는 1일 5~6교시로 운영하였으며, 1교시는 40분 수업이었다. 수업방법은 주로 일본식 학습이었으나 토론학습도 종종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결석을 하면 자아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석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소풍은 주로 기차를 타고 외금강으로 갔고, 운동회는 가을에 실시하였다. 특히 운동회에서 김일성 찬양, 반미, 그리고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놀이도 있었다. 소년단 자치활동은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소년단 조직(학교단위)은 단장, 부단장, 벽보주필, 총무, 서기,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운동회가 끝나면 소년단이 중심이 되어 학예회 발표가 있었다.

2) 야촌인민학교

1927년 고성에서 태어난 송해정(가명)은 해방 직후 야촌인민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야촌인민학교는 6학급으로 전교생은

250여 명이었으며, 학교는 민가를 개조하여 판자로 만든 건물이었다. 인민학교 초기에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없고 공산주의 이념교육으로 스탈린 원수를 더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다. 학교의 교원들은 1~3급 교원으로 구분되었으며, 1급 교원은 사범대학 졸업자나 일제 때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훈도 경험이 있는 자이고, 2급 교원은 사범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3급 교원은 단기 과정의 임시 양성소를 나온 자들이었다. 교원들 중에는 직업동맹위원장이나 민주청년연맹위원장, 그리고 세포위원장도 있었다. 교원들은 모두 교원직업동맹위원회에 가입하였으며, 방과 후에 수시로 모여 각종 회의나 업무 반성을 하였다. 교원의 월급은 군(郡)인민위원회에서 학교통장으로 입금해주었고, 월급은 지정된 날에 정확히 지급되었다. 1949년 당시의 월급은 교장 1,300원, 교육주임 1,250원, 교양주임 1,200원, 1급 교원 1,100원, 2급 1,000원, 3급 교원 900원이었다. 그런데 배급값을 공제하면 실제로 500~600원 정도 받았다. 당시 시세는 쌀 1말이 200원이었다. 특히 교원들은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교수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결재 받아야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은 매교시 4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었고, 1일 수업량은 3학년까지는 4교시이고 4학년부터는 5~7교시 정도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교행사로 봄이 되면 인근 경치 좋은 곳으로 소풍을 갔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당시 학생들의 복장은 삼베로 만든 자유복이었으며, 신발은 검정 고무신을 주로 신었다.

3) 대진인민학교 및 죽정 분교

최인권(가명)은 1939년 생으로 죽정리(현재는 거진 10리)에서 살았다. 1945년도에 대진인민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다녔으나, 죽정리에 분교가 생기면서 4~5학년을 죽정학교에서 마쳤다. 해방 직후 소련군이 들어와 학교를 군인 막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래서 학생들은 마을회관이나 소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대진인민학교 다닐 때 2부제 수업도 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프린트로 만든 교재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조선어 독본』이란 교재로 국어를 공부했다. 산수는 일제 때 사용하던 책을 번역하여 사용했으며, 음악은 주로 동요를 많이 부르다가 1948년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김일성의 노래', '소년단가' 등을 불렀다. 1946년 9월에 교육국에서 교과서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 교과목으로는 공민, 국어, 산수, 이과, 지리, 체육, 음악, 공작 등이었다 인민학교 때 소년단이 있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형식의 시험을 치른 후에 가입할 수 있었다. 소년단에 가입하면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그 긍지가 대단했다. 소년단의 구성은 학급 단위로 소년단장, 벽보주필, 분단장이 있었고, 학교 전체로는 소년단장과 부단장 및 벽보주필 등이 있었다. 소풍은 가을에 기차를 타고 외금강으로 갔었다. 체육대회는 가을에 열리는 행사로 축구, 배구, 달리기 등의 종목을 채택하였다.

4) 송강인민학교

김낙성(가명)은 1939년 거진읍 석문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인민학교에 다닌 기간은 총 4년이었다. 그때 다닌 학교는 송강인민학교이고, 전교생은 250~300명이었다. 학급수는 학년별 1학급씩 5학급으로 편성되었다. 학교 건물은 외가지를 엮어서 흙을 바른 후 하얀 회를 표면에 입힌 교실이었다. 책상과 걸상은 2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사용한 것을 그대로 재사용했다. 교과목으로는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습자, 미술, 공작, 음악, 체육 등이었다. 공책은 시멘트 종이로 만든 것이나 큰 마분지를 구매하여 잘라서 사용하였다. 연필은 나무 색깔 그대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으며, 몽당연필이 되면 버리지 않고 대나무에 끼워서 사용했다. 시험은 5점 만점의 평가를 하였으며, 국어와 역사는 5개 문제를 논술식으로, 산수는 계산식 문제로, 음악은 노래로, 미술은 그림실기로 평가하였다. 학습방법은 교사가 칠판에 판서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노트에 필기하였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하면서도 매우 존경하였다. 수업시간에는 떠들 수도 없었다. 교사들은 학업 이외에도 애향단을 조직하여 인민군에 입대한 가족들을 위한 노력봉사를 독려하였으며, 퇴비생산에 협력하도록 동원시켰다. 과외활동으로 자치회가 있었는데 주로 자아비판을 하는 것이 회의의 주제였다. 학급 반장은 어깨 위에 2줄로 된 붉은 색의 견장을, 분단장은 1줄로 된 견장을 부착했다. 학교행사로는 주로 화진포를 구경하는 소풍과 가을 운동회가 있었다. 또한 5월 1일을 '메이데이', 혹은 '노동절'이라 하여 거진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군집하여 '도끼, 쇠스랑, 낫 등을 들고

휘두르면서 “김구, 이승만을 타도하자” 등을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북한 애국가, 빨치산 노래도 많이 불렀다. 방과후에는 구호도 외우고 김일성이 빨치산 대장으로 크게 활약했다는 내용의 만화책을 학생들끼리 돌려보기도 하였다.

5) 오호초급중학교

오의택은 1933년 생으로 죽왕면 가진리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에는 서당과 가진학교(학원)를 다녔고, 이어 1942년 공현진국민학교가 설립되자 그곳에 입학하였다. 해방 이후 인민공화국의 통치 속에서 오호초급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학업을 중단했다. 당시 재학생은 학년마다 2개 학급이 있었다. 그는 빈농의 자녀이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생님의 추천으로 소년단장을 하였다. 배운 과목은 국문, 산수, 기하, 대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음악, 체육, 외국어(로어) 등이었다. 교과 시간에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하였으며, 별도의 사상교육은 없었다. 다만, 역사과목에서 레닌 및 스탈린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시험은 필기와 구두시험을 병행하였으며, 성적평가는 매우 엄정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구두시험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스탈린을 대원수로 김일성을 장군으로 호칭하였다. 교실에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학비 없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며, 교과서 대금은 일부 면제를 받아 적은 액수만 납부했다. 학생들은 술과 담배 등 일탈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 수학여행은 설악산을 다녀왔다.

6) 고성고급중학교

1923년 고성군에서 태어난 윤명수(가명)는 해방 이후 장전중학교를 다녔다. 장전중학교 2학년인 1947년에 학제개편으로 고급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1947년부터 운영된 고급중학교는 1郡1校 체제였다. 따라서 당시 고성군의 군청소재지인 (북)고성읍에 고성고급중학교가 있었고, 고급중학교를 진학하려는 고성의 학생들은 이 학교를 주로 입학하였다. 고성고급중학교는 학급 인원이 60명 정도 되었으며, 전체 학급은 9~12반이었고 재적학생은 600명을 초과하였다. 군사훈련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의 교복은 겨울에는 검은색, 여름에는 흰색을 입도록 하였다. 방과후에는 '조선·소련 동맹회의' 같은 모임을 하였는데,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권봉화(가명)는 1930년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1946년에 송탄인민학교를 졸업(6학년)하고 1947년 학제변경으로 초급중학교 2학년에 입학하였다. 1949년 고성고급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학년 때 한국전쟁을 맞아 1950년 12월에 월남하였다. 고급중학교는 1학년 5학급, 2학년은 3학급, 3학년 2학급이었으며, 재학생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상급생 규율부가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 교사출신들이 많았으며, 일본 유학자, 원산사범학교 출신들도 있었다. 교사의 체벌은 없었으며, 사상적인 교육은 민청에서 관여하면서 자아비판 형식을 활용하였다. 군사훈련도 받았는데, 현역 소위인 군관교사가 훈련을 담당하였다. 이때 사용한 목총은 학생들이 만든 것이었다.

출결관리는 철저했으며, 수업은 평일 8시간이고 1시간 수업은 50분이었다. 소풍장소는 주로 금강산, 해금강, 삼일포가 되었으며, 체육대회는 개교기념일에 학급별 축구대회와 달리기 정도였다. 교외활동으로 1학년 때 모내기를 했고, 과제 중에는 '퇴비용 풀 베어오기'도 있었다.

이창금(가명)은 1931년 생으로 거진읍 반암리에서 태어났다. 1946년에 거진초급중학교 2학년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 고성읍에 있는 고성고급중학교에 입학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고성고급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쌍봉 마을회관에서 공부했고, 비행기 폭격을 대비하여 학년마다 분산하여 마을회관 등에서 공부하였다. 고급중학교에 입학하면 원거리 학생은 쌀 3말 정도의 하숙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다. 고급중학교 당시 수업방법은 일제강점기의 학습방식을 그대로 이어갔다. 졸업시험은 과목당 200여 문항의 문제집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그 문제들 가운데 3문항을 뽑아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고급중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2시간씩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현역 장교가 와서 직접 가르쳤으며. 사격훈련도 받았다. 한국전쟁 후에는 고급중학교 학생(18세 이상)들은 인민군 학도병의 징집명령이 내려져 대부분 입대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성

졸업증서

[redacted]

1935년 5월 17일남

이 이는 초급 중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품행 5점과 다음표의 성적으로써 졸업함을 증명함

대진 초급 중학교장 김동가

교무주임 김원조

담임교원

1950년 7월 13일 제14호

* 위 사진은 북한통치 시기 대진초급중학교의 졸업증서이다. 자료는 소장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4. 미군정기 및 그 이후 대한민국 교육

미군정기란 주로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3년의 기간을 말한다. 해방 직후 38선 이남의 교육은 미군정이 주도하여 그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교육제도와 정책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수복된 38선 이북의 고성군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고성군 지역은 소군정에 이어 제2의 미군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이제 해방 직후 미군정이 교육체계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살펴보자. 미군정은 1945년 9월 16일에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요한 교육문제를 심의, 결정, 집행하였다. 한국교육위원회의 10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육에 김성달, 중등교육에 현상윤, 전문교육에 유억겸, 교육전반에 백낙준, 여자교육에 김활란, 고등교육에 김성수, 일반교육에 최규동, 의학교육에 윤일선, 농업교육에 조백현, 학계대표에 정인보가 추천되었다. 미군정은 각 시도에 학무과(국)를 설치하고 교육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일반명령 제4호의 긴급조치를 공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공립국민학교는 9월 24일부터 개교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사립 국민학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수용어는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교과목은 공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체조, 음악, 습자, 도화, 공작, 재봉 등이었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 학무국이 서둘러

〈한글 첫걸음〉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조선어학회가 만든 것으로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이어 〈초등국어독본〉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한글을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일이 또 다른 과제였다. 당국은 조선어학회의 협력을 얻어 한글강습회를 여는 등 재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주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사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당시 교과서 편찬에 있어 특기할 점은 한자를 없애고 한글 위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점과 횡서(橫書)로 글의 흐름을 변경한 점이다. 이것은 한글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문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 위주의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전쟁 시기에 상용한자 1,000자를 선정하여 교육하였다. 한편 학무국은 문맹퇴치를 위해 성인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국문강습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으로 군정 3년 동안 250만 명의 문맹자가 퇴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무국은 학령을 초과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공민학교를 설치하였다. 공민학교 제도는 향후 지속되어 70년대까지 이어졌다. 임시적인 교육조치에 이어 국가적인 기본 교육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학무국은 교육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로 구성된 100인의 조선교육심의회를 조직하여 교육이념, 학제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교육심의회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념과 교육제도(학제)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분야별 심의를 거쳐 결정한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었다. 이것은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학제는 남녀공통 원칙의 6-3-3-4제를 기본으로 단선형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학기제는 일본의 3학기를 없애고 1년을 2학기제로 하였으며, 1학기는 9월부터 2월까지로 하고, 2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로 제도화하였다. 또한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교육의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시행을 보지는 못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새로운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새 교육운동'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이 운동이 지향한 것은 첫째로 전통적 교육의 계급주의와 차별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고, 둘째로 자유 이념에 기반한 교육을 시도하는 것, 셋째로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생활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도 결실 없이 미국식 교육의 도입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말았다.(오천석, 『한국신교육사』, 2014, 390쪽)

한편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의 시기는 마감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에서는 교육이념, 목적, 행정체계, 학제를 규정하였다. 교육이념과 목적은 제1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단군신화의 내용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성과 인간애를 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무교육제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헌법정신을 받아 교육법 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육법에 명시된 학제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4년으로 하여 6-4-2-4제였다. 이 학제는 다시 1951년 한국전쟁 중에 개정하여 6-3-3-4제로 정착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한국전쟁과 고성군 교육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교육은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전란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력은 살아있어야 했고, 국민을 위한 교육도 포기할 수 없었다. 1951년 2월 26일 정부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공포하고 중단되었던 교육을 재개하였다. 그 조치요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난학생의 취학 독려 : 피난학생에 대하여 피난지 소재 각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교실 및 피난 특설학교 설치 : 교실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교실의 건축, 피난 특설학교, 또는 분교장의 설치, 교과별 이수 기간제를 실시한다.

–북한 피난학생을 수용 : 북한학생이 집결되어 있는 거제도에서는 국민학생은 그 지구 국민학교에 특설학급을 만들어 수용하고, 중등학교 학생은 거제와 하청양 중등학교에, 그 나머지는 통영중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하여 수용한다.

–도시 피난학교 설치 : 중등학교 학생들이 다수 피난하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는 단독 내지 연합하여 연합중등학교를 설치한다. 먼저 부산에서 발족하여 점차로 광주, 전주, 대전에서 실시하였다.

–생벽돌 교사의 설치 : 문교부는 생벽돌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 재래식 건물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연구, 이를 개량하여 생벽돌 교사건축에 착수했다.

–전시연합대학 설치: 먼저 부산에서 발족하여 운영하다가 점차 광주, 전주, 대전에서도 설치하였다. 여기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에서 그대로 인정받았다.

–전시교재의 발행 : 초등학교용 〈전시생활〉과 중등학교용〈전시독본〉을 간행하였다.(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2004, 223-224쪽)

이러한 조치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피난지에서, 혹은 原住地에서 노천교실, 천막교실, 나무판자교실, 생벽돌교실로 모여들었다. 1951년 1·4 후퇴로 부산까지 피난을 떠났던 강원도청은 전세의 호전에 따라 1951년 4월 15일 원주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고, 피난민 구호와 피해복구는 물론 교육행정을 펼쳤다. 도청이 원주에 설치되자 피난민들이 원주 지역으로 몰려 들었다. 전쟁으로 교육의 물적 및 인적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임시학교를 열고 학생들은 천막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교실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교하여 학생들은 노천에서 수업을 받는 등 야외수업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한편 1950년 10월 10일 이후에는 양양 및 고성의 지역이 수복되면서 피난지의 교육활동도 재개되었다. 당시는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교재 및 교구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첫 수복과 더불어 자치행정이 펼쳐진 약 3개월 정도 활기를 띠던 학교는 1951년 1월,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이 후퇴하면서 주민들의 대이동으로 또 다시 휴교에 들어갔다.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의 북진과 더불어 양양 및 고성 지역이 재수복되자 6월부터 학교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간성 지역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죽왕면 삼포리('쑥고지', 현 오호초등학교 인근)에 민통선을 설치하고 피난민의 북상을 미군이 통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속초를 비롯하여 토성면 일대와 문암리에는 수복을 고대하는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수복된 지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행정이 군의 통제하에 있었다. 군정행정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미군정의 실시는 1951년 7월 4일부터 1954년 10월 21일까지였다. 군정의 필요성은 군의 작전과 더불어 공산주의 통치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을 배려하여 교육을 재건하려는 모든 노력은 가열찼다고 하겠다. 당시는 교육의 여건들이 너무 열악하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교장과 교원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군정의 민사처에서는 양양군에 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고등학교(고급중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연수하여 교사자격을 부여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는 수복 후 개교한 오호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 이병찬(85세 양양고급중학교 출신, 죽왕 거주)의 경우이다. 1951년 9월 전후한 시기 토성면과 죽왕면에서는 4개의 국민학교가 개교하였다. 즉 토성면에는 인흥국민학교(1951.9.1.)와 천진국민학교(1951.9.28.), 그리고 백촌국민학교가, 죽왕면에서는 오호국민학교가 개교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1953년 5월 당시 수복지구인 양양군(토성면과 죽왕면 포함)에서 개교한 국민학교는 14개 학교(198학급)였으며, 재학생이 전체 11,498명(남자 6,450명, 여자 5,048명)이었다고 하니 학교마다 학생들로 넘쳐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철수, 「6·25한국전쟁 시기 군정이 양양지역에 미친 영향」, 강원도향토문화연구회, 2016) 특히 피난민 거주지역 최북단에 개교한 오호국민학교의 학생수는 무려 2,000명이 넘어 양양군 관내에서 최다 학급(50학급)을 운영하였다고 한다.(이병찬 증언)

이처럼 전시하에서도 배움의 열망은 식지 않아 국민학교에는 입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움을 계속 이어갈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불행한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린 사람은 바로 함경도에서 월남한 서창하 선생이었다. 그는 수복지구의 행정을 통제하던 미8군 산하 제1군단장을 만나 중학교의 설립인가를 요청하였으며, 그의 노력으로 1952년 3월 5일 토성면 백촌리에 동광중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서창하는 속초고등학교의 설립인가도 받아 같은 해 6월 2일에 설악권 최초의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사범학교 출신으로 함경도에서 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월남한 사람으로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교육자였다. 이처럼 동광중학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설악권에 설립된 최초의 중등학교가 되었다. (엄경선 기자, 〈설악신문〉 2007.11.19.) 자료에 의하면 동광중학교는 개교 후 1년 만에 재학생이 283명(남자 237명, 여자 46명)이었다고 한다.(이철수, 상게서)

한편 전시하의 교육정책에서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학생의 군사훈련과 학도호국단의 조직, 그리고 교육자치제의 실시, 중학교 입학시험의 국가고사제를 들 수 있다. 또한 1951년 4월 30일 문교부는 상용한자 1,000자(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자)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도 상용한자를 교육하였다. 이러한 상용한자의 사용은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상용한자〉라는 책자가 시중에 일반화되기도 하였다. 전시하에서 초등 교과목은 국어, 사회, 산수, 이과, 보건, 음악, 미술, 가사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현장

에서는 교과서가 없어 임시 교재로 수업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전시 교과서를 발행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초등학교용 〈전시생활〉과 중등학교용 〈전시독본〉이란 제목의 교과서였다.

◇ 전란 중 돌나무 책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1953년)

제8장

1954년 11월 행정권 이양 이후 고성군 교육현황

1. 각급 학교 개교 현황

〈국민학교 개교 현황〉(개교순)

학교명	개교일	소재지	참고문헌
오호국민학교	1951.9.1	죽왕면 삼포2리 152-3	고성군지(1986)
인흥국민학교	1951.9.1	토성면 인흥2리 180	풍암2호(2010)
동광국민학교	1951.9.18	토성면 교암리 84-1	고성군지
백촌국민학교	1951.9.18	토성면 백촌리(밤나무골)	고성군지
천진국민학교	1951.9.28	토성면 천진2리 161	고성군지
간성국민학교	1954.9.1	간성면 신안2리 200	고성군지, 풍암2호
거진국민학교	1954.10.1	거진면 자산리 121	고성군지
대진국민학교	1954.10.5	현내면 대진3리 148	풍암2호
공현진 국민학교	1955.3	죽왕면 공현진1리 334	풍암2호
초계국민학교	1955.4.10	거진면 대대리 315	고성군지
광산국민학교	1955.4.16	간성면 광산1리 193	풍암2호
송정국민학교	1955.5.24	거진면 송정리 139	풍암2호
구성국민학교	1955.8.6	죽왕면 구성리 11	고성군지
죽정국민학교	1956.11.24	현내면 죽정리 372	풍암2호
명파국민학교	1959.4.25	현내면 명파리 215	고성군지
신평국민학교	1961.1.4	토성면 신평2리	성대리 372 移建/풍암
흘리국민학교	1961.4.1	간성면 흘리 55-8	풍암2호
아야진 국민학교	1961.4.6	토성면 아야진리 199	고성군지
도학국민학교	1961.8.7	토성면 도원2리 189	고성군지
선혜학원	1962.2.1	간성면 탑동2리 산142-1	풍암2호
마달분교	1963.3.1	현내면 마달리 98	고성군지
죽왕국민학교	1965.10.1	죽왕면 오호리 225	풍암2호
장신분교	1968.3.1	간성면 장신1리 71	풍암2호
거성국민학교	1968.3.21	거진면 거진3리 184	풍암2호

〈중·고등학교 개교 현황〉(개교순)

학교명	개교일	소재지	참고문헌
동광중학교	1952.3.20	토성면 백촌리	고성군지(1986)
동광농업고등학교	1954.5.6	토성면 백촌리	고성군지
고성중학교	1955.5.25	간성면 상리 399	고성군지
고성고등학교	1958.5.25	간성면 상리 391	고성군지
거진중학교	1961.4.15	거진면 거진11리	고성군지
거진실업고등학교	1964.4.11	거진면 거진리	고성군지
대진중학교	1968.3.1	현내면 초도리 180	고성군지
거진여자중학교	1969.3.25	거진면 봉평리 31-1	고성군지
거진여자 종합고등학교	1979.3.1	거진면 봉평리 31-1	고성군지
대진고등학교	1981.3.4	현내면 초도리	고성군지

〈2019년 고성군 초등학교 현황〉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최초 개교 및 인가	졸업자(計)(졸업회수)	소재지
간성 초등학교	19(1)	312(1)	27	1910.6.13.(1912.3.6.인)	8,545(99회)	간성읍 간성로 39번길 2(신안리)
오호 초등학교	6	40	11	1924.4.1.(1923.8.29.인)	3,154(90회)	죽왕면 황포길 28(삼포리)
천진 초등학교	6	71	11	1925.4.1.(1926.3.27.인)	5,843(83회)	토성면 천진1길 14
대진 초등학교	6	30	11	1926.4.1.(1927.11.10.인)	5,837(88회)	현내면 대진3길 15
거진 초등학교	9(1)	122(2)	16	1929.3.20.(1930.5.3.인)	1,150(52회)	거진읍 자산길 19

동광 초등학교	6	40	9	1936.10.17. (1942년백촌 간이학교)	2,207 (68회)	토성면 교암1길 15
인흥 초등학교	6	53	12	1940.11.15	1,661 (67회)	토성면 인흥 1길 26
공현진 초등학교	6	42	10	1942.4.1	2,477 (65회)	죽왕면 한옥길 49(공현진리)
광산 초등학교	7(1)	41(3)	13	1942.4.10.인	3,077 (64회)	간성읍 진부령로 2427(광산1리)
아야진 초등학교	7	41(2)	14	1961.4.6	3,132 (53회)	토성면 아야진길 15
도학 초등학교	6	31	9	1961.8.7	724 (54회)	토성면 무릉도원로 486(도원리)
죽왕 초등학교	6	49	10	1965.10.1	1,040 (49회)	죽왕면 송지호로 6(오호리)
거성 초등학교	7(1)	54(3)	12	1968.3.21	4,397 (49회)	거진읍 거성길 38(거진리)
대진초 명파분교	2	4	4	1935.6.1. 간이학교	685 (53회)	현내면 금강산로 840(명파리)
광산초 흘리분교	3	9	5	1961. 4.1	432 (50회)	간성읍 홀리령길 3-15
계	102 (4)	939 (11)	174		44,361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는 2019.7.31. 현재의 자료다. 졸업자 누계는 2019.3.1. 현재의 자료다. 개교일은 〈고성군지(1986)〉, 고성향토문화연구회의 〈풍암제2호(2010)〉, 각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인가가 중요한 설립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성, 거진, 대진, 천진초등학교처럼 인가일보다 일찍 개교했다는 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는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2018년 고성군 중등학교 현황〉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최초 개교 및 인가	졸업자(計) (졸업회수)	소재지
동광 중학교	3	43	9	1952.3.20	8,385 (68회)	토성면 백촌길 30-15
고성 중학교	10(1)	203 (1)	21	1955.5.25	10,834 (62회)	간성읍 수성로 125(상리)
거진 중학교	5(1)	76(1)	16	1961.4.15	10,514 (56회)	거진읍 거평로69(거진리)
대진 중학교	3	28	8	1968.3.6	4,452 (49회)	현내면 화진포길 476(초도리)
동광산업과 학고등학교	18	255	45	1954.5.6	6,693 (61회)	토성면 백촌길 30-15
고성 고등학교	13(1)	273 (3)	32	1958.5.25	8,619 (59회)	간성읍 수성로 125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	7(1)	62(5)	21	1964.2.10	6,024 (53회)	거진읍 거탄진로 39-13(거진리)
대진 고등학교	3	22	11	1981.3.4	2,164 (36회)	현내면 화진포길 476(초도리)
계	중21/ 고41 (2)	중 350/ 고 612(8)	중54/ 고 109		중 34,185/ 고 23,500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는 2018.10.30.일 현재의 자료다. 졸업자 누계는 2019.3.1. 현재의 자료다. 개교일에 대하여는 고성군지(1986), 고성향토문화연구회의 풍암제2호(2010), 각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것이다.

〈고성군 폐교현황〉

학교명	개교일	폐교일	졸업자(회수)	소재지
광산국민학교 장신분교장	1968.3.1	1982.3.1	140(9회)	간성읍 장신1리 71
신평국민학교	1961.1.4	1984.3.1	382(20회)	토성면 성대리 372
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장	1971.3.1	1990.3.1	148(18회)	간성읍 탑동2리 산142-1
대진국민학교 마달분교장	1963.3.1	1994.3.1	198(26회)	현내면 마달리 198
초계국민학교	1938.4.1	1995.3.1	1,429(40회)	거진읍 대대리 315-1
죽왕초등학교 구성분교장	1936.5.1	2005.9.1	1,262(45회)	죽왕면 구성리118-5
죽정초등학교	1956.11.24	2008.9.1	1,241(50회)	현내면 죽정리 365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	1940.4.1	2016.3.1	1,150(52회)	거진읍 송정리139
거진 여자중하교	1969.3.25	2000.3.1	3,577(29회)	거진읍 봉평리
거진여자상업 고등학교	1979.3.1	2000.3.1	1,834(19회)	거진읍 봉평리 31-1
광산초등학교 흘리분교장	1961.4.1	2024.3.1	440여명(54회)	간성면 흘리 55-8

2. 국민학교별 소개

개교 당시의 학교명 사용, 가나다 순

간성국민학교

- **학교 위치** 간성면 신안리 200번지(당시 신성리, 새재골)
- **개교 시기** 1954년 9월 1일 개교

고성군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다. 설립 당시에는 간성군을 대표하는 공립학교였다. 1912년 3월 6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되었다.(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점기 간성공립보통학교 편을 참조) 당시 학교 위치는 간성군 군내면 중리(현 고성교육청 자리)였으며, 교사(校舍)는 조선시대의 유적인 객사(客舍)를 사용했다. 이후 입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신축교사를 증축하였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간성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초기에는 인민학교와 초급중학교도 함께 운영되었으나 곧이어 초급중학교가 분리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으로 1950년 10월 15일경 교사가 전소되었다.[고성군지(1986) 및 간성초등학교 〈백년사〉(2012)]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이후 행정권이 이양되기 직전인 1954년 9월 1일에 간성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때 간성면 신성리(새재골)에 새로운 부지를 조성(1954.6.30.)하고 교사를 준공(1954.9.7.)하였다. 당시 수복지구의 학교 건설은 대한민국 육군

제15사단 공병대가 주도하였다. 학교의 건설에서 부지확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남극성, 함태원, 함정호(재북), 함정식, 박태봉(재북), 함완식, 함태정, 함인호, 함용길(재북), 함태윤, 함승호, 남종순 등]로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관련 내용은 간성초등학교의 〈백년사〉 참조)

교명의 변천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 수성학교(1908년 말경)
간성공립보통학교(1912.3.6.)
간성보통학교(1926.4.1.)
간성공립심상소학교(1938.4.1.)
간성공립국민학교(1941.4.1.)
간성인민학교(1945.10.)
간성국민학교(1954.9.1.)
간성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거성분교 거성국민학교(巨城國民學校)

- **학교 위치** 거진읍 거진 3리 184번지
- **개교 시기** 1966년 11월 11일 거진국민학교 거성분교장 인가
  1968년 3월 21일 개교(거진국민학교 거성분교장)
  1968년 12월 4일 거성국민학교 승격 인가
  1969년 3월 6일 개교

한국전쟁 이후 거진리는 명태 어획고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처음에는 1,2학년 14학급의 거성분교장으로 개교하였으나 입학생이 급증하여 같은 해 말 거성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또한 이 학교는 '명태학교'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거성초등학교(1973년)〉

〈1975년도〉-거성초등학교제공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국민학교 거성분교장(1966.11.11.)
거성국민학교(1968.12.4.)
거성초등학교(1996.3.1.)

거진국민학교(巨津國民學校)

- **학교 위치** 거진면 자산리 72번지
- **개교 시기** 1954년 10월 1일[고성군지(1986)]

거진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공립학교다.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오대면 사립 개량서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한다.(거진초등학교 홈페이지) 사립개량서당이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어 오대공립보통학교가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 5월 3일에 현 위치(당시 오대면 봉평리)에서 오대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1940년 12월 1일부로 오대면이 거진면으로 개칭되면서 거진공립심상소학교가 되었다가 1941년 4월 1일 거진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거진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었다가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의 수복지구 재건사업으로 교사를 건축하여 1955년 11월에 준공을 보았다. 개교는 앞서 1954년 10월 1일에 하였다고 한다. 교사 없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대개량서당(1928.4.1.)[거진초등학교 홈페이지]
오대공립보통학교(1930.5.3.)
오대공립심상소학교(1938.4.1.)
거진공립국민학교(1941.4.1.)
거진인민학교(1945.10)
거진국민학교(1954.10.1.)

저자 촬영

거진초등학교(1996.3.1.)
거성초등학교(1996.3.1.)

한국전쟁 직후 거진국민학교의 재건을 기념하려는 비석이다. 학교 입구에 놓여 있다.
비석내용 : [전면] 재건기념(再建記念1) 1955년 6월 18일 기공, 11월 0일 준공되었다.
(기념비 후면에 표기)

광산국민학교 (廣山國民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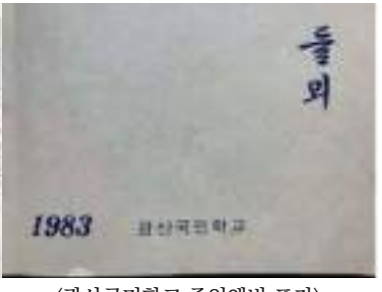
- **학교 위치** 간성면 광산1리 193번지
- **개교 시기** 1955년 4월 8일 인가(4월 16일 개교)[간성국민학교 광산분교장]
  1955년 6월 26일 광산국민학교로 승격, 10월 2일 개교하였다.[고성군지(1986)]

일제강점기 공립학교인 광산국민학교로 1942년 4월 10일에 인가되었다.(고성군지)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광산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5일 교사가 전소되었다가 1955년 새롭게 건축되었다. 교사의 건축에는 광산리에 소재했던 간성의 함씨 문중 묘실의 목재 일부를 재사용하였다고 전한다. 1968년 3월 1일에 개교한 장신국민학교(분교)는 1982년 3월 2일에 폐교되면서 본교에 편입되었다. 또한 2024년 3월 1일 흘리분교가 본교로 통폐합되었다.

-태극기가 걸린 학교 건물은 초가집의 모습으로 보인다. 출입문 위에 "직원실(職員室)"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아직 교사가 건립되지 않은 상태의 임시 교사 앞에서 촬영한 졸업사진이다.(자료제공:광산초등학교)

〈광산국민학교제1회졸업기념〉
(1956.3.29.)

〈광산국민학교1960년대초
학교전경 및 집단체조 모습〉



〈광산국민학교 졸업앨범 표지〉
(1983년도)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광산공립국민학교(1942.4.10.)

광산인민학교(1945.10.)

간성국민학교 광산분교장(1955.4.8.)

광산국민학교(1955.6.26.)

광산초등학교(1996.3.1.)

공현진국민학교 (公峴津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공현진1리 334번지
- **개교 시기** 1955년 3월 일 개교[고성군지(1986)]

일제강점기 공립학교인 공현진국민학교로 인가되었다. 당시 마을 유지의 토지기부로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전한다. 공현진에는 일찍부터 근대학교가 설립되어 아동들의 교육에 힘썼다. 1908년경 사립 공명의숙을 설립하여 신학문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배움의 전통을 이은 것이 공현진국민학교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14일에 교사가 전소되었다고 전한다. 1955년 전후의 복구 과정에서 학교가 개교되었다. 1980년대부터 농악대 운영으로 유명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사립 공명의숙(1908), 사립 공명학교(1910)-공현진공립국민학교(1942.4.1.)-공현진인민학교(1945.10.)-공현진국민학교(1955.3.)-공현진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구성분교구성국민학교 (九城國民學校)

- **학교 위치** 죽왕면 구성리 11번지
- **개교 시기** 1955년 8월 6일 오호국민학교 구성분실로 개교 [고성군지(1986)]
  1955년 9월 23일 구성분교장으로 승격
  1964년 3월 1일 구성국민학교 승격

구성국민학교는 처음 일제강점기 1937년 7월 30일에 구성간이학교로 인가되었다. 구성국민학교는 전쟁 이후 교사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죽왕면 오봉리에 거주하는 함혁이 교사수리비로 논(답) 1,400여 평을 희사하였다. (조선일보, 1955.3.12.) 2005년 2월 졸업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호공립보통학교부설구성간이학교(1937.7.30.)-구성인민학교(1945.10.)-오호국민학교 구성분실(1955.8.6.)-오호국민학교 구성분교장(1955.9.23.)-구성국민학교(1964.3.1.)-오호초등학교로 통폐합(폐교)(2005.3.1.)

〈사진제공. 고성교육청 황종민, 『풍암제2호(2010)』 재인용〉

대진국민학교 (大津國民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산학리(이후 대진3리 148번지로 이전)
- **개교 시기** 1954년 10월 5일 개교

현내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공립학교다. 일제강점기 1927년 11월 10일 대진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개교 당시는 대진리에 건립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대진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4일 교사가 전소되었다. 1954년 10월 5일 행정권 이양 직전에 새롭게 현내면 산학리에 임시 개교를 하였다. 이후 1955년 5월 9일 대진리 원 위치로 복귀되었다.(풍암 제2호, 41쪽)1994년 3월 1일 마달분교장 폐교되어 통폐합되었다. 2008년 9월 1일 죽정초등학교 폐교로 통폐합되었다.

〈카톨릭관동대 김동정교수 제공〉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공립보통학교(1927.11.10.認)-대진보통학교(1928.4.1. 조선총독부 직원록)-대진공립심상소학교(1938.4.1.)-대진공립국민학교(1941.4.1.)-대진인민학교(1945.10.)-대진국민학교(1954.10.5.)-대진초등학교(1996.3.1.)

도학분교도학국민학교 (桃鶴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도원2리 189번지
- **개교 시기** 1961년 8월 7일 동광국민학교 도학분교장 개교
  [고성군지(1986)]
  1963년 11월 20일 도학국민학교로 승격

일제강점기 1935년 9월 7일 학야간이학교로 인가되었다. 그 후 신으로 한국전쟁 이후 1961년에 도학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고성군지1986)]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공립보통학교부설 학야간이학교(1935.9.7.)

학야인민학교(1945. 10.)

천진국민학교 도학분교장(1961.8.7.)

도학국민학교(1963.11.20.)

도학초등학교(1996.3.1.)

동광국민학교 (東光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교암리 84-1번지
- **개교 시기** 1951년 9월 18일 백촌리에서 개교 (『풍암 제2호』(2010))

동광국민학교는 최초 개교 당시에는 백촌간이학교였으며, 백촌리 밤나무골에 위치했다. 간이학교의 설립은 1942년으로 추정된다.(백촌간이학교 편 참조) 1944년 8월 5일 백촌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백촌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전쟁 이후 1951년 9월 18일 백촌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55년 2월 24일에 행정권 이양 이후 첫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1955년 11월 1일 현 위치인 교암리로 학교가 이전되었다. 이어 1960년 5월 3일에 동광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국민학교부설 백촌간이학교(1942.4.1. 추정,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 참조)
천진국민학교 백촌분교장(1944.4.1.)
백촌국민학교(1944.8.5.)
백촌인민학교(1945. 10.)
백촌국민학교(1951.9.18.)
동광국민학교(1960.5.3.)
동광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1986)에는 “1936년 10월 17일에 천진국민학교 간이학교로 개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고성군지(2020)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간이학교의 개교 시점에 시차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사진자료를 근거로 기술한다.(189쪽 백촌간이학교 사진 참조)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마달분교마달국민학교 (馬達國民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마달리 98번지
- **개교 시기** 1963년 3월 1일 마달분교장 개교[고성군지(1986)]

처음에는 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가 1968년 3월 1일에 마달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83년 3월 1일 마달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1994년 3월 1일 대진국민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사진제공, 대진초등학교 박병규, 『풍암 제2호(2010)』 재인용〉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마달인민학교(1945.10.)
대진국민학교마달분교장(1963.3.1.)
마달국민학교(1968.3.1.)
대진국민학교 마달분교장(1983.3.1.)
대진국민학교로 통폐합(1994.3.1.)

명파분교명파국민학교 (明波國民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명파리 215번지
- **개교 시기** 1959년 3월 17일 명파분교장으로 인가, 4월 25일 개교[고성군지(1986)]
  1963년 11월 22일 명파국민학교로 승격

명파리의 최초 학교는 1935년 6월 1일 대진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로 인가되었다. 1943년 5월말 현재 명파국민학교로 운영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명파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학교의 위치는 마을 북동방향(제진역) 500m 산자락이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고 수복 이후에는 마을 입구 명파교회 아래에 학교를 설립(1959년)하였다가 입학생의 증가로 다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공립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1935.6.1.)

명파국민학교(1943년 5월 이전)

명파인민학교(1945. 10.)

대진국민학교 명파분교장
(1959.3.17.)

명파국민학교(1963.11.22.)

명파초등학교(1996.3.1.)

〈명파간이학교 및 명파인민학교 옛 터〉-저자촬영

백촌국민학교 (栢村國民學校)

- **학교 위치** 토성면 백촌리 밤나무골
- **개교 시기** 1951년 9월 18일 백촌국민학교 인가 및 개교 [풍암 제2호(2010)]

일제강점기 백촌간이학교에서 시작된 백촌국민학교는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백촌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1년 9월 백촌국민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1955년 11월 학교를 교암리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60년 5월 3일에 동광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동광국민학교 편을 참고할 수 있다.

선혜학원 (仙惠學院), 선혜분교 (仙惠分敎)

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장

- **학교 위치** 간성면 탑동2리 산 142-1, 옛 지명은 소천동(소정골, 선유실 등으로 명명함)
- **개교 시기** 1962년 2월 1일 개교
- **설립 주체** 이혜숙(이화여자대학교 농촌계몽대장 출신)

학교의 설립 당시의 이름은 '선혜학원'이이었다. 설립 장소는 간성면 탑동2리로 옛 지명은 '소천동'이었다. 그러나 '선유실', '소정골' 등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은 27가구에 105명이 두집, 세집 산등성이마다 모여살았다. 당시 간성국민학교와의 거리는 30, 40리나 떨어져 있었다. 선혜학원(仙惠學院)의 작명은 선유실(仙遊室) 마을과 이혜숙(李惠淑)의 이름에서 나왔다. 개교 당시 학생은 30명, 교실은 마을 반장이 내준 지붕과 처마가 머리에 닿는 초가집의 방 한 칸, 운동장이라야 '개와 닭이 함께 뛰노는 손바닥만 한 마당'이 전부였다. 선혜학원은 설립 직후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상록수'로 알려져 표창도 받았다. 미국공보원에서는 '두메의 등불'이란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했다. 고성군청은 물론 각지의 의연금이 답지하면서 설립의 해 10월에 교사를 신축하여 800평의 마을 기부의 땅과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하나와 부속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화여대에서는 개교 이듬해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횃불회'라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선혜학원의 재정을 담당하기도 했다. 1964년 이혜숙 선생은 학교를 떠나고 대신 새로운 교사로 곽점분, 박정순, 주성호 목사가 학교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횃불회 사업으로 학교 인근 야산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치기도 하면서 학교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70년 고성군교육청에서 학교를 인수하여 '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이제 선혜학원은 한 농촌계몽대원의 열정으로 꽃핀 배움의 전설, 환대의 장소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체계로 편입되었다. 선혜분교는 이후 꾸준히 양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에 아동수의 감소로 폐교되어 흔적조차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경향신문, 1962.3.7.- 8일자, 1962.10.8.일자, 1964.6.19.일자, 1991.2.19.일자 참조)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간성인민학교 선유실분교(1946~7)-선혜학원(1962.2.1.)-간성국민학교 선혜분실(1970.3.1.)-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장(1971.3.1.)-간성국민학교로 통폐합(폐교)(1990.2.28.)

〈최초 선혜학원의 모습〉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에서〉

〈사진제공, 신학대교수 주성호,
『풍암 제2호(2010)』 재인용〉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땀으로 세워진 두메의 배움집>

선혜학원의 낙성식을 10월 6일에 '소정골' 교정에서 거행되었다. 8백여 평의 교지와 60여 명이 공부할 수 있는 29평의 교실 하나, 부속실, 교사 숙소로 이루어진 교사(校舍)다. 이날은 모든 주민은 물론 온산이 함께 기뻐했다.

두메에 배움의 새봄

그이름 仙惠學院

〈향신문, 1962.3.7일자〉

〈경향신문, 1962.10.8일자〉

송정국민학교 (松亭國民學校)

- **학교 위치** 거진면 송정리 139번지
- **개교 시기** 1956년 5월 24일 송정국민학교로 인가, 9월 1일 개교[고성군지(1986)]

전신 학교는 1940년 4월 1일에 개교한 송강간이학교(松江簡易學校)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송강인민학교로 전환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송정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교명을 변경하여 1956년 5월에 개교하였다. 2009년 3월 1일 거진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대공립심상소학교 부설 송강간이학교(1940.4.1.)

송강인민학교(1945. 10.)

송정국민학교(1956.5.24.)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1999.3.1.)

거진초등학교 통폐합(폐교)(2009.3.1.)

신평국민학교 (新坪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신평2리 재건촌 73동(화암사 아래)
- **개교 시기** 1961년 1월 4일 개교[고성군지(1986)]

최초의 학교는 신평2리에 위치하였으나, 입학생의 감소로 성대 1리로 이전하였다. 당시 재건촌 73동, 20동, 15동 마을은 행정개편으로 성대 1리, 2리로 분리되었다. 이후 1964년 신평리 자활촌이 건립되면서 인구증가로 학교운영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1984년 2월 제20회 졸업과 동시에 동년 3월 1일자로 천진국민학교에 통폐합되었다. [『풍암』제2호(2010)48쪽]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인민학교 화암사분교(1947년경)

신평국민학교(1961.1.4.)

천진국민학교에 통폐합(1984.3.1.)

〈사진제공 : 고성교육청 황종민, 『풍암 제2호(2010)』 재인용〉

아야진분교아야진국민학교 (我也津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아야진리 199번지
- **개교 시기** 1960년 11월 25일 천진국민학교 아야진분교장으로 인가
  1961년 4월 6일 개교
  1963년 11월 22일 아야진국민학교로 승격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급증하여 아야진리에는 학령아동들의 증가로 1960년 11월 분교장으로 인가받았고, 1963년 11월 22일 아야진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아야진국민학교사진 1960년대 전경〉

〈1971년의 졸업사진〉-이선국 연구원 제공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국민학교 아야진분교장(1960.11.25.)

야야진국민학교(1963.11.22.)

아야진초등학교(1996.3.1.)

오호국민학교 (五湖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야촌리(이후 삼포2리 152-3번지 (숙고지)로 이전)
- **개교 시기** 1951년 9월 1일 야촌리에서 처음 개교(군정시기) 1953년 10월 30일 현 위치(삼포리)로 이전

죽왕면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다. 1923년 8월 29일 오호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최초 인가 당시에는 죽왕면 오호리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1938년 4월 1일 오호공립심상소학교로 변경되었다. 이어 1941년에 오호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오호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학교가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 및 국군의 통제로 오호리 마을은 1954년 10월 이후에야 복귀할 수 있었다. 당시 삼포리에 피난민 통제구역(귀농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왕면 송암리까지 피난민이 북상해 있었기 때문에 1951년 9월 군정하에서 야촌리에 오호국민학교를 개교하였다. 이어 1953년 10월 현 위치 삼포리로 이전하였다. 피난민 증가로 한때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이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호공립보통학교(1923.8.29.認)
오호보통학교(1926.4.1.)[조선총독부 직원록]
오호공립심상소학교(1938.4.1.)
오호공립국민학교(1941.4.1.)

오호인민학교(1945.10.)
오호국민학교(1951.9.1.)
오호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용촌분교인흥국민학교 (仁興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인흥2리 180번지
- **개교 시기** 1951년 9월 1일 천진국민학교 용촌분교장으로 개교
  1952년 11월 1일 인흥국민학교로 승격

일제강점기 1940년 11월 15일에 인흥공립심상소학교로 인가되어 12월 12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1941년 4월 1일 인흥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인흥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고 1951년 9월 피난민들이 복귀하면서 용촌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이어 1952년 11월 1일 인흥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인흥공립심상소학교(1940.11.15.)

인흥국민학교(1941.4.1.)

인흥인민학교(1945.10.)

용촌분교장(1951.9.1.)

인흥국민학교(1952.11.1.)

인흥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장신분교장신국민학교 (長新國民學校)

- **학교 위치** 간성면 장신1리 71번지
- **개교 시기** 1968년 3월 1일 개교(분교)
  1973년 3월 19일 국민학교 승격 개교

최초의 학교는 1937년 10월 7일 간성공립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로 개교하였다. 이후 1942년 광산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폐교되었다가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 장신인민학교(분교)가 설치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의 증가로 1968년 3월 장신분교로 인가되었고, 1973년 3월 1일 장신국민학교로 인가되어 3월 19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1982년 3월 1일 광산국민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사진제공 : 향토연구가 전제호〉
『풍암 제2호(2010)』재인용

〈장신국민학교(1970년대 초)〉-광산초 제공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간성공립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1937.10.7.)-간성국민학교 장신분교장(1968.3.1.)-장신국민학교(1973.3.1)-광산국민학교로 통폐합(폐교)(1982.3.1.)

죽왕분교죽왕국민학교 (竹旺國民學校)

- **학교 위치** 죽왕면 오호리 225번지
- **개교 시기** 1965년 10월 1일 죽왕분실로 인가
  1966년 3월 1일 죽왕분교장 승격
  1968년 3월 1일 죽왕국민학교 승격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호국민학교 죽왕분실(1965.10.1.)
죽왕분교장(1966.3.1.)
죽왕국민학교(1968.3.1.)
죽왕초등학교(1996.3.1.)

죽정국민학교 (竹亭國民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죽정리 372번지
- **개교 시기** 1956년 11월 15일 대진국민학교 죽정분교장 인가,
  11월 24일 개교

한국전쟁 이후 죽정리 마을 주민 윤씨 일가의 토지기부로 학교가 건설되었다고 전한다. 1957년 1월 10일 분교장에서 죽정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2008년 9월 1일 대진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인민학교 죽정분교(1947년)-대진국민학교 죽정분교장(1956.11.15.)-죽정국민학교(1957.1.10.)-죽정초등학교(1996.3.1.)-대진초등학교로 통폐합(폐교)(2008.3.1.)

〈사진제공,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정창호, 『풍암제2호』(2010) 재인용〉

천진국민학교 (天津國民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천진2리 161번지
- **개교 시기** 1951년 9월 28일 개교

토성면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다. 일제강점기 1926년 3월 27일에 천진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천진공립보통학교는 천진사설학술강습소를 1924년 6월에 먼저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얻어 강습소가 승격한 학교다. 해방 이후 소련 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천진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5일 교사가 전소되었다. 휴전이 성립되기 이전에 양양군 토성면은 일찍 '수복'되면서 개교도 간성지역보다 앞섰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사설학술강습소(1924.6.)
천진공립보통학교(1926.3.27.)
천진보통학교(1926.4.1.)
천진공립심상소학교(1938.4.1.)
천진공립국민학교(1941.4.1.)
천진인민학교(1945.10.)
천진국민학교(1951.9.28.)
천진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초계국민학교 (草溪國民學校)

- **학교 위치** 거진면 대대리 315번지
- **개교 시기** 1955년 4월 10일 개교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최초의 학교는 거진면 초계리의 초계간이학교였다. 일제강점기 1938년 4월 1일에 오대면 초계리에 초계간이학교로 인가되었다. [고성군지(1986)] 1941년 거진공립국민학교 초계분교장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초계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어 다시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건설하였다. 1955년 4월 10일 현 위치(대대리 315번지)로 이전하여 개교하였다. 1995년 3월 1일로 간성국민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대공립심상소학교부설 초계간이학교(1938.4.1.)
거진공립국민학교 초계분교장(1941.4.1.)
초계인민학교(1945.10)
초계국민학교(1955.4.10.)
간성국민학교로 통폐합(폐교)(1995.3.1.)

흘리분교 흘리국민학교 (屹里國民學校校)

- **학교 위치** 간성면 흘리 55-8번지
- **개교 시기** 1961년 4월 1일 광산국민학교 흘리분실 개교

일제강점기에는 서당(?)이 있어 아동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에는 1939년에 설립된 〈羅先生炳奎紀念碑〉가 있다. 비문에는 "赤心敎育 丹沈誠理"라 씌어 있다.(『금석문조사보고서』(고성문화원,2021)) 한국전쟁 이후 1961년 4월에 흘리분실로 학교를 열었다. 학생수의 감소로 2024년 3월 1일 광산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광산국민학교 흘리분실(1961.4.1.)
흘리분교장(1963.3.7.)
흘리국민학교(1964.12.12.)
흘리분교장(1983.3.1.)
광산초등학교로 통폐합(폐교)(2024.3.1.)

3. 중등학교별 소개

개교 당시의 학교명 사용, 가나다 순

거진중학교(巨津中學校)

- **학교 위치** 거진면 거진11리
- **설립 시기** 1961년 4월 15일

거진중학교는 1961년 4월 15일 고성중학교 거진분교장(남녀공학)으로 인가되었다. 이어 동년 5월 15일 거진중학교로 승격되었다. 한편 당시 학생수의 증가로 여학생들의 독립적인 교육장소를 마련하면서 거진여자중학교가 인가되었다. 점차 어촌의 인구감소로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 3월 1일 여자중학교는 거진중학교로 통폐되었다.

〈거진중학교 1969년도〉-거진중학교 제공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초급중학교(1947.)
거진중학교(1961.4.15.)

거진여자중학교(巨津女子中學校)

- **학교 위치** 거진면 봉평리 31-1번지
- **설립 시기** 1968년 12월 3일 인가
  1969년 3월 25일 개교

고성군에서 최초의 여자중학교라 할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거진에는 '사립 영광여학교(초등)'라는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배움의 전통이 있었다. 이것은 고성군의 여성교육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1975년 7월 23일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여학생상'의 동상을 세워 제막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거진에 처음 중학교를 설립한 것은 1961년 4월 15일이었다. 당시 남녀공학으로 운영되었으며, 1969년 3월 1일로 거진여자중학교로 분리되면서 독립여학교로 발전하였다. 다시 거진의 인구가 감소하자 2000년 3월 1일로 남녀공학의 거진중학교로 통합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여자초급중학교(1947.)

거진중학교(1961.4.15.)

거진여자중학교(1968.12.3.)

거진중학교(2000.3.1.)

고성중학교(高城中學校)

- **학교 위치** 간성면 상리 399번지 방축골
- **설립 시기** 1955년 3월 29일 인가, 5월 25일 개교

고성군의 공립중학교는 일제강점기 장전읍의 금강중학교가 최초였다. 이어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 각 면에 초급중학교가 설치되었다. 당시 간성면에는 남녀 초급중학교가 각각 설치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동광중학교(1952)에 이어 고성중학교가 1955년 3월에 설립되었다.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간성초급중학교(1947.)

간성여자초급중학교(1947.)

고성중학교(1955.3.29.)

<언론보도>

고성중학교 설립기성회에서는 지난 17일 지방유지들과 회합하고 문교부장광과 강원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속히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지에는 중학교가 없어 200여 명의 학생이 20여 Km나 되는 인접군(양양군)에 있는 중학교(동광중학교)에 통학하고 있어 시간낭비는 물론 200여 명의 금년도 입학예정자들을

고려하여조석한 인가가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1955.2.26.)

지난 15일 하오 1시부터 고성중학교 신축기공식이 간성면 상리 방축골 신축부지에서 관민다수가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런데 동공사는 지방주민의 요청으로 건축자재는 제1군 사령부 원조로 도입되었고, 공사담당은 서울 삼풍기업주식회사 측과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금번 기공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는 8월 말일까지 준공되리라 한다. (조선일보, 1957.5.22.)

사진제공: 고성중고등학교

〈고성중학교 개교 사진, 단기4290년(1957)〉

〈고성중학교 개교 사진, 단기4290년(1957)〉

〈고성중학교 개교 당시 교무실단기4289년경(1956)〉

대진중학교(大津中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초도리 180번지
- **설립 시기** 1967년 12월 20일 인가

〈대진중학교(1970년대)〉-사진제공: 대진중고등학교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초급중학교(1947.)

대진중학교(1967.12.20.)

동광중학교(東光中學校)

- **학교 위치** 토성면 백촌리 187번지
- **설립 시기** 1952년 3월 5일 인가, 3월 20일 개교

한국전쟁 이후 가장 먼저 설립 및 개교한 중학교이다. 설립 당시에는 양양군 토성면 관할이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초급중학교(1947.)-동광중학교(1952.3.5.)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거진실업고등학교(巨津實業高等學校)

- **학교 위치** 거진면 거진11리
- **설립 시기** 1963년 10월 29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거진실업고등학교의 설치를 승인,
  1964년 2월 10일 인가(상과 3학급, 가정과 3학급)
  4월 11일 개교

거진실업고등학교는 거진면에 설립된 최초의 고등학교다. 개교 당시에는 남녀공학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후 1973년 12월 10일 학칙변경으로 가정과를 폐지하고 전자과를 신설하였으며, 1974년

10월 18일[『고성군지』(1986)]에는 교명을 거진공업고등학교(전기 2학급, 전자 2학급)로 변경하였다.(거진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는 1974.12.17.일에 교명을 변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0년 3월 1일에는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거진공업고등학교가 통합(상과 1학급, 공과 2학급, 보통과 1학급)되어 거진종합고등학교로교명을 변경하였다. 2013년 3월 1일에는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로 다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23년 3월 2일 거진고등학교(전기전자과 1학급)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고성신문〉 2022.10.19.일자), 고성군지(1986), 거진고등학교 홈페이지 연혁 등을 참조]

사진은 거진실업고등학교 제1회 졸업기념 앨범 속에 나타난 1969년도의 모습이다. 교가의 내용에는 "거진중실고 거진중실고"란 가사가 나온다. 이 점으로 볼 때, 당시(1969년)에는 거진중학교(1961년)와 거진실업고등학교(1964년)가 같은 교정에 공존하면서 통합된 형식의 학교운영이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자료제공:거진고등학교)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실업고등학교(1964.2.10.)-거진공업고등학교(1974.10.18)-거진종합고등학교(2000.3.1.)-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2013.3.1.)-거진고등학교(2023.3.1.)

1963년 10월 29일 도교육위원회는 동광농고, 거진실업고, 철원, 삼육고, 강릉명륜고 등 5개 중고등학교의 설치를 승인했다.
(경향 1963.10.30.일자)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巨津女子綜合高等學校)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

- **학교 위치** 거진면 봉평리 31-1번지
- **개교 시기** 1978년 12월 29일 인가
  1979년 3월 1일 개교

처음에는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보통과 3학급, 상과 3학급)로 인가받고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고성군에서 최초의 여자고등학교라 할 수 있다. 1992년 3월 3일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어 2000년 3월 1일에 거진공업고등학교와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마지막 졸업생은 19회 졸업이었다.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 1981년 학교 전경〉-사진제공 : 거진고등학교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1978.12.29.認)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1992.3.3.)

거진종합고등학교로 통폐합(2000.3.1.)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 제1회 졸업앨범 표지(1982년도)〉

고성고등학교(高城高等學校)

- **학교 위치** 간성면 상리 391번지
- **개교 시기** 1958년 3월 31일 인가, 5월 25일 개교

〈고성고등학교(1970년대 초)〉-저자 앨범

대진고등학교(大津高等學校)

- **학교 위치** 현내면 초도리
- **개교 시기** 1980년 11월 26일 인가,
  1981년 3월 4일 개교

〈대진고등학교(1980년대)〉-사진제공: 대진중고등학교

동광농업고등학교(東光農業高等學校)

-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백촌리 187번지
- **개교 시기** 1954년 4월 1일 인가(농과 3학급), 5월 6일 개교
  1954년 12월 31일 축산과 3학급 인가

한국전쟁 직후 고성지역(당시 양양군)에서는 처음 개교한 고등학교였다. 그러나 전쟁 직후라 입학생 충원이 쉽지 않아 정원 미달이 지속되어 잠시 폐교되기도 했다.

동광농업고등학교 교사는 육군 제3군단 예하 제1107야전공병단에서 군대민사업으로 건설하여 1955년 3월 13일 준공식을 거행했다. 준공식에는 군단장 송요찬과 군관민이 많이 참석하였다.
(조선일보, 1955.3.17.)
개교 이후 입학생의 충원이 되지 않아 정원 미달을 겪다가(조선일보, 1957.11.20.) 1963년 2월 28일부로 폐교되기도 했다.(1963.2.1. 경향신문) 당시 재학생은 속초고등학교와 고성고등학교에 편입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폐교반대운동을 벌이며 2월 20일부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당시 재학생은 97명이었다.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결국 강원도교육위원회는 그해 10월 29일에 동광농업고등학교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이때 거진실업고등학교도 함께 설치승인을 받았다. (경향신문, 1963.10.30.)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동광농업고등학교(1954.4.1.)

동광농공고등학교(1992.3.1.)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2011.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교가(校歌)

<간성초등학교>

김우영 작사, 김영성 작곡

1. 아침해 먼저 받은 희망의 고장
   금강산 정기 받고 동해의 넋을 이어
   천송이 무궁화가 길을 밝히니
   배움의 전당일세 우리 간성교
   배워라 진리를 닦아라 그 몸을
   우리는 자라나는 조국의 간성

2. 반만년 오랜 역사 빛나는 전통
   거룩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천 건아들
   갈고 닦아 내리라 우리의 앞길을
   배워라 진리를 닦아라 그 몸을
   우리는 자라나는 조국의 간성

<거성초등학교>

황기원 작사, 김영성 작곡

1. 동해의 서기가 태백에 차면
   태양 더욱 눈부신 희망의 고장
   아름다운 새싹들이 여기 모이니
   나라 위해 배우리라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큰 뜻 길러 전진하는 배움의 동산
   영원히 빛나거라 우리 거성교

2. 자유의 등대불이 태양 비추듯
   승공통일 이룩할 대한의 건아(학교홈페이지는 '보배'로 수정)
   슬기로운 새싹들이 여기 모이니
   겨레 위해 배우리라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큰 뜻 길러 전진하는 배움의 동산
   영원히 빛나거라 우리 거성교

<거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홈페이지에는 김갑 작사,작곡)

1. 거진항 푸른 물결 우리의 기상
   씩씩하게 자라나는 굳센 어린이
   새나라 지고 나갈 일꾼이라네
   나가세 나가 힘을 합하여
   빛내자 우리 학교 우리 거진교

<광산초등학교>

김영기 작사, 김영성 작곡

1. 향로봉 높은 기상 굽어 바라며
   수놓은 푸른 정기 가슴에 안고
   다사로운 봉향에 깃들인 포부
   어버이 희망의 뜻 이어받아서
   옛 문화 찾아 닦는 우리들 건아
   이곳에 자리 잡은 우리 광산교

<공현진초등학교>

윤명구 작사, 박수동 작곡(홈페이지에는 윤병구 작사)

1. 아침해 힘찬 햇살 온누리에 빛나고
   동해의 푸른 물결 흰 모래 쓴다
   공현봉 중턱에 자리 잡은 배움터
   나라와 고장 위한 새싹들이 자란다
   아 아 길이 빛날 우리 공현교

<구성국민학교>

김진의 작사, 황규림 작곡

1. 오봉산은 연연이 등을 두르고
   유수 있는 명우산은 앞에 높이며
   하늘 높고 산도 푸른 그윽한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우리 구성교
   억만년 살아나갈 우리 고장을
   창조하세 개발하세 우리 손으로

2. 배달 정기 이어받은 우리 학교를
   새 세기를 창조하는 씩씩한 기상

참다워라 뭉치어라 부지런해라
키우고 사랑하세 우리 구성교
억만년 살아나갈 우리 고장을
창조하세 개발하세 우리 손으로

<대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 이름난 금강의 정기를 받고
양양한 동쪽 바다 기품을 삼아
화진포 맑은 물에 마음 닦으며
언니들 남긴 자취 이어받으리
우리는 아름다운 대진의 어린이
이 강산 길이 빛낼 영광들일세

<도학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홈페이지에는 조남옥 작사 한창수 작곡)

1. 설악의 정기 이어 청운을 세우고
맑은 물을 거울삼아 마음을 밝히는
맑고 밝은 도학은 배움의 전당

도원에 학이 머물 듯 우리도 여기
도학을 이루어보세 우리 도학교

<동광초등학교>

최창학 작사, 김창연 작곡(홈페이지에는 김성연 작곡)

1. 태백 줄기 뻗어내려 운봉 만들고
동해 물결 파도쳐서 들려오는 곳
아침저녁 종소리는 천지를 울려
우리들을 길러주는 동광학교

<마달분교>

조공성 작사, 작곡

1. 태백 준령 정기 뻗은 물 까치봉 솟은 곳
아담하게 자리 잡은 우리 학교는
씩씩하게 자라나는 마달 건아들의
배움의 요람이요 삶의 터전이다
참되고 슬리롭게 배우고 익혀
나라의 기둥이 될 우리 마달교

2. 동해의 푸른 물결 닿는 이곳에
온누리에 등대가 될 우리 학교는
튼튼하게 자라나는 마달 건아들의
배움의 전당이요 삶의 터전이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배우고 자라
새 역사 떠밀고 갈 우리 마달교

<명파초등학교>

김종석 작사, 조혜자 작곡

1. 우람한 금강산의 정기를 받아
굳세고 튼튼하게 자라는 우리
지혜를 떨치고 슬기를 닦아
내고장 빛내자 우리 명파교

<송정초등학교>

최경화 작사, 작곡

1. 태백산맥 힘찬 줄기 정기를 받고
푸른 동해의 솟는 해 우리의 기상

물 좋고 정자 좋은 우리 배움터
씩씩하게 자라나는 대한의 새싹
배움의 지혜로운 송정 어린이
이 나라의 으뜸이 될 우리 송정교

<아야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설악봉 웅장한 뫼 우리의 기상
동녘 바다 맑은 물 우리의 마음
이 기상과 이 마음 기르고 닦아
영원토록 빛내자 아야진학교

<오호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설악산 운봉산을 서쪽에 두고
죽도와 오를 산(홈페이지에는 오륜산/오음산 아닐까?)
높이 솟았네
스승의 가르침에 자라는 우리

무궁화 민족혼을 길러 보리라
기름진 넓은 땅에 자라는 우리
길이길이 빛나라 오호국민교

<인흥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슬기로운 우리 강산 우러러보며
자유로운 이 땅 위에 배움을 찾는
빛나는 대한의 어린 주춧돌
높은 이상 넓은 사랑 우리의 자랑
빛나라 영원하라 우리 인흥교

<죽왕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 동해의 맑은 물결 한아름 안고
새 희망 새 터전에 기상은 높아
찬란한 배움의 터 우리 손으로
가꾸고 다듬어서 나아갈 길을

배우자 찬란의(홈페이지에는 '진리의') 길 죽왕의 건아
('보배들'로)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 죽왕교

<죽정국민학교>

김택용 작사, 작곡

1. 동해의 화진포 아름다워라
고운 맘 일러주는 터전이 되네
슬기롭게 배우고 큰 뜻 길러서
온겨레 밀고나갈 일꾼이 되세
아 우리는 착하게 굳세게 사는
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 죽정교

<천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홈페이지에는 이강국 작사, 작곡)

1. 줄기찬 태백의 정기를 받아
굳세고 슬리론 문화의 터전
새 역사 창조자 키워 나가는

희망에 가득찬 우리 천진교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도와서

2. 동해의 맑은 물 우리의 마음
푸르고 끝없는 희망의 터전
겨레의 길잡이 자라고 있는
우뚝선 배움터 우리 천진교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도와서
이 나라 새 일꾼 되여 나가세

<초계국민학교>

함병철 작사

1. 태백산 뻗어내려 우리를 안고
동해의 파도가 넘실거린다
맑고도 아담한 보금자리터
종소리에 발맞추어 힘차게 배워
이 나라 동량 되어 나갈 우리들
굳세게 길러주는 우리 초계교

<흘리분교>

이창복 작사, 이진석 작곡

1. 태백산 중허리 분수령에
   동해는 마산봉이 우뚝서 있고
   서로는 진부령이 허리굽혔네
   이곳이 흘리학교 배움의 터전
   배우고 또 배워 얼른 자라서
   이 나라 새 세대의 역군이 되자

<거진중학교>

임종완 작사, 노문규 작곡

1. 찬란한 동해 호반 가슴 부풀고
   태백의 배달 정기 골수에 받아
   영동에 높이 솟은 문화의 전당
   화진포 설악산에 울려퍼지는
   거진중학교 거진중학교 지축 울리며
   우주의 정복까지 배워 닦으세

*위의 거진중학교 및 거진공고의 교가는 고성군지(1998)에서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제1회 거진실업고등학교 졸업 앨범(1969년)에는 다음과 같은 교가가 기록되어 있다.

<거진중학교, 거진실업고등학교>

1. 찬란한 동해 호반 가슴 부풀고
   태백의 배달 정기 골수에 받아
   영동에 높이 솟은 문화의 전당
   화진포 설악산에 울려 퍼지는
   거진중실고 거진중실고 지축 울리고
   우주의 정복까지 배워 닦으세

2. 빈곤한 우리 살림 근면 재건코
   협동력 밑받침해 성실하자고
   슬로건 높이 들고 약진분투해
   아시아 온누리에 울려퍼지는
   거진중실고 거진중실고 배움의 도장
   새롭고 새로워질 거진중실고

*거진중학교와 거진실업고등학교가 같은 교정에서 운영되기도 했다. 따라서 두 학교는 공통의 교가를 사용했다.

<거진여자중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강춘섭 작사, 임봉수 작곡

1. 병풍 같이 둘러선 설악의 꿈에
   화진포의 유수한 호반을 띄고

밝은 해 솟아오는 동해를 바라보며
우뚝솟은 우리의 배움의 보금터
아 아 그 이름도 거룩하다 거진여중고

2. 우리들은 모두다 한뜻으로 모였다
새 역사를 빚어가는 새 사람이 되자고
다함께 슬기롭게 지덕을 닦아
은혜 깊은 스승님의 그 뜻을 빛내세
아 빛나리라 길이 길이 거진여중고

<고성중학교, 고성고등학교>

이철우 작사, 허도찬 작곡

1. 금강산 장엄함은 우리의 기상이요
동해의 광활함은 우리의 희망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고성산 기슭에
우뚝 솟은 우리 전당 고성중고교
강건을 교훈 삼아 힘차게 나가리라

2. 향로봉 절개하고 화진포 거울 삼아
배달혼 이어 받은 대한의 아들딸
반만년 빛난 전통 길이길이 받들고
천만년의 우리 전당 고성중고교성실을
교훈 삼아 의지 크게 나가리라

3. 남북천 흐른 물이 대해를 이룩하고
선열의 얼을 이어 민족에 바치리라
의지랑 굽지 말고 정의를 위하여
빛내우세 우리 전당 고성중고교
협동을 교훈 삼아 정성껏 나가리라

<대진중학교, 대진고등학교>

전상국 작사, 이시우 작곡

1. 푸르른 동해바다 화진포의 아침
넘실대는 파도타고 태양이 뜬다
굳센 자주 앞세워 배움을 찾는
우리는 나라의 일꾼 대진의 건아

2. 줄기찬 설악산 진부령의 정기
거센 파도 이겨내는 굳건한 심신
내일의 새 일꾼이 여기 모였다
보아라 배움의 요람 대진중고교

<동광중학교, 동광농공업고등학교>

김성재 작사, 유장렬 작곡

1. 설악산 기슭에 우뚝 솟아 크나큰 집 우리의 모교
동해의 푸른 물결 휘넘쳐 뛰는 곳 우리는 자란다
자유를 찾으며 배움의 몸을 닦는 동광의 건아들아
밭 갈고 씨를 뿌려 오곡 거두세 대지를 날으는
동광의 불사조 이 나라의 일꾼 되어 금수강산 더욱 빛나리

*교가는 원칙적으로 고성군지(1998년)에서 가져왔으며, 현재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과 상호 비교하여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1.단행본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김광섭, 고성의 독립운동사, 고성문화원, 2018

김광식 ,금강산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 인북스, 2011

김동규 등, 북한교육사(영인본), 교육과학사, 2000

김명신, 한국교육사, 동문사, 2013

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르네 지라르, 문화의 기원, 기파랑, 2006

박설산, 뚜껑 없는 조선 역사책, 삼장, 1994

박순조, (번역)강원도 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신채호,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16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2003

양양문화원, 한국전쟁 시기 양양군의 군정통치에 대한 고찰, 2015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교육과학사, 2014

윤내현, 고조선 연구, 만권당, 2018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이영선, 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이향규 외, 북한사회주의 형성과 교육, 교육과학사, 1999
일연, 삼국유사, 솔, 1997,
장계석, 연산일기초-김건기 이야기, 금강컴, 2006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조기영, 화랑세기, 장락 1997
조화태 외, 교육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2009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2004
함상옥, 백년사, 간성초등학교총동문회, 2012
현채, 유년필독, 경진, 2012

2. 논문

김영미 : 인민학교 교사가 된 '흰패'의 딸들-구술을 통해서 본 해방 직후 38이북(양양·속초지역) 주민사회와 교육개혁,(논문), 2011년 4월

김창호 : 1950년 전후 북한 초·증등교육에 관한 면담조사-양양,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년 2월

이철수 : 6·25한국전쟁시기 군정이 양양지역에 미친 영향, 강원도 향토문화연구회, 2016

전창기 : 북한통치시기(1945~1953)의 고성군 수복지구 초·중등 교육에 관한 면담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년 2월

3. 신문기사

김광섭, 〈고성신문〉 김광섭의 고성이야기(29), 2011.10.18., 고성이야기(68), 2014.5.27

엄경선 기자, 〈설악신문〉, 2007.11.19.

4. 향토지

강원도사, 1995

고성군지, 1986

고성군지, 1998

고성군지, 2020

양양군지, 2010

인제군지, 2017

간성향교지(보정판), 간성향교, 2013

간성군 읍지, 고성문화원, 1995

권세규, 수성읍지, 한국학중앙연구원, 1897

고성향토문화연구회, 豊巖(풍암) 제2호, 고성문화원, 2010

5. 인터넷검색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www.dlibrary.go.kr)

국립중앙도서관 신문검색 홈페이지(http://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부 록

제30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2020) 장려상 수상 논문이다.

日帝下 高城지역의 사립학교 設立연구

이성식 : 고성문화원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일제하(1906-1945) 고성지역에서 설립되었던 사립학교의 설립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특징을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주의 통제교육 상황에서 고성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려는 것과 더불어 교육의 장에서 남북고성을 하나의 지면에 배치해 보려는 것이다.

연구범위에서 '일제하'즉 1906년부터 1945까지의 시기를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906년은 고성지역에서 최초의 근대학교라 할 수 있는 봉명학교 등이 설립된 시점이다. 또한 1906년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내정을 간섭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학부에 학정참여관을 두고 조선의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일본식민지주의교육의 40년 역사'가 시작되었다.[1)]

한편 지역적 범위를 '高城지역'으로 표현한 것은 1906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고성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고성지역'이라 함은 고성군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기간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1906년 당시는 고성군과 간성군이 독립된 군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

1)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1985, 일지사, 193쪽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고성군은 간성군으로 병합되었다가 1919년에 간성군은 고성군으로 개칭되었다. 동시에 간성군의 일부였던 죽왕면과 토성면은 양양군으로 편입되고, 통천군에 속했던 장전(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은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 고성군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분단되는 과정에서 고성군은 남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정리하자면 '高城지역'은 과거 고성군과 간성군, 그리고 통천군의 일부였던 장전(長箭)을 포함한 지역이다. 즉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고성군 전체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립학교'의 개념은 관공립보통학교와 간이학교를 제외한 민간이 설립한 사립보통학교, '학교', 의숙, 사설학술강습소, 학원 및 야학원, 개량서당 등을 망라한 일부 제도적 교육기관과 토착, 또는 민중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전통적인 한문서당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전거로 삼은 자료는 일부 문헌자료를 제외하면 다수가 신문자료를 기초로 삼았다. 신문자료는 지역적인 정서와 현장감을 반영하는 기록이란 점에서 향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자료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신문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부 학교의 자료는 당시 학교경험을 가진 자들의 구술을 토대로 하였다.

제2장 대한제국기 高城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제1절 학교설립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및 교육구국운동

청일전쟁(1894) 이후 점차 노골화하기 시작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은 러일전쟁(1904)을 계기로 한층 더 지배적인 침탈로 드러났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강제적인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교육 등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의 한국침략의 야욕은 제1차 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고빙에 관한 협정: 1904.8.22.)의 체결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일본은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인 學部에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과 사무관을 배치하고 교과서의 편찬업무를 담당케 하고, 각급학교에 일본인 교사를 채용하여 한국인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최초의 학부의 학정참여관은 1905년 2월에 임명된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垣)였다. 그는 〈한국교육개량안〉을 작성하여 조선의 학제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2] 고문정치에 이어 일본은 다시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또는 을사보호조약, 1905.11.17.)을 강제로 체결하고 '통감정치(統監政治)'를 실시하였다.

---

2)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1985, 일지사, 196쪽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임하였다. 그는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를 통감부 서기관(학부차관)으로 임명하고 학교제도의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보통학교령(1906.8.27.) 등 각종 학교령과 규칙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학정참여관 시데하라(幣原垣)의 개편 제안을 실현한 것이다.[3)]

당시 통감부에 의한 학제 개편과 보통교육의 주요 통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6년 보통학교령, 1908년 사립학교령,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학년의 개시를 매년 4월로 하고, 학년을 3학기로 나누어 통일하고 학급제를 적용하여 학급정원제를 실시하였다. 사립학교령(1908)을 통하여 각종 사립학교를 통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의 설립은 학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과용도서 역시 허가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민간에서 자유롭게 편찬하여 사용하던 교과서를 학부의 통제로 하였다. 또한 서당 역시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한문 이외 일본어도 교수하도록 하였으며, 시간표에 의한 교수를 명령하였다.(1908년, 〈서당에 관한 훈령〉 발포)

3)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2015, 학이시습, 16쪽

한국에서 서구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부터였다. 교육제도와 학교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학부(學部)가 설립되었고, 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1904년 전까지 교육제도는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1904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한국의 언론과 주요 인사들은 부국강병을 위하여 정부에 학교교육의 확대와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교육정책과 사회여론의 영향으로 다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4)]

당시 선각자들은 신학문을 받아들여 국가와 민족을 근대화하지 못한 까닭으로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국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은 '끊어진 국운을 만회하고 빈사한 국민을 소생케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는 사례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본 기자가 신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명운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감히 기원하는 ᄇᆞ는 국내에 학교가 점점 늘어 교육이 흥왕함이로다..... 본 기자의 소견에는 단, 교육 한 가지만 흥왕하게 되면 위태로웠던 국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땅에 떨어진 국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니 .... 그 나라로 하여금 독립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의

4) 정진숙, 「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 2019, 3-4쪽

> 권리를 잃지 않으려 한다면 오직 교육을 넓혀 민지를 발달케 함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 교육의 힘이여, 끊어진 국운을 만회하고 빈사한 국민을 소생케 하는 것이로다.....이로 볼 때, 약함이 강함이 되고 썩음이 새롭게 된 것은 교육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다한 것이 이것이다. 한국 사람들도 자유독립을 회복코자 하거든 하루속히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진흥하여 보시오."
> (대한매일신보, 1906.1.6.)[5]

이러한 교육구국운동은 개인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개인으로는 안창호, 이승훈, 이동휘, 유길준, 민영휘 및 남궁억 등의 애국지사들이었다. 단체로는 서북학회, 기호학회, 교남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흥사단, 대동학회 및 개성학회 등이 교육사업을 추진하였다.

2. 학교설립의 노력 및 좌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학교는 봉명학교(1906)이다.[6] 그러나 황성신문에 따르면, 당시 간성군수 이준구의 노력으로 봉명학교보다 앞서 학교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5)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교육과학사, 2014, 179-180쪽, 재인용
6) 강원교육사 편찬위원회, 강원교육사, 강원도교육위원회, 1980, 김영우, <한말의 립학교에 관한 연구(Ⅱ)>, 『교육연구』 제3권, 공주대 교육연구소,천교육 대학교 논문집』 35권, 1995

확인된다. 당시 기사에는 “본 군수가 열심히 학교를 창설하는데 군수가 먼저 의연금을 내어(연름의조)... 며칠내(不日) 개학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간성군민들의 알림(”杆城郡民人等 告白“)을 전하고 있다.(아래 인용글1) 이렇듯 개학을 앞둔 희망찬 기사가 있고 나서 4개월 후 ”간성군수 이준구 면직“의 기사가 나타난다.(인용글2) 그렇다면 군수는 왜 파면되었을까? 또 얼마 후 등장한 기사는 ”간성학교폐지“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악하면 이준구 간성군수는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中“의 평가로 군수가 파면되었으며, 이에 군민들이 내부에 호소하려고 상경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성학교는 폐지되었다는 것이다.(인용글3) 당시 수령의 인사평정제도인 포폄법(褒貶法)에 따라 상중하의 ”中“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다.

<인용글1>

本郡守李埈九氏가 莅任三載에 聽訟이 無私ᄒᆞ고

○本郡守李埈九氏가 莅任三載에 聽訟이 無私ᄒᆞ고 一境이 賴安에 萬口騰碑ᄒᆞ고 誦聲如雷라 境內學校之迄今未遑者ᄂᆞᆫ 實緣財政不敷而然矣러니 本郡守가 熱心으로 學校을 創設ᄒᆞᄂᆞᆫᄃᆡ 招致境內父老ᄒᆞ야 勸諭商確ᄒᆞ고 先爲捐廩義助즉 上下民人이 咸曰我侯來暮라ᄒᆞ야 亦爲鳩聚資本ᄒᆞ야 不日設校開學ᄒᆞ기를 專務ᄒᆞ기로 不勝感荷ᄒᆞ와 玆에 仰佈홈杆城郡民人等 告白[7]

7)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05.14, <本郡守李埈九氏가 莅任三載에 聽訟이 無私ᄒᆞ고>

<인용글2>

○免本官 杆城郡守李埈九 右ᄂᆞᆫ 江原道本年春夏等殿最報告書를 據ᄒᆞᆫ즉 杆城郡守李埈九ᄂᆞᆫ 以▣民有道無或强制爲目矣라 該員治績을 宜寘下考而寘諸中考ᄒᆞ니 其在嚴明殿最之意에 豈容若是리오 該道前觀察使沈相薰은 不可無警이이 施以譴責之典ᄒᆞ고 杆城郡守李埈九ᄂᆞᆫ 免本官 이상 9월 29일[8]

<인용글3>

杆校必廢

杆城郡守李㷺九氏ᄂᆞᆫ 莅任數年에 服勤視務ᄒᆞ고 以惠爲政ᄒᆞ야 頌聲이 載路ᄒᆞ고 학校에 熱心ᄒᆞ야 연廩扶助ᄒᆞᄂᆞᆫᄃᆡ 학徒募集時에 屢令不待ᄒᆞᄂᆞᆫ 故로 說明次로 招致학徒之父兄矣러니 橫被强制之中考ᄒᆞ야 今當免官에 一境民人이 皆惜其無辜當免하야 裹足上京ᄒᆞ야 呼訴內部에 不得仍任之題ᄒᆞ고 欲呈政府에 路呈而不受ᄒᆞ고 入呈則門禁ᄒᆞ야 逗留十餘日에 未上訴狀則都是◈郡守의 無勢所致오 該郡학校의 廢止가 尤甚可歎이라ᄒᆞ더라[9]

이처럼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비슷한 시기에 강릉군수가 재판을 받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지방관의 학교설립과정에서 통감부와의 마찰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릉군의 사건은 한학자 심일수(1877-1952)의 『돈호유고』의

8)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10.05,<叙任及辭令>
9) 대한매일신보, 1906.10.30. <杆校必廢>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10)]

한편 이준구 군수의 학교설립이 좌절된 이후 이면익 군수가 부임하여 사립 수성학교(1908)를 설치함으로써 좌절된 군수의 학교설립이 실현되었다.

제2절 학교설립의 현황

고성지역은 예로부터 궁벽한 변방지방이었으나, 원산 개항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신문물이 터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곳이다. 지리적인 위치에서도 원산과 근접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류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특히 교육이 발달한 원산, 즉 文敎元山으로부터 꾸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고성지역주민들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과 더불어 새로운 학문에 대한 필요성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립학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래에 그 현황을 밝힌다.

〈표1 - 대한제국기 사립학교 현황(1906-1910)〉

학교명	설립 (운영)기	소재지	설립자 학교장	전거
봉명학교 (鳳鳴學校)	1906	(건봉사) 간성군 오현면 냉천리	승 진학순外 /진학순	건봉사사적
명동의숙 (明東義塾)	1906 (1908.12.31.)	(아호교회내) 간성군 토성면 아호리	최상기 外 /최상기	동아일보 (대한매일신보)

10) 방동인, <영동지방의 민족교육운동-강릉지방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 제5집, 2000

유신학교 (楡新學校)	1907.4.21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		대한매일신보
광명학교 (廣明學校)	1907.5.14	간성군		황성신문
동일학교 (東一學校)	1907.7.12	고성군 신계사		대한매일신보
일어학교	1907.9.18	간성군 군내면 內		대한매일신보
공명의숙 (公明義塾)	1908.10	간성군 왕곡면 공현진리	박근형,김홍규 外/김진호	대한매일신보 (1909.2.26.)
수성학교 (水城學校)	1908년 말	간성군 군내면 중리	군수 이면익外	황성신문 (1909.8.13.)
숭문의숙 (崇文義塾)	1909.2.26	간성군 죽도면		대한매일신보
측량학교	1909.6.30	간성군 구산면 월안리	최돈철 (설립, 교수)	대한매일신보
간성노동야 학교	1909.8.14	간성군 군내면 청사	노동자 外	황성신문
영광의숙 (永光義塾)	1909.12.29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임중현,김정현 外/임중현	황성신문
고성야소 (耶蘇)학교	1910.5.18	고성군 동면 동리	미국 감리파	국가기록원 (헌기제1165호)
영창학교 (永昌學校)	1910.8.3	고성군 일북면 추동		대한매일신보
창신의숙 (創新義塾)	1910.9.3	간성군 토성면 천진리		황성신문

(1) 봉명학교(鳳鳴學校)

1906년 간성군 오현면 건봉사에 설치된 보통학교이다. 봉명학교의 기원은 1906년 불교연구회를 중심으로 중앙의 명진학교가 설립된 이후 전국 주요 사찰에 근대학교가 창설되었는데, 봉명학교가

그 시작이었다. 개교시점은 1906년 8월 1일로 보기도 한다.[11] 봉명학교의 개교는 영동지방의 근대 사립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양양의 현산학교의 개교(1906.7.20.)와 비슷한 시기이다.[12] 봉명학교는 그 설립취지서를 신문에 공포했으며, 개교를 알리는 신문광고도 실었다.[13] 회고에 따르면, 학교설립의 주역은 교장인 진학순, 교감 김보운, 회계 이금암(본명 이교재, 금암스님, 독립운동가) 등이었으며, 교육과정은 초기에는 보통과로 시작하고, 이후 성장하여 유치부, 보통과(초등부), 고등보통과(중등부)의 학제로 운영되었다.[14] 교과목은 개교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조선어, 일어, 영어, 산술, 지리, 역사 등을 가르쳤다. 1930년대 학교가 융성한 시기에는 내과 외과로 구분되어 내과는 불교과목이고 외과는 일반학교 과목을 개설하여 진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토요일을 활용하여 연극, 동화대회, 강연회, 가장행렬, 독서회(봉서소년회), 민속놀이, 운동회(축구)를 열었다. 봉명학교에는 건봉사 승려 및 인근 마을의 청소년들은 물론 관동지역에서도 입학생이 모여들었다. 특히, 봉명학교에서는 건봉사의 넉넉한 재정에 힘입어 각종 장학생을 육성하였다. 경성의 유학생은 물론 일본 유학생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여 20여 명을 배출하였다.

---

11) 김광식, 『금강산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 인북스, 2011, 180쪽
12) 양양문화원, 『양양군지』 , 2010년, 595쪽/ 이철수, 「양양지방의 초등교육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8, 13쪽
13) 황성신문, 1907.1.26. <江原道杆城郡金剛山乾鳳寺鳳鳴學校趣旨書>
14) 이영선,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319쪽

이들 일본 유학생들은 방학이면 봉명학교에서 특강도 열었고, 후배들에게 독서 및 문예활동을 지도하면서 문예지 〈첫걸음〉도 창간하였다. 대표적인 유학생은 정두석(전 동국대총장), 조영출(조명암, 시인, 대중가요 작사가, 연출가, 월북), 황영진, 최재형(시인), 박보광 등이었다.[15] 유학생들은 방학에 일본어 강습을 열기도 하였다. 또한 만해 한용운이 건봉사에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독립운동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봉명학교의 학생들은 설립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16] 한편 봉명학교는 개교 이후 몇 차례의 부침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이 편찬한 『건봉사 사적』에는 1907년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07년 봉명학교에서 춘기 운동회를 실시한 것으로 볼 때, 어떤 오류가 있는 듯하다.[17] 한편 1921년에는 봉명학교가 봉림학교로 개칭되면서 고등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되었다. 모집학생은 200명이었다.[18] 봉명학교에서 봉림학교로의 전환을 거치면서 이어진 봉명학교는 결국 만세사건(1935)과 조선어 개설 사건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고 1939년에 일시 폐교를 당하는 비운을 맞는다. 그러나 이영선의 『금강산건봉사사적』의 연혁에는 1942년에 최재형(동경 유학생), 최영준이 봉명학교 교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있다.

---

15) 박설산, 『뚜껑 없는 조선 역사책』 삼장,1994, 96~101쪽
16) 대한매일신보, 1907.4.9.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17) 대한매일신보, 1907.6.22. <鳳校運動>
18) 동아일보, 1923. 3.14 <乾鳳寺和尙敎育熱>

한편 봉명학교는 해방 후 소련군정 시기인 1945년 10월에는 냉천인민학교로 개명되고 함흥조 교장이 취임하게 된다. 이로써 국난의 시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근대교육을 선도적으로 담당했던 봉명학교의 역사는 일단락되었다.

(2) 명동의숙(明東義塾) 또는 명동학교

토성면 아호리(지금의 아야진리) 아호기독교 교회 내에 설치된 학교이다. 이 학교의 설립시기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06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사와 다른 기사가 동시에 나타난다. 즉 ",,,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19] (추기) 황성신문에 의하면, "명동의숙은 창설한지 2개년에 학생이 50여 명에 달하였다"(황성신문, 1910.7.21. 〈賴有三氏〉) 그리고 이 학교가 기독교계 학교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27년에 야소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일정한 연결성을 엿볼 수 있다.[20] 명동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21] 보통과 이외에 측량과, 노동야학과도 운영하였다. 생도수는 보통과 50여 명이고 노동학생이 40여 명, 측량과 30여 명이었다.[22]

19)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20)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21) 황성신문, 1910. 2.27. <東校進級>
22) 대한매일신보, 1909.2.26. <海上灯臺>

(3) 유신학교(楡新學校)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에 세워진 보통학교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가 7일간 게시되었다. 교과목은 내전(內典)과 외전(外典), 語學,지지(地誌), 역사, 산술, 국문, 습자(習字)였으며, 학생은 40여 명이었다.[23]

(4) 광명학교(廣明學校)

광명학교는 1907년 간성군에 설치, 운영되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양양군 현산학교의 춘기운동회에 참가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현산학교와 광명학교가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생 20여 명과 교사가 참여하였다.[24] 두 학교의 연합운동회가 관례적인 행사인지 학교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시사하는지는 알 수 없다.

(5) 동일학교(東一學校)

고성군 금강산 신계사에 설립된 학교이다. 승 한설호 등이 설립한 학교이며 명진지교라고도 한다. 보통학교로 신학문을 지도하였으며, 甲과 乙의 두 반으로 운영되었다. 갑반은 여자(반장 나영희), 을반은 남자(반장 윤수천)로 구성되었다.[25]

---

23) 대한매일신보, 1907.4.21. <江原道高城郡金剛山楡岾寺楡신學校告白>
24) 황성신문, 1907.5.14. <현교춘기운동>
25) 대한매일신보, 1907.8.11. <神溪校況>

(6) 일어학교(日語學校)

1907년 간성군에 설립, 운영되었된 학교이다. 의병의 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의병은 간성일어학교와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였다.[26]

(7) 수성학교(水城學校)

수성학교는 간성군수 이면익(李冕翼) 등이 1908년 말 군 객사(客舍)에 설립한 사립학교이다.[27] 황성신문에 따르면 "관동학회가 도내 각군에 지회를 개설하였는데, 간성과 삼척 양군(兩郡) 인사가 학교를 설립하고 지회를 청원하여 관동학회의 인허를 득하였다"고 전한다.[28] 한때 수성학교는 일본 수비대가 점령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29] 수성학교는 성상을 거듭하여 간성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어 교학의 맥을 이어갔다.[30]

(8)공명의숙(公明義塾) 또는 공명학교

간성군 왕곡면에 설립된 학교이다. 설립시기는 1908년 10월경이다.[31] 이 학교는 이후 성장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설립인가를 받아 상당기간 유지되었다. 학교관리체제는 숙장 김진호, 숙감 박근형, 학감 김홍규, 총무 김내현, 찬무 강석화, 사무 박기성으로 체계화되었다.

---

26) 대한매일신보, 1907.9.18. <各地消息>
27) 황성신문, 1909.8.13. <杆城好消息>
28) 황성신문, 1908.12.26. <關東支會>
29) 대한매일신보, 1910.4.7. <校舍慫占>
30)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42쪽
31) 대한매일신보, 1909.2.26. <海上灯臺>

교육과정은 4년제로 운영하였다.[32] 본과 학생은 40명이고, 여학생도 모집하였다. 노동야학을 운영하여 학생이 50여 명이었다.[33] 설립 이후 왕곡리 최씨 종중과 금성리 함씨 종중에서 논 1石落을 기부하였다.[34]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조선5만분의1지형도〉 대정4년 측도에서는 왕곡면 공현진리에 학교가 표기되어 있으며,[35] 대정4년에 작성한 간성군 죽왕면 가진리 토지조사부(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작성)에 따르면, 공수진리(지금의 죽왕면 공현진리)에 사는 박기성(공명의숙의 사무)의 토지(田沓 500평) 중 일부가 "사립공명학교재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9)숭문의숙(崇文義塾)

숭문의숙은 죽도면에 설립된 학교이며, 설립시기는 1909년으로 추정된다. 숭문의숙에 관한 정보는 신문기사가 유일하다. "간성군 죽도면에 숭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가 교수하였다"[36]

(10) 측량학교(測量學校)

1909년에 구산면 월안리(현재 거진읍 원당리)에 거주하는 최돈철(敦澈)이 설립한 측량학교로 추정된다. 그는 1908년 10월에 건봉사

32) 대한매일신보, 1907.9.18. <各地消息>
33) 황성신문, 1909.8.13. <杆城好消息>
34) 황성신문, 1908.12.26. <關東支會>
35) 대한매일신보, 1910.4.7. <校舍慫占>
36)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海上灯臺>

봉명학교 內에 측량과를 설치하고 직접 교수하여 1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하였다.[37] 당시 그는 간성향교 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다.[38]

(11) 간성노동야학교

간성군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야학교(1909)이다. 개화기 초기 야학은 사립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으나, 1908년 이후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39] 성군에도 최초의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립되었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간성군 노동자 등이 모여 발기하여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 자제들을 모집하고 교수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남현필이 의무로 교수한다"고 전한다.[40] 특히 이 학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근대의 노동학교라는 점에서 노동야학사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

(12) 영광의숙(永光義塾)

영광의숙(1909)은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임중현, 김종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 의연금과 명단에는 일본인을 비롯하여 내외국인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41] 또한 설립 당시 재학생은 40여 명에

37) 대한매일신보, 1909.6.30.<崔氏興學>
38) 황성신문, 1909.4.1. <敍任及辭令>
39)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2009, 77쪽
40) 황성신문, 1909.8.14. <杆城勞動學>
41) 황성신문, 1909.12.28. <杆城永光義塾義捐氏名金額>

달하고 여학생이 13명이었다.[42] 이 학교는 성장을 거듭하여 1912년 사립영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43]

(13) 고성야소학교(耶蘇學校)

동면 동리에 설치된 야소교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정보는 당시 치안업무를 담당하던 일제의 함흥헌병대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강원도 고성군 야소학교의 상황에 관한 건'이란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동면 동리에 세워진 미국 감리파 소속의 야소(耶蘇)학교가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 10일에도 선교 목사 최응규가 생도 25,6명을 모아 '대한의 독립과 행복은 국민의 단결에 있다'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함. 명치 43년 5월 18일[44]

(14) 영창학교(永昌學校)

영창학교는 고성군 일북면(一北面) 추동(楸洞)리에 설립된 학교이다. 이 학교의 존재는 대한매일신보의 '사고(社告)'로 알려졌다. 바로 이 신문의 지국이 영창학교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45]

---

42) 황성신문, 1909.12.29. <杆城郡永光>
43)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62, 171쪽
4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734), <강원도고성군야소교학교상황에관한건> 헌기제1165호
45) 대한매일신보, 1910.8.3. <社告>

(15) 창신의숙(創新義塾)

창신의숙은 간성군 토성면에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창신의숙을 소개하는 신문이다. “토성면에 사는 강한철, 이덕일, 한치룡, 이희찬, 이심원의 열성으로 설립하였으며, 이심원은 10리 정도 거리를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숙무를 처리하고 있다."[46]

제3절 사립학교의 특징

1. 설립목적과 주체

1) 설립목적

고성지역의 최초의 근대학교는 봉명학교이다. 따라서 이 학교의 설립은 지역의 학교설립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봉명학교는 설립취지서를 남긴 유일한 사례이다. 봉명학교의 설립취지서의 내용에서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如是而沈沈然漸盡하야 俾我東方禮儀之國으로 一朝爲外國之侮視며 外人之壓制者를 雖愚婦孩兒라도 自俾不有博識이온 況乎冠儒剃佛之小有炎凉人이 豈無可期回復之方策耶아..”
> “...獨立乎能立하며 自由乎能由하야 何敵不服이며 何事不成가 然後에 賴新學之敎育하야 勉夫聖學則如鳥兩翼이요.”[47]

46) 황성신문, 1910.9.3. <熱心可賀>
47) 황성신문, 1907.1.26. <江原道杆城郡金剛山乾鳳寺鳳鳴學校趣旨書>

"이렇게 까마득히 세상을 모르고 있어 우리 동방예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외국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게 된 것을 어리석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널리 알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갓 쓴 선비나 머리 깎은 중들은 예것을 지키다가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때나 기다리는 사람들 어찌 이 나라를 회복시킬 방법을 기약하지 않겠는가.."[48] 이것은 국난의 위기상황과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독립운동도 잘 해내고 자유도 잘 누리게 되리니 어떤 적인들 굴복하지 않겠으며 어떤 일인들 못 이루겠는가. 그런 연후에 신학문의 교육에 힘입어 성인들의 가르침에 힘쓴다면 두 날개가 달린 조화로운 새와 같을 것이다."[49] 이것은 교육구국운동과 맥락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신학문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봉명학교의 설립목적이 고성지역의 다른 학교 설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반영되었을 것이다.

48) 이영선,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322쪽
49) 이영선, 상게서, 323쪽

2) 설립주체

고성지역에 설립된 학교의 설립주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2 - 설립주체의 유형〉

설립 주체	학교 수	학교명	설립자 명단	설립자 신분
개인 설립	1	측량학교	최돈철	간성향교직원
유지 공동	4	명동학교	최상기,김홍규, 주우남,윤양오	신사(紳士)
		공명의숙	김덕삼,박근홍, 박근형,김홍규	前참봉, 유지
		영광의숙	임중현,김정현,이영수, 장기순,한원일 외	유지 (전직관리등)
		창신의숙	강한철,이덕일, 한치용,이희찬,이심원	신사
관리 설립	1	수성학교	이면익, 함유도, 황병성 외	군수, 군주사 지방위원
노동자 등	1	간성노동야 학교	'노동자 등'	노동자
종교단체 설립	4	봉명학교(불) 유신학교(불) 동일학교(불) 고성야소학교 (기)	건봉사 유점사 신계사 미국감리교파	스님 목사
기타	1	숭문의숙	토성면	
	3	광명학교 일어학교 영창학교	미상	미상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성지역의 학교설립에는 지역유지들의 공동노력과 불교계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비록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사립학교의 성격과는 매우 다르다. 즉 후학을 양성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의 사업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다수의 학교들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사이에서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학교들이란 점이 특징적이다.

2. 시무교육에 대한 열성

시무교육(時務敎育)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증대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교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50] 으로 시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당시 통감부는 '처세상(處世上) 필요한 지식의 증진'을 내세우면서 일어교육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시무교육의 내용은 사회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특히 일어, 산술, 측량(술), 법률, 통상장정(通商章程),지지(地誌) 등이었다. 당시 지방관임용조건으로 학교졸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무에 통효(通曉)하고 문산(文算)의 구비와 외국어에 대한 소양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일본의 침탈이 자행되고

50) 변승웅, 「근대사립학교연구」 박사학위논문, 1992, 80쪽

있었으므로 지방민들은 새로운 법제나 통상장정, 그리고 일어 등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51]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을 통하여 시무교육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데, "측량의 의논이 일어날 때 법을 모르면 나의 조상과 선조의 분묘가 관가(官家)에 들어가므로 내가 측량을 배워 선산보존을 목적으로 배운다"고 신문은 전한다.[52] 근대학교의 효시라고 하는 '원산학사'도 원산상인들이 시무교육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일어를 교수하는 학교(일어학교)가 400개교를 넘을 정도였다. 1908년 4월부터 내부(內部)에서는 각 군(郡)에 배치할 통역관 200명을 선발하기도 하였다.[53]

시무교육의 필요성은 대외교역이 증대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가중되어 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고성지역에서도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각종 시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간성에는 일어학교(1907)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또한 간성향교 직원이었던 최돈철이 봉명학교에서 측량과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학교를 세워 교수하기도 하였다.[54] 또한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등이 설립한 아호 명동학교에는 노동학생이 40여 명, 측량 생도가 3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55]

---

51) 변승웅, 상게서, 146-7쪽
52) 대한매일신보, 1908.9.4. <打破家族的 觀念>
53) 이규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7, 211쪽
54) 대한매일신보, 1909.6.30. <최씨흥학>
55) 대한매일신보, 1909.2.26. <명동학교흥왕>

3.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학교의 설립

야학사에서 최초의 노동야학은 '마산노동야학(1907)이다. 개화기 초기 야학은 사립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으나, 1908년 이후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56] 간성군에도 최초의 독립적인 야학교가 1909년에 설립되었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간성군 노동자 등이 모여 발기하여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 자제들을 모집하고 교수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남현필이 의무로 교수한다"고 전한다.[57] 특히 이 학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근대의 노동학교라는 점에서 노동야학사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아호 명동학교(1908)에서도 노동학생이 40여 명을 별도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58] 공명학교(1908)에서도 노동야학생 50여 명을 교수하였다.[59] 이처럼 명동학교와 공명학교에서는 부설로 야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였으나, 간성노동야학교는 독립된 학교를 노동자들이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야학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6) 천성호, 전게서, 77쪽
57) 황성신문, 1909.8.14. <杆城勞動學>
58) 대한매일신보, 1909.2.26. <明東學校興旺>
59) 대한매일신보, 1910.3.12. <杆城喜聞>

4. 여학생 모집

대한제국시기는 아직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탓으로 여학생에 대한 교육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다. 대부분의 학교가 남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당시 여학생 교육은 주로 기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성지역의 경우는 종교단체와 무관한 학교에서도 여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신문화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사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산 신계사 동일학교는 보통학교로 甲과 乙의 두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갑반은 여자(반장 나영희), 을반은 남자(반장 윤수천)로 구성되었다.[60] 또한 영광의숙에서는 설립초기부터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수하였는데, 한 신문은 "영광의숙은 재학생이 40여 명에 달하고 여학생이 13명이며 내외국의 의연을 칭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61] 이후 영광의숙은 여학생을 위한 고성지역의 최초의 학교인 영광여학교를 독립적으로 설립하였다. 왕곡면에 설치된 공명의숙(1908)에서도 일찍이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사 주원의 부인이 명예교수하였다고 전한다.[62]

60) 대한매일신보, 1907.8.11. <神溪校況>
61) 황성신문, 1909.12.29. <杆城郡永光>
62) 대한매일신보, 1910.3.12. <杆城喜聞>

5. 불교계 학교의 성황

최초의 불교계 근대학교는 명진학교이다. 이 학교는 불교연구회가 설립한 중앙교육기관이었으며, 개교와 동시에 수사찰에 통문을 보내 지방학교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통문 내용은 "貴寺 旣是道內首寺刹 則行將設立本會支院及學校"이었다.[63] 이 통문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이 건봉사 봉명학교이다. 봉명학교설립을 시작으로 1906년에서 1910년 사이 전국적으로 31개교가 설립되었다. 강원도의 경우는 4개교(간성 건봉사의 봉명학교, 고성 유점사의 유신학교, 고성 신계사의 동일학교, 평창 월정사의 정진강숙)인데, 고성지역이 3개교를 차지한다. 전국적인 상황에 비교하여도 적지 않은 학교수이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상태이다. 당시 건봉사나 유점사는 사찰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2등지'로 분류되어 있었다.[64] 따라서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므로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건봉사는 이후에도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과 항일운동에도 깊이 관여된 사찰로 평가를 받는다. 건봉사는 봉명학교를 직접 운영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였지만,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중앙, 또는 일본에 유학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63)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靑藍史學』 제11집
64) 이승윤, 상게서

6. 설립운동의 흥왕(興旺)

고성지역에서의 학교설립은 당시 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열성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일간지(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집계한 것이다. 표3은 김영우가 밝힌 자료[65]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의 연구는 다른 어떤 논문보다 연도별(1906-1010) 설립학교를 총망라하고 있어 비교 연구에 효과적이다. 표4는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신문 등의 자료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강원교육사』나 김흥수, 박문수의 연구에서도 고성지역의 사립학교는 봉명학교, 공명학교, 영광학교(3교)를 언급하는 정도이다.[66]

65) 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2)」,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제3집, 1986, 6-14쪽

66) 강원교육사 편찬위원회, 강원교육사, 강원도교육위원회, 1980/ 김흥수,박분수, 「강원도의 근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인문사회교육연구소, 『인문사회교육연구』 2,1998

〈표3 - 강원도 연도별 사립학교 신설현황(1906~1910)〉

	1906	1907	1908	1909	1910	계
간성군			1	4	2	7
고성군					1	1
인제군				1	1	2
양양군	1			1		2
강릉군			2	3		5
통천군		1	2		4	7
안협군	1					1
화천군	1					1
금화군					1	1
금성군			1		1	2
흡곡군	1	1	1	1		4
이천군	1					1
홍천군		2	2	1		5
춘천군			3			3
철원군			1			1
평강군			1			1
횡성군				2	1	3
원주군				4		4
삼척군				1		1
평해군				1		1
강원도 (계)	5	4	14	19	11	53

〈표4 - 연구자가 조사한 연도별 통계자료(1906-1910)〉

	1906	1907	1908	1909	1910	계
간성군	1	2	3	4	1	11
고성군		2			2	4
계	1	4	3	4	3	15

강원도 및 고성지역의 경우 1908년-1909년 사이에 다수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도 비슷하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에서는 1909년(271개교)보다 1908년(491개교)에 가장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7] 또한 고성군과는 달리 간성군에서는 각 면에 1개교씩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어떤 기획된 설립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면 고성군의 경우는 학교설립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설립과정에서 특히 관민이 협동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는데, 그 내용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죽도면(竹島面)은 숭문의숙(崇文義塾)을 설립하고 윤양오씨가 교수하며, 郡內 에 중앙학교를 창건하기로 중의동일(衆議同壹)하야 향교(鄕校)를 방장수리중이다더라" [68]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군주사 송의근과 각면숙(各面塾)의 설립자 諸氏가 경내(境內)에 우선 심상고등과를 설치하고 장래에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69] 당시 간성군에는 중앙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으며, 중학교도 없어 그것을 창설하려는 논의를 관민 공동이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67) 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2)」,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제3집,1986, 15쪽
68) 대한매일신보, 1909.2.26. <海上灯臺>
69) 황성신문, 1910.9.3. <熱心可賀>

제3장 일제강점기 高城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제1절 사립학교의 의미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에 설립된 각종의 사립학교들은 그 명칭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학원(40), 학교(8), 사립보통학교(2교), 강습소(2), 학관(1), 의숙(1)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사립학교들을 설립인가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한문서당(묵인 수준), 개량서당, 사설학술강습회(소), '학교', 사립보통학교'순이다. 이들 다양한 층위의 학교들은 조선총독부의 법령(조선교육령(1911), 사립학교규칙(1911), 서당규칙(1918) 등)에 따라 통제를 받았다. 예를 들면, 서당은 30명 이상 수용할 수 없었으며, 공립보통학교에서 1리 이내에는 서당설립이 불허되었다. 개량서당에서는 일본어를 교육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사립(보통)학교의 교원은 일본어에 능통해야 하고 교과서는 지정된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다. 이러한 통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서당이나 학술강습회의 허가를 얻어 보통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규칙〉에 의한 사립'학교'의 강압을 피해 사설학술강습회 등의 설립으로 나타나고, 그것의 설립이 어려우면 보다 용이한 서당설립으로 교육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70]

70)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학이시습, 2010, 93쪽

고성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학원은 사설학술강습소(회)나 개량서당과 구별되지 않았다. 실제로 서당이나 사설학술강습회의 허가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학원은 2년부터 4~ 6년제로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특히 '야학원'은 야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일반적인 학원은 보통 학교처럼 주간에 교수한다. 학원이면서 공립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등과(중학교)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간성명덕(중)학원과 봉림학교가 그것이다. 학원을 졸업하고 공사립보통학교에 2,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례도 있었다.[71] 개량서당이나 학원에서는 주로 조선어, 일본어(국어), 산술을 기본으로 가르쳤다. 추가적으로 한문, 체조, 수공, 농업기초 등을 교육하였다. 학원 사례를 보면, 사설학술강습회의 허가로 校舍를 갖춘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대성학원(1922)의 경우는 마을 里塾(한문서당,1916)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개량교육이 필요하여 '학원'으로 개칭하고, 기금을 모아 독립된 校舍를 건축하였다. 학생이 증가하여 야학도 설치하였다. 언론은 "고성지역에서 역사가 깊고 자랑으로 여기는 학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72]

사설학술강습소는 '하나의 특수한 기능'을 양성하도록 허가되었기 때문에 특정과목만 교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야학은 강습회를 야간에 하는 경우를 말한다.[73] 따라서 야학원과 야간

71) 조선일보, 1924.9.8.<光成靑年會事業>
72) 조선일보, 1934.12.13.<大成學院에 夜學部를新設>
73)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학이시습, 2010, 136쪽

강습소는 모두 '야학'이었다. 그렇지만 사설학술강습회(소)는 설립이 서당보다 다소 어려웠으며, 학교와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립보통학교는 사실상 공립보통학교와 동일한 교육조건을 갖춘 학교이다. 고성지역에는 2개교에 불과했다. 한편, 공명학교와 영광학교처럼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그 설립이 쉽지는 않았다. 인가절차가 까다롭고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이 서야 허가한다. 교장과 교원의 이력서까지 제출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립학교 설립의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영광학교편에서 당시 원문을 바탕으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한편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강습소, 개량서당, 학원이 공립보통학교라는 제도권 학교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교육기관이 가지는 교육적 연결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표5 - 공립보통학교로의 변경내용〉

공립보통학교명	소재지	(기초)사립학교명
간성공립보통학교(1912)	간성군 군내면 중리	수성학교(1908)
천진공립보통학교(1926)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사립학술강습소 (一宇校舍)(1923)
오대공립보통학교(1930)	고성군 오대면 봉평리	오대개량서당(1928)
외금강공립보통학교(1937)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	금강학원(1925년경)

* 표5에 대한 각각의 전거는 아래 주에 따른다.[74]

74) 간성공립보통학교 :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42쪽
천진공립보통학교 :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오대공립보통학교 : 거진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연혁
외금강공립보통학교 : 조선중앙일보, 1935.4.29. <外金剛公普校期成會를 創立>

제2절 고성지역 사립학교의 성장배경

1.민족의 각성과 계몽

3.1운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청년회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각지에서 청년들의 교육운동이 일어났다. 고성지역에서도 1921년부터 청년회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75] 청년들의 계몽활동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사립학교설립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성지역의 사립학교는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추가적인 설명은 제4절 사립학교의 특징에서 다룬다.

2. 공립학교체제의 한계 : 입학난

우리 민족의 향학열이 급속히 타오른 것은 3.1운동 직후부터라 하겠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며 1930년대에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기근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공립보통학교는 '3면1교', '1면1교'라는 식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학급수도 매우 적어 입학난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고성군에서 1면1교정책이 실현된 것은 서면의 송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 1934년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서당 및

75) 김광섭, 『고성의 독립운동사』,고성문화원, 2017, 37쪽

사립학교의 설립을 일제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각처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입학난이 심각했던 고성지역은 특히 이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곳이다.

고성지역에서 입학난의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이전부터라고 하겠다. 고성지역에 최초 공립학교가 설립된 것은 1912년이다. 남북고성에 고성공립보통학교와 간성공립보통학교가 동시에 인가되었다. 이후 북에서는 장전공립보통학교가 1920년에 설립되었고, 남에서는 오호공립보통학교가 더 늦게 1923년에야 인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성공립보통학교는 특히 입학난이 심각하여 1922년 봄에 수성청년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성(보통속성)학원을 설립하고 미취학 아동 120명을 교육하였다. [76]

특히 1935년 고성공립보통학교의 입학난은 그 심각성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1934년 4월 입학기에는 200여 아동이 입학을 하지 못해 독지가 차선군씨의 도움으로 교사증축도 하였으나, 1935년 신학기에는 입학자가 격증하여 지원자 474명 중 104명만 입학하였다. 결국 370명이 탈락하여 노상에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학교후원회가 궐기하여 기성회를 조직하였다.[77] 수동면 역시 공립보통학교(1929)가 1개교인데, 1938년도에 미취학아동이 6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78]

---

76) 매일신보, 1922.7.20. <涇城靑年會 狀況>
77) 조선일보, 1935.4.11. <1面1校 完成해도 入學難은 여전>
78) 매일신보, 1938.12.2. <高城郡水洞面에 小學校增設運動>

1936년 고성군 관내 공립보통학교 입학상황을 표시하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학교명	지원자			입학자			미취학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고성 공립보통학교	262	52	314	75	38	113	187	14	201
장전 공립보통학교	136	68	204	45	32	77	91	36	127
간성 공립보통학교	140	50	190	76	30	106	64	20	84
수동 공립보통학교	32	5	37	20	5	25	12	0	12
대진 공립보통학교	100	20	120	33	7	40	67	13	80
오대 공립보통학교	61	10	71	30	10	40	31	0	31
송탄 공립보통학교	57	5	62	32	5	37	25	0	25
계			998			438	477	83	560

위의 표6 자료 출처 [79]

79) 매일신보, 1936.4.27. <今春高城郡內 各普校入學相 志願의 半數에 未達>

제3절 사립학교의 설립현황

〈표7 - 일제강점기 각종 사립학교 현황(1911-1940)〉

학교명	설립/운영기	소재지	설립자/학교장	비고
학명학교(鶴鳴學校)	1911.4	현내면		
영광학교(永光學校)	1911.4	오현면 거진리	임중현/김정현	4년제 인가학교
공명학교(公明學校)	1912.5	왕곡면 공수진	박근형/김형근	4년제 인가학교
영광女學校	1913.5.29	오현면 거진리		최초 여학교
장전야학원(夜學院)	1918(설)	신북면 장전리		
봉림학교(鳳林學校)	1921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고등보통과(중학교)/생도 200여 명
고성부인야학원	1921(설)	고성면 동리	야소교회	
수성학원(迶城學院)	1922.봄(설)	간성면 하리	수성迶城청년회	
장전여자講習所	1922.7.6	신북면 장전리		2년제
고성보습(補習)학원	1922.9.10	고성면 동리	금강청년회	
대성학원(大成學院)	1922(설)	신북면 영진리	대성청년회	
노동야학원	1923.4(설)	신북면 사호리	여흥麗興청년회	야학 병행
광성학원(光成學院)	1923.8(설)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영명학관(永明學館)	1923.8.16.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외23인	2년제/100여 명
공진학원(共進學院)	1923.10(설)	수동면 신대리		
말무리야학원	1923.11.20	고성면 말무리		
봉수리야학원	1923.11(설)	고성면 봉수리	광성光成청년회	

영신학교 (永信學校)	1924.2.16	신북면 장전리		
유년학원 (幼年學院)	상동	신북면 양진리		
용계학원 (龍溪學院)	상동	신북면 용계리		
유성학원 (柳城學院)	상동	서면 유성리		
신대학원 (新垈學院)	상동	수동면 신대리		
배봉학원 (培峰學院)	상동	현내면 배봉리		
거진학원 (巨津學院)	상동	오대면 거진리		
동광학원 (東光學院)	1924.11(설)	현내면 저진리	동리 유지	
창신학원 (倉神學院)	1925(설)	신계사 내		
대진(大津) 야학원	1925.1(설)	현내면 대진리	전봉래 외	
신흥학원 (新興學院)	1925.11.15	신북면 신흥리	서종락/서정구	
금성(金城) 야학원	1925.12.1		김대규/김태식	
천진 私設講習所	1925(설)	토성면천진리		천전공보로 변경
금강학원 (金剛學院)	1926	신북면 온정리	구만회外/左同	외금강공보로 변경
외금강 노동야학	1927.1.11	신북면 온정리	용진勇進 청년회	
수동 사립보통학교	1927.3.17	수동면고미성	고미성청년회	보통학교인가 (관보)
현내사립 보통학교	1921 (1927.8.17.)	현내면		매일신보 1931.3.31
명동의숙 (明東義塾)	1927.9.5	토성면 아야진리		개교 21년

해성학원 (海成學院)	1927.12.1		예영환 /예연수	
장전무산 無産야학원	1927.12.24	신북면 장전리		
아야진학원	1928.2.7	토성면 아야진리		
강신(剛信) 여자학원	1929.4(설)	고성면 동리	감리교회	4년제/80명
숭덕학원 (崇德學院)	1929	수동면 초현리	강화최씨 종중 /최길환	4년제
보광학원 (普光學院)	1930.5.8	신북면 장도	보광청년회	
성의학원 (誠義學院)	1932.2	서면 화우리		
광동학원 (光東學院)	1932.9.7	오대면 산학리		4년제
관해학원 (觀海學院)	1932.10.7	고성면 강정리		4년제
고봉학원 (여자야학)	1932.10	고성면 고봉리	고봉 청년회후원	
양진학원	1934			
양성학원	1935	서면 양송리		
창신학원 (昌信學院)	1936.6.17	거진면 산북리	김만조	
간성명덕학원 (明德中學院)	1937.4 (1938.9)	간성면 교동리	유림회 설립	고등과(중학교) /생도130명 이상
금천학원 (錦川學院)	1940년경	간성면 탑동리	문용익의 부	
마달개량학원	1940.4.25	현내면 마달리		
가진학교 (加津學校)	1938년전후	죽왕면 가진리	박영국 外	4년~제/ 100이상
포남학교 (浦南學校)	1940년이전	거진면 송포리	윤문현 外	4년제/ 100여 명

〈표8 - 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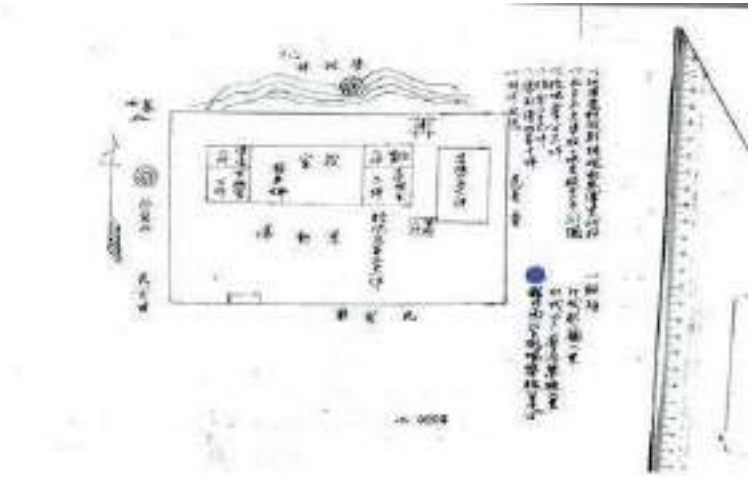
면명	학교수	학교명
신북면	12	장전야학원,장전여자강습소,대성학원,노동야학원,영신학교,유년학원,용계학원,창신학원,신흥학원,금강학원,외금강노동야학원,보광학원
고성면	8	고성부인야학원,광성학원,봉수리야학원,강신학원,관해학원,고봉학원,고성보습학원,말무리야학원
서면	4	유성학원,성의학원,우기학원,양성학원
수동면	4	공진학원,신대학원,수동사립보통학교,숭덕학원
현내면	6	학명학교,배봉학원,동광학원,대진야학원,현내사립보통학교,마달개량학원
오대면 (오현)	8	영광학교,영광여학교,봉림학교,영명학관,거진학원,광동학원,창신학원,포남학교
간성면	3	수성학원,명덕학원,금천학원
죽왕면 (왕곡)	2	공명학교,가진학교
토성면	3	천진강습소,명동의숙,아야진학원

〈표9 - 면별 현황〉

	1910~1919	1920~1929	1930~192	계
사립학교 설립수	3	3	3	3

(1) 학명학교(鶴鳴學校)

학명학교는 현내면에 설치된 학교이고 설립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911년 영광학교 설립시기와 겹쳐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학교의 존재는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학무국학무과, 『사립학교설치인가서류』(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의 학교평면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영광학교와 1리 18분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학교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인근 학교표기가 되었다.(사진 표시 참조)



〈사진 학명학교 표기 자료('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 中)〉

(2) 사립영광학교(私立永光學校)

영광학교는 영광의숙(1909)이 발전하면서 교명을 변경하고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1912.12.28.)이다.[80] 영광학교는 설립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다. 이 학교의 개교시기는 명치44년(1911년) 4월 4일이고, 설립인가원 제출(1912.12) 당시 생도수는 48명(남자 33, 여자 15)이다. 학교 설치인가원에 첨부된 문서에서 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설립사항'과 '사립영광학교학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학칙의 전문과 설립사항의 핵심내용을 옮긴다.[81]

당시 법령에 따른 사립학교설치인가의 서류 및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류
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1쪽), 설립사황(3쪽), 교사평면도(1쪽), 사립영광학교규칙(5쪽), 설립자,교장,교원 2명 이력서(4쪽), 재산관련 증빙서(4쪽)
2. 행정절차
학교
(간성군) => 강원도장관 =>내무부 학무과(조선총독寺內正毅)
3.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취조서"(도장관) 내용이다. 결국 강원도장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82]

---

80) 강원도헌병대본부, 『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91-293쪽
81) 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 관련 서류는 총21쪽(1.도장관인가요청서 (1쪽) 2.취조서 (1쪽) 3.인가원 간성군 접수(1쪽) 4.설치인가원(1쪽) 5.설립사항(3쪽) 6.학교평면도 (1쪽) 7.학칙(5쪽) 8.이력서(4쪽) 9.학교재산수입 관련 증빙서(4쪽)(학무국학무과, 『사립학교설치인가서류』 (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 인터넷 검색-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관리번호 CJA0004673)
82)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 학이시습, 2015, 57쪽

2. 학칙

3. 校地, 校舍의 평면도(학명학교 그림 참조)와 그 소유자

4. 1개년 收支예산

수입 및 지출총액 520円

5. 유지방법

기본재산, 기부답(畓), 유지가의연금, 설립자출자(매년)

6. 설립자, 학교장, 교원의 이력서

7. 교과용도서명

〈표10〉

과목	수신	국어(日)	조선어	한문	농업초보	습자	도화	산술	체조
저자	총독부	좌동	좌동	좌동	福島百藏 김대희	총독부	좌동	좌동	좌동
도서명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 독본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 독본	보통학교 학도용 한문 독본	新選 농업 교과서	보통학교 학도용 습자첩	보통학교 학도용 도화 임본 (臨本)	보통학교 교원용 산술서	학교 체조 교수법

* 설립사항 및 관련서류 원문(사진)

사진1) 도장관의 인가신청서(좌), 사진2 도장관의 취조서(우)

* 사립영광학교학칙(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본교는 학령에 달한 아동에게 덕육(德育)체육(體育)과 기타 보통교육에 필요한 학술을 교수함을 목적함

·제2조 본교는 사립영광학교라 칭함

·제3조 본교는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치함

·제4조 학교정원은 100명으로 정함

제2장 수업년한,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

·제5조 수업년한은 4개년으로 정함

·제6조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는 아래와 같다.

〈표11〉

		수신	국어	조선어 한문	농업 초보	도화	산술	재봉 수예	체조	합계
1학년	시수	1	8	6		2	6	2	3	28
	과정	수신 요지	독방 해석 외	독방 해석 외		도화 임본	정수	재봉법 수예	유희 체조	
2학년	시수	1	8	6		2	6	2	3	28
	과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학년	시수	1	8	6	2	2	6	2	3	30
	과정	상동	상동	상동	농업 실습	상동	소수 속산	의류 수선법	상동	
4학년	시수	1	8	6	2	2	6	2	3	30
	과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	분수 주산	2	

·제7조 수업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함 단, 계절에 의하여 변경함

제3장 학년학기와 휴업일

·제8조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함

·제9조 학년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3학기로 함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

제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함

·제10조 휴업일은 아래와 같이 정함

1. 元始祭(1월3일)
2. 신년연회(1월5일)
3. 紀元절(2월11일)
4. 神武천황제(4월3일)
5. 明治천황제(7월30일)
6. 천장절(8월31일)
7. 神상제(10월17일)
8. 新상제(11월 23일)
9. 춘계황령제(춘분일)
10. 추계황령제(추분일)
11. 일요일
12. 본교기념일(4월4일)
13. 하계휴업(7월21일부터 8월31일)
14. 동계휴업(12월29일부터 익년1월5일)
15. 학년말휴업 (3월26일부터 3월31일)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휴업함

제4장 입학자격, 입학과 퇴학, 수업료

·제11조 입학기는 매학년초로 함. 단, 시의에 따라 임시입학을 허하는 경우도 있음

·제12조 입학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함

1. 품행방정
2. 연령이 8세 이상 15세 이하
3. 신체와 정신이 건전한 자
4. 양육과 보호가 완비된 자

·제13조 본과 입학지원자는 검정을 불요함

·제14조 입학지원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학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함

·제15조 보증인은 생도의 尊族親, 혹은 이에 대하여 감독의 책임을 가진 자를 요함

·제16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갖춰 보증인이 연서후 학교장에게 제출함

·제17조 아래 각항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을 명함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3. 6개월 이상을 연속 결석한 자
4. 이유 없이 결석이 1개월 이상 연속된 자품

·제18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제5장 수업과 졸업

·제19조 각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평소의 성적과 시험의 성적을 考하여 이를 정함

·제20조 시험은 이를 나누어 학기시험과 학년시험으로 하고, 학기시험은 제1학기와 제2학기 말, 학년시험은 학년말에 행함

·제21조 생도의 성적을 고사함에는 10점을 정점으로 하여 각교과 4점 이상, 총평균 6점 이상을 합격의 표준으로 함

·제22조 학교장은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한 자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함

제6장 상벌

·제23조 학술우등, 품행방정한 자는 이를 표창하며 또는 상품을 수여함

·제24조 생도된 본분을 위배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처벌함. 처벌은 계칙(戒飭)과 정학으로 함

제7장 직원

·제25조 본교에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둠

학교장 1인, 교원 2인

·제26조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여 교무를 장리하고, 교원은 생도교육에 종사함

(3) 공명학교(公明學校)

(4) 영광여학교(永光女學校)

영광여학교는 오현면 거진리에 설치된 고성지역 최초의 여학교이다. 이 학교의 설립에 지역유지 김의종과 그 부인의 의연이 기여했다. 1910년대에 고성지역에 독립 여학교의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행운이다.[83] 현재에도 고성군 지역에 여자학교의 전통을 유지하는 곳은 거진읍뿐이며, 그것은 바로 영광여학교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불 수 있다.

(5) 장전야학원(長箭夜學院)

1918년 신북면 장전리에 설립된 학교이다. 1925년 12월에 7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84] 특히, 한때 재정곤란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이 석유행상과 새끼를 꼬아 경비를 조달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했다는 일화를 신문은 전한다.[85]

(6) 봉림학교(鳳林學校)

봉림학교(1921)는 봉명학교(1906)의 개명이다. 일찍이 건봉사 내에는 봉명학교(1906)가 설립되었다.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봉명학교는 봉림학교로 개칭되었다. 학교의 설립과정을 보면 "주지 이대련, 전 화상 이운파, 김영찬 등은 사내 청년과 부근 보통학교

83) 매일신보, 1913.5.29. <有是夫有是婦, 세상에 희한한 인물, 일반 재산가의 모범>
84) 시대일보, 1925.12.31. <長箭夜學院 七週年紀念式>
85) 조선일보, 1925.1.18. <長箭夜學困況>

졸업생 또는 학력 관계상 학업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자제들을 위해 토지 년 수익 백미 5천두 가량 되는 재산을 출자하여 고등보통과 초등보통 혼합제의 봉림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오는 4월에 생도 200 명을 모집, 개교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다.[86] 또한 '유지비 문제로 폐교에 이르렀으나, 다시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하여 현재 30여 명의 公費生과 外科를 설치하여 보통과 중등과에 90여 명을 수용되고 있었다.[87]

(7) 수성학원(泟城學院)

수성보통속성학원은 간성면 수성청년회의 청년들이 1922년 봄에 설립한 2년제 학교였다. 입학생은 120여 명이었으며, 모두 간성공립보통학교의 입학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었다. 이 학교는 甲種과 乙種 2개 학과(學課)로 나누어 교수하였으며, 매일 5시간 교수하였다. 특히 갑종 교과는 보통학교 5~6학년 정도이고, 을종 교과는 2~3학년 정도에 해당하였다. 박태선은 갑종 학과를 교수하였다.[88]설립과정에서 간성면장 남현익은 教堂이 없음을 큰 비관으로 생각하여 면사무소 부속건물 1동을 수리 제공하였다.[89]

(8) 장전여자강습소(長箭女子講習所)

1922년 신북면 장전리(항)에 설립된 사설학술강습소이다.

86) 동아일보, 1923. 3.14 <乾鳳寺和尙敎育熱>
87) 조선일보, 1937.12.2. <宗敎社會事業에盡力 大本山乾鳳寺>
88) 조선일보, 1923.7.1. <泟城學院의好成績>
89) 매일신보, 1922.7.20. <泟城靑年會 狀況>

설립자는 장전공립보통학교 훈도 홍병삼의 부인 이정규씨이고, 생도는 30여 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수하였다.[90]

(9) 고성보습학원(高城補習學院)

고성 금강청년회가 1922년에 설립한 학교이다. 금강청년회가 이 학교를 설립한 배경은 당지 공립보통학교에 입학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생도수가 70여 명이었으며, 교실의 사정으로 지원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91]

(10) 대성학원(大城學院)

3面海中인 어촌마을, 신북면 영진리에 자리잡은 학교로 1922년에 설립되었다.[92] 이 학교는 1916년에 영진리숙(靈津里塾)(한학서당)에서 시작된다. 1922년 경 대성학원으로 명명하고 소학 정도의 개량교육(개량서당)으로 전환하였다. 고성지역에서 역사가 깊고 자랑으로 삼는 학원이기도 하였다.[93]

(11) 광성학원(光成學院)

광성청년회가 1923년 8월 고성면 봉수리에 설립한 학교이다.

90) 동아일보, 1922.7.6. <長箭敎育界消息>
91) 동아일보, 1922.9.10. <高城補習學院設置>
92) 조선일보, 1925.2.18. <大成學院曙光>
93) 조선일보, 1934.12.13. <大成學院에 夜學部를新設>

광성청년회를 조직한 임봉춘의 단독 기부로 야학원을 설립하였다. 교사는 박재학, 김인재 2인이고, 학생수는 100여 명이었다. 독립된 교사(校舍)를 건축하여 운영하였다.[94] 이 학교는 입학 및 수업료가 없으며, 1924년 현재 학생이 남녀 40여 명인데, 여학생 2명은 졸업후 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학하였다. 교육과정은 보통학교 3학년 교과목을 중심으로 2개년에 졸업한다.[95]

(12) 영명학관(永明學館)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씨가 주도하여 1923년에 설립하였다. 교수과목은 국어, 산술, 한문, 체조 등이고, 재학생이 60여 명이었다. 설립과정에서 인근 동리 유지들이 기부에 참여하였다.[96]

(13) 공진학원(共進學院)

1923년 10월 수동면 신대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설립 이후 5년간 고미성청년회와 공동노력으로 수동사립보통학교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설립과정에서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대농학부 부속 연습림출장소과 교섭하여 건축재목을 얻어 교사 건립하였다.[97]

(14) 천진강습소(天津講習所)

1925년 6월에 토성면 천진리에 사설학술강습소를 설치하였다.

94) 조선일보, 1923.12.28.<兩青年의敎育熱>
95) 조선일보, 1924.9.8.<光成青年會事業>
96) 매일신보, 1923.8.16. <고성영명학관 신축>
97) 동아일보, 1927.10.19. <高城敎育界黃車兩氏貢獻>

지역주민들은 대정11년(1922) 11월에 천진공립보통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금 7천원을 조성하여 校舍를 건축하였으나, 인가가 지연되어 먼저 강습소를 설치하고 129명의 학생을 교수하였다. 이후 공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으면서 강습소는 폐지되었다.[98]

(15) 금강학원(金剛學院)

금강학원은 1926년 외금강면 온정리에 설립된 학교로 후에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승격(1937)되었다. 보통학교 승격을 위하여 1935년에 기성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승격되자 1938년 3월 폐원식을 갖고 3, 4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증서를 수여하였다. 학생 전원은 보통학교로 수용되었다.[99]

(16) 명동의숙(明東義塾)

명동의숙은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이며, 토성면 아야진리에 위치한다. 위치한 학교이며, 20여 년을 유지해온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다. 당시 신문은 전한다. "아야진에 있는 학교로 군내 유지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는 중이다.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수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무하고 있다."[100]

98) 조선일보, 1925.2.6. <土城面民 公普期成>
99) 매일신보, 1938.3.31. <金剛學院의 閉院式>
100)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17) 현내사립보통학교

현내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이다. 학교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신문기사뿐이다. 동아일보의 고성군 소개에서 2개의 사립보통학교를 언급하고 있다. 수동사립보통학교와 현내사립보통학교이다.[101] 언론에서 '사립보통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인가를 받은 학교로 추정되나, 조선총독부관보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학교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추기) 매일신보, 1931.3.31. 에 의하면, "대진공립보통학교는 지금으로부터(距今) 10년 전에 낙성하여 소화2년(1927) 인가를 받았다"고 전한다. 1921년에 사립보통학교로 설립되었다가 공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수동사립보통학교(水洞私立普通學校)

수동면 고미성리에 설립된 사립학교로 1927.3.17.일 당국으로부터 보통학교의 인가를 받은 학교였다.[102] 이 학교는 공진학원을 사립보통학교로 전환한 것으로 설립과정에 고미성청년회도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다. 특히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대 농학부 부속연습림출장소와 교섭하여 건축자재를 제공받아 설립되었다.[103]

101) 조선일보, 1925.2.6. <土城面民 公普期成>
102) 매일신보, 1938.3.31. <金剛學院의 閉院式>
103) 동아일보,1927.10.19. <高城敎育界 黃車兩氏貢獻>

수동면에서는 공립보통학교보다 사립보통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수동면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자발성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 강신여자학원(剛信女子學院)

고성면 동리에 감리교 고성교회 서원필 목사의 열성으로 탄생한 학교이다. 1929년 4월에 개교하였으나, 1933년 3월 15일 서당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조치되기도 하였으나, 송정근 목사의 복구노력으로 서당개설 허가를 득하고 1934년 10월 1일부터 다시 개원하였다. 학교의 운영은 선교회 교육비 13원과 아동 월사금으로 근근이 유지해 오던 중 1935년부터 전조선에 동양선교회 조선교육비 보조가 중단되는 조치로 재정의 위기를 맞았다. 당시 재적학생은 76명이었다.[104] 당시 졸업식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어 여기에 소개한다.

〈사진 강신학원졸업식[105] 〉

104) 동아일보, 1934.11.25.<經營難에 빠진 剛信女子學院>
105) 동아일보,1933.3.25. 석간3면

(20) 숭덕학원(崇德學院)

수동면 초현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이 학교는 강화 최씨의 종중 전재산 400원으로 1929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4년간 고심해서 1933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4년제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원장은 최길환이고, 교원은 최천경이다.[106]

(21) 광동학원과(光東學院) 관해학원(觀海學院)

광동학원과 관해학원의 존립에 관하여는 아래 신문기사로만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작품과 활동으로 학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 흥미롭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재능이 아니었다면 학교의 존재는 세상에 묻힐 뻔했다.[107]

(22) 고봉학원(高峰學院)

고성면 고봉리에 설립된 학원으로 고봉리 유지 제씨가 노력하여 설립하였다. 여학생을 교육하는 야학교로 운영하였다. 학생은 40명

106) 소년중앙일보, 1933.4.10. <宗中全財産을 學院經營에 提供 高城江華崔氏美擧>
107) 광동학원 : 매일신보 ,1932.9.7./ 관해학원 : 매일신보, 1932.10.7.

학생은 40명, 교사는 정완석, 수업은 저녁에 3시간, 교과목은 조선어, 국어(日語), 산술이었으며, 고봉청년회가 후원하였다.[108]

(23) 창신학원(昌信學院)

오대면 산북리에 설립된 학교이며, 설립자는 김만조씨이다. 그는 설립자이면서 직접 교수하다가 신병으로 2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 학교의 설립시기는 1936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가 사망후 모친 이근실 여사가 아들의 유지인 교육사업을 위해 논 3만 7천 5백평(시가 환산 2만원)을 예수교 감리교 간성구역에 내놓고 간성구역 대표 김대섭, 이동진 사이에 계약하였다고 한다.[109]

(24) 간성명덕학원(杆城明德學院)

간성면 교동리에 위치한 간성향교 내에 설립한 고등과정(중학교)의 학교이며, 1937년 4월에 설립되어 향교에서 직영하였다가 1941년 3월에 폐교되었다.[110] 그러나, 신문보도에 따르면, ".. 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상급학교에 가기 어렵고 학령 초과의 소학교 졸업생을 위해 유림(儒林) 1천여 호(戶)에서 매호당 매년 일월금을 내어 설립하였다"[111] 또 다른 신문기사에는 "...간성명덕학원은 소화 13년(1938) 9월에 창설된 이래 2개 성상을 경과하였음에..."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112] 생도가 130여 명이었다.

---

108) 조선중앙일보, 1933.4.12. <女子夜學盛況>
109) 조선중앙일보, 1936.6.17. <아들의 遺志받아 敎育事業 위하야 土地 三萬七千坪 喜捨>
110) 간성향교, 『간성향교지(보정판)』 2013, 133-134쪽
111) 매일신보, 1938.6.28. <杆城明德學院 認可願을 提出>
112) 동아일보,1940.5.24.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명덕학원")

(25) 금천학원(錦川學院)

간성면 탑동리에 설치된 학교로 일종의 개량서당이다. 설립 시기는 1940년 전후로 추정되며 3,4년간 운영되었다.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이들의 구술에 따르면, 교사는 탑동리 문용익이며, 배운 과목은 일본어와 산술이었다. 학교에서 한글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다. 학교는 초가집 별채를 사용하였다. 학생수는 20명 내외였으며, 금강산 수학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113]

(26) 가진학교(加津學校)

1938년 전후 죽왕면 가진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증언을 토대로 기술한다. 구술자들은 학교명을 '관립학교'로만 기억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각종 연극,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금강산)을 실시했다. 학생수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인근에 학교가 없고 공립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일정한 수업료를 지불했으며, 교사는 철두철미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생활화하였으며 한글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다고 기억한다.[114]

(27) 포남학교(浦南學校)

1930년대 말 오대면 송포리(옛지명, 포남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113) 구술자 : 지석근 87세 고성문화원 향토연구소 자문위원, 간성읍 거주/ 장근호 90세 죽왕면 거주

114) 구술자 : 오의택 87세/ 배인준 87세/ 김평강 84세/ 박대근 63세 – 가진리 거주/ 이순덕 90세, 공현진리 거주

학교에 관한 정보는 학교운영자의 후손인 윤근호의 증언에 따랐다. 조선시대부터 운영해오던 서당을 증언자의 조부가 자재를 기부하면서 학교로 개량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명칭은 '관립학교'로만 기억하고 있다.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 3인 모두 문중인들이었다. 교과목은 일본어, 산술(수), 수신, 각종 수공작업 등 보통교육과 실습이었다. 특히 일본어 교육이 철저하였다. 학생들은 일정액의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 한다. 이 학교의 옛터에는 현재 송포리 마을회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사진 속의 학교 건물은 한국전쟁으로 멸실되었다. 이 학교의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진설명 : 일제 강점기 포남학교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기념촬영한 것으로 촬영 시기는 1942년경으로 추정된다. 왼쪽의 건물은 이전부터 서당으로 사용된 교사(校舍)이고, 오른쪽 건물은 1940년 무렵에 신축한 교사(校舍)이다.
<자료 제공자: 윤근호 87세 거진읍 송포리 거주>

제4절 지역 사립학교의 특징

1. 청년회 조직의 활성화와 교육운동

일제강점기 지역마다 청년회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고성지역의 청년회조직은 1921년부터 시작되었다. 장전청년회와 수성청년회가 그것이다.[116] 청년회조직은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 이들은 강연회, 토론회, 강습회 등을 조직하여 민중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117] 고성지역에서도 청년회조직이 활성화되었는데, 특히 수성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이었다. 수성청년회는 회원이 100여 명이나 되었으며,[118] 수성학원을 설립하여 간성보교의 입학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교육시켰다.[119] 또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관동청년대회를 주도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120]

고성지역 청년회조직의 교육사업이 더욱 활성화된 곳은 북고성이었다. 이들은 당시 심각한 입학난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들이 설립한 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6) 김광섭, 전게서, 38쪽
117) 노영택, 상게서, 156쪽
118) 매일신보, 1922.1.22. <涬城靑年會 狀況>
119) 매일신보, 1922.7.20. <涬城靑年會 狀況>
120) 시대일보, 1925.1.12. <關東靑年大會發起大會>

〈표12〉

청년회명	학교명	설립시기	설립지역
수성청년회	수성학원	1922	간성면 하리
금강청년회	고성보습학원	1922	신북면 말무리
대성청년회	대성학원	1922	신북면 영진리
여흥청년회	노동야학원	1923	신북면 사호리
광성청년회	광성학원	1923	고성면 봉수리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1923	신북면 말무리
광성청년회	봉수리야학원	1923	고성면 봉수리
용진청년회	외금강노동야학교	1927	신북면 온정리
고미성청년회	수동사립보통학교	1927	수동면 고미성리
보광청년회	보광학원	1930	신북면 장도
고봉청년회(후원)	고봉여자야학원	1932	고성면 고봉리

2. 학원의 성황 : 학원협회 결성

현재 연구자의 조사로 파악된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의 사립학교는 54개교이다. 이렇게 많은 사립학교들이 탄생한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과 공립보통학교 및 각종학교의 절대부족 때문이었다. 앞서 공립학교의 한계에서 지적했듯이 고성지역의 입학난은 타 지역보다 심각했다. 따라서 교육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고성지역에서는 학원설립이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이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을 정도다. 당시 언론기사에 따르면, "고성군內 근거를 둔 40여 처의

학원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선적(全鮮的)으로 보아서도 최고 기록을 돌파할 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모두 무산(無産) 아동으로 한 학원에 생도가 30-40명에 달한다. 그리고 학원협회까지 조직되어 기반을 공고히 하여 영속유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일반민중은 막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121]

학원 등 사립학교들이 급속히 증가한 시기는 1920년대이다. 이 시기에 전체 사립학교의 65% 정도가 창설되었다. 이것은 3.1운동 직후 청년운동의 부흥과도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고등과정(중학교)의 학원

건봉사의 봉림학교와 간성향교의 명덕학원은 처음부터 고등과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당시 고성군에는 중학교가 없는 실정이라 공사립보통학교 졸업생들의 진로가 지역민의 고충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지원학생이 많아 봉림학교는 200명 정도였고, 명덕학원도 130여 명 이상 수학하였다. 법적으로는 개량서당이나 사설학술강습회(소)였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학교'수준에 버금갔다고 할 수 있다.

121) 조선일보, 1931.12.7. <高城郡內 學院이 40餘>

4. 지역사회에서 (야)학원의 위상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원은 일반적인 서당의 확장이고 사설학술강습소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야학원은 야학을 위한 전문강습소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야학과 일제 강점기의 야학은 사회적 위상과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서 야학은 민족의 중요한 교육의 매개이고 장소였다. 당시 야학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위상이었는지는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신북면 장전리에 있는 장전야학원은 1918년에 설립되었다. 학원의 7주년 기념식을 언론은 자세히 보도했다. 행사는 원내에서 원감의 개회사, 협성청년회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열렬한 의견' 토출, 장전공립보통학교 훈도와 학부형 등의 감사 담화, 그리고 내빈 축사, 마지막으로 院歌를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다수의 동정금도 있었다.[122]

122) 시대일보, 1925.12.21. <장전야학원 7周年記念式>

제4장 결 론

교육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이다. 교육 없이 인간이 성장한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과 학교는 우리에게 큰 화두다. 학교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가 이후의 일이다. 우리에게 근대학교의 체험도 개항 이후 근대문물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시기에는 관공립학교가 매우 한정된 수에 불과하여 지방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런 시기 민간의 노력으로 세운 학교가 사립학교이다.

고성지역에서 최초 사립학교는 봉명학교이다. 이후 여러 곳에서 학교설립이 이루어졌다. 군수를 비롯하여 지역유지들이 나섰고, 공동체의식이 살아 움직였다. 이때는 해외열강들의 세력다툼이 치열했다. 특히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해야 하는 애국적 교육운동도 펼쳐야 했다. 그런 시기임에도 고성지역에서는 교육적 열망이 살아 있었다. 타군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시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무교육을 배우려고 애쓰던 시기였다.

일본은 결국 강제로 국가를 예속시켰다. 그리고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교육령(1911), 사립학교규칙(1911), 서당규칙(1918), 이후에는 이것의 개정을 통하여 더욱 엄혹하게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교육의 힘을 믿고 학교설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서당으로, 개량서당으로, 사설학술

강습회(소)로, 사립학교, 사립보통학교로 법규를 어기면서 또는 피해가면서, 때로는 타협하면서 교육을 위해 힘썼다.

공립학교는 무산아동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선택이 크게 제약되었다. 이들의 선택은 개량서당이고 사설강습소, 학원이었다. 공립학교는 정말 좁은 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립학교는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청년회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탰다. 고성지역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이 더욱 빛났다.

남북고성을 굳이 구분하여 말하자면, 대한제국기에는 남고성에서 학교설립이 적극적이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북고성에서 각종 사립학교설립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조사된 자료의 계량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언술이다.

끝으로, 일제강점기 지역주민들이 설립한 다양한 사립학교들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긍정과 부정을 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제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사립학교를 식민지교육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앞서 설명한 금천학원과 가진학교의 경우처럼 교사들은 일본어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식민지교육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당시 고성지역주민들이 시세변화에 대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운동을 펼쳤으리라는 믿음은 남는다.

참고문헌

| 단행본 |

1.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2. 강원교육사편찬위원회, 강원교육사, 강원도교육위원회, 1980
3. 강원도헌병대본부, 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4. 김광섭, 고성의 독립운동사, 2017
5. 김광식, 금강산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 인북스, 2011
6.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학이시습, 2010
7. 박설산, 뚜껑 없는 조선역사책, 삼장, 1994
8.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교육과학사, 2014
9.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10. 이영선,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11.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1985
12.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2009

| 향토지 |

고성군, 고성군지, 1986

고성향교, 고성향교지(보정), 2013

양양문화원, 양양군지, 2010,

| 논 문 |

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II)〉, 공주대교육연구소『교육연구』제3집,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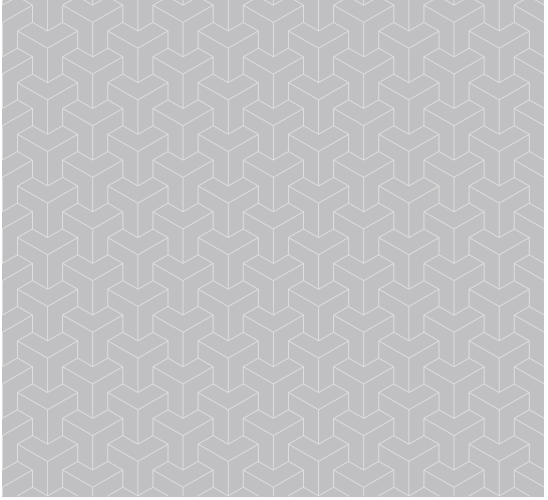
김흥수,박문수 〈강원도의 근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 인문사회교육연구소, 『인문사회교육연구』 2집, 1998
방동인 〈영동지방의 민족교육운동-강릉지방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 제5집, 2000
변승웅 〈근대사립학교연구〉, 박사학위논문, 1992
이규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2007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靑藍史學』 제11집
이철수 〈양양지방의 초등교육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1998
정진숙 〈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 박사학위논문,2019

| 홈페이지 |

거진초등학교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아카이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조선뉴스라이브러리 홈페이지

| 구술자 |

김평강(84), 박대근(64), 배인준(87), 오의택(87), 이순덕(90),장근호(90) 이상 죽왕면 거주
지석근(87) 간성읍 거주
윤근호(87) 거진읍 거주(사진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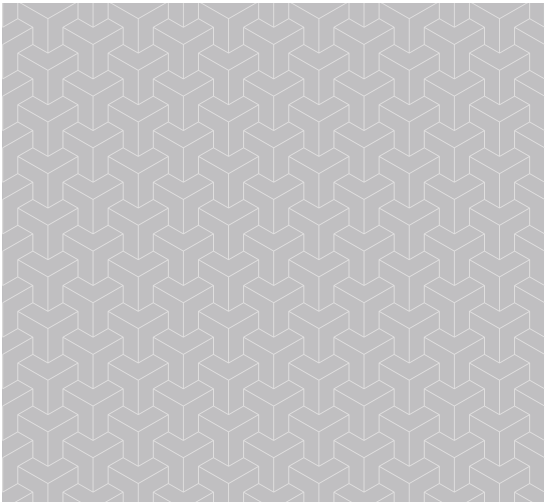
『배움의 기억과 전통 – 고성의 교육 이야기』

초판인쇄　2024. 12.
초판발행　2024. 12.

글쓴이　이성식 고성학연구소 연구원
발행인　윤영락 고성문화원장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문화원 고성학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033) 681-2922　www.goseongcul.com

펴낸곳　잇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15)

【비매품】 이책은 고성군의 지원으로 발행되었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문화원

9 788940 803561